

# 부평의 정치·경제·사회

제 6 권

---

# 일러두기

## 1. 편찬 기본방향

- 이 책은 부평 지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집대성한 기록이다.
- 이번 편찬에서는 독자의 가독성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주제별로 총 8권으로 편성하였고, 특히 부평 지역의 근현대사를 대폭적으로 추가하였다.
- 또한 부평구 내에 위치한 미군기지 캠프 마켓의 반환을 계기로, 그 전신인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의 역사를 대한민국 역사 상 처음으로 밝혀낸 권으로 편성하였다.

## 2. 서술 대상 지역과 시기

- 서술 대상 지역은 현재 행정구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원칙으로 하였다. 단, 필요에 따라 분구하기 이전의 계양구, 서구를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 서술 대상 시기는 선사시대부터 2019년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020년 이후의 내용도 수록하였다.

## 3. 본문서술

- 본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를 쓰는 경우 괄호 안에 병기하였다.
  - 연대는 서기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왕력을 표기하였다.
  - 구술 증언자료의 경우 증언자가 발음한 내용을 가능한 한 그대로 수록하였다.
  - 그 밖의 세부적인 집필방법은 국립국어원, 학회, 국책연구기관 등의 집필요령을 반영한 집필요강에 따랐으며, 집필에 통일성을 기했다.
  - 각 권마다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총설을 작성하였고, 각 장마다 필요에 따라 들어가는 말과 마무리 글을 배치하였다.
-



# 목차

## 부평구 소개

부평구 상징물	010
부평구민현장	012
부평구민의 노래	013

## 총설

### 제1장 일반 현황

제1절 _ 기본 현황	036
제2절 _ 인구	040
1. 부평의 인구 현황	
2. 동별 세대 및 인구	
3. 연령(5세 계급) 및 성별 인구	
4. 인구동태	
5. 인구이동	
6.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구	
7.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제3절 _ 동별 현황 및 도시계획	062
1. 동별 현황과 특징	
2. 도시계획	
제4절 _ 행정조직	086
1. 행정조직 체계의 변천	
2. 행정조직 개편의 전망과 과제	
3. 산하 기관	
4. 복지시설	

## 제 2 장 정치와 지방자치

제1절 _ 부평의 정치 환경과 성향	112
1. 정치 환경의 변화	
2. 정치 성향	
제2절 _ 선거와 투표	118
1. 대통령 선거	
2. 국회의원 선거	
3. 인천시장 선거	
4. 인천시의회 의원 선거	
5. 부평구청장 선거	
6. 구의원 선거	
7. 교육감 선거	
8. 부평구의 정치인	
제3절 _ 부평구의회의 활동과 자치	159
1. 의회 출범의 역사	
2. 의회의 지위와 권한	
3. 구성과 현황	
4. 의정 활동	

## 제 3 장 경제와 산업

제1절 _ 재정	182
1. 예산	
2. 세입, 세출	
제2절 _ 소득과 소비	191
1. 소득	
2. 소비	
제3절 _ 분야별 산업과 경제 활동	198
1. 농업 및 축산	
2. 사업체와 제조업 현황	
3. 기타 서비스 산업과 공공 서비스	
제4절 _ 시장과 금융, 교통	233
1. 시장과 상가, 특화 거리	
2. 금융	
3. 교통	
제5절 _ 경제 시설과 단체, 사회적경제	263
1. 주요 지역경제 시설	
2. 경제 단체	
3. 기업지원 사업	
4.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제6절 _ 에너지, 자원, 환경	277
1. 에너지	
2. 환경과 청소	
3. 재해·재난 대비 및 대피시설	

## 제 4 장 사회적 인프라

제1절 _ 부평의 교육	288
1. 교육환경의 변화	
2. 한눈에 보는 부평 교육	
3. 부평의 교육 비전과 과제	
4. 구내 학교 현황	
5. 부평의 교육 인프라	
6. 평생교육	
7. 그 외 교육시설	
제2절 _ 부평의 복지	318
1. 복지 정책의 역점	
2. 한눈에 보는 부평 복지 일반 현황	
3. 부평의 인구통계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 현황	
4. 부평구 지역 주민들의 복지 욕구	
5. 부평의 복지 정책 비전 및 주목할 만한 정책	
6. 부평의 복지 인프라 안내	
7. 부평의 대표적 복지 기관 소개	
제3절 _ 부평의 의료, 보건, 위생	355
1. 의료 보건 인프라	
2. 의료 보건 정책	
3. 위생 정책	
4. 건강 증진 정책	
5. 한눈에 보는 부평구의 의료, 보건, 위생 시설	
6. 코로나19에 대한 부평구의 대응	
7. 장묘 시설	
8. 반려동물	
제4절 _ 관광자원과 친선 교류	369
1. 부평의 관광자원	
2. 부평의 관광 인프라	
3. 부평의 친선 교류	

## 제 5 장 시민 참여와 문화 활동

제1절 _ 시민운동	384
1. 인천 지역의 시민운동	
2. 부평의 시민운동	
3. 현재진행 중의 부평 시민운동과 시민 활동	
제2절 _ 생활체육 활동과 시민 활동(자원봉사 활동)	398
1. 생활체육 활동	
2. 자원봉사 활동	
제3절 _ 문화예술 인프라	411
1. 한눈에 보는 부평 문화 인프라	
2. 공원, 녹지, 산림 현황	
3. 부평의 대표적 문화 인프라 소개	
제4절 _ 문화예술 행사	429
1. 한눈으로 보는 2019년 부평의 문화예술 현황	
2. 부평의 대표적 축제	
3. 부평의 대표적인 전시, 공연	
4. 부평의 공연 단체	

## 부록

연표	456
인천·경기 지역 신문자료로 본 부평	474
1. 경인일보	
2. 인천일보	
3. 기호일보	

## 부평구 상징물

### 마크



비둘기

- 비둘기를 형상화하여 평화롭고 살기 좋은 부평을 상징
- 부평의 'p'자와 은행나무를 형상화하여 자연의 조화, 구민의 화합, 무궁한 번영을 상징
- 타원은 최첨단 산업요람 및 웅비하는 부평을 상징
- 희망과 전진의 청색, 젊음의 녹색으로 조화를 이룸

### 캐릭터



부디부니

- 부평의 첨단화와 풍물의 활기찬 특성을 대표하여 현대와 전통의 조화를 표현
- 몸통은 듬직한 모습으로 부평구의 저력을 형상화
- 머리의 헤드셋은 부평의 첨단화를 상징
- 전통 풍물복장은 축제의 도시 부평을 상징
- 손동작은 모든 분야에서 최고를 지향하는 부평을 상징

### 문화유산



풍물(농악)

- 부평은 예로부터 부평평야를 중심으로 한 농경문화 지역으로서 풍물(농악)이 성행하였으며, 부평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 구의 동물



백마

- 건강한 부평구민과 힘차게 발전하는 부평구의 기상을 상징

### 구의 새



비둘기

- 전통적인 텃새로 높은 나무에서 서식
- 온순하고 소박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구민의 성품과 희망을 상징

### 구의 나무



은행나무

- 병충해에 강하고 곧게 자라는 경제 수목
- 안정과 화합 속에서 힘차게 발전함을 상징

### 구의 꽃



국화

- 풍토에 강한 가을 화단의 대표적인 꽃
- 다정하고 끈기 있는 구민을 상징



10월 1일

부평구민현장

민족의 얼과 지혜가 살아 숨쉬는 내고장 부평은  
첨단산업의 요람이자 동서를 잇는 교통의 혈맥으로  
세계를 여는 관문이다.

너와 나 자랑스러운 구민으로서 알찬 슬기를 모아 전통문화를  
꽃피우고 풍성한 삶의 터전 가꾸어 응비하는  
인천 영광된 새부평 창조하자.

부평구민의 노래

부평구민의 노래

작사: 정영준  
작곡: 김성관

Musical score for 'Song of the Citizens of Bupyeong' with lyrics in Korean. The score includes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and a 4/4 time signature. It consists of six staves of music with corresponding lyrics written below each staff.



❖ 만월산에서 바라본 부평 전경





❖ 북구에서 부평구로



❖ 부평구청과 부평구의회



❖ 부평구청사거리와 골포천



❖ 부평풍물대축제





❖ 부평문화의거리



❖ 부평문화의거리



❖ 부평로터리



❖ 부평국가산업단지



❖ 한국GM



❖ 부평의 시장



❖ 청천공단



❖ 캠프마켓과 부평공원



❖ 허물어지는 미군기지 담벼락



❖ 캠프마켓 시민 개방의 날(2020.10.14.)



# 총설

오 일 환(ARGO인문사회연구소 대표연구위원)



오랜 역사와 풍요의 문화를 간직해 온 부평은 산과 기름진 평야, 그리고 굴포천 등이 흐르는 쾌적한 생태환경을 자랑하며 서울과 인천을 관통하는 수도권의 교통 요지이다. 또한 일찍이 국가적 산업단지의 태동지였으며 오랜 기간 수출과 첨단산업의 견인차 역할은 물론 정치와 사회, 노동과 복지에서 선진과 모범을 보여온 곳이다.

2019년 말 기준, 부평구의 총면적은 약 32km<sup>2</sup>로 인천광역시 전체 면적의 3.06%에 불과하지만, 약 50만 명의 인구가 모여 사는 역동적인 지역이다. 인천 전체 인구의 약 17%가 밀집해 있으며 3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이다.

최근 들어 부평의 인구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2020년 50만 명 이하로 진입하였다(2020년 8월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기준). 부평의 인구가 감소하는 주요인은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그리고 전출보다 전입이 줄어드는 사회적 감소 요인 때문이다. 이는 부평구에서 인근 지역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와 서울 등으로 빠져나가는 주민은 비교적 일정한 데 비해 이들 지역에서 부평으로 전입하는 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세대원의 수는 줄어드는 반면 ‘1인 가구’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부평구의 출생아 감소율과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는 인천시에서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최근 급속히 빨라지고 있는 고령화 현상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생산가능인구에 비해 노령인구의 증가 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될수록 복지비용의 부담이 커지고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며 지역공동체의 활기가 떨어질 수 있다.

다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인구’는 인천광역시 전체에서 부평구가 가장 높은 편인데, 이는 부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첨단산업과 유통, 취업과 거주 측면에서 젊은 세대에게 유리하다는 방증이다. 다행스럽게도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시대에 젊은 세대와 청년인구, 그리고 외국인과 다문화가구의 증가가 부평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국내 외국인과 다문화가구의 수가 증가 추세인 것과 맞물려서 부평구 거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구 및 그 자녀들의 수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부평구의 외국인주민은 2020년 기준 1만 3,921명으로 인천시에서도 많은 편에 속한다. 증가율 역시 전국 시군구에서 15번째로 높은 편이다. 부평구의 외국인 자녀는 약 3,000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의 학령 아동과 청소년이 부평구 내 약 80개 학교에 재학 중이다. 거의 모든 학교에 다문화가구의 자녀가 있으며 그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인주민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과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기존 주민과 외국인주민 간 갈등과 융화 문제는 지역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래 시대와 사회발전의 원동력은 민족과 인종,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성에 달려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부평은 좋은 토대와 환경, 그리고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두루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부평의 미래 세대를 보듬고 포용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역동적인 부평의 행정과 자치를 담당해 온 부평구청과 부평구의회는 주민들의 진취적인 정치 성향을 바탕으로 지난 30여 년간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모범적으로 성장해 왔다. 2020년 기준 부평구청은 5국 1실, 2담당관, 1관, 30과, 1의회, 1보건소, 22동에 걸쳐 총 1,308명의 정원을 가진 지자체로 성장하였다. 이 가운데 여성 공무원 비율이 59%로 인천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여성가족부로부터 ‘2020년 성별영향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부평구는 문화재단과 노인, 아동 관련 복지시설 등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사회적 경제공동체 조직과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 복지, 생활, 경제, 공동체 편의 증진에 힘을 쏟고 있다.

1995년 새롭게 출발한 부평구의회는 부평구청의 행정과 살림을 감시하는 한편 생활, 교육, 복지, 문화, 생태 등 분야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구정에 오롯이 반영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그동안 부평 구의회는 부평구의 살림과 행정, 복지에 관한 다양한 심의와 조례 등 안건을 처리해 왔는데, 지난 30년간 118건의 예산안과 15건의 결산안, 1,260건의 조례를 처리하였다. 부평 구의회의 모범적인 자치 경험은 부평 지역 주민들의 선진적인 정치 성향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990년대까지 부평은 주요 공단과 지역 내 다수 노동자, 그리고 노동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과 사회개혁을 견인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러한 경험과 전통을 바탕으로 부평의 주민들은 전국적인 선거와 지방자치 선거에서 진보적 투표 성향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치 민주화와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또한 시민운동으로서 ‘굴포천 살리기 운동’과 ‘부평 미군부대 반환운동’ 등 생태와 환경, 주민 권익 보호에서도 모범의 표상이 되어 왔다.

과거 인천 지역은 보수당계 정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우세했다. 2000년대 이후 중앙의 정치가 안정되고 지방선거에 의한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면서 민주당계 지지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지역이 바로 부평이다. 최근 들어 대선과 총선의 중앙 정치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장과 시의원, 교육감, 부평구청장, 부평구의원 선거에 이르기까지 부평의 주민들은 민주당과 소속 정치인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부평의 경제와 산업, 주민 생활도 함께 부침을 겪으며 성장해 왔다. 부평구 주민들의 소득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어 왔는데, IMF사태 이후 굴뚝산업의 퇴조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부평의 사업체와 기업, 소상공인과 유통 등의 분야도 심각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부평은 대기업과 대공장, 제조업 의존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고부가가치의 지식정보 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과 역사·문화·생태 콘텐츠 등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그 사이 부평구의 재정 규모도 2020년 9,000억 원을 넘어섰으며 조만간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평구의 예산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 확대와 복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인데, 이는 부평구의 고령화와 복지 수급 대상자의 증

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대응과 맞물려 있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양극화, 다문화, 삶의 질 등이 키워드로 떠오른 지금 교육, 복지, 의료, 관광과 여가 등의 사회적 인프라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부평의 학교교육은 오랜 기간 부평과 인천 지역의 잠재적 인재들을 키워내는 요람이었는데, 최근 들어 주민들의 수요가 커져 가고 있는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교 밖의 교육복지와 돌봄, 마을공동체 교육 등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 서비스와 지원시스템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유치와 육성은 물론, 청소년문화센터, 미술관, 체험 시설, 박물관 등 기초학습 부진이나 정서 불안 등을 지원하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방과 후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과 돌봄을 책임지는 방과후돌봄센터 등이 생겨나 아이들의 24시간 365일을 책임지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부평의 사회복지 수요는 높은 편이다. 외국인 인구의 증가와 다문화가정의 확대, 높아져 가는 여성인구 비중, 영유아 수의 감소, 고령인구의 증가, 장애인과 빈곤가정 등 교육·복지 취약계층의 증가 추세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축소해 놓은 듯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 장애인, 노인, 외국인, 아동 등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하나둘씩 만들어졌다. 특히 부평의 복지 행정과 구정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 돌봄과 기회의 향유, 평생교육, 마을공동체 등과 연계된 참신성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 열우물건강지원센터를 개소한 것은 종래의 소극적인 보건의료 대책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신호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보건소의 사업이 점점 복지 정책과 결합되어 가는 것도 눈에 띈다. 소득 양극화로 자기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을 책임지려는 정책들이 많아진 것도 고무적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건의료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는데, 부평구의 빠른 대처와 투명한 정보공개,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보건소와의 협업 등에서 주민들의 신뢰가 높아졌다.

지난 수년간 부평의 관광자원 개발과 발전 가능성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부평풍물대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고, 음악도시 조성을 위해 부평 음악도시 축제 뮤직게더링, 솔아솔아음악제 등도 생겨났다. 여기에 약 80년 만에 반환된 미군기지과 군부대 부지 등을 문화와 관광, 생태적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구상이 함께 추진 중



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부평 문화의 거리가 국내 핫플레이스 중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젊은 세대의 발길을 붙잡는 평리단길은 ‘사람들이 오고 싶은’ 부평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젊은 세대가 모여드는 역세권과 상가, 테마거리, 생태공원 등을 중심으로 문화와 관광, 유통과 상업, 첨단산업과 취업의 기회가 늘어나면서 부평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부평은 친수·녹지 공간, 둘레길 등 다양한 도심 속 자연과 생태형 인프라를 잘 보존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개발의 여지가 많은 지역이다. 이러한 생태환경을 발판으로 부평의 생활체육, 문화예술 분야 인프라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삼산월드체육관과 부평국민체육센터, 부평구다목적체육관, 북부교육문화센터와 같은 시설과 공간들이 조성되면서 부평 주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이 크게 향상되었다. 나아가 부평구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부평아트센터,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부평문화사랑방, 디지털뮤직랩(D-LAB)과 같은 복합문화공간들이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전문화된 예술교육 등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부평 구민의 문화와 여가를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역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평의 문화예술을 다른 지역으로 전파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부평은 오랜 기간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 분야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첨단산업의 토대를 닦아 왔으며,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그리고 도심 상가와 유통산업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모든 인적·공간적·산업적 자원을 연결하는 탄탄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이제 부평은 도시와 자연,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부평만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시점에서 있다.

오랜 기간 부평의 숙원 과제였던 캠프 마켓과 각종 군부대 시설의 이전이 속속 추진됨에 따라 해당 부지의 보존과 개발,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군기지 부지는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역사문화 생태공원 또는 대중문화예술 학교와 대학 캠퍼스를 조성하는 방안 등이 대두되고 있으며, 산곡동과 청천1동 등의 군부대 이전 부지는 새로운 지역개발과 공원녹지 조성이 기대되고 있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사업의 조기 착공이 추진되고 있다. 곧 서울도시철도7호선의 석남 연장선이 개통되고 GTX-B가 완공되면 부평의 서울-인천-경기권 교통

과 물류의 편익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제2의 도약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부평의 도시개발 사업은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기존 역세권의 재생 사업과 첨단산업의 유치, 젊고 활기찬 세대의 유입,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의 생산, 생태적 개발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캠프 마켓(구 인천육군조병창), 미쓰비시 줄사택, 부평지하토굴 등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적극 보존 및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과 방안은 부평의 새로운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부평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선도하였으며,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쉽게 접하기 어려운 특수한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다. 나아가 편리한 교통환경과 굴포천을 따라 조성된 쾌적한 생태환경 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한층 기대되는 곳이다. 따라서 부평사를 통해 부평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과정은 한층 도약하는 미래의 부평을 상상하고, 구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부평시장로터리 전경





# 제 1 장 ————— 일반 현황

제1절 \_ 기본 현황

제2절 \_ 인구

제3절 \_ 동별 현황 및 도시계획

제4절 \_ 행정조직

# 제1장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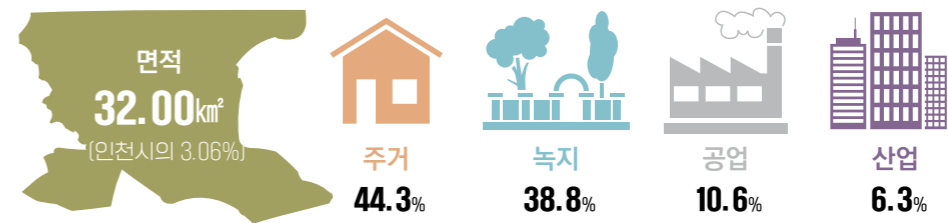
오 일 환(ARGO인문사회연구소 대표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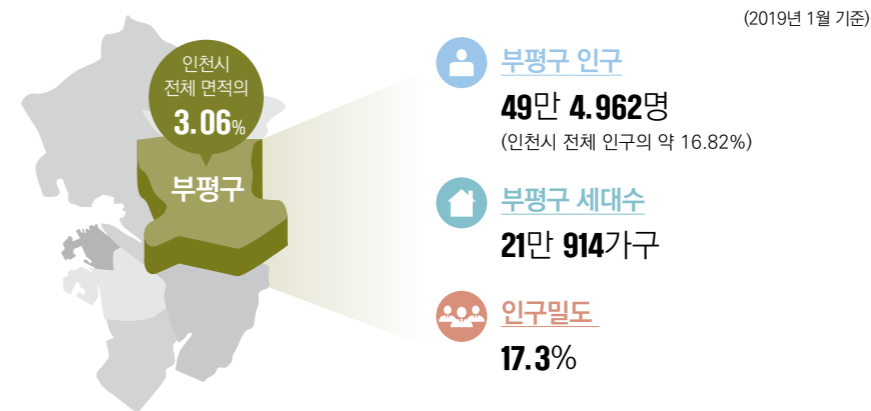
## | 제1절 | 기본 현황

부평구는 인천광역시의 중동부에 위치하고 있다. 부평구의 북쪽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쪽에는 미추홀구, 남동구, 서쪽에는 서구가 맞닿아 있고, 동쪽에는 경기도 부천시와 인접하고 있다.

부평구의 총면적은 2021년 기준 32km<sup>2</sup>로 인천시 전체 면적의 3.06%에 해당한다. 총면적 중 주거지는 약 44.3%, 녹지면적은 38.8%, 공업지구가 10.6%를 차지한다. 그 외 6.3%는 산업시설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공업지구가 높은 편이다. 그리고 녹지면적 중 상당 부분은 그동안 군사시설(14%)로서 주민들의 접근이 제한적이었는데, 최근에 미군 기지와 군부대가 이전함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생태공원과 녹지 공간 등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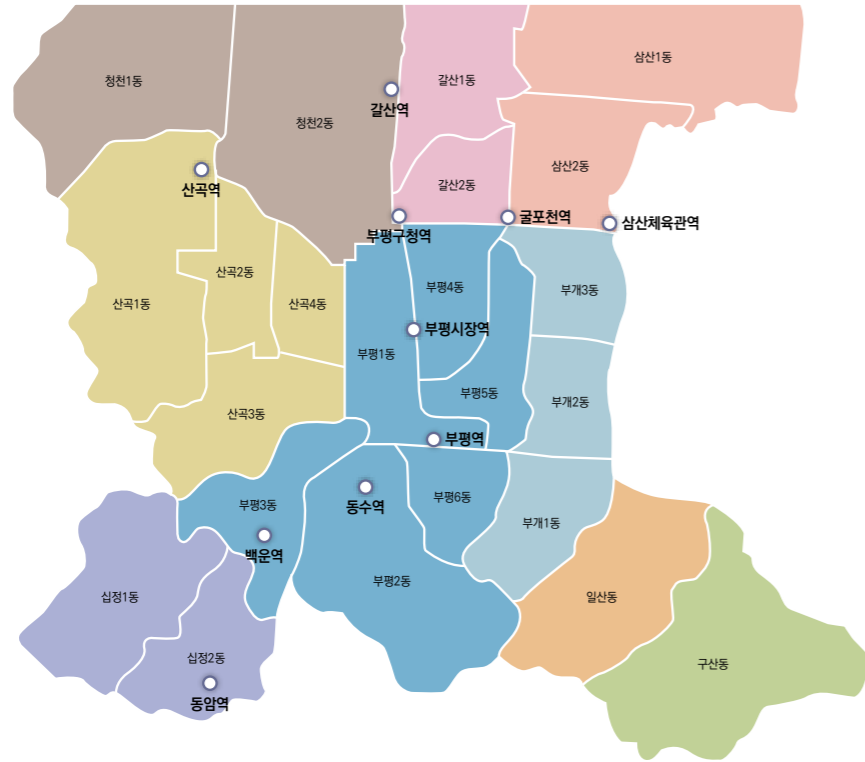


부평구의 인구는 2021년 1월 기준으로 49만 4,962명으로 인천시 전체 인구의 약 16.82%를 차지하고 있다. 세대수는 21만 914가구로 남동구와 서구 다음으로 많다. 인구와 세대 수 규모는 전국의 자치구 중에서 8번째로 많은 편이다. 면적은 인천시 전체 면적의 3.06%에 불과한데, 인구밀도는 17.3%로 매우 높은 편이다.



부평구의 행정구역은 9개의 법정동과 22개의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정동은 부평동, 산곡동, 청천동, 갈산동, 삼산동, 부개동, 십정동, 일신동, 구산동으로 총 9개이며, 행정동은 부평동 6개, 산곡동 4개, 청천동 2개, 갈산동 2개, 삼산동 2개, 부개동 3개, 십정동 2개, 일신동에 1개로 총 22개 동이 있다. 그리고 22개 행정동에는 656개 통과 4,224개 반이 있다.

군사 구역을 제외한 동별 면적은 일신동이 4.30km<sup>2</sup>로 가장 넓고, 갈산2동이 0.66km<sup>2</sup>로 가장 작다. 법정동 단위로 보면 부평 1~6동이 6.33km<sup>2</sup>로 가장 넓다.



❖ 부평구 관내도

표 1 부평구의 행정구역과 인구

(2021.7.기준, 단위: 개·세대·명)

행정구역				세대수	인구		
행정동	법정동	동	반		합계	남	여
22	9	656	4,224	212,758	490,133	242,133	248,005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홈페이지, 「2021년 7월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비교: <표 3>과 관련이 있음

표 2 행정동별 인구 현황

(2020.1.기준, 단위: km<sup>2</sup>·개·명·세대)

동명	면적	주민 조직		인구수	세대수
		동	반		
계	32.00	656	4,231	506,682	211,176
부평1동	1.10	36	247	37,907	16,477
부평2동	2.28	26	171	18,757	8,812
부평3동	1.00	22	134	13,291	6,369
부평4동	1.04	37	224	37,274	17,438
부평5동	0.83	38	232	34,076	15,700
부평6동	0.80	21	135	14,695	6,940
산곡1동	2.07	31	202	13,387	6,014
산곡2동	0.92	35	224	32,597	11,083
산곡3동	1.43	27	174	22,973	8,710
산곡4동	0.76	19	126	18,473	6,590
청천1동	2.16	27	171	7,311	3,522
청천2동	2.78	38	252	35,108	13,859
갈산1동	1.08	21	144	16,987	7,143
갈산2동	0.66	29	194	19,881	8,237
삼산1동	2.13	41	266	35,360	14,099
삼산2동	1.26	23	133	29,939	10,232
부개1동	0.91	29	194	17,172	7,769
부개2동	0.75	26	174	17,931	71,211
부개3동	0.86	37	244	32,983	12,492
일신동	4.30	20	120	13,256	5,205
십정1동	1.79	37	231	13,134	5,798
십정2동	1.09	36	239	24,290	11,576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 구정현황 부평 지역을 기록하다.」, 2020, 12쪽.

제2절 | 인구

1. 부평의 인구 현황

1970년대 이후 수도권 지역의 급속한 경제발전 추세에 따라 부평 지역의 인구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국가수출산업공단을 중심으로 한 부평의 경제·교통·주거 환경이 급변하면서 대규모 인구가 부평으로 유입되었다.

총인구는 북구 시절인 1990년 약 60만 명에서 1994년 약 75만 명까지 급속히 팽창했으며, 1995년 계양구와 분리됨에 따라 총 인구가 약 50만 명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해마다 인구가 늘어나 2005년 약 57만 명에 육박하기도 했다.

부평구는 인천광역시 전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다. 2005년의 인구주택총조사 당시 부평구의 인구가 인천광역시 전체의 21.7%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남구, 남동구, 서구가 그 뒤를 이었다, 2018년까지 부평구의 인구가 1위였지만, 남동구가 2위, 서구가 3위로 부상하고, 미추홀구는 4위로 바뀌었다. 이는 최근 들어 부평구의 인구가 약간 줄어든 데 비해 남동구와 서구의 인구가 크게 증가한 결과이다.

그 후 2010년대 접어들어 부평구의 총인구는 56만 5,000명에서 56만 6,000명 사이를 오가며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였는데, 2016년 56만 649명, 2017년 55만 2,162명, 2018년 53만 8,137명, 2021년 7월 기준 5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최근 들어 부평의 총인구가 하향 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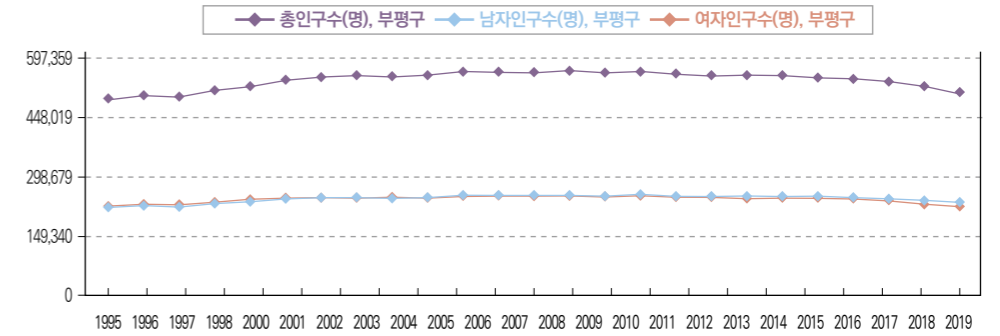
표 3 부평구 인구 현황

(2021.7.기준, 단위: 명·세대)

구분	인구수			세대수	
	합계	남	여	합계	1인 가구
부평구	490,138	242,133	248,005	212,758	75,949
인천시	2,937,440	1,470,985	1,466,455	12,283,524	476,379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홈페이지, 「2021년 7월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그림 1 부평구 성별 인구수 변화 추이(1995~2019)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2020년 10월 기준 부평구의 인구는 50만 명 이하로 떨어져 49만 6,958명을 기록했다. 인천광역시에서 부평구의 인구는 서구(54만 2,982명)와 남동구(52만 7,080명)에 이어 세 번째이다. 2017년 12월 기준 인구와 2020년의 인구를 비교하면 최근 3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인천광역시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하고 있는 자치구는 부평구로, 무려 4만 명 넘게 감소하였다. 남동구와 미추홀구, 계양구의 인구 역시 2만 명가량 줄어든 반면, 연수구와 서구, 중구의 인구는 증가하였다. 특히 연수구의 인구 증가가 두드러진다.

표 4 부평구 인구 변동

(2017~2020년 기준, 단위: 명)

구분	인구		증감
	2020년 10월 기준	2017년 12월 기준	
인천시	2,942,233	3,011,138	-68,905
부평구	511,577	552,162	15,047
남동구	527,080	548,759	-21,679
서구	542,982	527,935	-40,585
미추홀구	402,662	427,604	-24,942
연수구	383,529	344,277	39,252
계양구	297,282	326,892	-29,610

구분	인구		증감
	2020년 10월 기준	2017년 12월 기준	
중구	139,391	121,838	17,553
강화군	69,069	69,543	-474
동구	62,802	70,387	-7,585
옹진군	20,478	21,741	-1,263

❖ 출처 : 인천광역시, 「2018 인천통계연보」, 2019, 9쪽;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0.10.기준)」

부평구의 인구가 감소하는 주요인은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사회적 감소 요인 때문이다. 2018년 한 해 동안만 순감소 인원이 1만 6,535명이고, 최근 5년 동안에는 총 4만 2,756명이 감소했다.

## 2. 동별 세대 및 인구

표 5 행정동별 인구수 및 세대수

구분	총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	(2020.10.기준, 단위: 명·세대·%)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남여 비율
부평구	496,958	210,950	2.36	245,756	251,202	0.98
부평1동	37,577	16,641	2.26	18,075	19,502	0.93
부평2동	17,347	8,229	2.11	8,654	8,693	1.00
부평3동	13,217	6,428	2.06	6,561	6,656	0.99
부평4동	36,841	17,622	2.09	18,217	18,624	0.98
부평5동	33,458	15,767	2.12	16,549	16,909	0.98
부평6동	13,995	6,740	2.08	6,904	7,091	0.97
산곡1동	13,086	5,977	2.19	6,615	6,471	1.02
산곡2동	32,070	11,031	2.91	15,813	16,257	0.97
산곡3동	22,560	8,724	2.59	10,959	11,601	0.94
산곡4동	18,131	6,596	2.75	8,659	9,472	0.91
청천1동	7,011	3,428	2.05	3,763	3,248	1.16
청천2동	34,959	14,031	2.49	17,517	17,442	1.00
갈산1동	16,716	7,176	2.33	8,460	8,256	1.02
갈산2동	19,495	8,220	2.37	9,493	10,002	0.95

구분	총인구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남여 비율
삼산1동	34,604	14,039	2.46	16,936	17,668	0.96
삼산2동	29,552	10,250	2.88	14,370	15,182	0.95
부개1동	16,801	7,790	2.16	8,474	8,327	1.02
부개2동	17,471	7,080	2.47	8,534	8,937	0.95
부개3동	32,322	12,561	2.57	15,606	16,716	0.93
일신동	12,997	5,203	2.50	6,687	6,310	1.06
십정1동	13,004	5,871	2.21	6,654	6,350	1.05
십정2동	23,744	11,546	2.06	12,256	11,488	1.07

❖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0.10.기준)」

인구 밀도의 경우 1994년 이전까지 9,801명(㎢당)이었다가 1995년 분구를 기점으로 1만 5,561명(㎢당)으로 급속히 상승했다. 부평구의 면적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반면 인구는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6년 말 기준 부평구의 인구 밀도는 무려 1만 7,179명(㎢당)으로 상승했다. 분구 이전 수준의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세대별 인구는 1990년 3.68명에서 1996년 3.16명, 2005년 2.84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10년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 2012년 2.62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16년에는 2.53명, 2019년 2.41명에서 2020년 2.36명으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핵가족화와 저출산의 경향이 부평구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1인 가구'의 수도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 기준 전체 가구의 6만 5,406세대(30.1%)였는데, 2019년에는 7만 80세대(33.1%)로 증가했다. 이는 핵가족화 영향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천, 부천 등 주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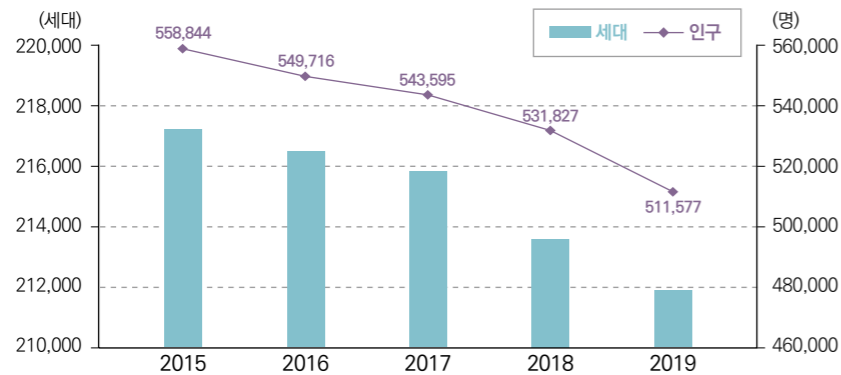
표 6 부평구 인구수 및 1인 가구 현황

(2019년 기준, 단위: 년·세대·명·%)

연도	일반 현황			1인 가구	
	세대	인구	평균 세대원 수	세대	구성비
2015	217,217	558,844	2.55	65,406	30.1
2016	216,492	549,716	2.53	65,799	30.2
2017	215,827	543,595	2.51	66,139	30.5
2018	213,602	531,827	2.48	66,860	31.3
2019	211,902	511,577	2.41	70,080	33.1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보고서」, 2020, 1쪽.

그림 2 부평구 세대-인구수(2015~2019)



동별 인구는 2005년 무렵 삼산동, 부개3동, 청천2동에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됨에 따라 인구가 밀집되었는데, 2017년에는 부평1동이 7.5%(3만 7,577명)로 가장 많고, 부평4동 7.4%(3만 6,841명), 청천2동 7.0%(3만 4,959명)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최근에 부평구의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인데, 산곡동·청천동·갈산동·삼산동·부개동을 비롯해 부평2동·부평3동·부평6동의 인구가 모두 감소한 반면, 부평1동·부평4동·부평5동의 인구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7 부평구 동별 인구 변화 추이

(단위: 년·명)

연도	2000	2005	2010	2015	2020
부평구	528,403	546,321	567,493	555,844	496,958
부평1동	34,240	34,481	35,131	34,741	37,577
부평2동	20,752	22,953	22,885	21,059	17,347
부평3동	14,860	15,817	16,402	15,164	13,217
부평4동	20,361	24,092	25,575	34,551	36,841
부평5동	18,516	22,959	25,196	31,460	33,458
부평6동	14,748	14,077	14,175	15,915	13,995
산곡1동	24,358	21,756	21,541	18,455	13,086
산곡2동	31,057	30,513	33,822	34,667	32,070
산곡3동	28,762	27,013	27,163	25,145	22,560
산곡4동	22,416	21,476	21,122	19,901	18,131
청천1동	18,866	17,639	17,823	14,758	7,011
청천2동	40,448	39,409	38,889	37,319	34,959
갈산1동	17,905	19,310	19,066	17,744	16,716
갈산2동	27,980	25,300	24,239	22,054	19,495
삼산1동	36,856	59,214	41,169	39,830	34,604
삼산2동	-	-	31,568	31,722	29,552
부개1동	23,068	21,882	21,050	19,363	16,801
부개2동	22,157	22,323	24,342	24,384	17,471
부개3동	42,551	40,056	38,578	36,183	32,322
일신동	13,576	13,298	14,793	14,249	12,997
십정1동	24,653	22,129	23,076	20,247	13,004
십정2동	30,273	30,624	29,888	26,933	23,744

출처: 통계청;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20.10.기준)」

비고 ①2005년 이전은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이며, 2010년 이후는 주민등록인구 기준임  
②삼산2동은 2006년 분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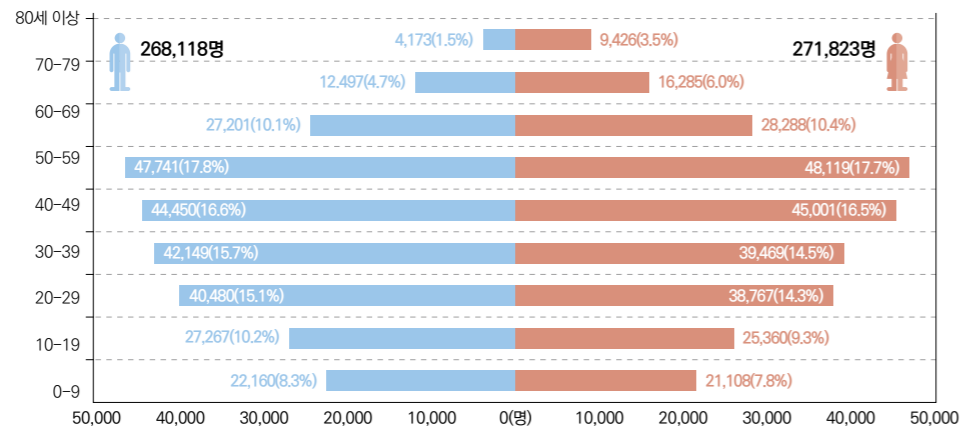
### 3. 연령별(5세 계급) 및 성별 인구

부평구의 남녀 비율은 1990년 당시 남성 50.4%, 여성 49.6%의 구성 비율이었는데, 그 후 이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어 왔지만, 2013년 이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을 조금씩 초과하더니, 2017년 기준 남성은 49.7%, 여성은 50.3%로서 그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아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영유아부터 30대까지 남녀 성비는 남성이 여성을 약간 상회하지만, 40~50대부터 남녀 성비는 거의 비슷하다가 60대 이후 여성의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의료 기술과 사회복지 수준이 높아지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고령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현격하게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3 부평구 성별-연령별 인구(한국인 기준)

총 539,941명 (단위: 명)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8 부평구 기본통계」, 2019, 23쪽.

연령별 구성비 분야에서는 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간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0~14세 유소년은 1만 3,853명(18.1%), 15~19세 청소년은 8,732명(20.1%), 20~39세 청년은 1만 6,584명(9.8%), 40~64세 중장년은 3,276명(1.5%)이 각각 줄어들었다.

부평구의 출생아 수는 2018년 기준 3,576명으로 전년 대비 269명(6.9%)이 적었고, 5년 동안 출생아 감소율은 28.8%로 인천시 22.1%보다 높았다. 2018년 합계출산율(15~49세 가입여성 1명당 예상 출산수)은 0.954명으로 전년 대비 0.023명(2.3%) 감소했고, 인구 현상 유지에 필요한 인구대체수준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인구'는 인천광역시 전체에서 부평구가 가장 높은 편이다. 2017년 기준 부평구의 청년인구는 12만 4,000명이며, 인구 비율로는 23.5%인 계양구에 이어 부평구가 두 번째로 높은 23.0%를 기록했다.

표 8 부평구 청년인구수와 비율

(2017년 기준,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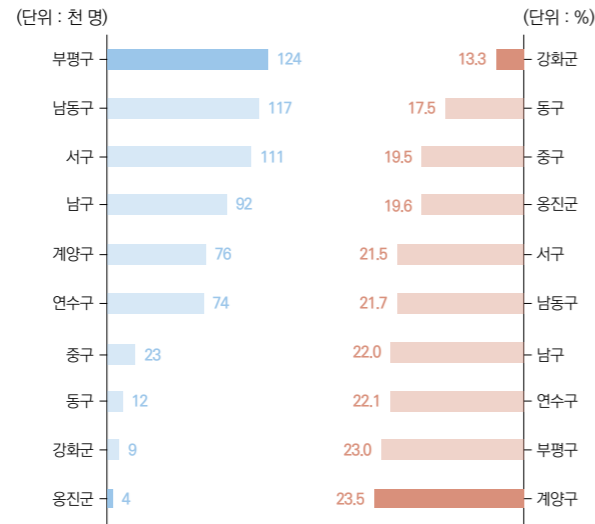
구분	청년인구(19~34세)						성비	청년 인구비율
	합계		남성		여성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부평구	124	19.3	64	19.0	60	19.6	105.4	23.0
계양구	76	11.8	39	11.8	37	11.9	107.5	23.5
남동구	117	18.1	60	18.0	57	18.4	106.0	21.7
서구	111	17.3	57	17.1	54	17.5	105.9	21.5
연수구	74	11.5	38	11.4	36	11.6	106.2	22.1
남구	92	14.4	49	14.7	43	14.0	113.5	22.0
중구	23	3.6	12	3.7	11	3.5	113.8	19.5
동구	12	1.9	6	1.9	6	1.9	111.6	17.5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7; 경인지방통계청, 「인천시 청년통계」, 2018, 4쪽.



그림 4 인천광역시 지역별 청년인구 및 비율

(인천광역시 지역별 청년인구 및 비율 / 단위: 천명 / 단위: %)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7; 경인지방통계청, 「인천시 청년통계」, 2018, 3쪽

이에 비해 고령화 현상은 급속히 진행 중이다. 2019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3.5%로 최근 10년간 5% 이상 증가했다.

표 9 부평구 노인 인구의 변화 추이

(2019년 기준, 단위: 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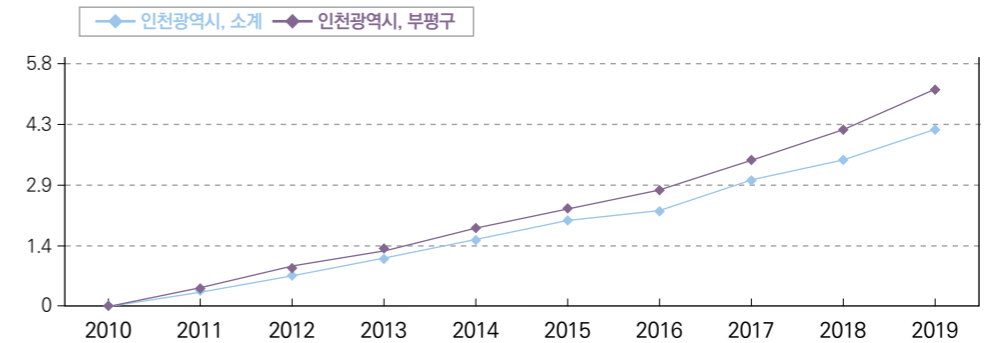
연도	노인 인구	
	인구	구성비
2015	59,354	10.7
2016	60,940	11.0
2017	63,959	11.8
2018	66,424	12.6
2019	69,549	13.5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홈페이지

이는 10년 전 인천시 평균보다는 낮았으나 현재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평구의 고령화 속도가 타 군·구에 비해 빨라진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 부평구의 고령인구 비율은 2010년 기준 5.34로 인천시의 4.38에 비해 그 속도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인천광역시 및 부평구 고령인구비율(2010~2019)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2019년 말에 진행된 부평구의 인구통계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노년(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2018년 16.7명에서 2048년 116.3명까지 증가(현재의 6.9배)할 것으로 분석됐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년인구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2018년 108명에서 2048년 752명(현재의 7배)으로 예측됐다.

행정동별 유소년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평5동(5.4%), 부평4동(5.3%), 청천2동(5.3%) 순이며, 생산가능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삼산2동(29.9%), 부평5동(29.6%), 부개3동(29.6%) 순이다. 노인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청천1동(43.8%), 산곡1동(41.1%), 십정2동(39.2%)으로 나타났다.

오는 2048년의 부평구 인구는 44만 5,550명으로 2018년과 비교해 약 7만 9,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평구의 인구 동향은 타 자치구에 비해 저출산과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며 이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가 예상된다. 향후 유소년 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노년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평구 내 생산 및 소비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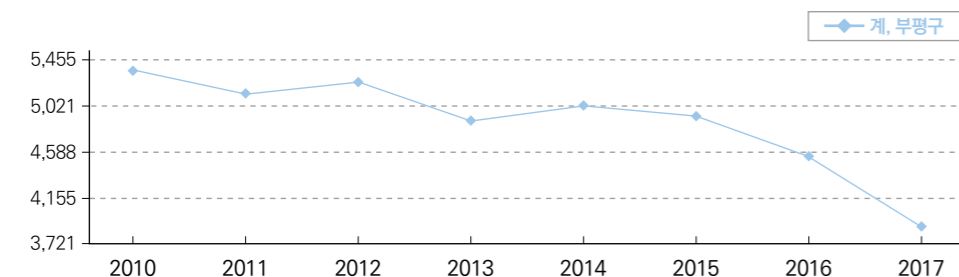
#### 4. 인구동태

최근 우리나라 전체의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평구 역시 출산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995년 부평구의 출생아 수는 9,880명에 달했다. 그로부터 15년 후인 2010년의 출생아 수는 약 절반가량인 5,331명으로 줄어들었고 이러한 현상은 2016년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2018년 부평구의 신생아 수는 3,576명에 불과하다.

표 10 부평구 출생아 수 변화 추이

연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출생아 수	9,880	7,349	5,212	5,331	5,142	5,235	4,874	5,022	4,918	4,537	3,845	3,576

그림 6 부평구 출생아 수 변화 추이(2010~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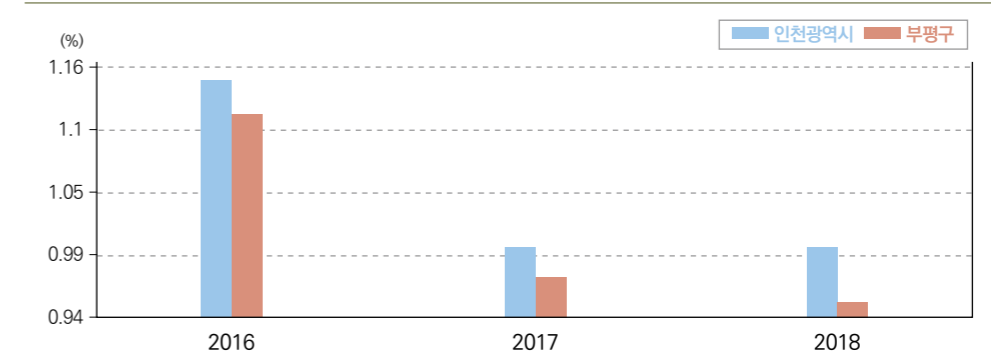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이러한 현상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보여주는 합계출산율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인천광역시의 합계출산율이 1.006인데 비해 부평구의 합계출산율은 0.954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와 인천광역시 역시 출산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부평구의 출산율은 그 규모와 속도가 급격하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표 11 부평구 합계출산율(2016~2018)

연도	(단위: %)			
	2016	2017	2018	
합계출산율	부평구	1.113	0.977	0.954
	인천광역시	1.144	1.007	1.006

그림 7 인천광역시 및 부평구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2016~2018)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한편 부평구의 사망자 수는 비교적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0년의 사망자 수는 2,388명이었는데, 2012년 이후 점차 늘어나더니 2018년에는 2,730명에 달했다. 과거에는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두 배 이상 많았지만 최근 들어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더구나 출생아 수는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사망자 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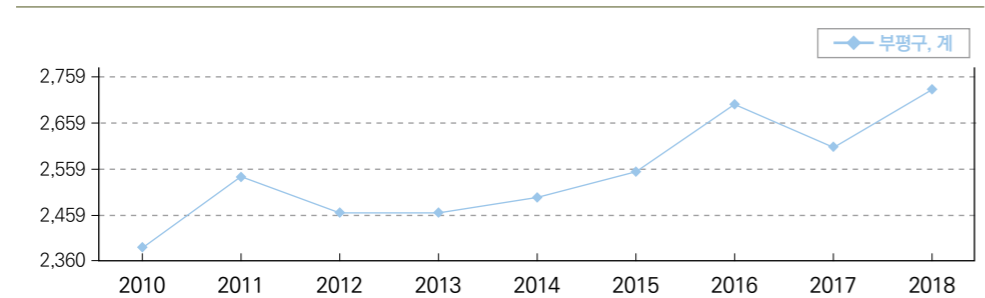
문에 조만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부평구의 총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것이 그 주요 요인이지만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을 경우 총 인구 감소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표 12 부평구 사망자 수 변화

(단위: 년·명)

연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망자수	1,878	2,097	2,228	2,388	2,547	2,469	2,468	2,493	2,556	2,701	2,612	2,730

그림 8 부평구 사망자 수 변화 추이(2010~2018)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부평구의 혼인과 이혼의 건수는 우리나라 전체 혼인과 이혼율 저하 추세와 비슷하게 감소하고 있다. 2000년 무렵 약 4,000건에 가까웠던 부평구 주민의 혼인 건수는 2019년 기준 2천 건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이는 인구 1천 명당 혼인율을 나타내는 조혼인율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2000년 무렵 부평구의 조혼인율은 인천광역시 전체보다 높은 7.3이었는데, 2019년에는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져 4.3을 기록했다. 이는 인천광역시 전체의 조혼인율인 4.6보다 낮은 것으로서 부평

구의 혼인율과 신혼부부가 타지역에 비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평구 주민의 이혼 건수 역시 인구감소와 혼인 건수 감소 추세에 따라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2003년에 2,323건을 정점으로 이혼 건수는 꾸준히 줄어들어서 2019년 기준 약 절반 수준인 1,139건을 기록했다. 부평구의 인구 1천 명당 이혼율은 인천광역시의 타지역에 비해 대체로 비슷하거나 약간 적은 편이다.

표 13 부평구와 인천광역시 혼인과 이혼 현황

(2019년 기준, 단위: 년·건·%)

연도	혼인 건수	조혼인율	인천광역시 조혼인율	이혼 건수	조이혼율	인천광역시 조이혼율
2000	3,907	7.3	7.1	1,531	2.8	3.1
2001	3,754	6.8	6.7	1,925	3.5	3.7
2002	3,753	6.8	6.6	2,038	3.7	3.8
2003	3,539	6.4	6.1	2,323	4.2	4.5
2004	3,814	6.9	6.2	2,158	3.9	3.7
2005	3,987	7.1	6.4	1,948	3.5	3.3
2006	4,128	7.2	6.9	1,798	3.2	3.1
2007	4,128	7.2	6.9	1,690	3.0	3.0
2008	3,821	6.7	6.8	1,579	2.8	2.8
2009	3,540	6.2	6.2	1,605	2.8	2.9
2010	3,545	6.3	6.4	1,486	2.6	2.7
2011	3,624	6.5	6.6	1,375	2.5	2.5
2012	3,595	6.5	6.5	1,373	2.5	2.6
2013	3,564	6.5	6.4	1,299	2.4	2.6
2014	3,468	6.3	6.0	1,328	2.4	2.6
2015	3,396	6.2	5.9	1,280	2.3	2.5
2016	3,064	5.6	5.5	1,268	2.3	2.4
2017	2,851	5.3	5.2	1,263	2.3	2.4
2018	2,651	5.0	5.1	1,198	2.3	2.4
2019	2,191	4.3	4.6	1,139	2.2	2.5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0.

## 5. 인구이동

과거 부평구는 수도권 개발과 신도시 건설, 경인 지역의 경제 환경 변화와 맞물려서 인구 유입이 뚜렷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기존의 공단 지역이 주택 지역으로 전환되고 경인고속도로, 지하철1호선, 서울외곽순환도로, 인천국제공항 등 교통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부평구 내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총 전입과 총 전출의 증가세가 둔화되더니 최근에는 전입보다 전출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부평구 총인구의 감소 현상이 뚜렷하다.

부평구의 전입과 전출 인구의 변동을 살펴보면, 주택재개발 등 사업에 따라 전출했던 인구가 2005년 무렵 약 7,000여 명이 재전입한 해를 마지막으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최근 들어 더욱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부평구 사상 처음으로 1만 1,234명이 순이동(전출 초과)하였고, 2018년은 사상 최대 폭인 1만 6,535명이 부평구에서 순이동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에 따른 단기간의 전출자 증가 요인과 자동차공장 등 공단 지역의 인력 감축 등이 맞물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변의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등에 신규 주택이 들어서면서 이주하는 주민도 적지 않다.

최근 부평구의 인구 감소 현상은 시군구 및 시도 간 전입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시군구 및 시도 간 전출의 변동 폭에 비해 시군구 및 시도 간 전입은 크게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 부평구에서 주변의 다른 구와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와 서울 등으로 빠져나가는 주민은 비교적 일정하거나 소폭 증감하는 데 비해 주변 구와 인천, 경기, 서울 등에서 부평으로 전입하는 주민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타 시군구, 시도로부터의 전입 요인 중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부평구의 일자리와 거주, 교육, 문화 환경 등이 주변 지역과 인천, 서울, 경기 등 대도시에 비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재건축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등이 완공되어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면 단기간 주변 시군구로 전출한 주민들의 전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평구의 전

출 요인은 시도 간 전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전출 추세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4 부평구 전입 및 전출 현황

(단위: 년명)

연도	총전입	총전출	시도 내 이동 - 시군구 내	시도 내 이동 - 시군구 간 전입	시도 내 이동 - 시군구 간 전출	시도 간 전입	시도 간 전출	순이동*
1995	99,559	108,827	32,292	25,662	33,040	41,605	43,495	-9,268
1996	107,065	103,832	35,062	31,002	29,983	41,001	38,787	3,233
1997	93,532	103,790	30,436	24,833	36,364	38,263	36,990	-10,258
1998	104,057	89,463	31,661	30,889	24,372	41,507	33,430	14,594
1999	106,442	102,494	34,636	30,485	28,144	41,321	39,714	3,948
2000	122,176	109,386	40,431	37,459	30,954	44,286	38,001	12,790
2001	112,984	111,399	40,038	30,682	30,836	42,264	40,525	1,585
2002	119,317	116,429	40,469	31,373	29,494	47,475	46,466	2,888
2003	102,256	108,758	35,802	28,210	27,866	38,244	45,090	-6,502
2004	98,525	97,297	34,476	28,363	25,057	35,686	37,764	1,228
2005	110,188	102,957	37,353	30,609	27,994	42,226	37,610	7,231
2006	108,524	109,229	38,472	27,685	29,500	42,367	41,257	-705
2007	109,483	115,198	40,319	27,028	34,813	42,136	40,066	-5,715
2008	107,952	111,839	40,852	28,193	32,478	38,907	38,509	-3,887
2009	86,835	95,810	31,839	22,307	27,248	32,689	36,723	-8,975
2010	87,894	94,086	33,711	21,572	25,523	32,611	34,852	-6,192
2011	83,318	92,499	31,733	19,624	29,417	31,961	31,349	-9,181
2012	79,647	84,356	29,556	18,698	25,492	31,393	29,308	-4,709
2013	78,028	82,654	29,292	17,920	24,491	30,816	28,871	-4,626
2014	80,848	83,582	31,269	18,961	22,542	30,618	29,771	-2,734
2015	81,313	85,163	31,422	19,289	24,033	30,602	29,708	-3,850
2016	76,291	84,694	31,303	16,256	23,880	28,732	29,511	-8,403
2017	68,894	80,128	27,525	14,718	23,491	26,651	29,112	-11,234
2018	60,467	77,002	23,419	13,691	24,560	23,357	29,023	-16,535
2019	60,149	73,732	24,200	13,508	22,003	22,441	27,529	-13,5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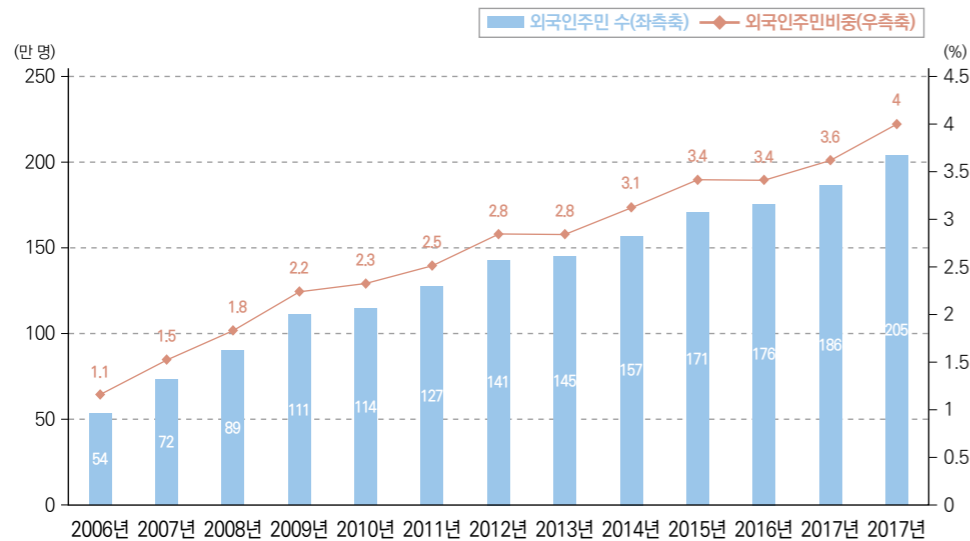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국내인구이동통계」, 2020.

\* 순이동은 총전입과 총전출의 차이임

## 6.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구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과 인구의 이동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8년 11월 기준 외국인주민은 205만 4,621명으로, 2017년의 186만 1,084명에 비해 19만 3,537명(10.4%)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의 비율은 2018년 기준 4%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2006년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의 비율이 1.1%였던 것에 비해 2018년의 총인구 대비 기준으로 볼 때 약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림 9 부평구 외국인주민 증가 변화 추이(2006~2018)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사회통합지원과,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9.11.1.기준)」, 2020, 2쪽.

외국인주민은 크게 국적 미취득자와 국적취득자, 그리고 외국인주민 자녀로 구분한다. 즉 외국인 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 동포와 그 밖의 기타 외국인으로 세분되는 국적 미취득자는 전체 외국인의 약 80.4%를 차지하고, 국적취득자는 8.6%, 외국인주민 자녀는 11%를 차지한다. 최근 외국인주민의 증가는 외국인 유학생과 기타 외국

인, 그리고 외국국적 동포의 증가세가 확연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주민 자녀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 기인한다.

법무부·통계청의 조사에서 귀화자를 제외한 외국인(영주체류 자격자 제외)의 85.1%는 체류 기간 만료 이후에도 한국에 계속 체류하기를 희망했다. 영주 체류 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의 76.1%도 향후 거주 희망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았다.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부평구 내 외국인주민 수 역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에서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와 서울, 인천이다. 전체 외국인의 60.1%(123만 4,984명)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

부평구 내 외국인주민은 2018년 기준 2만 5,415명(4.8%)이다. 서구 2만 1,121명(4.0%), 남동구 2만 1,179명(3.9%)보다 많으며 인천시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 역시 2017년 2만 2,484명에서 1년 만에 2,931명(13%)이 증가하여 전국의 시군구에서 15번째로 높은 편에 속한다.

표 15 부평구의 외국인 유형별 현황

(2019.11.1.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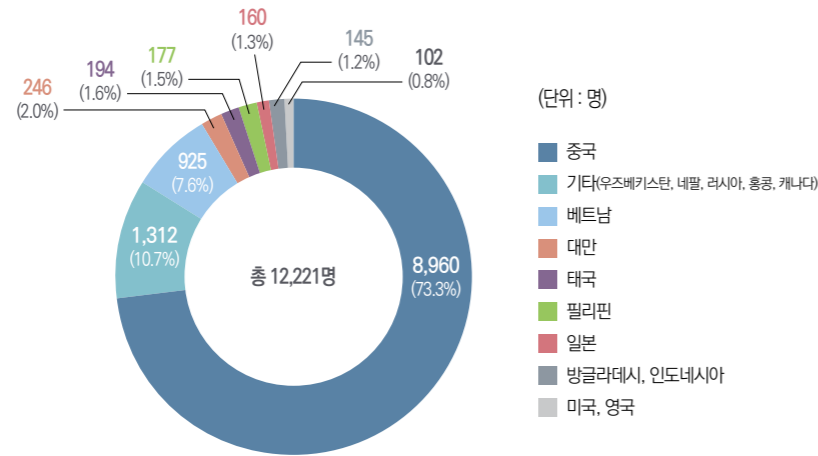
외국인 수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28,564	3,745	2,674	381	6,115	7,930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사회통합지원과,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9.11.1.기준)」, 2020.

부평구의 외국인 구성은 기타외국인이 가장 높은 비율(35.9%)을 보이고 있다. 기타 외국인은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등의 체류자격을 넘긴 외국인과 불법체류자 등을 가리킨다.

그다음은 중국 등 외국국적동포가 많은 편이며 공단과 관련 생산시설 등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으며 베트남, 대만, 태국, 필리핀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0 부평구 외국인 등록 현황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8 부평구 기본통계」, 2019, 24쪽

부평구에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주민의 자녀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문화가구는 5,488가구로 최근 4년간 1,365가구(33%)가 증가했는데, 이는 인천시 증가율보다 10%p 이상 높은 편이다.

표 16 부평구의 다문화가구 분포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기타동거인			합계	
	소계	결혼 이민자	귀화자	소계	귀화 및 외국국적	국내출생	소계	내국인		외국인
3,409	6,499	2,425	4,074	2,968	262	2,706	2,146	987	1,159	15,022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사회통합지원과,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9.11.1.기준)」, 2020, 81쪽.

부평구의 외국인 자녀는 모두 2,968명인데,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 부평구 내 79개 학교에 다니는 학령 아동과 청소년의 수는 모두 1,533명에 달한다.

표 17 부평구의 다문화가정 학생수

(2019년 기준, 단위: 명)				
학교별	학교수	다문화가정자녀 수 (A+B)	국제결혼가정자녀 (A)	외국인가정자녀 (B)
초등학교	41	1,164	849	315
중학교	21	263	226	37
고등학교	17	106	73	33
소계	79	1,533	1,148	385

출처: 나이스교육통계, 「다문화학생현황(2019년 기준)」

부평구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곳은 부평5동과 십정2동이고, 그다음으로는 부평4동, 부평1동, 부평6동, 부평2동 순으로 외국인이 밀집해 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외국인주민의 숫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부평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기타외국인과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학생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주민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과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기존 주민과 외국인주민 간 갈등과 융화 문제는 지역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부평구는 외국인주민의 증가 추세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주거와 생활, 교육 환경 등에 한층 더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주민과의 조화 및 상생 발전을 위한 행정을 모색해야 한다.

## 7.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일제강점기 이주와 취업 그리고 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거주하던 한인들은 해방 이후에도 일본의 방치와 소련의 귀환 불허 방침으로 인해 무려 반세기 동안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소련과의 관계가 개선되자 이듬해인 1989년부터 사할린 동포의 모국 방문과 영주귀국이 시작되었다.

1992년 춘천에 사할린 동포 77명이 영주 귀국하여 정착한 이래 우리 정부는 전국 각지에 영주귀국 동포를 위한 집단거주 시설의 건설과 임대주택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2020년 12월 총 4,408명이 영주귀국하였으며, 전국 27개 지구, 3개 시

설과 임대주택에 2,588명(사망자, 역귀국자 제외)이 거주하고 있다.

일찍이 부평구는 사할린 동포의 조기 귀국 사업에 동참하였는데, 1997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40가구 80여 명이 삼산동 LH 1단지에 입주하였다. 이는 인천시의 사할린동포복지회관 개관(1999년)과 사할린 동포의 대표적인 집단 거주지인 안산 고향마을 입주(2000년)보다 앞선 것이다.

2020년 12월 기준 삼산동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는 30명이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해마다 사할린 동포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 1998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환영식(삼산동사무소)(출처 : 부평구청)

2021년부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는데, 지원 대상이 당초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1세와 배우자, 장애인 자녀에서 1세의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로 확대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게는 임대주택 임대보증금과 관리비

선수금이 지급되며, 특별생계비로 매월 아파트관리비가 지원된다.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와 장애 급여가 지급되며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의료 급여 등의 복지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삼산동에 사할린 동포들이 정착한 이래 부평구와 주민들은 동포들의 정착과 보건, 여가 등을 지원하였다. 부평의 국제라이온스협회, 인천참사랑실천협의회, 세계봉사단 등 단체와 주민들은 해마다 사할린 동포 주민들을 위해 칠·팔순 잔치를 열어 드리고, 삼계탕을 대접해 드리거나 쌀 보내기 운동을 펼치는 등 주민들 간의 온정을 나누고 있다.



❖ 2009년 사할린동포 칠·팔순잔치(출처 : 부평구청)

1. 동별 현황과 특징

1) 부평1동

경인전철과 인천지하철 1호선의 환승역인 부평역을 중심으로 대형쇼핑몰과 대형할인마트, 부평역지하상가, 부평시장 등의 대규모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유동 인구가 많고 동아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옛 물길을 되살리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이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부평구청 인근까지의 구간에서 완료되면 지역의 휴식 공간이 늘어나고 부평둘레길 역시 지역의 명소가 될 것이다.

인구수는 2020년 부평구 관내에서 가장 많은 3만 7,907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20대와 60대 이상 노년층의 비중이 높다. 60대 이상 인구는 7,799명으로 부평구에서 가장 많다. 30대 비중 역시 부평구에서 세 번째로 많은 편이다. 청년층과 노년층이 많이 밀집한 지역인 셈이다.

표 18 부평1동 주요 시설 현황

(2018.12.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5	1	10	18	5	81	21	16	8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구정백서」, 2019, 601쪽.

2) 부평2동

부평2동의 면적은 부평동 중에 가장 넓은 2.28km<sup>2</sup>로 부평구의 7.1%를 차지하는데, 면적상 넓은 편에 속하지만 공원과 임야가 많기 때문에 주거 지역은 좁은 편이다.

북쪽으로는 경인철도, 남쪽으로는 인천가족공원 일대의 산 중양으로 경인국도와 인천지하철(동수역)이 관통하는 위치에 있으며, 일제의 육군조병창과 미쓰비시(三菱)공장 터는 미군 부대가 주둔하였다가 한국군 부대를 거쳐 2002년부터 부평공원이 되었다. 군수공장의 노무자 숙소였던 줄사택이 위치한 곳으로서 역사 유적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가치와 지역개발 및 주민 편의 공간 확보 등의 기대 가치를 조화시키는 것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부평공원 남쪽과 산 아래 좁은 지역에 두 개의 철길을 중심으로 빌라 형태의 다세대 주택이 있는 일반주택단지가 자리하고 있다. 부개산 북쪽에 걸쳐 부평묘지공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 2006년부터 인천가족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공원 내에 인천시립승화원이 위치하고 있다.

철도와 지하철, 국도가 교차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남북으로 대규모 공원과 숲이 있어 자연친화적인 지역이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부평2동의 인구는 부평1동의 약 절반가량인 1만 8,757명이 등록되어 있다. 인구구성으로는 50대가 가장 많은 18%를 차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주민이 1,961명으로 높은 편이다.

표 19 부평2동 주요 시설 현황

(2018.12.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4	5	4	8	3	12	6	1	27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구정백서」, 2019, 604쪽.

2021년에는 기존의 노후하고 협소한 주민센터를 대신하여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춘 새로운 행정복지센터가 문을 열었다.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인근 지역의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새뜰마을 공동이용시설과 연결통로를 만들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 3) 부평3동

1940년대 부평조병창의 확장 공사와 때를 같이하여 경인철도변(현 부평2동)에 히로나까(弘中商工)라는 군수업체 공장이 세워졌는데, 젊은 징용공들이 개울 건너 초지 벌판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을, 즉 신촌(新村)이라 불렀고 이것이 지금의 부평3동 지역이다.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백운역을 중심으로 신촌로, 경인로, 원통로로 관통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관내 학교들이 많이 모여 있다. 구 신촌 지역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백운역 북쪽 지역은 힐스테이트 부평 아파트 단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규모 휴식시설인 부평공원과 호봉산 등의 풍부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미군부대가 이전한 부지에 신촌공원 조성이 계획되어 있고, 또한 부평아트센터를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이 확충되면서 양질의 주택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철로와 백운역을 경계로 부평공원, 백운공원, 십정공원, 희망공원 등의 녹지축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쉽다. 백운역 주변의 철도변을 복개하고 그 위의 부지를 주민이동과 생태, 녹지와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면 마을의 남북 생활권을 통합하고 녹지축을 연결함으로써 생활환경이 급격히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인구수는 2020년 3월 기준 1만 3,291명으로 부평1~6동 중에서 가장 적은 곳이다. 50대를 중심으로 60대와 40대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부평3동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써 주민 참여를 통해 부평공원로 일대를 문화적 거점으로 조성하고 신촌의 역사적 의미를 스토리화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표 20 부평3동 주요 시설 현황

(2018.12.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5	1	5	6	5	24	8	3	11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구정백서」, 2019, 608쪽.

### 4) 부평4동

대규모 시장이 위치하여 부평 상권의 중심지이자, 교통의 요충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부평시장 활성화 사업에 따라 부평 경제 재도약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규모 상가, 주택 복합지역으로서 상업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부평구청과 보건소 등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소재하고 있어 유동 인구가 많고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에 따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부평동 내에서는 부평1동 다음으로 인구가 많다. 2020년 3월 기준 3만 7,274명이 등록되어 있다. 외국인 역시 부평구에서 십정2동과 부평5동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이다.

인구 구성은 30대의 비중이 6,869명으로 부평구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60세 이상 고령자 역시 7,260명으로 부평구에서 부평1동 다음으로 많은 곳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주민이 2,979명으로 높은 편이다.

주거환경은 인구 대비 공원 및 녹지,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부평4동과 주민자치회, 새마을협의회는 홀몸 노인들이 거주하는 노후 주택의 안전을 위해 지붕 수리와 도배, 장판 교체, 청소, 방역 서비스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표 21 부평4동 주요 시설 현황

(2018.12.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체육시설	공원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6	18	37	1	5	39	13	8	28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구정백서」, 2019, 611쪽.

기존의 좁고 낮은 주민센터를 대신하여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의 새로운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문을 열 계획이다. 행정복지센터 내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 5) 부평5동

시장로, 대정로, 장제로를 중심으로 상가와 주택,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부평의 문화, 경제를 대표하는 지역이다. 경인전철과 인천지하철의 환승역인 부평역, 인천지하철 부평시장역, 서울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이 인접해 있어 편리한 교통 때문에 최근 들어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에 따라 인구가 점차 유입되고 있다.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해물탕 거리, 숙박시설 등이 밀집한 상업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유동 인구가 많다. 다른 지역에 비해 병·의원이 밀집해 있는 것 역시 시장과 상인, 많은 유동 인구나 관련이 있다.

2020년 3월 기준 부평5동의 인구는 3만 4,076명으로 부평동에서 세 번째로 많다. 좁은 동 면적(0.83km<sup>2</sup>)에 비해 인구가 많은 편이라 인구밀도가 높다. 인구 구성비는 30대가 가장 많은 18%를 차지하며, 부평구 내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2017년 기준 1,673명의 외국인이 부평5동에 등록되어 있다.

표 22 부평5동 주요 시설 현황

(2018.12.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2	24	4	11	1	51	15	6	24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구정백서」, 2019, 617쪽.

### 6) 부평6동

부평동 중에서 가장 면적이 작은 지역이다(0.8km<sup>2</sup>). 원래 부평2동의 관할구역이었는데, 마을사람들이 동수동(東樹洞)이라 이름지어 불렀다.

경인전철의 부평역과 경인국도가 교차하여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다. 일반 단독·다가구주택 주거 형태로서 대부분 서민층이 거주하고 있다. 종합병원시설의 확충, 구도심권 정비사업(5통 지역 재건축,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 등)의 진행으로 향후 양질의 주택지가 될 전망이다. 경찰종합학교가 이전한 부지에 연면적 5,660m<sup>2</sup>의 부평남부체육센터를

건립하면 체육 인프라와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2020년 3월 기준 부평6동의 인구는 1만 4,695명으로 부평동에서 부평3동 다음으로 적다. 부평6동은 재정착 미얀마 난민 가구 지원사업과 저소득 밀집지역의 골목길 미화사업 등을 통해 좋은마을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다.

표 23 부평6동 주요 시설 현황

(2018.12.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체육시설	공원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	4	1	1	1	9	16	3	13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구정백서」, 2019, 621쪽.

### 7) 산곡1동

철마산 기슭에 위치한 주거지역인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다.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8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주택재개발(건축)사업이 대규모로 진행 중이다. 일제강점기 육군조병창 사택지구(7개통, 1,203가구)가 있던 원도심 지역으로 현재도 노후주택이 다수 분포하며 노인 인구 비율이 매우 높다.

제3보급단의 군부대와 미추홀구 관교동 소재 통합예비군훈련장이 이전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원과 문화 공간, 간선도로 등의 생활 인프라가 조성될 계획이다. 군용철로를 친환경 트램(노면 전차)으로 재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교통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원적산에 유아숲체험관과 풋살경기장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부평구에서 학군이 좋으며, 2021년 서울지하철 7호선 산곡역 개통 이후 주택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젊은 세대와 청소년, 학생 등의 인구가 대거 유입될 예정이다. 그에 따라 학원, 상점 등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 면적에 비해 학교(8개소)와 공원(3개소), 종교시설(40개소)이 밀집한 편이다.

한때 명신여고와 인천외고의 학교법인인 신성학원이 서구의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로 두 학교를 이전하려고 했는데,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

었다. 1971년과 1985년에 각각 터를 잡은 명신여고와 인천외고는 오랜 기간 부평 지역의 인재를 길러 온 요람이자 지역 발전의 요체라 할 수 있다. 만약 학교가 이전할 경우 기존 주민들은 물론이고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새로 입주할 주민들이 기대하는 교육 여건이 상실됨에 따라 산곡동의 도심 공동화와 부평 주민 전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해당 학교를 지역의 소중한 자원으로 적극 지원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공동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2020년 3월 기준 산곡1동 주민은 1만 3,387명으로 산곡1~4동 중에서 가장 적다. 학교가 많다 보니 50대가 가장 많고 40대와 30대가 그 뒤를 잇고 20대와 10대가 많은 편이다. 60대 이상 노령층이 29%에 달한다. 그러나 10살 미만의 영유아는 632명으로 청천1동을 제외하면 부평구에서 가장 적은 곳이다.

표 24 산곡1동 주요 시설 현황

(2018.12.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체육시설	공원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2	14	2	3	8	13	8	2	40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구정백서」, 2019, 625쪽.

### 8) 산곡2동

1970년 7월 산곡동이 산곡1동과 산곡2동으로 분동되었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1993년 12월 또다시 산곡2동이 산곡2동과 산곡4동으로 분동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산곡2동은 주민의 9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형적인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주택재개발(건축)사업이 진행 중이라서 인구가 더욱 유입될 전망이다.

산곡2동은 서구와 인천 지역으로 이어지는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데 서울 지하철 7호선 산곡역이 개통되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편리한 교통과 아파트단지를 기반으로 주변에 대형 할인마트와 병원, 은행, 학원 등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위락시설을 두루 갖추게 되면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다.

창천동과의 경계에 있는 157공병대(제1113공병단)의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식산업센터와 대형쇼핑몰, 문화시설, 주차장, 공동주택 등 주민편의 시설을 조성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부평경찰서도 이전하고 공원 부지도 마련되어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거 밀집지역이다보니 향후 녹지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20년 3월 기준 산곡2동의 주민은 3만 2,597명으로 산곡1~4동 중에서 가장 많다. 40대와 50대의 인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9세 미만의 영유아는 2,845명으로 부평구에서 가장 많다.

표 25 산곡2동 주요 시설 현황

(2018.12.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2	4	16	25	4	33	12	8	27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구정백서」, 2019, 628쪽.

### 9) 산곡3동

1950년대 부평 조병창 동쪽 편 지역에 상이용사들의 자활원인 화랑농장(花郎農場)이 자리를 잡았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일반주택 지역이 형성되었다. 1980년대 이후 마장로를 중심으로 현대아파트와 우성4차 아파트 등 중산층의 아파트 밀집 지역이 형성되었다. 아파트단지 주변에는 2001아울렛, 김스클럽, 웨딩홀 등 상권이 형성되어 유동 인구가 많은 편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침체된 화랑북로 주변의 상가와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과제이다.

2020년 3월 기준 산곡3동의 주민은 2만 2,973명인데, 50대가 18%로 가장 많고 60대와 40대가 그 뒤를 잇고 있다. 65세 노년층 인구는 산곡1~4동에서 가장 많은데,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가 17명으로 부평구에서 가장 많다. 노년층 인구가 많은 특성상 경로

당(7개)이 많지만, 주거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병·의원(3개소)과 약국(3개소)은 매우 적은 편이다.

표 26 산곡3동 주요 시설 현황

(2018.12.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2	6	7	1	4	3	3	4	15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구정백서」, 2019 632쪽.

### 10) 산곡4동

산곡4동은 부평구에서 갈산2동 다음으로 좁은 지역(0.76km<sup>2</sup>)이다. 전형적인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단독주택지 역도 일부 상존하고 있다. 천마로 노선의 초입지로 일부 상가가 형성되어 있다. 반환된 미군 부대 터를 중심으로 생태, 환경, 경제,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이다 보니 공원 등 녹지 공간이 부족하다.

미군 부대 이전에 따라 2020년 1월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3-1공구)가 완료·개통되었다. 미군기지 환경정화사업이 완료되고 3-2공구가 개통되면 마장로와 부영로가 연결되어 산곡4동과 인근 지역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제3보급단 이전이 완료되면 마장로와 서구 가좌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통될 예정인데, 서구에서 부평구 산곡동 일대를 거쳐 부천 상동을 연결하는 부흥로 전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동·서 간의 교통 소통은 물론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산곡4동의 인구는 2020년 3월 기준 18,473명이다. 50대 인구 비중이 가장 많고 40대가 그다음 순이다. 60세 이상 노년층의 인구는 산곡1~4동 중에서 가장 적은 편이다. 노인 인구가 적은 것에 비해 경로당(8개소), 병·의원(23개소), 약국(7개소)은 많은 편이다. 산곡4동은 부평구에서 외국인인 가장 적은 곳이다. 2017년 기준으로 58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다.

표 27 산곡4동 주요 시설 현황

(2018.12.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1	1	8	22	2	23	7	3	5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구정백서」, 2019, 636쪽.

### 11) 청천1동

부평구의 서북쪽 경계인 경인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며, 인천광역시 서구, 계양구와 맞닿아 있다. 오랜 기간 청천농장(양계마을)과 같은 집단정착 지역이 있던 곳인데, 이곳에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청천공단이 형성되었다. 원적산 기슭과 장수산을 중심으로 인천나비공원, 청천약수터, 물놀이장 등 공원화 마을을 지향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와 부평구는 장수산 정상부의 '깎은산'과 산 아래 지역 일대를 맑은내공원으로 지정하여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하고 있다. 축구장 9개 크기에 해당하는 157공병대 부지가 개방됨에 따라 해당 부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부평경찰서가 이전하고 공원과 지식산업센터, 주거복합시설 등이 들어서면 청천동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장수산 동쪽 지역의 구 청천아파트와 영남아파트 지역을 각각 청천1구역과 2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재 주택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주택재개발 사업과 입주가 완료되고 인접한 7호선 산곡역이 개통됨에 따라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녹지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거주 지역으로서 발전이 기대되는 곳이다.

청천1동의 인구는 한때 2만 3,060명(1992)에 달했지만 이후 2005~2010년까지 1만 8,000명까지 유지하다가 점차 줄어들어 2020년 3월 기준 7,311명으로 부평구에서 가장 적은데, 이는 청천1구역과 2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주민들이 대거 이주했기 때문이다. 모든 연령대에 걸쳐 부평구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이지만 주택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인구가 급격히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8 청천1동 주요 시설 현황

(2018.12.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체육시설	공원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2	3	3	3	1	16	6	2	4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규정백서」, 2019, 640쪽.

## 12) 청천2동

청천2동은 부평국가산업단지(수출4공단)와 한국GM 부평공장이 위치한 지역이다. 일반공업 및 준공업지역으로서 동서식품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체가 밀집되어 있다. 주민들 대다수는 기업체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금호타운, 청천푸르지오, 미도, 대진, 쌍용과 같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공단과 아파트 단지가 밀집하다 보니 녹지와 공원이 부족한 편이다.

한편 한국GM의 사업 축소와 철수설이 제기될 때마다 지역 사회와 국가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GM이 철수할 경우 약 11만 명 이상의 실업대란이 예상되는데,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GM의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와 고용 안정이 시급한 과제이다.

인구는 2020년 3월 기준 3만 5,108명으로 부평1동, 부평4동, 삼산1동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과거 인구구성에서 30대 비중이 21.52%로 가장 높았지만 2020년에는 50대 비중이 18.7%로 가장 높고 40대와 30대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는 청천2동에 주로 거주하는 공단과 주요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60대 이상 노년층 인구 역시 7,027명으로 부평1동, 부평4동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곳이다.

표 29 청천2동 주요 시설 현황

(2018.12.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6	2	13	33	3	20	13	7	20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규정백서」, 2019, 643쪽.

## 13) 갈산1동

국가산업단지(수출4공단)와 한국GM 공장의 배후지역으로 부평정수장, 한국전력공사, 부평국민체육센터, 부평세관 등 주요 시설들이 소재하고 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와 갈산역, 부평구청역 등의 편리한 교통 여건과 굴포천(갈산천, 청천천)의 환경 때문에 다수의 중·소기업과 공장, 상가, 다세대 주택,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 부평구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있어 갈산동 주민은 물론 타지역 주민들의 접근과 왕래가 잦은 편이지만, 공원 등 주민편익시설이 부족한 편이다.

갈산사거리 동남부 지역 일대(구 오리온엔지니어드 카본즈공장 부지), 연면적 28만㎡에 상업과 커뮤니티 등 복합시설인 인천 테크노밸리 U1센터가 조성되었다.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 롯데시네마 등 대규모 상업시설이 입주하여 갈산동과 삼산동 일대의 발전과 활성화에 구심점이 되고 있다.

2020년 3월 기준 갈산1동의 주민은 1만 6,987명이다. 50대가 3,412명(2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30 갈산1동 주요 시설 현황

(2018.12.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체육시설	공원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8	1	14	1	1	18	5	4	21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규정백서」, 2019, 647쪽.

#### 14) 갈산2동

갈산2동은 부평구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지역(0.66km<sup>2</sup>)으로, 면적은 부평구의 2.1%에 불과하지만 대단위 아파트 단지(12개)가 밀집되어서 인구 밀도가 높다.

부평구의 자랑인 굴포천을 따라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산책로가 형성되어 있고, 부평구청역과 갈산역, 굴포천역이 인접해 있어 교통 여건도 매우 우수하다. 부평구청역에서 굴포천역을 따라 먹거리타운과 하나로마트, 대월과 반월놀이공원, 사근공원, 생태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쇼핑과 여가, 휴식 공간이 풍부하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삼각주 습지원 및 부평둘레길 조성 사업이 진행될수록 지역의 생태환경이 더욱 좋아질 것이다.

부평구에서 가장 작은 동이지만 공원(10개)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갈산타운, 주공2단지, 대동아파트 단지 지역은 갈산1동의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과 청천천, 갈산천, 인천 테크노밸리 U1센터와 롯데시네마의 접근이 용이하다. 부평구가 추진하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의 경제, 문화, 쇼핑 등의 여건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3월 기준 갈산2동의 주민은 1만 9,881명이다. 50대가 가장 많지만 20~60대의 전 연령층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표 31 갈산2동 주요 시설 현황

(2018.12.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체육시설	공원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3	7	14	10	4	8	3	3	20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규정백서」, 2019, 651쪽.

#### 15) 삼산1동

삼산1동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다. 또한 주공 영구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다수 거주하며, 일반녹지, 생산녹지, 준공업지역 등이 혼재된 도농 복합지

역이다. 과거 이곳은 논밭이 대부분이었는데, 삼산1, 2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고 삼산체육관과 박물관 건립 및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등으로 살기 좋은 미래형 신주거 중심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3, 4지구 택지개발 조성으로 인구 유입과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농산물도매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부평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계양구와 부천시로부터의 유동 인구가 많으며 농산물 유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도매시장이 오래되다 보니 노후시설의 교체와 현대화 사업, 그리고 계양구와 연결되는 도로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

서부간선수로의 수질 개선, 친수 환경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산책로와 쉼터, 꽃길 등을 조성하여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주거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먼 편이다. 롯데마트는 삼산2동에 있고, 이마트와 백화점은 계양구 작전동과 부천시 중동에 있다. 실제로 삼산동 주민들은 전철과 버스 등을 이용하여 부평역과 더불어 부천 송내역, 중동·상동으로도 자주 왕래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오른편의 삼산4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인데, 공영개발 방식이 아닌 민영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오래 걸릴 전망이다.

삼산1동의 인구는 2020년 3월 기준 3만 5,360명으로 부평구에서 부평1동과 부평4동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50대의 인구가 6,670명(18.8%)으로 부평구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40대가 5,966명, 20대가 4,969명의 순으로 많다. 60대 이상 노년층 역시 모두 6,924명으로 부평구에서 네 번째로 많은 곳이다.

지역 내 주공 영구임대 아파트와 대형아파트 간의 양극화를 줄이는 것이 과제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2,474세대 3,486명으로 많은 편이다.

표 32 삼산1동 주요 시설 현황

(2018.12.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3	1	23	36	5	20	9	3	14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규정백서」, 2019 654쪽.

### 16) 삼산2동

2000년대 이후 택지개발을 통하여 미래형 주거 중심 지역으로 새롭게 개발된 계획 도시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계획도시답게 공원 및 녹지 공간이 확충되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경인고속도로 및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이 지나고 있어 교통 중심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과 삼산체육관역이 개통되면서 교통과 생활 여건이 더욱 좋아졌다. 삼산월드체육관, 삼산유수지체육공원, 부평역사박물관, 부평문화원, 시냇물공원 등 체육, 문화기반시설과 휴식공간이 잘 갖춰져 있다. 다만 삼산유수지체육공원을 보다 실용적이고 세련된 문화체육 공간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이 필요해 보인다.

삼산2동과 인접한 부천시 상동에 아인스월드, 상동호수공원, 부천영상문화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다. 굴포천을 따라 산책로를 잘 조성해 놓았다. 굴포천은 아라뱃길과 연결되어 부평구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자전거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한편, 삼산2동 지역의 지하에 KT의 특고압 선이 매설되어 있고 여기에 추가 증설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한 지역 특성상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 추가적인 증설 공사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특고압선을 저밀도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20년 3월 기준 삼산2동의 인구는 2만 9,939명이다. 부평구에서 10대(4,394명)와 40대(6,086명)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표 33 삼산2동 주요 시설 현황

(2018.12.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체육시설	공원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5	-	2	9	7	37	10	8	12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규정백서」, 2019, 657쪽

### 17) 부개1동

부개1동은 서울에서 인천으로 오는 초입지로서 경인국도 및 경인전철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는 교통의 중심이다. 과거 부개산 기슭과 부개역 철길 주변을 따라 자연부락이 들어서면서 마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오래된 단독주택, 빌라,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권이다.

부개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주택 밀집 지역인데, 경인로 1024번길 33 지역에 약 4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20년 3월 기준 부개1동의 인구는 1만 7,172명이다. 50대가 3,107명으로 가장 많지만 60대, 40대, 20대, 30대가 골고루 분포하는 편이다.

표 34 부개1동 주요 시설 현황

(2018.12.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체육시설	공원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3	1	1	4	3	13	8	3	23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규정백서」, 2019, 660쪽

### 18) 부개2동

부개2동은 경인전철과 부개역 북쪽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부천시 상동과 맞닿아 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주거 밀집 지역이다. 이곳은 경인전철 부개역과 부평역의 연계성이 뛰어나며 부평 지역 최대 재래시장인 부평종합시장에 가까우며, 부천시 상동과는 4차선 도로(수변로)를 경계로 접해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소신여객 상동 차고지에서 부천시 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역사가 깊은 부평동중학교를 비롯해 부개서초등학교, 부평여자중학교와 부개고등학교와 인천부흥고등학교 및 부개도서관이 모여 있어 교육 환경도 좋은 편이다. 이러한 교육 여건 때문에 부개역 푸르지오, 부개주공7단지 아파트 외에 부개역 코오롱하늘채와 부평 코오롱하늘채, 부개서초 SK뷰 총 3개 아파트 단지가 건설, 입주 예정이다.

한편 부개역의 노후시설을 보강하고 부족한 어린이집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시급하며 치안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위한 공공도서관 또는 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도 필요하다.

2020년 기준 부개2동의 인구는 1만 7,931명이다. 50대가 3,303명으로 가장 많고 40대와 20대, 30대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35 부개2동 주요 시설 현황

(2018.12.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체육시설	공원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4	7	-	5	5	14	8	4	10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규정백서』, 2019, 664쪽.

### 19) 부개3동

이 지역은 1980년대 후반까지 논밭이었는데 저층 아파트가 건설되고 택지지구가 형성된 곳이다. 지금의 부개로는 굴포천의 지류인 동수천을 복개한 도로이다. 길주로가 확장되고 서울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서 교통과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충선로를 기준으로 동쪽에는 부개지구, 서쪽에는 뉴서울아파트와 저층 아파트단지, 주택, 상가들이 위치한다. 부개지구는 주로 중대형 평형이고 서쪽의 주공 아파트단지는 소형 평형인데, 부개4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서쪽 지역에도 중대형 평형의 주민 약 1,300여 세대가 입주한다.

북쪽으로 굴포천역과 삼산체육관역과 접하며, 수변로 건너편의 부천시 상동과 맞닿아 있다. 길 건너에 있는 상동호수공원과 웅진플레이도시, 한국만화박물관, 캠핑장, 부천종합터미널 등 상동 신도시의 문화·예술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길주남로 166에 위치한 구립 부평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 지역 주민과 부평 구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한편 교육 수요가 높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혁신지구 지정과 10개나 되는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개3동의 인구는 2020년 3월 기준 3만 2,883명으로 부개동에서 가장 많다. 50대가 6,494명(19.7%)으로 가장 많고, 40대와 20대가 그 뒤를 잇고 있다. 20대가 5,141명, 10대가 3,538명, 10세 미만 영유아가 2,113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다. 학교가 많기 때문이다.

표 36 부개3동 주요 시설 현황

(2018.12.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체육시설	공원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3	1	4	8	10	14	6	4	5

❖ 출처 : 부평구, 『2019 규정백서』, 2019, 668쪽.

### 20) 일신동

일신동은 풍부한 녹지와 깨끗한 공기, 미개발지가 많은 곳이다.

서해안고속도로, 인천공항, 서울과 쉽게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미개발지가 많아 미래의 청정 도시로서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곳이기도 하다. 또한 인천시의 관문이자 부평구의 얼굴로서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강하다는 특성이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경인로(46번) 때문에 주민생활권이 분리되고 전 면적의 약 1/2이 군부대와 녹지이기 때문에 지역 개발에 한계가 있다.

부평구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 각종 복지시설과 기관의 지역본부와 지사, 병원,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등의 기관과 의료시설이 비교적 많이 위치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생활과 직결되는 중학교의 신설, 도서관 건립, 노인정 및 마을회관 등 편의시설 확충, 주차공간 확대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

도농공혼합형 도시에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 등으로 주거 기능이 커지고 있으며, 군부대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대단위 아파트 지역 조성 가능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한편 주변에 위치한 항공대대와 헬기장 때문에 주민들의 소음 및 재산권 피해에 대



한 민원이 적지 않다.

2020년 3월 기준 일신동의 인구는 1만 3,256명이다. 50대가 가장 많지만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주민이 291세대 432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다.

표 37 일신동 주요 시설 현황

(2018.12.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체육시설	공원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1	3	2	4	3	12	6	2	18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구정백서」, 2019, 671쪽.

### 21) 십정1동

십정1동은 경원대로, 백범로, 열우물로 등 인천의 주요 간선도로가 도심을 관통하는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지역이다. 이 지역은 주거 지역, 상업(십정종합시장), 공업(수출공단), 녹지(십정녹지, 함봉산, 백운공원), 체육(열우물경기장)시설 등이 골고루 갖추어진 곳이기도 하다.

과거 수출5공단 및 영세 공장이 밀집한 지역이었으며, 개발제한구역이 동면적의 약 1/3을 차지하여 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현재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2020년 3월 기준 십정1동의 인구는 1만 3,134명이다. 2013년 기준 22,160명에 달했는데 재개발 사업 때문에 많은 주민이 이주한 상태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아파트 28개동에 총 5,678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2025년경에는 주민이 2만 명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8 십정1동 주요 시설 현황

(2018.12.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체육시설	공원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3	22	5	4	4	8	3	4	18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구정백서」, 2019, 674쪽.

### 22) 십정2동

남동구, 서구와 접하는 부평구 서남부의 관문이다. 경인전철 노선이 동서로 지나며 중앙을 횡단하고 있고, 동암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인구 구성비에서 각 10세 구성비가 고루 분포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며,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이 많은 곳으로서 다양한 행정복지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2020년 3월 기준 십정2동의 인구는 2만 4,290명이다. 50대가 4,986명으로 가장 많지만, 30대, 40대, 60대가 모두 3,000명 대로 비슷한 분포이다. 60대 이상의 노년층은 모두 6,271명으로 많은 편이다. 십정2동의 외국인은 2017년 기준으로 1,599명에 달한다.

표 39 십정2동 주요 시설 현황

(2018.12.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6	12	6	4	4	33	11	5	26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구정백서」, 2019, 678쪽.

## 2. 도시계획

### 1) 용도와 지목, 도시 정비

부평구의 총면적은 32km<sup>2</sup>로 인천시 전체 면적의 3.06%에 해당한다. 총면적 중 주거지는 약 45.2%, 녹지면적은 37.5%, 공업지구가 11.3%를 차지한다. 그 외 6%는 산업시설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공업지구가 높은 편이다. 그리고 녹지면적 중 상당 부분은 그동안 군사시설(14%)로서 주민들의 접근이 제한적이었는데, 최근에 미군기지와 군부대가 이전함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되고 있다.

표 40 부평구의 용도지역 면적

(2020년 기준, 단위: km<sup>2</sup>)

합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소계	자연	생산	보전
32	14.46	1.92	3.62	12	8.1	0.8	3.1

부평구의 지목별 면적은 대지 10.38km<sup>2</sup>로 가장 많고, 기타 7.37km<sup>2</sup>와 임야 7.16km<sup>2</sup>가 그 다음이고, 잡종지 2.59km<sup>2</sup>, 공장용지 2.22km<sup>2</sup>, 학교용지 1.12km<sup>2</sup>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41 부평구의 지목별 면적

(2020년 기준, 단위: km<sup>2</sup>)

합계	대지	기타	임야	잡종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전	답
32	10.38	7.37	7.16	2.59	2.22	1.12	0.54	0.62

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모두 6.31km<sup>2</sup>로서 임야과 잡종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산곡3동의 부평미군기지 0.44km<sup>2</sup>와 부영공원 등 주변 지역

을 포함할 경우 0.60km<sup>2</sup>이 있는데 향후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하면서 또는 다른 용도로의 개발 여지가 주목된다.

부평구는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군부대 및 공단 지역 등의 이전에 따른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인근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곳이다.

2020년 기준 부평구에는 총 48곳(재개발 42, 주거환경개선 6)의 도시정비 대상 구역이 있는데, 이 가운데 27개 구역(재개발 25, 주거환경개선 2)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표 42 부평구 도시정비 사업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곳)

대상	추진 중	완료	해제 및 취소
48	27	6	15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재생과

2020년 기준 부평구에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3 부평구 추진 중인 도시정비 사업 실태

(2020년 기준, 단위: 곳)

구분	구역수	구역명
조합설립인가	5	산곡3, 산곡7, 부개5, 십정5, 신촌
사업시행인가	7	십정3, 산곡5, 십정4, 부개4, 산곡, 산곡6, 갈산1
관리처분계획인가	3	부평4(2019.4.10.), 청천1(2019.4.10.), 부평2(2020.6.16.)
착공	12	부개인우(2018.2.5.), 동암마을(2018.11.15.), 십정2(2018.11.27.), 산곡2-2(2018.12.27.), 부개3(2019.5.1.), 산곡2-1(2019.10.1.) 백운2(2020.3.9.), 부평목련A주변(2020.3.26.) 산곡4(2019.12.06.), 부개서초교북측구역(2020.3.31.) 삼산1(2020.6.19.), 청천2(2020.7.10.)

❖ 출처: 부평구 도시재생과

## 2) 도시 발전계획과 주요 과제

### (1) 부평의 당면 과제

오랜 기간 부평구의 숙원 사업으로 거론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로 경인전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사업의 조기 착공 및 완공, 군부대 이전 부지 활용에 관한 논의 등이 있다.

경인전철의 백운역-송내역 구간의 4.5km를 지하화하면 부평의 남북 간 분리에 따른 불균형과 주거·교통·보행 등의 여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평역사와 철로 등이 차지하고 있는 약 45만㎡의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지식산업센터와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녹지 공간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사업은 부평역 지하화와 복합환승센터 조성 및 지상 부지의 활용 사업과도 연계되어 있다.

송도에서 부평과 서울을 거쳐 마석까지 이어지는 80km 구간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사업의 당초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2025년을 목표로 한 것인데, 2020년 기준 기본계획 수립과 고시가 진행되고 있다. 사업이 완공되면 부평에서 서울역이나 송도까지 교통시간이 20여 분대로 단축된다. 곧 서울지하철 7호선의 석남 연장선이 개통되고 GTX-B가 완공되면 부평의 서울-인천-경기권 교통과 물류의 편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부평구는 미군 부대 부지와 부평구 내 여러 지역에 산재한 군부대의 개편과 재배치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군부대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주민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평 미군 기지(캠프마켓) 부지는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역사문화생태공원 또는 대중문화예술 학교와 대학의 캠퍼스를 조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3보급단 등 군부대가 이전하는 산곡동 주민들은 자연친화적 개발과 군용철도 및 장고개도로(2차 구간)를 주변 지역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청천1동의 157공병대 부지가 개방되면 부평경찰서 이전, 지식산업센터 조성, 맑은내공원(나비공원)과 부평둘레길 조성 사업 등과 연계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부대 이전 후 부평구 주민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발

굴 등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논의 중이다. 군부대 주변 지역과 역세권을 연계한 광역역세권 재생 사업,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원도심 관문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사업, 군부대가 통합·재배치되는 지역인 부개동 및 일신동 주민들에게 가증되는 불편과 민원을 해결하는 과제 등이 주요 관건이다.

그리고 육군조병창 터, 미쓰비시 출사택, 지하호 등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적극 보존, 활용하는 한편 이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과거 부평의 근현대 문화유산은 일제의 압제를 상징하고 지역 발전과 개발을 저해하고 도시 경관을 해치는 혐오시설이자 주민들의 정비·개발 요구와 상충하는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와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일부 근현대 문화유산만이라도 보존·활용하자는 지적이 정부와 국민적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화롭게 절충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기이다.

### (2) 공원, 녹지

부평구는 타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지만 하천 부지가 양호하고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산림, 녹지가 비교적 풍부하게 보존된 곳이다. 부평구는 오랜 기간 굴포천의 생태하천 개발과 도심 내에 활용 가능한 녹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최근에 이전한 군부대의 부지 등을 공원과 녹지, 주민편의 시설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부평구의 공원과 녹지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기준 부평구는 총 149개 공원(면적 462만 5,000㎡)과 26만 9,000㎡에 달하는 녹지를 확보하거나 조성 중에 있다.

표 44 부평구 공원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 1,000㎡)

구분	합계		조성		조성중		미조성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149	4,625	80	2,749	4	383	65	1,573
근린공원	30	1,289	22	795	3	282	5	212
어린이공원	90	264	53	142	-	-	37	122
소공원	22	33	2	2	-	-	20	31
주제공원	5	2,258	3	1,810	1	101	1	427
도시자연 공원구역	2	781	-	-	-	-	2	781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 규정현황, 부평 지역을 기록하다」, 2020, 38쪽.



❖ 1991년 당시 인천직할시 북구공보관 모습(출처 : 부평구청)

## 제4절 | 행정조직

### 1. 행정조직 체계의 변천

#### 1) 민선1기 행정기구 변화

부평구의 행정조직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되면서부터이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60년대 초에 잠깐 실시되었을 뿐 오랜 기간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1987년의 헌법 개정과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으로 부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1991년 상반기에 각급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지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제의 실현이 지연되었다. 그러나 1994년 3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과, 1995년 5월 지방자치단체장(광역, 기초)과 지방의회 의원(광역, 기초)을 동시에 뽑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완전한 민선 자치시대가 다시 열리게 되었다.

1995년 민선1기 부평구청장의 선출을 계기로 부평구의 행정조직 역시 과거 중앙정부의 관리·통제적 조직에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의 행정조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95년 1월 1일 인천직할시는 인천광역시로 승격되고, 같은 해 3월 1일 인천광역시 북구는 경인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부평구와 계양구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 이때 부평구의 면적은 이전의 북구 면적 76.88㎢의 41.6%에 해당하는 32.03㎢로 축소되었다. 축소된 부평구의 면적 중 녹지지역은 44.0%, 주거지역은 31.7%, 상공업지역은 24.3%였다. 비록 면적은 줄어들었지만, 부평구와 계양구의 분구는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부평구는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평구는 1995년 3월 1일 분구 이후 3국 2실 16과 61계 21개 동으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이때의 개편은 세무과의 직제를 전면 개편하고 징수과를 신설하여 세무 전산화를 완료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1995년 부평구 전경(출처 : 부평구청)

1995년 7월 최초의 민선자치단체장체제가 출범한 이래 1996년 1월 1일자로 조직이 대폭 개편되었다. 이때 경영재정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가정복지과를 폐지하여 사회과로 통합하고, 지방의회의 사무를 강화하기 위해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하였다. 그해 5월에는 행정자치부의 명칭 통일 지침에 따라 사회과의 명칭을 사회복지과로 변경하였다.

1997년도에는 회계과를 폐지하고 영선계는 총무과로, 경리계는 경영재정으로 이관하였으며,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과를 신설하였다.

이 무렵 인천광역시청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으나 부평구는 기존의 조직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기구의 통합 및 간소화를 추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표 45 1997년도 부평구 조직 개편 내용

시행일	기관(부서)	개편 내용
1997.1.1.	지적과	• 부동산관리계 신설
	기획감사실	• 정보통신계 신설
	지역교통과	• 차량등록계 신설
	총무과	• 공공시설계 신설 • 계 명칭변경 - 서무계 → 총무계
	회계과	• 회계과 폐지 • 계 이관 - 영선계 → 총무과 공공시설계 - 경리계 → 경영재정으로 이관
	중소기업지원과	• 중소기업지원과 신설 - 중소기업계 신설 • 공업노동계, 국제통상계 지역경제과에서 이관
	경영재정과	• 경영수익계+세외수입계 = 경영수익계(계통합)
	사회복지과	• 구호계를 생활복지계로 명칭변경
	지역경제과	• 상정계를 상공계로 명칭변경 • 공업노동계-국제통상계를 중소기업지원과로 이관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표 46 1997년도 공무원 정원 분포

직렬별 기관별	합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계	887	1	662	31	139	54
구 본청	445	1	324	8	69	43
의회사무과	21		12		9	
보건소	47		40		7	
동	374		286	23	54	11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비교 ①199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

②1997년 12월 말 공무원 수는 전년 대비 24명이 증원되어 정원은 886명으로 증원되었으며, 이는 일반직 정원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 2) 민선2기

민선2기 자치단체장 시기는 1997년 말부터 시작된 IMF 관리체제하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작고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지향했다. 부평구 역시 해마다 유사 기구와 업무를 통폐합하고 인력을 축소 조정하였다.

1998년 10월 7일 제1단계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환경관리과로, 기획감사실의 예산계와 법무계를 예산법무팀으로 통합하고,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청소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업무를 총무과 등으로 축소·이관·조정하였다. 또한 IMF 관리체제 이후 증가한 지역 내 실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 공공근로방안 등을 전담하기 위해 지역경제과를 산업경제과로 변경하고, 공무원 정원을 전년 대비 110명 감축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다.

1999년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제2단계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1997년 7월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함에 따라 부평4동과 산곡3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시범 운영하였다. 또한 청소과와 경제과를 신설하고, 환경위생과를 개편하고, 공무원의 정원을 전년 대비 29명 감축하였다.

2000년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한시 기구로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게 되었다. 제2단계 지방행정조직 감축 방침에 따라 경제 관련 부서를 축소, 폐지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각 동에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여 확대 배치하였다.

2001년 7월에는 5급 직렬 조정과 별정직 정원의 재정비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 분위기를 고취시켰으며 9월에는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9명의 정원을 보강하였다.

구조 조정이 완료되는 2002년 7월까지 직급 상향이 이루어졌으며, 9급 비율이 높은 직렬을 행정직과 상계 조정하여 승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기진작과 근무 분위기를 고취시켰다. 이 무렵 공무원 정원은 809명으로 확대되었다.

## 3) 민선3기

민선3기 자치단체장 시기는 경제·문화·체육·환경·사회복지 분야의 대민 업무 확대 방침에 따라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

병무업무의 병무청 이관으로 병무팀이 폐지되고, 사회복지분야 별정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 조정하였다.

2003년 1월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문화공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복지국을 신설하였다. 여성 및 아동 업무의 증대에 따라 여성과를 신설하고, 보건소 내에 보건행정과를 신설하였다.

2004년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업무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팀을 신설하였고,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 기구였던 주민자치과를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였다.

2005년에는 부서의 명칭 변경과 조정이 이루어졌고,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이던 지도원을 기능10급 조무원(지도)으로 직렬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통합하였다.

표 47 2005년도 부평구청 조직 개편 내용

시행일	기관(부서)	개편 내용
2005. 1. 3.	기획감사실	• 조직평가팀 신설
	총무과	• 공무원단체협력팀 신설
	주민자치과	• 자치행정과로 명칭변경
	경영재정과	• 재무과로 명칭변경
	재무과	• 복식부기팀, 공유재산관리팀 신설 • 경영수익팀 폐지 • 경영재정과 재산관리팀 → 국유재산관리팀
	구세과·시세과	• 세무과로 통합
	세무과	• 세외수입팀, 자동차세팀 신설 • 팀명칭변경 - 시세과 시세체납팀 → 체납정리팀 - 구세과 구세1팀 → 세정팀 - 구세과 구세2팀 → 재산세팀 - 시세과 시세1팀 → 취득등록세팀 - 시세과 시세2팀 → 주민세팀
	민원봉사과	• 과 신설(총무과에서 민원사무 이관) • 자치행정과 주민통계팀 → 주민등록팀
	문화공보과	• 영상홍보팀, 예술진흥팀 신설
	사회복지과	• 노인복지팀 신설
2005. 3. 2.	여성과	• 가정복지팀 신설 • 아동보육팀 → 보육행정팀
	경제과	• 시장지원팀 신설
	청소과	• 음식물자원화팀, 폐기물관리팀 신설
	교통행정과	• 주차시설팀 신설
	건설녹지과	• 조경팀신설·도시정비과 녹지조경팀 → 녹지팀
	건설행정과	• 도시정비과에서 공원녹지 업무를 건설행정과로 하고 건설녹지과로 명칭 변경
	도로치수과	• 도로관리팀 신설·도로팀 → 도로시설팀
	건축과	• 건축2팀 폐지·건축1팀 → 건축팀
	도시정비과	• 광고물정비팀, 도시개발팀 신설
	건설녹지과	• 조경팀 신설
2005. 6.10.	의회사무국	• 총무팀 신설
	보건행정과	• 모자보건팀 신설·가족보건팀 → 지역보건팀
2005. 6.10.	세 무 과	• 주택가격평가팀 증설
	재난안전관리과	• 과 신설 • 팀 신설 : 재난기획팀, 복구지원팀 • 팀 이체 : 재난관리팀(도로치수과 →) 민방위팀(자치행정과 →)

시행일	기관(부서)	개편 내용
2005. 6.10.	녹지조경과	• 과 신설 • 팀 이관 : 녹지팀, 조경팀, 공원팀(건설녹지과 →)
	총 무 과	• 자치행정과로 통합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팀 → 복지기획팀으로 명칭 변경
	건축과	• 도시미관팀 → 도시정비과로 이관
	건설녹지과	• 공원녹지업무를 신설되는 녹지조경과로 이관하고 건설행정과로 명칭 변경
2005.10.21.	도시정비과	• 광고물관리팀, 광고물정비팀 → 건설행정과
	자치행정과	• 평생학습지원팀 신설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 4) 2010년 이후

부평구는 2012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감사관과 홍보담당관을 신설하고 4개 팀을 신설하였다. 2013년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직으로서 보육정책과와 6개 팀을 신설하고 경제협력팀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자연재난·사회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기획팀 등 4개 팀을 신설하였다.

2014년에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미군부대반환지원팀을 신설하였는데, 부평구청의 정원이 1,026명으로 늘어나며 1,000명대로 진입하였다. 2014년 5월에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여 3단 체제로 개편되었다. 2014년 11월에는 안심도시 구현과 안전 업무를 총괄 지원하기 위해 안전자치행정과를 안전재난관리관으로 개편하고 사회적경제팀과 장애인시설팀을 신설하였다.

2015년 규제개혁추진단의 종료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규제개혁팀으로 조정하였다. 2015년 6월에는 도시재생팀을 신설하고 미군부대반환지원팀을 구민활동지원팀으로, 문화관광팀과 예술진흥팀을 문화예술팀으로, 문화관광팀을 관광진흥팀으로 조정하였다.

2015년 말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지속가능발전도시 부평’을 만들기 위해 부평구청의 조직을 대폭 개편하였다. 일자리기획단은 일자리기획과로, 안전재난관리관은 안전재난관리과로 변경하고 치수방재팀은 굴포천재생팀과 하수팀으로 신설, 변경하였다. 도로과 보상팀은 폐지하였다.

2016년에는 도시재생 및 개발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미래도시과와 주거환경정책과를 신설하고, 청천1동·갈산2동·삼산1동 등 일부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여 동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로 활용하는 정책에 착수하였다.

2016년 10월 부평구는 감염병 조기발견과 초동대처, 그리고 후속관리에 대비하여 보건소 조직에 감염병관리팀을 신설하였다.

2017년 부평구는 동물보호팀과 도시농업팀을 신설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9개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였다. 2017년 9월에는 저출산 문제와 보육아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출산지원정책팀을 신설하고 9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부평구의 전체 22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완비되었다.

2018년 도시 환경과 재생 사업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래도시과 내에 도시재생뉴딜팀을 신설하였다. 정부 시책과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적과 내에 공간데이터팀도 신설하였다. 2018년 10월에는 기존의 맞춤형복지팀 구성의 유형을 변경하고 인력을 확충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부평4동과 삼산1동에 복지팀을 신설하였다. 2018년 12월 31일 부평구는 민선7기의 공약 사항 및 주요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경제복지국은 문화복지국으로, 문화환경국은 경제환경국으로 재편제하고, 체육진흥과를 비롯해 소통기획팀 등 10개 팀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미래전략팀, 자전거팀, 비전협력팀은 폐지하였다. 비전기획단은 소통담당관으로 변경하였다. 보건소의 위생과는 폐지하였다.

2019년 부평구는 안전교통국을 신설하고 기존의 4국 편제를 5국으로 개편하였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이행하기 위해 치매를 전담하는 4개 팀을 신설하였다.

2020년 3월 부평구는 부대 이전에 따른 도시개발 및 재생 업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부대이전개발팀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부평4동과 삼산1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복지팀을 복지행정팀으로 개칭하는 동시에 부평1동, 부평5동, 청천2동, 십정2동에도 복지행정팀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6개 동에서 행정복지센터에 행정민원팀, 복지행정팀, 맞춤형복지팀의 체제가 운영되고 있다.

표 48 부평구청의 조직과 기구 개편 추이

년도	구분	기구 및 조직	직속 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1995		3국 (2실 16과 61팀)	1	
1996		3국 (2실 17과 63팀)	1	
1997		3국 (2실 17과 68팀)	1	
1998		3국 (2실 14과 69팀)	1	21동
1999		3국 (2실 13과 66팀)	1	21동
2000		3국 (2실 14과 66팀)	1	21동
2001		3국 (2실 14과 67팀)	1	21동
2002		3국 (2실 14과 67팀)	1	21동
2003		4국 (1실 17과 66팀)	1	21동
2004		4국 (1실 17과 96팀)	1과 7팀	21동
2005		4국 (1실 18과 96팀)	1과 6팀	21동
2006		4국 (1실 19과 99팀)	1과 6팀	22동 41팀
2007		4국 (1단 19과 99팀)	1과 6팀	22동 41팀
2008		4국 (1단 1실 19과 92팀)	1과 6팀	22동 41팀
2009		4국 (1단 2실 21과 98팀)	1과 6팀	22동 41팀
2010		4국 (1단 2실 24과 103팀)	2과 6팀	22동 41팀
2011		4국 (2단 2실 3담당관 24과 103팀)	3과 1지소 12팀	22동 22팀
2012.2.27.		4국 29부서(2단 1실 2담당관 24과 106팀)	3과 1지소 12팀	22동 22팀
2013.2.25.		4국 30부서(2단 1실 2담당관 25과 109팀)	3과 1지소 13팀	22동 22팀
2013.8.5.		4국 30부서(2단 1실 2담당관 25과 113팀)	3과 1지소 13팀	22동 22팀
2014.2.17.		4국 30부서(2단 1실 2담당관 25과 114팀)	3과 1지소 14팀	22동 22팀
2014.5.12.		4국 31부서(3단 1실 2담당관 25과 114팀)	3과 1지소 14팀	22동 22팀
2014.11.10.		4국 32부서(3단 1실 3담당관 25과 116팀)	3과 1지소 14팀	22동 22팀
2015.4.23.		4국 31부서(2단 1실 3담당관 25과 118팀)	3과 1지소 15팀	22동 22팀
2015.6.10.		4국 31부서(2단 1실 3담당관 25과 119팀)	3과 1지소 15팀	22동 22팀
2015.10.1.		4국 31부서(1단 1실 2담당관 27과 119팀)	3과 1지소 15팀	22동 22팀
2015.10.26.		4국 31부서(1단 1실 2담당관 27과 120팀)	3과 1지소 15팀	22동 22팀
2016.2.16.		4국 31부서(1단 1실 2담당관 27과 121팀)	3과 1지소 15팀	22동 22팀
2016.6.3.		4국 32부서(1단 1실 2담당관 28과 121팀)	3과 1지소 15팀	22동 26팀
2016.10.17.		4국 32부서(1단 1실 2담당관 28과 121팀)	3과 1지소 16팀	22동 26팀
2017.2.28.		4국 32부서(1단 1실 2담당관 28과 123팀)	3과 1지소 16팀	22동 35팀
2017.4.17.		4국 32부서(1단 1실 2담당관 28과 122팀)	3과 1지소 16팀	22동 35팀
2017.9.25.		4국 32부서(1단 1실 2담당관 28과 123팀)	3과 1지소 16팀	22동 44팀
2018.4.18.		4국 32부서(1단 1실 2담당관 28과 125팀)	3과 1지소 16팀	22동 44팀



년도	구분	기구 및 조직	직속 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2018.10.1.		4국 32부서(1단 1실 2담당관 28과 125팀)	3과 1지소 16팀	22동 46팀
2018.12.31.		4국 34부서(1실 2담당관 1관 30과 137팀)	2과 1지소 11팀	22동 46팀
2019.7.1.		5국 34부서(1실 2담당관 1관 30과 137팀)	3과 1지소 15팀	22동 46팀
2020.3.9.		5국 34부서(1실 2담당관 1관 30과 138팀)	3과 1지소 15팀	22동 50팀

❖ 출처 : 부평구청 기획조정실, 「조직개편 및 조직표(1995-2020년 기준)」

### 5) 부평구 공무원 정원

1995년 부평구 정원은 본청에 407명, 22개 동사무소에 385명 등 모두 866명이었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2020년에는 1,299명에 이르고 있다. 본청 직원은 53% 증가한 반면 동의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9%가량 줄어들었다.

표 49 기구 및 정원 변화

년도	구분	합계	본청	보건소	의회	동
1995		866	407	53	21	385
1996		863	423	47	21	372
1997		887	445	47	21	374
1998		777	399	41	18	319
1999		777	434	42	18	283
2000		780	522	44	18	196
2001		809	543	46	17	203
2002		825	539	46	17	223
2003		851	553	47	17	234
2004		863	565	46	17	235
2005		903	602	46	18	237
2006		913	605	49	18	241
2007		914	606	49	18	241
2008		876	571	46	19	240
2009		876	571	46	19	240
2010		888	591	47	19	231

년도	구분	합계	본청	보건소	의회	동
2011		919	572	75	19	253
2012		955	572	76	19	253
2013		998	629	79	21	269
2014		998	629	79	21	269
2015		1,030	661	80	21	269
2016		1,073	690	82	21	280
2017		1,121	698	84	22	317
2018		1,164	752	78	22	323
2019		1,232	765	117	22	328
2020		1,299	784	140	22	353

❖ 출처 : 부평구청 기획조정실, 「기구 및 정원 변화(1995-2020년 기준)」

2012년 1,000명을 넘기 직전의 955명 정원에 비해 지난 8년간 약 344명이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원 증가에 기인한다. 동사무소 직원은 행정효율화 차원에서 2000년 당시 196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가 주민서비스와 복지 업무가 강화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0년 부평구청의 정원은 1,308명으로 증가하였다.

부평구의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2015년의 약 50%에서 2019년 약 59%로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4급 이상 여성공무원 수는 2명이다. 부평구는 인천광역시 중에서 여성 공무원 비율면에서 가장 높은 자치구로 선정되었다. 또한 부평구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20년 성별영향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은 전국의 3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실적과 정책 개선 정도,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 교육 실적, 제도화 수준 등을 평가해 선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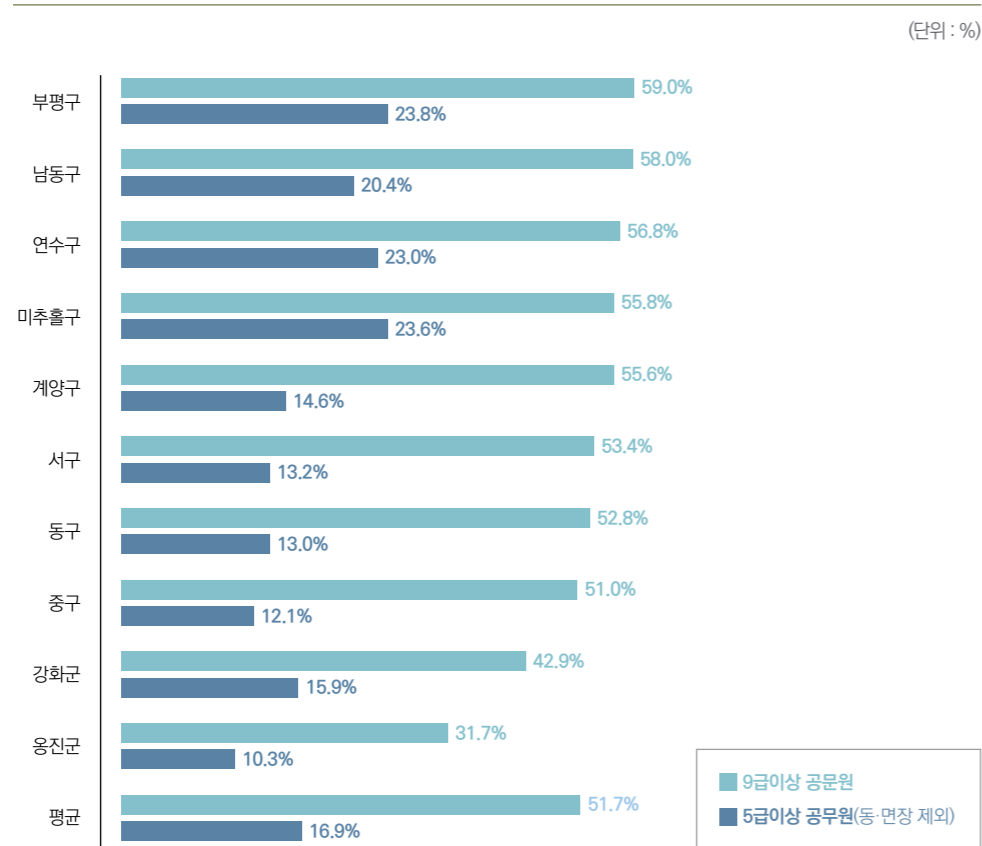
표 50 부평구청 여성 공무원 인원 현황

(단위: 년·명)

연도별	전체 인원	여성
2015	1,060	540
2016	1,081	560
2017	1,095	572
2018	1,143	627
2019	1,225	718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2015~2019년 기준)」

그림 11 인천광역시 지역별 여성공무원 비율



출처: 「인천투데이」, 2019년 11월 18일 자.

공무원 정원을 부평구 주민 수와 대비하면 공무원 1명이 주민 387명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 된다.

부평구청의 공무원 정원은 인천광역시 타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다. 부평구의 공무원 정원은 서구와 남구, 남동구의 공무원 정원보다 다소 많은 편이다.

표 51 부평구와 주변 자치구 공무원 인원 현황

(2019년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체 인원	여성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인천 전체	15,662	6,219	12,626	2,989	11	36
부평구	1,225	718	1,221	0	1	3
서구	1,139	611	1,135	0	1	3
남구	1,073	574	1,067	0	1	5
남동구	1,043	582	1,038	0	1	4
계양구	868	482	865	0	1	2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2019.12.31. 기준)」

## 2. 행정조직 개편의 전망과 과제

2020년 3월 9일 부평구청은 기구 및 정원 조정의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본청 1개 팀과 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각 1개 팀 등 총 5개 팀을 신설하고, 67명의 직원을 보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조직개편에 따라 부평구 행정기구는 본청 5국 1실 2담당관 1관 30과 138팀, 22개 동 행정복지센터는 50팀으로 개편되었다.

그림 12 부평구 행정조직도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홈페이지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부평지역 군부대 관련 업무 추진부서를 일원화해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이전개발팀을 신설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동에 주민자치회 추진 인력과 복지·간호 인력을 보강한 것 등이 있다.

도시재생과 내에 신설하는 부대이전개발팀은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던 부평 캠프 마켓 활용·개발 업무를 비롯해 157공병대 개발계획 및 연관업무와 3보급단 이전 관련 개발계획, 군용철로 폐선(활용)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그리고 기존에 부평4동과 삼산1동에서 시범 운영 중인 맞춤형복지팀을 6개 동으로 확대하였다. 맞춤형복지팀은 팀장 1명과 간호 인력 1명, 복지인력 최소 2명으로 구성되며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통합사례관리, 민·관 연계 업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동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간호 인력이 배치된 기존의 2개 동을 제외한 20개 동에 간호 직원 20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팀 신설에 따른 명칭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복지팀'을 '복지행정팀'으로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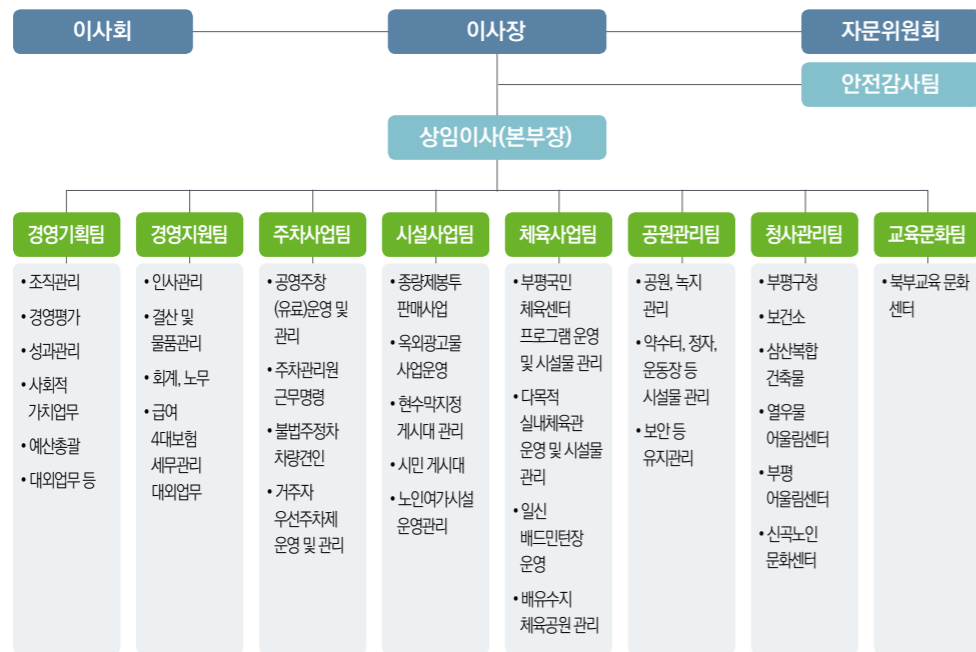
그 밖에 비공무원 노무 관리 전담 인력(1명)과 교육혁신지구 확대에 따른 인력(1명), 부평 근·현대 문화유산 재조명 사업 및 문화도시 지정 추진(1명),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1명), 도시재생뉴딜사업 인력(2명),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1명), 재난대응 인력(1명) 등도 보강된다.

### 3. 산하 기관

#### 1) 시설관리공단

부평 관내의 하천과 공원,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대한 업무와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찍이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적극 행정에 나서고 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1999년 12월 부평구청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서 2020년 기준 정원 248명의 조직이다. 본부장 이하 경영기획팀, 경영지원팀, 주차사업팀, 시설사업팀, 체육사업팀, 공원관리팀, 청사관리팀, 교육문화팀의 8개 부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13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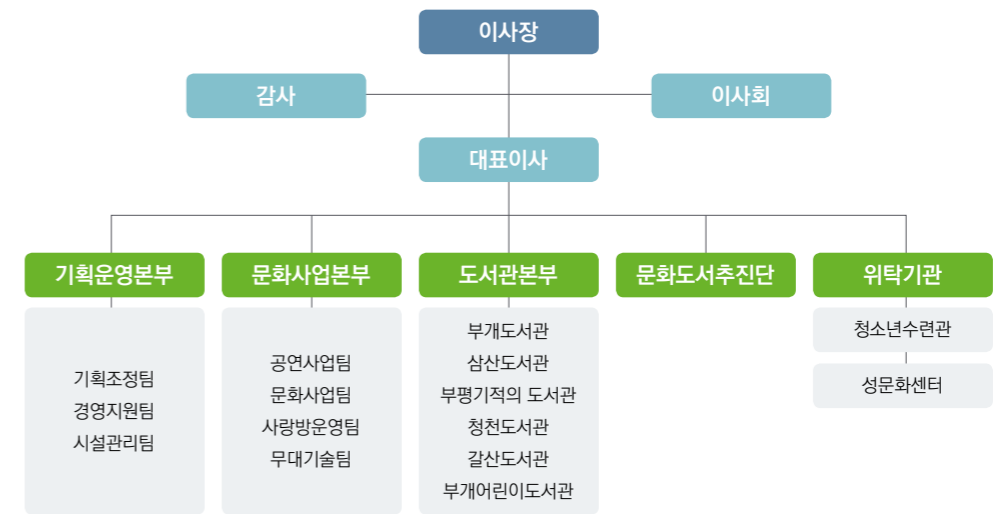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 규정현황, 부평 지역을 기록하다』, 2020, 21쪽.

## 2) 부평구문화재단

부평구는 부평구 주민들의 문화복지 증진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콘텐츠 개발과 제공의 전담 기관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평구 문화재단은 2006년 12월 부평구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문화재단은 관내의 부평아트센터,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부평청소년수련관, 문화사랑방, 구립도서관(6개), 청소년문화센터, 구립예술단 등의 위탁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다. 문화재단은 다양한 생활밀착형 문화콘텐츠를 부평 주민들에게 손쉽게 친근하게 전달하는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문화재단은 재단본부 직원 104명, 위탁기관에 18명, 총 124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14 부평구문화재단 조직도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 규정현황, 부평 지역을 기록하다』, 2020, 22쪽.

## 4. 복지시설

### 1)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이 심신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가족과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 이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경영하는 시설을 통칭한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 의해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6가지로 구분된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교양,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등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데, 관내에는 부평구노인복지관, 산곡노인문화센터, 노인대학 등 총 9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가리키는데, 주로 요양원과 실버타운, 노인전문의

료기관 등이 여기에 속한다. 부평구에는 의료법인 등이 운영하는 의료복지시설이 5개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53개소가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편의시설, 안전관리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을 가리키는데 부평구 관내에는 현재 동성양로원 1개소뿐이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라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가리킨다. 부평구 관내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요양원과 노인복지센터,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등 모두 15개소에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부평구 관내의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2 부평구 노인복지시설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개소)

구분	개소	운영 주체		
		행정기관	법인	개인
노인여가복지시설	9	1	1	7
노인의료복지시설	58	-	5	53
노인주거복지시설	1	-	-	1
재가노인복지시설	15	-	-	15
합 계	83	1	6	76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부평구 노인복지시설 현황」, 2020.

그 밖에 부평구는 치매안심센터와 부평 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의 건립, 한방 주치의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직접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 주치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부평구의 고령화 현상은 급속히 진행 중이다. 2019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3.5%로 최근 10년간 5% 이상 증가했다. 부평구의 인구 동향은 타 군·구에 비해 저출산과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며 이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현재 부평구의 노인복지시설은 의료법인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정부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부평구 등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양질의 노인복지시설을 신설, 증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2) 아동복지시설

최근 들어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보호조치를 받아야 할 아동, 보호자의 질병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교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아동양육시설과 아동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쉼터 포함) 등이 운영되고 있다.

부평구에는 모두 5곳의 아동복지시설이 있다. 총 수용 정원은 234명이다.

표 53 부평구 아동복지시설 현황

(2019.12.기준)

구분	시설명	관할동
아동양육시설	해피홈보육원	부평2동
	파인트리홈	일신동
	신명보육원	부평3동
아동공동생활가정	엘피스	부개2동
	시정의 집	산곡1동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부평구는 부모와 영유아에게 편안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복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부평구는 도담도담 장난감 도서관을 늘려나가고 있다. 도담도담 장난감 도서관은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과 도서, 영상자료 등을 무료로 대여하여 주민들이 즐겨 찾는 생활복지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부개점, 부평구청역점에 이어서 2020년에는 십정동 열우물경기장점이 문을 열었다.

그 밖에 인천광역시는 유아 돌봄 공간인 ‘아이사랑꿈터’를 남동구, 서구, 미추홀구에

서 운영 중인데 부평구에도 ‘아이사랑꿈터’와 같은 유아 돌봄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와 민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인천시와 부평구는 부평6동 옛 경찰학교 터에 공공산후조리원과 육아지원시설, 영유아 숲체험터 등을 두루 갖춘 ‘혁신육아복합센터’를 건립 중이다.

부평구는 공공보육 활성화를 통한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부평구에는 18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2020년 십정2동과 부개2동에 어린이집이 신규 개원하여 20개로 늘었다. 국공립 외에 사회복지법인, 직장, 개인 등의 어린이집을 망라하면 2020년 기준 총 420여 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도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인 초등학교생들의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부평구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30여 개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인천시와 부평구는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과 생활 관리 등 청소년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에는 인천시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10개의 기관에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이 그중 하나이다.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의 인성 및 창의성 계발을 위한 전문 체험 활동, 학습지원 활동, 자기계발 활동, 생활지원과 특별지원 과정으로 구성해 종합적인 방과 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3) 기타

그 밖에 부평구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줄이고 이들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평구는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장의 안정과 활성화를 지원하여 저소득 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부평구는 공공복지 자원의 한계를 넓히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복지 행

정을 추구하고 있다. 민간후원금 모집을 통해 여성 의료비 지원, 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김치, 쌀, 생필품 등 물품의 기부와 증정을 일상화하고 ‘후원자의 날’을 정해 부평 주민 간에 배려와 감사, 나눔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 참고문헌

### 자료

- 경인지방통계청, 「인천시 청년통계」, 2018.  
 보건복지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보고서」, 2020.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8 부평구 기본통계」, 2019.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규정백서」, 2019.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 규정현황 부평 지역을 기록하다」, 2020.  
 인천광역시, 「2018 인천통계연보」, 2019.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2020.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사회통합지원과,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020.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타현황」, 2017.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각 해당 연도.

### 웹사이트

-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  
 인천광역시 부평구청(<https://www.icbp.go.kr/>)  
 인천광역시 부평홍보관(<https://www.icbp.go.kr/publicity/>)  
 통계청(<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 자료제공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 제 2 장 ————— 정치와 지방자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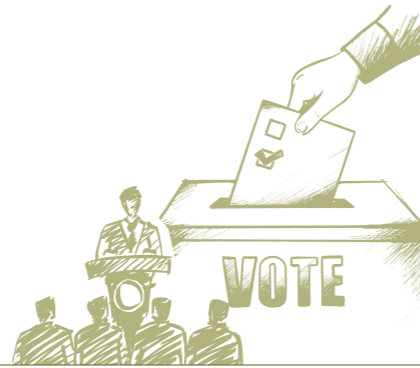
제1절 \_ 부평의 정치 환경과 성향

제2절 \_ 선거와 투표

제3절 \_ 부평구의회와 자치



# 제2장 정치와 지방자치



오 일 환(ARGO인문사회연구소 대표연구위원)

## | 제1절 | 부평의 정치 환경과 성향

### 1. 정치 환경의 변화

1990년대 이전까지 부평 지역은 공단 지역과 주변 지역의 다수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과 5·3인천항쟁에서 1987년의 6월항쟁과 노동자 대투쟁기를 거치면서 공장과 직장의 민주노조운동을 넘어서 대중적 정치활동과 성숙한 시민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화 발전을 견인하였다.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체제가 안정되고 선거와 투표를 통한 정권 교체와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 IMF 사태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의 영향이 인천과 부평 지역의 정치 환경과 지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우선 IMF 사태 이후 인천과 부평 지역의 공단과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중앙의 주요 정당과 소수 진보정당들이 이합집산을 하고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 정치활동에 나선 지역 정치인들이 주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에 반응하면서 인천

과 부평 지역의 정치 지형은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특히 단체장 직선과 시의원, 구의원 선거를 통해 배출된 지역 정치인들이 점차 주요 정당 및 중소 진보정당들과 연대함으로써 인천과 부평의 지역적 특성보다는 중앙 정치의 구도와 정치적 이슈, 정당 선호 성향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 2001년 당시 대우자동차 총파업 가두시위 모습(출처 : 부평구청)

이런 의미에서 각 지역에서 주요 정당의 지구당 운영과 국회의원 선거가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지역의 정치인들이 선거 직전 정치 구도와 판세 유불리에 따라 정당을 옮겨 당적을 바꾸고 다른 지역 출신 정치인을 지역 선거에 출마시키며 심지어 당선 후 다시 당적을 바꾸는 경우가 허다했다.

부평 지역 역시 이러한 현상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1995년 이래 부평 갑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의 조진형 의원이 10년 이상 지구당 위원장을 맡았으나 2002년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이적한 박상규 의원에게 위원장을 넘겨주었다. 박상규 의원은 2010년 민주당에 복당하였다. 이때 홍영표 의원이 열린우리당 지구당 위원장을 넘겨받은 후 2009년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입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

부평 갑 지역은 조진형 의원과 민주당계의 문병호 의원이 두 차례씩 번갈아가며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는데,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정유섭 의원이 당선되고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성만 의원이 당선되었다.

부평 을 지역의 경우 신한국당은 이재명, 정화영 위원장을 거쳐 2004년 강영택 위원장이 지구당을 맡았다. 새천년민주당의 경우는 초대 민선 구청장을 거쳐 16,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최용규 의원이 오랫동안 지역구를 지켜왔다.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구분철 의원이 당선되었으나 다음 해인 2009년의 재보궐 선서를 통해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이 국회에 진입한 이래 2020년 제21대 총선까지 연속 4선에 성공하였다.

전반적으로 부평 갑 지역은 2019년까지 보수당계와 민주당계 국회의원을 번갈아 가며 선택하였고, 부평 을 지역은 대체로 민주당계가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2009년 이후 홍영표 의원을 내리 선택하였다. 2020년 부평 갑에서 이성만 의원이 당선됨으로써 부평 지역은 민주당계가 확고한 지역임을 분명히 하였다.

## 2. 정치 성향

인천 지역의 정치 지형은 크게 두 부류로 대비된다. 하나는 서해5도 지역과 북한 접경 지역의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보수당계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른 하나는 부평, 계양, 서구 등이 인천에 편입되면서 공업단지와 도시 및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 주거지역의 신규 입주 주민들을 중심으로 민주당계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특히 부평 지역은 북구 분구 이전 시기부터 민주당계 정당을 선호하는 성향이 분명했다. 과거 인천 지역은 보수당계 정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우세했지만, 2000년대 이후 중앙의 정치가 안정되고 지방선거에 의한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면서 민주당계 지지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보수당계 정당을 선호하는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산업공단이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와 가족들, 그리고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새로 유입된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2016년 이후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2017년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2018년의 제7회 지방선거, 2020년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를 보더라도 확연히 구분된다.

2016년의 제20대 국회의원 총 득표율은 새누리당이 35.25%를 득표하여 4석을 확보한 데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34.86%를 득표하여 7석이나 확보하며 승리했다. 특히 인천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새누리당의 득표율이 높았지만 유독 부평구와 남동구, 계양구, 서구에서만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것을 보면 이들 지역의 특성을 짐작케 한다.

이하 선거 관련 통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회 홈페이지 및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회차별 『전국동시지방선거 총람』 등에 근거하였다.

표 1 인천광역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2016)

(단위 : 석·%)

구분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인천광역시 획득 의석수	7	4	0
인천광역시 총 득표율	34.86	35.2	18.61
부평구	35.3	32.73	29.53
남동구	53.1	37.61	7.14
계양구	43.38	33.	22.81
서구	41.71	41.45	15.49
미추홀구	16.75	26.76	20.99
연수구	38.81	42.32	18.86
중구	후보 없음	29.54	19.66
동구	후보 없음	32.16	14.83
강화군	후보 없음	26.1	9.5
옹진군	후보 없음	43.59	11.74

2017년의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강화군, 옹진군, 서해5도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39.32%를 득표하여 앞섰지만, 부평구·계양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42.94%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중구·동구·미추홀구 등 원인천권 지역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앞섰다.

표 2 인천광역시 제19대 대통령 선거 결과(2017)

구 분	(단위 :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부평권 (부평구, 계양구)	42.94	18.9	23.9
원인천권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41.08	20.94	23.64
도서권 (강화, 옹진, 서해5도)	27.66	39.32	21.75

2018년의 인천광역시장 선거 역시 강화군과 옹진군에서만 자유한국당의 유정복 후보가 1위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후보가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표 3 인천광역시 제7회 지방선거-인천광역시장 선거 결과(2018)

구 분	(단위 :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자유한국당 유정복
인천광역시 총 득표율	57.66	35.44
부평구	59.03	32.15

2020년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 사태 와중에서 치러진 선거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둬으로써 인천 지역의 정치 지형에 커다란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다. 인천 지역의 13개 지역구에서 중구·강화군·옹진군, 그리고 동구·미추홀구 을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또는 출신 후보자 2명만 당선되는 데 그친 반면 나머지 11개 지역구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되었다. 득표율에서도 미래통합당의 2명은 겨우

40%와 50%를 넘긴 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부평구에서 56%대, 계양구 갑, 서구 을에서 60%대를 넘기는 압도적 우세를 보였다.

표 4 인천광역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2020)

구 분	당선후보	정당	(단위 : %)
			득표율
부평구 갑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56.69
부평구 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56.13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미래통합당	52.28
동구·미추홀구 갑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48.78
동구·미추홀구 을	윤상현	무소속	40.59
연수구 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56.88
연수구 을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41.79
남동구 갑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54.39
남동구 을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54.58
계양구 갑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60.49
계양구 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58.67
서구 갑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53.24
서구 을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61.64

이처럼 최근 들어 인천 지역의 정치 지형은 민주당계로 확실히 굳어지고 있는데, 부평구의 정치적 지향과 투표 성향이 이러한 인천의 정치 지형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 대통령 선거

1) 제14대 대통령 선거(1992. 12. 18.)

1992년 12월 8일 실시된 제14대 대통령 선거 결과, 유효 투표수의 42.0%를 얻은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가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33.8%)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제14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부평 지역은 아직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리되기 이전으로, 인천광역시 북구에 속해 있었으며, 선거구는 부평 갑과 부평 을로 구분되어 있었다. 선거 결과, 북구 전체적으로는 야당인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자인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보다 많은 득표를 기록하였다. 부평동을 포함하는 북구 갑에서는 두 후보 간 표차가 거의 없었지만, 계양구와 산곡1·2동, 청천1·2동을 포함하는 북구 을에서 김대중 후보가 약 6,000표 가량 앞섰다. 부평구의 강한 야당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표 5 제14대 대통령 선거 결과(인천과 부평의 득표 현황)

(단위: 명표%)

지역	선거인수	투표율	민자당	민주당	통일국민당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전국	29,422,658	81.9	9,977,646	8,041,690	3,880,167
인천	1,346,964	80.3	397,361	338,538	287,505
북구갑	223,425	79.4	62,056	62,188	34,893
북구을	245,463	79.0	64,329	70,436	38,744

❖ 비고: 중소 정당 후보자의 득표 자료를 포함하지 않았음

2) 제15대 대통령 선거(1997. 12. 18.)

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제15대 대통령 선거 결과, 유효 투표수의 40.3%를 얻은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38.7%)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 제15대 대통령선거 개표 모습 (출처: 부평구청)

전국과 인천 지역의 투표 결과가 근소한 차이였던 것에 비해 부평구의 투표 결과는 김대중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평 갑(부평, 부개, 일신, 십정동) 선거구에서는 약 1만 3,000표의 차이를 보였다.

표 6 제15대 대통령 선거 결과: 인천과 부평의 득표 현황

(단위: 명표%)

지역	선거인수	투표율	한나라당	국민회의	국민신당	국민승리21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권영길
전국	32,290,416	80.6	9,935,718	10,326,275	4,925,591	306,026
인천	1,639,655	79.99	470,560	497,839	297,739	20,340
부평 갑	187,250	79.06	49,585	62,496	30,809	2,257
부평 을	149,955	80.92	43,394	49,372	24,227	2,210

3) 제16대 대통령 선거(2002. 12. 19.)

200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6대 대통령 선거 결과, 유효 투표수의 48.9%를 얻은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46.6%)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 선거에서 인천과 부평구는 노무현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부평구의 총 21개 투표구에서 이회창 후보가 노무현 후보를 앞선 곳은 3곳(부평1동, 산곡3동, 산곡4동)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투표구에서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앞섰다.

표 7 제16대 대통령 선거 결과 : 인천과 부평의 득표 현황

지역	선거인수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사회당	투표율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김영규	
전국	34,991,529	11,443,297	12,014,277	957,148	22,063	70.83
인천	1,824,905	547,205	611,766	61,655	1,612	67.75
부평	395,723	113,642	138,947	13,418	330	68.0

4) 제17대 대통령 선거(2007. 12. 19.)

2007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 결과, 유효 투표수의 48.67%를 얻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26.14%), 무소속 이회창 후보(15.07%)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때의 선거는 김대중 정부 이래 지속된 10년의 평가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이 제1야당인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기대로 모아진 결과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때 5%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대패하였다. 열린우리당에서 이탈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합민주신당이 결성되었지만, 고건 전 총리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낙마한 이래 적절 한 대통령 후보를 찾지 못한 여당은 경선을 통해 정동영 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은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집중되었다. 두 번의 대선에서 실패한 이회창 후보와 선거 여왕으로 불리는 박근혜 후보, 서울시장으로서의 치적과 경제살리기를 내세운 이명박 후보의 경선 끝에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다.

한나라당을 탈당한 이회창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야당 후보의 표를 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는 압도적 표 차로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때 이명박 후보는 인구가 집중된 서울과 수도권에서 정동영 후보를 두 배 이상 앞질렀다.

인천 지역과 부평구 역시 전국의 투표율과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이명박 후보에게 높은 지지를 보였다. 인천 지역은 이명박 후보에게 전국 투표율보다 높은 49.22%의 지지를 보냈고, 부평 구민은 그보다 약간 낮은 47.51%의 지지를 보냈다. 산곡3동과

산곡4동은 정동영 후보에 비해 이명박 후보에게 3배 가까운 압도적 지지를 보냈고, 가장 적은 편차를 보인 청천1동과 삼산1동조차 정동영 후보에 비해 이명박 후보에게 1.5배 가량의 지지를 보냈다.

표 8 제17대 대통령 선거 결과 : 인천과 부평의 득표 현황

(단위 : 명표 %)

지역	선거인수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	무소속	투표율
		이명박 득표수(득표율)	정동영 득표수(득표율)	이회창 득표수(득표율)	
전국	37,653,518	11,492,389 (48.67)	6,174,681 (26.14)	3,559,963 (15.07)	62.9
인천	2,005,874	593,283 (49.22)	286,565 (23.77)	183,057 (15.18)	60.3
부평	430,072	122,367 (47.51)	65,803 (25.55)	38,072 (14.78)	60.1

5) 제18대 대통령 선거(2012. 12. 19.)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 결과, 유효 투표수의 51.55%를 얻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48.02%)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87년의 개헌 이래 실시된 대선에서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넘는 득표율로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선거였다.

2012년은 4월의 제19대 총선과 12월의 제18대 대선이 동시에 실시된 해였다. 총선 전까지만 해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우세하여 총선과 대선에서 야당의 승리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쇄신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당내 계파 갈등과 리더십 결여, 공천 파문, 통합진보당과의 선거 연대 과정에서 발생한 파열음,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 등이 겹치면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데 실패하였다.

하반기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박근혜 후보를 중심으로 새누리당은 이명박(MB)정부와의 차별화 전략과 민생 중심의 정책 내세워 비교적 단결한 데 비해, 민주당은 내부 분열과 효과적인 선거 전략의 부재,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표심을 잡는 데 실패하였다.

제18대 대선은 기존 정당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안철수 현상'으로 이어졌지만 야권 후보단일화 실패가 박근혜 후보의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했고,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에 대한 실망과 신뢰 부족이 표출되고, 지역 갈등은 완화된 반면 세대 간의 균열이 심화되었다는 데 큰 특징이 있다.

선거 결과 서울과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질렀다. 한편, 서울과 달리 인천 지역에서는 당초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경합인 가운데 문재인 후보의 상승이 예상되었으나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박근혜 후보가 51.6%를 득표하여 48.0%에 그친 문재인 후보를 약간 앞섰다. 이는 인천 지역 중 부평구와 계양구에서만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나머지 지역에서 대부분 박근혜 후보가 앞서기 때문이다.

부평구에서는 산곡1동, 산곡3동, 산곡4동, 청천1동, 십정1동, 십정2동, 부개1동, 부평3동에서만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섰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약간 이겼다. 특히 삼산2동, 삼산1동, 부개3동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1.2배가량 앞섰다.

### 6) 제19대 대통령 선거(2017. 5. 9.)

2016년 하반기에 불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문을 계기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광화문광장에서 매주 열리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촛불집회가 확산되자, 12월 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이로써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책임론이 대두하고 탄핵안 가결을 둘러싸고 일부 의원이 탈당하여 분열함에 따라 보수 진영의 몰락이 예상되었다. 한때 보수 진영의 유력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물망에 올랐지만 논란 끝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혀졌다.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등 중도 및 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단일화를 모색했지만 사퇴 의사를 밝히는 후보가 없어 결국 무산되었다. 따라서 본격적인 선거전은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의 5자 대결 구도로 진행되었다.

2017년 5월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총 유효투표수의 41.09%인 1,342만 3,800표를 득표해, 2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24.04%)와 3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21.42%) 등을 제치고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6.76%,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6.17%를 각각 득표하였고, 그 밖에 8명 군소 후보의 득표 합계는 0.52%에 그쳤다.

인천 지역의 표심은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에 가까운 결과를 보였다. 인천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는 41.20%를 득표하여 홍준표와 안철수 후보를 이겼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약간 앞선 것에 비해, 인천 지역에서는 반대로 안철수 후보가 23.65%를 득표하여 20.91%를 득표한 홍준표 후보를 이겼다.

부평구에서는 총득표수에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했지만, 부평 구민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모두에게 전국 평균과 인천 지역의 득표에 못 미치는 표를 주었다.

부평구에서 문재인 후보는 전국 평균의 41.09%에 못 미치는 32.24%에 불과했고,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 역시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득표를 하였다. 다만, 인천 지역과 마찬가지로 부평 구민은 홍준표 후보에 비해 안철수 후보를 더 지지하였다.

표 9 제18대 대통령 선거 결과 : 인천과 부평의 득표 현황

(단위 : 명표%)

민주통합당	선거인수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투표율
		박근혜 득표수(득표율)	문재인 득표수(득표율)	
전국	40,507,842	15,773,128 (51.55)	14,692,632 (48.02)	75.8
인천	2,241,366	852,600 (51.58)	794,213 (48.04)	73.9
부평	445,709	159,386 (35.76)	168,820 (37.87)	74.1

표 10 제19대 대통령 선거 결과 : 인천과 부평의 득표 현황

(단위: 명표%)

지역	선거인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투표율	
		문재인 득표수(득표율)	홍준표 득표수(득표율)	안철수 득표수(득표율)	유승민 득표수(득표율)		
전국	42,479,710	13,423,800 (41.09)	7,852,849 (24.04)	6,998,342 (21.42)	2,208,771 (6.76)	2,017,458 (6.17)	77.2
인천	2,409,031	747,090 (41.20)	379,191 (20.91)	428,888 (23.65)	118,691 (6.54)	129,925 (7.16)	75.5
부평	455,450	146,859 (32.24)	66,560 (14.61)	82,590 (18.13)	21,769 (4.77)	24,630 (5.40)	75.8



❖ 제19대 대통령 선거 벽보(출처: 부평구청)

## 2. 국회의원 선거

### 1) 제15대 국회의원 선거(1996. 4. 11.)

1996년 4월 11일에 치러진 제15대 총선은 이رن바 문민정부의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가졌다. 이 선거에서 여당인 신한국당은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121석을 얻어, 66석을 얻은 새정치국민회의와 41석의 자민련을 크게 앞질렀다. 의회 개원 직후 여당은 야당의 의원을 영입하여 과반수 의석을 달성하였다.

과거 전통적인 여촌야도(與村野都)의 경향에도 변화가 생겼다. 인천 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11개 지역구 선거 가운데 여당인 신한국당이 9개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부평 갑과 을 두 선거구에서도 여당인 신한국당의 후보가 새정치국민회의의 후보를 여유 있는 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되었다.

표 11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 후보별 득표수

(단위: 명%표)

지역	선거인수	투표율	신한국당	국민회의	민주당	자민련	국민연합	무소속
부평 갑	181,281	56.49	조진형	송선근	정정훈	진영광	이수일	이희구
			32,355	29,262	13,450	16,121	1,269	8,213
부평 을	150,222	61.01	이재명	신용석	정화영	김유동	-	김유
			39,824	31,266	8,729	8,851	-	1,587

### 2) 제16대 국회의원 선거(2000. 4. 13.)

2000년 4월 13일에 실시된 제16대 총선은 김대중 대통령의 이رن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보였다. 선거 결과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전국 227개 지역구 가운데 96석을 얻어 112석을 얻은 한나라당에 비해 열세를 기록하였다. 여당의 패배인 선거였다.

그러나 인천에서는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이 6개 지역구에서 승리하여 5개에 그친 야당을 앞질렀다. 부평구의 경우도 제15대 선거와 대조적으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의 박상규 후보와 최용규 후보가 각각 한나라당의 조진형, 정화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표 12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 후보별 득표수

(단위: 명%표)

지역	선거인수	투표율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주국민당	청년진보당	무소속
부평 갑	198,007	51.5	조진형	박상규	이용기	조창용	-	-
			42,951	49,065	7,915	3,128	-	-
부평 을	164,106	50.8	정화영	최용규	김유동	-	백인성	안영석
			30,825	39,963	5,755	-	3,664	4,231

3) 제17대 국회의원 선거(2004. 4. 15.)

2004년 4월 15일 실시된 제17대 총선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여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선거였다. 탄핵의 역풍이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전국 243개 지역구 가운데 129곳에서 승리하고, 한나라당은 100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전국구 의석을 포함하여 152석을 얻은 여당은 1988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을 면하게 되었다. 또한 수도권 의 109개 의석 가운데 76개를 차지함으로써 70% 가까운 승률을 기록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공이었다.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장(인천광역시북부학생체육관)(출처: 부평구청)

표 13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 후보별 득표수

(단위: 명%표)

지역	선거인수	투표율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녹색사민당	민주노동당
부평 갑	212,986	56.5	조진형	이수영	문병호	김곤	한상욱
			47,227	7,568	48,617	493	15,289
부평 을	185,347	59.9	강영택	조만진	최용규	석금석	이용규
			35,668	7,416	53,823	519	12,779

❖ 비고: 산곡3동과 부개3동이 각각 부평갑과 부평을 선거구로 교체 편입됨

이상 제15대부터 17대까지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부평 지역에서 총 6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는데, 부평구는 2000년 이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구 의원 역시 열린우리당 소속이었다. 이는 수도권 지역에서 인천과 부평 지역이 과거의 야당, 즉 2000년대의 진보 진영 여당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제18대 국회의원 선거(2008. 4. 15.)

2008년 4월 9일 실시된 제18대 총선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젊은 세대의 선거 무관심 속에 정규 총선거뿐 아니라 대선과 지방선거를 포함한 역대 전국 동시 선거 가운데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표 14 제17·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구분	(단위: %)		
	전국 투표율	서울	인천
제18대 선거	46.1	45.8	42.5
제17대 선거	60.6	62.2	57.4

선거 결과는 보수 여당이 압승을 거두고 진보 정당의 중도·우파 계열 중진들이 약진하는 반면, 통합민주당 내 진보·개혁 중진들이 대거 낙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153석을 차지하면서 선거 전의 112석에서 무려 41석이나 늘어난 제1당이 되었다. 그리고 자유선진당이 18석, 친박연대가 14석, 친박 무소속 연대가 12석을 차지하여 보수 정당들이 원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에 반해, 통합민주당은 선거 전보다 무려 55석이나 줄어든 81석을 차지하며 참패하였다. 손학규, 정동영, 김근태 등 통합민주당의 지도부 주요 인사들이 다수 낙선하였다. 그나마 통합민주당은 충청권에서 약진하고, 영남권에서 2석을 차지하고, 제주도를 모두 석권한 것이 큰 위안이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선거인 201만 8,699명 중 85만 8,234명이 투표를 하여 42.51%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국의 16개 주요 시도 중에서 광주(42.4%)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이었다. 총 12개의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이 9석, 통합민주당이 2석, 무소속 1석(이경재)을 차지함으로써 보수 여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부평 갑에서는 한나라당 조진형 후보가, 부평 을에서는 한나라당 구본철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조진형 후보는 33.96%를 득표한 민주당의 문병호 후보보다 1만 3,552표를 더 득표하여 49.14%로 당선되었다. 이에 비해, 구본철 후보는 민주당의 홍영표 후보와 4,719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이는 부평 을 지역 유권자수(21만 1,636명)의 2.2%에 불과한 근소한 차이였다.

표 15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 후보별 득표수

지역	선거인수	투표율	(단위: 명%표)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평화통일 가정당	무소속
부평 갑	219,533	41.00	문병호	조진형	권순덕	한상욱	장영희	-
			30,322	43,884	4,714	8,637	1,740	-
부평 을	211,636	42.12	홍영표	구본철	조용균	-	홍대희	진영광
			33,707	38,436	8,982	-	1,314	5,903

5) 2009년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2009. 4. 29.)

부평 을의 한나라당 소속 구본철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2009년 4월 29일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구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2009년 1월 15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의원직 상실’ 형이 확정되었다. 구본철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제18대 수도권 의원 가운데 최초의 사례였다.

이에 민주당의 홍미영 전 의원과 홍영표 부평 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의 박현수 변호사와 진영광 전 한나라당 부평 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예비후보 경선에 나선 결과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홍영표 후보와 한나라당의 이재훈 후보 간의 대결로 관심이 모아졌다.

4·29 재보궐선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25%)과 한나라당의 지지율(23%)이 급락하는 반면,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야당들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실시되었다. 특히 총 16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5곳인데, 이 가운데 수도권은 부평 을이 유일했기 때문에 여야 정당과 국민들의 관심은 부평 을에 집중되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국을 가늠할 수 있는 수도권 지역의 민심을 보여주는 최대 승부처였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 민주당 홍영표 후보가 3만 667표(49.54%)를 얻어 2만 4,199표(39.1%)를 득표한 한나라당 이재훈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었다. 무소속 천명수 후보는 3,568표(5.8%), 민주노동당 김응호 후보는 3,468표(5.6%)를 각각 득표하였다. 부평 을의 유권자

21만 3,761명 가운데 6만 2,120명이 투표에 참여해 29.1%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비록 낮은 투표율의 재보궐선거였지만, 부평 을 지역의 주민들은 이전 총선과 재보궐선거를 통해 전국적인 민심을 대변하는 투표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 6)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집권 마지막 해를 맞이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최종 평가이자 8개월 후에 실시될 예정인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지닌 중요한 선거였다.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산곡고등학교)(출처 : 부평구청)

한나라당은 2011년 10·26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하여 홍준표 대표가 사퇴하고 박근혜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었다. 박근혜 위원장은 서울 강남 지역 현역 의원과 ‘친이계’ 의원을 공천에서 다수 물갈이하며 총선을 이끌었다.

민주통합당은 한명숙 전 총리를 당 대표로 선출하여 여성 의원을 다수 공천하고, 통합진보당과 총선에서 지역별로 연대하기로 하였다.

제18대 대선의 전초전 성격 때문에 투표율은 지난 총선보다 높아졌다.

표 16 제18·19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구분	(단위 : %)		
	전국 투표율	서울	인천
제19대 선거	54.2	55.5	51.4
제18대 선거	46.1	45.8	42.5

선거 결과 새누리당은 152석을 차지해 이전보다 13석 줄었고, 민주통합당은 127석을 차지해 이전보다 무려 46석이 늘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영남과 강원도 등에서 압승하고 전략 지역에서 승리함으로써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선방한 셈이었고, 민주통합당은 의석수는 늘었지만 수도권 열세 지역에서 완패하고 부산·경남·울산에서도 일부 의석을 획득했을 뿐 예상만큼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함으로써 내용 면에서 패배한 결과였다.

인천광역시는 선거인 220만 7,341명 중 113만 4,365명이 투표를 하여 51.39%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총 12개의 선거구에서 새누리당이 6석, 민주통합당이 6석을 각각 차지하여 균형을 이루었다. 이전의 제18대 총선과 2009년 재보궐선거 결과와 비교하면, 새누리당은 9석(재보궐선거 이후 8석)에서 6석으로 줄어든 셈이고, 민주통합당은 2석(재보궐선거 이후 3석)에서 6석으로 두 배 늘어난 셈이다. 사실상 인천 지역에서는 민주통합당이 크게 약진한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부평 갑에서는 제17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주통합당의 문병호 후보가 5만 4,889표(50.53%)를 얻어 새누리당의 정유섭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었다. 부평 을에서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홍영표 의원이 6만 3,099표(55.24%)를 얻어 새누리당의 김연광 후보를 크게 앞지르며 재선에 성공하였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1당을 유지하는 시기에 인천 지역과 부평 구민은 제18대 총선을 통해 야당인 민주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특히 부평 구민은 두 명의 국회의원을 모두 민주통합당으로 선택함으로써 야당 선호 성향을 분명히 하였다.

표 17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 후보별 득표수

지역	선거인수	투표율	(단위: 명·% 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정통민주당	무소속
부평 갑	224,469	48.76	정유섭 48,594	문병호 54,889	이수일 4,714	김종구 825	임낙윤 2,888
부평 을	219,271	52.49	김연광 47,071	홍영표 63,099	이근호 4,066	-	-

7)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 4.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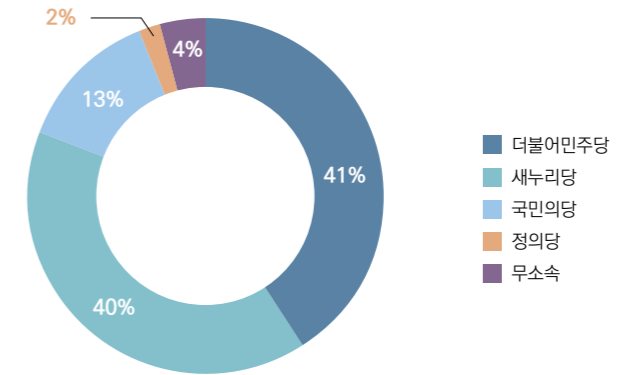
2017년 대통령 선거를 한 해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임기 4년 차에 실시된 선거라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종합 평가이자 차기 대선의 주도권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였다. 선거를 몇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당한 야권의 성적표도 관심사였다. 이는 곧 3당 체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야권이 분열되고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약진함에 따라 여당에 유리한 ‘여대야소’, ‘야권패배’의 전망이 우세한 지형이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선거 결과로 이어졌다.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으로 이른바 ‘3당 체제’가 등장한 것이다.

표 18 제20대 총선 정당별 의석수와 비율

구분	(단위: 석·%)	
	의석수	의석 비율
더불어민주당	123	41
새누리당	122	40
국민의당	38	13
정의당	6	2
무소속	11	4

그림 1 제20대 총선 정당별 의석 비율



당초 1여 3야의 구도 속에서 낙승을 예상했던 새누리당은 과반석 확보는 물론이고 123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제2당으로 전락하였으니 참패한 셈이다. 게다가 서울 지역에서 12석에 불과한 초라한 성적을 거두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의 49석 중 35석, 경기 60석 중 40석, 인천 13석 중 7석을 석권하면서 제1당으로 올라섰다. 반면 전통적 강세 지역이었던 호남권에서 28석 중 3석을 제외한 25석을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에게 빼앗겼다. 국민의당은 호남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앞섰고 비례대표에서도 2위를 기록하며 약진했지만, 수도권에서는 부진했다.

인천광역시 선거인 237만 9,666명 중 130만 6,595명이 투표를 하여 55.57%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총 13개의 선거구에서 새누리당이 4석, 더불어민주당이 7석, 무소속이 2곳을 각각 차지하였다. 지난 총선에 비해 새누리당은 6석에서 2석이 줄었고, 더불어민주당은 1석이 늘었다. 무소속 2곳의 안상수, 윤상현 의원은 당선 후 새누리당(이후 자유한국당으로 개명)으로 복당하였다. 지난 총선보다 하나 더 늘어난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제19대 총선 결과가 그대로 유지된 셈이다.

제20대 총선에서 약진한 국민의당이 수도권 지역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어떤 성적을 낼지 기대를 모았던 지역 중 하나가 바로 부평구였다. 특히 부평 갑의 문병호 의원의 낙선은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다.

선거 결과 부평 갑의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가 4만 2,271표(34.22%)를 얻어 4만 2,245표(34.19%)를 획득한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을 26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후 재검표 소송을 통해 정유섭 후보가 4만 2,258표, 문병호 전 의원이 4만 2,235표를 획득함으로써 정유섭 의원이 최종적으로 23표 앞선 것으로 확정되었다. 정유섭 후보는 부평1동, 부평3동, 산곡3동, 십정1동, 십정2동에서 우세했고, 문병호 전 의원은 부평2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산곡4동, 일신동에서 우세를 보였다.

부평 을에서는 홍영표 의원이 새누리당의 강창규 후보를 제치고 3선에 성공하였다.

표 19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 후보별 득표수

(단위: 명·%·표)						
지역	선거인수	투표율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무소속
부평 갑	235,228	53.12	정유섭	이성만	문병호	조진형
			42,271	32,989	42,245	6,024
재검표 결과			42,258	-	42,235	-
부평 을	222,693	56.97	강창규	홍영표	이현웅	
			39,275	54,974	31,340	

### 8)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 4. 15)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하에 2019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제도를 바꾸었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기성 정당이 위성 비례 정당을 여러 개 만들고 급조된 비례정당이 난립함으로써 한국 헌정사상 미증유의 선거제도 혼란을 야기하였다.

제21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으로 배분하되,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17석은 기존 방식대로 각 당의 정당 득표율(병립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30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캡(cap) 방식을 적용하며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급조된 위성정당 등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여 길이가 48cm에

이르는 투표용지가 등장할 정도였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분당했던 바른미래당의 의원과 여타 보수진영 정치인과 단체 등을 통합한 미래통합당이 출범하고, 일찍이 여당이 주도한 선거제도의 맹점을 공박하며 주장했던 대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서 미래한국당을 탄생시켰다. 그런데 미래통합당과 위성정당을 비난하던 더불어민주당도 막상 선거가 임박하자 원내1당과 의석수를 지키는 명분을 내걸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을 파견하고 범여권의 시민단체와 군소 정당들이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출범하였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공천 경쟁에서 탈락한 정봉주 전 의원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한 손혜원 의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모여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을 창당하였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두 개가 된 셈인데, 선거 과정에서 표가 분산될 것을 우려한 열린우리당과 나머지 두 당은 서로를 비난하며 경쟁을 벌여야 했다.

부평 갑은 부평의 원도심을 품은 지역으로 진보와 보수가 역대 선거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격전지이다. 부평 갑 선거구에서 제15대 총선부터 제20대 총선까지 모두 6번의 총선에서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이 각각 3번씩 승리를 주고받은 가운데, 제21대 총선의 결과가 주목되었다.

부평 갑 지역은 제20대 총선에서 같은 당 출신이던 이성만 후보와 문병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하여 표가 분산됨으로써 새누리당의 정유섭 후보가 불과 23표 차이로 당선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어 제21대 총선에서는 문병호 후보가 출마하지 않는 대신, 현역 의원인 미래통합당의 정유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성만 후보가 맞대결하였다.

부평 을 선거구는 4선을 바라보는 홍영표 의원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래통합당의 강창규, 정의당 김응호 후보가 맞붙었다. 그 밖에 민중당 임동수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신지숙 후보가 출마했다.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이 정치 입지를 단단히 굳힌 가운데, 인천시의회 의원과 의장을 지낸 강창규 후보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도전하는 것이 관전 포인트였다. 인천의 대표적 진보정

치인으로 불리는 정의당의 김응호 후보와 강창규 후보는 한국GM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제21대 총선은 집권 여당에 대한 평가와 심판, 조국 사태, 선거 공약, 인물론 등 전통적인 정치 쟁점보다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적 위기의식이 더 큰 영향을 미친 초유의 선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와중에 실시된 사전 투표에서 무려 26.69%의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5.77%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35%대를 기록했다. 인천(24.73%), 경기(23.88%) 등 수도권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 결과, 부평 갑 선거구에서 이성만 후보가 7만 7,460표(56.68%)를 득표하여 5만 7,148표(41.82%)를 얻은 정유섭 의원을 제치고 당선되었다. 부평 을 선거구에서는 예상대로 홍영표 의원이 7만 4,264표(56.12%)를 득표하여 4만 7,789표(36.11%)를 얻은 강창규 의원을 제치고 당선되었다.

21대 총선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미래통합당의 참패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3석,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17석을 확보하여 총 180석을 차지하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과생한 또 하나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열린민주당은 3석을 얻었고,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1석, 비례대표에서 5석, 총 6석을 얻었다. 이로써 여권과 범진보 정당의 의석은 모두 189석에 달한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에서 84석,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19석을 확보하여 총 103석을 얻는 데 그쳤다. 그 밖에 공천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한 5명 중 4명이 미래통합당 출신인데, 이들을 모두 합쳐도 보수 진영은 107석에 불과하다. 이로써 제21대 국회는 여대야소(與大野小)의 정치 지형을 만들어 냈다.

이 같은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선전했다기보다는 미래통합당의 보수 정당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청산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가운데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 속에서 국민들이 국난 극복과 경제 회복 등의 목표에 더 큰 기대와 지지를 보낸 것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표 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 후보별 득표수

(단위:명%표)

지역	선거인수	투표율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국가혁명배당금당	정의당	민중당
부평 갑	232,384	59.6	이성만	정유섭	김소윤	-	-
			77,460	57,148	2,038	-	-
부평 을	204,936	65.3	홍영표	강창규	신지숙	김응호	임동수
			74,264	47,789	1,017	7,994	1,244

윤미향, 김홍걸 의원 등 17석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직후인 2020년 5월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였다. 선거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유지되다가 2020년 9월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 3. 인천시장 선거

1995년 6월 27일 제1회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제1대 인천시장 선거는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최기선 후보가 당선되었다, 최기선 시장은 제2회 지방선거에서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겨 재선에 성공하였다. 최기선 시장은 임명직 시장 기간 2년을 포함하여 약 9년간 인천시장으로 봉직하였다.

제3회 지방선거에는 한나라당의 안상수 후보가 당선되었다. 안상수 시장은 제4회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겨 다시 출마한 최기선 후보를 두 배 이상의 표 차이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의 송영길 후보가 55만 6,902표(52.69%)를 득표하여 한나라당의 안상수 시장을 8만 7,862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전의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보수 정당의 시장이 당선되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민주당의 송영길 후보가 승리를 거두었다.

2014년 6월 4일에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의 유정복 후보가 61만

5,077표(49.95%)를 득표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송영길 시장을 근소한 차이(2만 1,522 표)로 제치고 당선되었다. 이때 부평 구민은 유정복 후보보다 송영길 시장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 당선 뒤에 실시된 2018년 6월 13일의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후보가 유정복 시장을 압도적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박남춘 후보는 76만 6,186표(57.7%), 유정복 시장은 47만 937표(35.4%)를 득표하였다. 부평구 갑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문병호 후보가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하였다. 부평 구민은 유정복 시장보다 거의 2배 가까운 표를 박남춘 후보에게 몰아주었다.

이상 일곱 번의 지방선거에서 부평구는 제6회 지방선거를 제외하고 모두 인천시장에 당선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었다. 전체적으로 제4회 지방선거 때까지 인천 지역과 부평 구민은 보수 정당의 후보를 시장으로 지지하였는데, 제5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송영길 후보, 제7회 지방선거에서 박남춘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진보정당의 시장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부평 구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제5회 지방선거 이후 부평 구민은 연속해서 민주당계 소속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다.

표 21 역대 인천시장 선거 후보자별 득표 현황

선거별	지역 구분	후보자(정당)				
		최기선 (민주자유당)	신용석 (민주당)	강우혁 (자민련)		
1대 지방선거	인천 합계	383,965	298,544	258,175		
	부평구	74,167	64,164	49,566		
2대 지방선거	인천 합계	238,708	375,051	87,327		
	부평구	49,034	73,656	14,091		
3대 지방선거	인천 합계	393,932	225,201	29,473	35,234	17,404
	부평구	78,925	47,685	5,728	10,827	3,440

(단위: 표)

선거별	지역 구분	후보자(정당)			
		최기선 (열린우리당)	안상수 (한나라당)	신경철 (민주당)	김성진 (민주노동당)
4대 지방선거	인천 합계	200,650	526,932	44,339	78,898
	부평구	42,156	106,584	11,245	19,942
5대 지방선거	인천 합계	469,040	556,902	19,580	11,258
	부평구	88,370	121,650	4,190	2,258
6대 지방선거	인천 합계	615,077	593,555	22,651	
	부평구	108,912	121,970	4,670	
7대 지방선거	인천 합계	766,186	470,937	54,054	37,472
	부평구	140,735	76,655	13,830	7,186

#### 4. 인천시의회 의원 선거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인천시와 부평구는 야당인 민주당을 선택하였다. 시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선출 32명 가운데 민자당이 13명의 당선자를 낸 반면 민주당은 18개 선거구에서 승리하였다. 부평구의 4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모두 당선되었고, 이들의 득표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평구의 야당 지지 성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998년 6월 4일에 실시된 제2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 선거에서, 인천시는 26개 선거구 가운데 한나라 4명, 국민회의 20명, 자민련 1명, 무소속 1명이 당선되어 여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부평 구민들은 3년 전과 마찬가지로 4개의 선거구에서 모두 국민회의 후보를 선택하였다. 이전 선거에서 당선된 조창용, 김건겸 의원은 정당을 바꾸어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하였다. 이는 부평 구민이 인물보다 소속 정당을 중요시함을 시사한다.



❖ 1991년 북구 당시 인천직할시의회의 의원 선거 연설회



❖ 1995년 당시 인천광역시의회의 현판식 모습

2002년 6월 13일 월드컵 대회 기간 중 실시된 제3회 동시지방선거는 김대중 정부의 레임덕 현상과 민심 이반, 월드컵 열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지 않은 가운데 야당인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인천 지역에서는 웅진군을 제외한 24개 선거구에서 야당이 모두 당선되었다. 이때 부평 구민도 야당을 지지하여 4개 선거구에서 모두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되어 한나라당이 압승하였다. 인천 지역에서는 전 지역구에서 한나라당이 석권하였고, 열린우리당에서는 이명숙 의원 한 명만 비례대표로 의회에 진입하였다. 부평구의 지역구에서는 한나라당의 강문기(부평 1), 고진섭(부평 2), 강창규(부평 3), 최종귀(부평 4)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5회 동시 지방선거가 2010년 6월 2일 실시되었다. 인천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송영길 후보가 시장에 당선된 데 이어 시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약진하였다. 부평 지역에서는 산곡동 일대와 청천동을 제5선거구로 재편하였다. 부평3선거구에서 당선된 국민참여당의 강병수 시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네 곳의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다.

표 2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 선거 : 후보별 득표수

(단위: 표)

선거구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참여당	미래연합	평화민주당	무소속
부평 1	강문기 22,311	이성만 28,488				김승현 3,437
부평 2	유제홍 20,027	어재병 13,910		이동윤 2,629	강병인 1,274	
부평 3	강창규 14,270		강병수 17,280			
부평 4	최만용 15,053	차준택 26,130				
부평 5	강부일 15,343	류수용 21,409				

2014년 6월 4일 제6회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인천광역시의회의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인 23석을 획득하였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12석을 획득하였다.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에서 새누리당의 유제홍, 손철운 후보가 당선되고 나머지 세 곳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런데 2015년 제5선거구 장현근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여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최만용 후보가 당선되었다.

표 23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 선거 : 후보별 득표수

(단위: 표)

선거구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통합진보당	무소속
부평 1	정중원 25,906	신은호 28,129			
부평 2	유제홍 30,973	어재병 28,679			
부평 3	손철운 18,310		강병수 15,107		
부평 4	김병준 18,657	차준택 25,701		정부영 1,957	
부평 5	최만용 17,929	장현근 18,267			김상재 3,590

2018년 6월 13일의 제7회 지방선거는 탄핵과 대통령 선거에 이은 정권 교체 이후의 지방선거였기 때문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시의원 33석 중에 32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했다. 자유한국당 윤재상 후보가 인천에서 유일하게 시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부평구의 선거구는 삼산동과 부개동 일부를 제6선거구로 추가 재편하였다. 6개 선거구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신은호, 노태손, 이용선, 김병기, 임지훈, 박종혁이 당선되었다.

표 2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 선거 : 후보별 득표수

(단위: 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부평 1	신은호 23,217	이명규 8,788
부평 2	노태손 27,685	유제홍 17,000
부평 3	이용선 29,779	진달범 12,727
부평 4	김병기 29,271	최만용 13,249
부평 5	임지훈 24,242	손철운 10,235
부평 6	박종혁 29,028	최화자 11,001

## 5. 부평구청장 선거

1995년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시 시의원이었던 민주당의 최용규 후보가 초대 민선 부평구청장에 당선되었다. 부평 구민은 인천시장에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최기선 후보를 지지했지만 구청장에는 야당 후보인 최용규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 1995년 부평구청장 선거 합동연설회(출처: 부평구청)



❖ 선거 준비 작업(출처: 부평구청)



표 25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평구청장 입후보자와 득표수

(단위: 표)

기호	정당	이름	직업/경력	득표수	비고
1	민주자유당	서정식	정당인	55,727	
2	민주당	최용규	변호사	90,826	당선
3	자민련	하창수	정당인	23,308	
4	무소속	송청길	기타	10,656	
5	무소속	이도경	기타	10,915	

1998년의 제2회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인천시의 국장과 임명직 구청장을 지냈던 국민회의 박수묵 후보가 한나라당의 서정식 후보를 물리치고 부평구청장에 당선되었다. 이때 초대 민선 시장인 최기선 시장이 자민련으로 당적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부평 구민은 그의 인천시장 재선에 지지를 보였다.

표 26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입후보자와 득표수

(단위: 표)

기호	정당	이름	직업/경력	득표수	비고
1	한나라당	서정식	정당인	50,887	
2	국민회의	박수묵	공무원	62,933	당선
4	국민신당	이용기	정당인	22,989	

2002년 6월 실시된 제3회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에 반사 이익을 얻은 한나라당의 박윤배 후보가 현직의 박수묵 구청장을 2만 표 이상의 차이로 따돌리고 부평구청장에 당선되었다. 이때 부평 구민은 인천시장에 안상수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써 인천시장과 부평구청장 모두 한나라당에 지지를 보였다.

표 27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입후보자와 득표수

(단위: 표)

기호	정당	이름	직업/경력	득표수	비고
1	한나라당	박윤배	정당인	69,329	당선
2	민주당	박수묵	공무원	49,159	
3	민주노동당	한상욱	사회운동가	28,006	

2006년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노무현 정부 집권 후반기에 치러진 이 선거에서 현직 구청장인 박윤배 후보가 10만 표 이상을 득표하여 압도적인 표 차이로 열린우리당의 노재철 후보를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인천시장 선거의 경우 부평 구민은 현직인 한나라당의 안상수 후보에게 다시 지지를 보였다. 인천시장과 부평구청장 모두 한나라당 소속인 시기가 이어졌다.

표 28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입후보자와 득표수

(단위: 표)

기호	정당	이름	직업/경력	득표수	비고
1	열린우리당	노재철	정당인	29,481	
2	한나라당	박윤배	현 구청장	107,038	당선
3	민주당	곽영기		15,566	
4	민주노동당	한상욱	정당인	27,577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당초 한나라당의 낙승 전망을 뒤집고 야당인 민주당이 약진하였다. 인천시장에 처음으로 민주당의 송영길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10명의 구청장·군수에 민주당 후보가 6명이나 당선되었고 한나라당은 강화군수 1명에 그쳤다.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안내문 및 선거 공보 발송 작업(출처: 부평구청)

부평구청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홍미영 후보가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홍미영 후보는 11만 3,579표(52.66%)를 득표하여 8만 9,259표(41.38%)를 득표한 한나라당의 박윤배 구청장을 제치고 부평구 최초의 여성 구청장에 당선되었다. 홍미영 구청장은 인천 지역 10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유일한 여성 기초자치단체장이기도 하다.

표 29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입후보자와 득표수

(단위: 표)

기호	정당	이름	직업/경력	득표수	비고
1	민주당	홍미영	전 국회의원	113,579	당선
2	한나라당	박윤배	현 구청장	89,259	
3	무소속	김현상		12,843	

2014년 6월 4일에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유정복 후보가 송영길 시장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되었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역시 새누리당 소속 후보가 이전의 제5회 지방선거 때 1명이었던 것에서 6명으로 대거 약진하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은 3명으로 줄어들었다. 부평 구민은 낙선한 송영길 시장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냄과 동시에 현 구청장인 홍미영 구청장의 재선을 선택했다. 홍미영 구청장은 11만 5,057표(48.94%)를 득표하여 10만 9,002표(46.36%)를 득표한 새누리당의 박윤배 전 구청장을 6,000여 표 차로 이겼다. 박빙의 승부였지만 홍미영 구청장은 여성 최초의 재선 기초단체장 당선을 기록하였다.

표 30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입후보자와 득표수

(단위: 표)

기호	정당	이름	직업/경력	득표수	비고
1	새정치민주연합	홍미영	현 구청장	115,057	당선
2	새누리당	박윤배	전 구청장	109,002	
3	무소속	김현상		11,018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 당선 뒤에 실시된 2018년 6월 13일의 제7회 지방선거는 2014년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보다는 높은 60%대의 투표율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인천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10명 중 자유한국당은 1명에 그치고 9명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되었다.

홍미영 구청장이 인천시장 예비후보에 출마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차준택 전 인천시의원이 출마하였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박윤배 전 구청장이 세 번째 도전에 나선 것으로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다.

부평구의 선거인수는 44만 8,618명이며, 투표율은 53.91%로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 낮았다. 차준택 후보가 16만 5,642표(69.81%)를 득표하여, 7만 1,633표(30.19%)를 획득한 박윤배 전 구청장을 9만 4,009표의 압도적 차이로 제치고 당선되었다. 선거 초반부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과 차준택 후보의 젊고 깨끗한 이미지가 부각되며 낙승이 예상되었다.

부평에서 나고 자란 차준택 당선인은 최용규·송영길·홍영표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내며 정계에 입문했다.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부평구청장 선거 경선에 나섰지만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평구 개표소(출처: 부평구청)

고배를 마신 바 있다. 그 후 인천시 의원에 당선돼 제5대 및 제6대 시의원을 지냈다. 차준택 후보는 선거에 '5대 핵심과제, 6대 도시비전'을 골자로 하는 정책 공약인 '부평비전 2020'을 내걸었다. '부평 미래비전 2020위원회' 구성, 한국GM의 지속가능성 확보, 부평산업단지 준공업지역 전환 및 첨단산업 육성, '부평11번가' 사업 등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미군기지 및 3보급단 이전, 군용철로 폐선을 5대 핵심과제로 삼았다.

표 3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입후보자와 득표수

(단위: 표)

기호	정당	이름	직업/경력	득표수	비고
1	더불어민주당	차준택	전 시의원	165,642	당선
2	자유한국당	박윤배	전 구청장	71,633	

## 6. 구의원 선거

계양구가 분리되기 이전의 북구 시절인 1991년 최초의 구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비교적 많은 25개 선거구에서 총 45명의 구의원이 선출되었다. 당시에는 한 선거구 당 1~2명을 선출하는 중소 선거구 투표 방식이었다. 초대 구의원 당선자의 대부분은 사업가가 다수였고,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농축산업 종사자도 있었다.

1995년 3월 인천광역시 북구가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된 직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평구는 21개 선거구에서 37명의 2대 구의원을 선출하였다. 1대 북구의원에 당선된 의원 중 상당수는 출마하지 않았는데, 홍성언, 이복란, 황윤식, 최용남, 임성호, 김갑준, 이범성, 고진섭 의원은 재선에 성공하였다. 2대 구의원은 재선 의원과 건설업, 학원, 광고업 등의 사업가와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공무원 등이 다수이며 농축산 종사자는 보이지 않는다.

1998년 6월의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실시되었다. 선거구당 한 명의 구의원만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21개 선거구에서 3대 구의원 21명을 선출하였다. 이 중 15명의 현직 의원이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현직 의원 재선율이 역대 최고인 71.4%에 이르렀다. 소선거구제 도입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인지도가 낮은 새로운 인물의 진입보다는 기존 의원이 선거에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2년 6월의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부평구는 전과 같이 21개 선거구에서 4대 구의원 21명을 선출하였다. 경쟁자가 없는 바람에 무투표로 당선된 이언기(부평5동), 배영선(산곡4동), 최화자(갈산2동)의 3명을 제외하고,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총 9명에 그침으로써 지난 선거의 재선율(71.4%) 보다 현저히 줄어든 42.9%를 보였다. 이는 부평구의 환경과 주민들의 선거 지향이 점차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2006년 5월 31일에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거구와 선거제도가 이전과 달리 크게 바뀌었다. 우선 부평구의 선거구는 기존의 21개에서 8개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과거에 각 선거구당 한 명씩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이번에는 선거구당 2~3명을 선출하는 중대형 선거구제로 바뀌었다. 그리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의원 선거에 정당 공천제가 도입되었다. 이때부터 각 구의원 후보들은

소속 정당의 공천에 몰두하게 되고 무소속 의원의 입지가 축소됨에 따라 구의회는 여야 정당 간 대결의 양상이 극명해졌다. 게다가 기초자치단체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각 지자체 유효투표 총수의 5/100 이상 득표를 올린 정당에 대해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구의원 2인을 선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표 32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의원 당선자 현황(19명)

선거구(동명)	당선자	소속 정당	비고
가 (부평1·4·5)	신은호	열린우리당	3대 의원
	이언기	한나라당	2, 4대 의원
	최용복	한나라당	
나 (부개1·2·일신)	이재승	열린우리당	2, 4대 의원
	권상철	한나라당	
다 (부평2·6·산곡3)	장숙자	열린우리당	4대 의원
	이익성	한나라당	
라 (부평3·십정1·2)	황정수	한나라당	
	박창재	한나라당	
마 (갈산1·삼산1·2)	박종혁	열린우리당	4대 의원
	김영희	한나라당	
바 (갈산2·부개3)	최화자	열린우리당	4대 의원
	손철운	한나라당	
사 (청천1·2)	류수용	열린우리당	2, 3, 4대 의원
	정재서	한나라당	
아 (산곡1·2·4)	최병윤	한나라당	
	전현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정문희	열린우리당	
	김유순	한나라당	

선거 결과 8개 선거구에서 17명, 비례대표로 2명이 당선되어, 총 19명의 5대 구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때의 지방선거는 인천시장, 인천 시의원, 부평구청장 모두 야당인 한나라당이 완승을 거둔 데 비해, 구의원 선거에서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7석을 차지함으로써 비교적 선전한 편이었다. 이는 투표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로 바뀐에 따라 구의원 투표에서는 유권자들이 소속 정당보다는 주요 인물에 투표를 하거나 투표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으로 풀이된다.

2010년 6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인천 지역의 선거 결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야당인 민주당이 약진이 두드러졌다. 인천시장에 처음으로 민주당의 송영길 후보가 당선되었고, 10명의 구청장·군수에 민주당 후보가 6명이나 당선되었다. 부평구청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홍미영 후보가 한나라당의 박윤배 구청장을 제치고 부평구 최초의 여성 구청장에 당선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부평구의원 선거에도 나타났다.

부평구의 선거구는 기존의 8개에서 7개로 개편되었다. 선거 결과 7개 선거구에서 17명, 비례대표 2명, 총 19명의 6대 구의원이 선출되었다. 여당인 한나라당 소속 구의원은 11명에서 8명으로 줄어든 반면, 야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은 당초 7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이 2명 진출함으로써 구의회는 여소야대의 구도로 바뀌었다.

표 33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의원 당선자 현황(19명)

선거구(동명)	당선자	소속 정당	득표율	
			민주당	한나라당
가 (부평1·4·5)	김유순	한나라당	22.10	
	황기웅	민주당	21.80	
	신은호	민주당	20.58	
나 (부개1·2·일신)	이재승	민주당	37.96	
	장정석	한나라당	27.41	
다 (부평2·6·산곡3)	이도재	한나라당	27.80	
	유용균	민주당	25.88	
라 (부평3·십정1·2)	이후종	민주당	14.83	
	박창재	한나라당	26.84	
마 (청천2·갈산1·2)	임지훈	민주당	28.84	
	손철훈	한나라당	27.46	
바 (삼산1,2·부개3)	박종혁	민주당	30.45	
	이춘우	한나라당	25.11	
	이소현	민주노동당	18.41	
사 (산곡1,2,4,청천1)	김상재	한나라당	26.95	
	김재곤	민주당	25.30	
	김상용	민주노동당	17.69	
비례대표	강순화	민주당	59.38	
	한금옥	한나라당	40.61	

2014년 6월 4일에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새누리당의 유정복 후보가 당선되고, 구청장·군수 선거에서 새누리당 소속 후보가 6명으로 대거 약진한 가운데, 부평 구민은 홍미영 구청장의 재선을 선택했다.

부평구의원 선거구는 기존 7개에서 6개로 개편되어 17명이 당선되었고,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하여 총 19명의 7대 구의원이 당선되었다. 새누리당 소속 구의원은 8명,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구의원은 10명, 정의당 소속 구의원 1명으로서 여소야대 구도를 유지하였다.

표 3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의원 당선자 현황(19명)

(단위 : %)

선거구(동명)	당선자	소속 정당	득표율
가 (부평1·4·5, 부개1,2)	최용복	새누리당	36.21
	김일환	새누리당	8.27
	김도형	새정치민주연합	25.03
	강순화	새정치민주연합	10.34
나 (부평2,6,일신)	이도재	새누리당	32.97
	유용균	새정치민주연합	39.90
다 (부평3,산곡3,십정1·2)	박창재	새누리당	36.16
	오흥수	새정치민주연합	21.68
	오영선	새정치민주연합	13.93
라 (청천2,갈산1·2)	이재일	새누리당	40.56
	임지훈	새정치민주연합	48.34
마 (삼산1,2·부개3)	이춘우	새누리당	31.42
	박종혁	새정치민주연합	43.51
	이소현	정의당	16.96
바 (산곡1,2,4,청천1)	장정욱	새누리당	33.67
	김재곤	새정치민주연합	23.73
	나상길	새정치민주연합	15.346
비례대표	유정욱	새누리당	48.39
	홍순옥	새정치민주연합	51.60

2018년 6월 13일의 제7회 지방선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었다. 인천시장은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장 10명 중 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되었다. 부평구청장에 더불어민주당의 차준택 후보가 당선되었다.



❖ 제8대 부평구의원 당선의원과의 간담회(출처 : 부평구의회 홈페이지)

표 35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의원 당선자 현황(18명)

(단위 : %)

선거구(동명)	당선자	소속 정당	득표율
가 (부평1·4)	구동오	자유한국당	23.33
	안애경	더불어민주당	60.43
나 (부평3/산곡3·4/십정1·2)	공현택	더불어민주당	43.57
	오흥수	더불어민주당	16.81
	유정욱	자유한국당	18.69
다 (부평2·5·6/부개1/일신)	유경희	더불어민주당	47.88
	이익성	자유한국당	23.68
	정고만	더불어민주당	15.35
라 (산곡1·2/청천1·2)	김유순	자유한국당	19.02
	나상길	더불어민주당	22.59
	신진영	더불어민주당	35.94
마 (갈산1·2/삼산1)	엄익용	자유한국당	23.07
	홍순옥	더불어민주당	62.50
바 (삼산2/부개2·3)	김환연	더불어민주당	32.26
	이제승	더불어민주당	21.41
	최용복	자유한국당	19.10
비례대표	마경남	더불어민주당	
	우명옥	자유한국당	

부평구의 6개 선거구 내에서 총 16명이 당선되었고,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하여 총 18명이 제8대 부평구의회를 구성하였다. 이전보다 1명이 줄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11명,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은 7명으로 이전의 여소 야대 구도가 여대 야소 구도로 바뀌었다. 2018년 7월 5일 제1기 원 구성을 시작으로 제8대 부평구의회가 출범하였다.

## 7. 교육감 선거

교육감(教育監)은 17개 광역자치단체별 교육에 관한 사무와 각 지방교육청을 총괄하는 수장이다. 교육감은 각 지자체의 교육·학예와 관련된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된 조례와 예산을 작성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1992년까지 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나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 직선제로 바뀌었다. 2007년 2월 14일 부산광역시에서 최초의 주민직선 교육감이 탄생하였다. 이후 2010년 6월 2일의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 실시된 이래 세 차례 교육감 선거가 이루어졌다.

2010년 6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초로 교육감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전국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 6명이 당선되었다. 서울(곽노현), 경기(김상곤)를 필두로 강원도와 광주 지역에서는 전교조 출신 또는 전교조가 후원하는 후보들이 당선되었다. 이에 비해 인천, 충청, 영남권, 제주 지역에서는 보수 진영의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인천광역시의 교육감 선거는 나근형 후보와 이청연 후보 간의 접전이 예상되었다. 나근형 후보는 2001~2007년 간 교육감을 지냈고, 이청연 후보는 평교사 출신으로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을 역임하고 진보 진영의 후보로 추대되었다. 선거 결과 나근형 후보가 약 3,000여 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부평구 주민들은 나근형 후보보다 이청연 후보에 더 많은 표를 주었다.

표 36 2010년 인천광역시 교육감선거 결과

(단위: 표%)

구분	인천광역시		부평구	
	득표수	득표율	득표수	득표율
나근형	259,888	25.44	51,620	23.65
이청연	256,337	25.09	55,576	25.46
최진성	207,400	20.30	41,495	19.01
조병옥	169,540	16.59	34,914	15.99
권진수	128,330	12.56	26,197	12.00

2014년 6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교육감들이 더욱 약진했다. 서울과 경기, 호남 지역은 물론이고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 경남에서도 진보 진영의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에서도 처음으로 진보 진영의 이청연 후보를 배출하였다. 지난 선거에서 0.3% 차이로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이청연 후보는 혁신학교, 무상교육 확대 등을 내세워 인천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모아 제19대 교육감에 당선되었다. 부평구 주민들은 인천광역시 전체 득표율보다 높은 지지를 이청연 후보에게 보냈다.

표 37 2014년 인천광역시 교육감선거 결과

(단위: 표%)

구분	인천광역시		부평구	
	득표수	득표율	득표수	득표율
이청연	382,724	31.89	81,473	34.27
이본수	327,839	27.31	53,764	22.61
김영태	249,959	20.82	45,731	19.23
안경수	239,609	19.96	49,138	20.67

그러나 초대 직선 교육감이었던 나근형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죄로 구속 수감된 데 이어, 기대를 모았던 이청연 교육감 역시 2017년 12월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

로 구속 수감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직선 교육감들의 구속 사태로 인해 교육행정은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여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총 17명의 시도 교육감 중 대전,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세 번째를 맞이하는 교육감 선거에 재선과 3선에 나서는 후보가 12명인데, 이들 모두가 재선과 3선에 성공하였다.

인천광역시의 교육감 후보로 보수 진영의 고승의, 최순자 후보가 나섰고, 진보 진영에서는 전교조 인천지부장을 지낸 도성훈 후보가 출마하였다. 당초 보수 진영의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유리한 구도가 예상되었지만, 단일화에 실패하고 3파전이 전개되면서 진보 진영의 도성훈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가 되었다. 결국 도성훈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되었다.

표 38 2018년 인천광역시 교육감선거 결과

(단위: 표%)

구분	인천광역시		부평구	
	득표수	득표율	득표수	득표율
도성훈	570,789	43.8	104,975	43.40
고승의	388,511	29.8	67,148	27.76
최순자	344,717	26.4	62,025	25.64

## 8. 부평구의 정치인

1994년 지방자치제 선거 이래 부평구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림에 따라 부평구 출신 또는 부평구를 토대로 성장한 정치인은 인천광역시와 중앙 정치 무대의 동량으로 성장했다. 이 가운데 광역시의원, 부평구의원, 부평구청장을 거쳐 국회의원으로 진출하는 정치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변호사 출신의 최용규 의원은 시의원과 구청장을 거쳐 2000년 16대 국회에 진출하여 17대 재선에 성공하였다. 부평 지역의 사회운동가인 홍미영 의원은 초대 부평구의원으로 출발하여 시의원을 거쳐 2004년 17대 국회에 전국구 비례대표로 진출하였다. 이후 홍미영 의원은 2010년 부평구청장에 출마하여 전국 최초 민주당 소속 여성 지자체장에 당선되고 재선에까지 성공하는 기염을 보였다. 한편 부평의 대표 기업인 대우자동차 출신의 박윤배 구청장은 2002년과 2006년에 부평구청장에 당선되었다.

2000년 이후 세대교체의 분위기 속에 등장한 홍영표 의원은 2009년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입한 이래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역임하고 계속 4선에 성공함으로써 부평을 대표하는 주요 정치인이 되었다.

이성만 의원은 2010년 부평구 제1선거구에서 시의원에 당선되고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2020년 부평구 갑에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진입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 시의원을 역임한 차준택 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평구청장에 당선됨으로써 부평구의 세대교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최근까지 부평구 출신 또는 부평구와 관련된 주요 정치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9 부평구 주요 정치인 연도별 특기사항

연도	성명	최용규	문병호	홍미영	박윤배	홍영표	정유섭	차준택	이성만
2000		16대 국회의원							
2002					부평구청장				
2004		17대 국회의원	17대 국회의원	17대 국회의원 (비례)					
2006					부평구청장				
2009						18대 국회의원 (보선)			
2010				부평구청장				시의원	시의원
2012		19대 국회의원				19대 국회의원			
2014			부평구청장					시의원	
2016						20대 국회의원	20대 국회의원		
2018							부평구청장		
2020						21대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제3절 부평구의회 의 활동과 자치

1. 의회 출범의 역사



❖ 1992년 당시 북구의회 제4차 본회의 모습(출처 : 부평구청)

부평구의회는 주민들의 대표 기관이자 의결 기구이다. 부평구의회는 1991년 인천 직할시 북구 의회에서 출발하였다. 계양구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45명의 큰 규모였다. 1995년 1월 1일 인천직할시 북구의회에서 인천광역시 북구 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해 3월 1일 부평구와 계양구가 분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였다. 당시에는 3개 위원회, 21개 선거구, 28명의 구의원으로서 출발하였다.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부평구의 21개 선거구에서 37명의 구의원이 새로 선출되었고, 제2대 부평구의회가 구성되었다. 제2대 의회는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조기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공유지재산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무단 점유 등의 실태를 밝혀내 10억 원의 세외 수입을 증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1998년과 2002년 지방선거에서 21개 선거구에서 21명의 구의원을 선출하여 제3대와 제4대 부평구의회가 구성, 운영되었다. 제3대 의회는 공무원 감축에 따른 주민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대변하고, 세외 수입 관리 철저를 당부하였다. 제4대 의회는 GM대우 개선과 정상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시대에 뒤처지거나 불필요한 조례를 대폭 정비하였다. 또한 2005년 8월 31일에는 제4차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도입하려는 정당 공천제와 중선거구제 폐지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11월 3일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자치단체로 전환하려는 중앙 정부의 기도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구가 8개로 개편되고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하여 19명의 구의원이 제5대 부평구의회를 구성하였다. 이후 제6대 부평구의회 선거구가 8개에서 7개로, 제7대 부평구의회 선거구가 7개에서 6개로 개편되었으나 의원수는 19명을 유지하였다.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7대 부평구의회 의원의 정수는 6개 선거구로 나뉘어 비례대표 2명을 포함 총 19명이었으며, 2018년 3월 20일자로 공포된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제8대 부평구의회 의원의 정수는 6개 선거구로 나뉘어 비례대표 2명을 포함 총 18명으로 조정되었다.

6개 선거구는 한 선거구에서 3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3인 선거구 4곳, 한 선거구에서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2인 선거구 2곳으로 나뉘었으며, 18명의 의원 중 지역구에서 주민들이 직접 뽑는 의원의 수는 16명이고, 비례대표 의원은 2명이다. 비례대표는 비례대표 자치구의원 선거에서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부평구의 6개 선거구에서 16명과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하여 총 18명의 구의원이 선출되어 7월 5일 제8대 부평구의회가 출범하였다. 의원 중 남성 의원은 8명, 여성 의원은 10명이다.



❖ 1996년 부평구청 및 구의회 신청사 개청식(출처 : 부평구청)

표 40 제8대 부평구의회의 의원 정수

(단위: 명)

선거구	선출 인원			선거 구역(22개동)
	계	비례	지역구	
	18	2	16	
가			2	부평1·4동
나			3	부평3, 산곡3·4동, 십정1·2동
다			3	부평2·5·6동, 부개1동, 일신동
라			3	산곡1·2동, 청천1·2동
마			2	갈산1·2동, 삼산1동
바			3	삼산2동, 부개2·3동

## 2. 의회의 지위와 권한

부평구의회는 부평구의 중요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주민의 대표 기관이다. 또한 부평구의회는 구정(區政)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 기관이다. 부평구 주민의 부담, 조례 제정, 단체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부평구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 입법 기관이다. 마지막으로 부평구의회는 구청장과 구청의 정책과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행정 감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를 위해 부평구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결산의 심의·의결 등에 관한 의결권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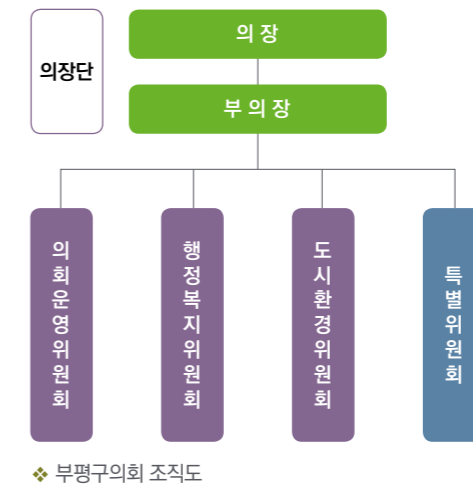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시정 또는 그 보조 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사무 감사·조사권의 권한이 있다.

그 밖에 부평구의회는 의회 운영에 관한 자율권, 주민들로부터의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하는 권한 등이 있다.

## 3. 구성과 현황

부평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크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와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

또한 부평구의회는 의회 운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고 있다.



### 1) 의장단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대 의회 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홍순옥(갈산1·2동, 삼산1동) 의원이 추대되었다. 부평구의회 최초 여성 의장이다. 부의장에는 4선 경력의 미래통합당 이익성(부평2·5·6동, 부개1동, 일신동) 의원이 추대되었다.

표 41 역대 구의회 의장단

	구분	원 구성일	의장	부의장
초대	전반기	1991. 4. 15	한천길	문창원
	(부의장 교체)	1993. 4. 12	한천길	강영택
	후반기	1993. 7. 20	성낙현	강영택
2대	전반기	1995. 7. 7	이복란	이언기
	후반기	1997. 1. 6	황충식	김재용
3대	전반기	1998. 7. 7	신현기	장현식
	후반기	2000. 7. 6	이찬구	이기욱
4대	전반기	2002. 7. 9	이찬구	안원학
	후반기	2004. 7. 7	김재용	이익성
5대	전반기	2006. 7. 7	권상철	이익성
	후반기	2008. 7. 14	이언기	류수용
6대	전반기	2010. 7. 12	신은호	이춘우
	후반기	2012. 7. 9	이재승	장정석
		2013. 5. 24	이후종	장정석
7대	전반기	2014. 7. 4	박종혁	박창재
	후반기	2016. 7. 4	임지훈	최용복
8대	전반기	2018. 7. 5	나상길	김유순
	후반기	2020. 9. 8	홍순옥	이익성

## 2) 상임위원회

의회는 자자체의 업무 소관에 따라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 안건의 심사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동 기간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둔다.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 설치되는 기관으로 회기 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여 안건 등을 심사할 수 있다.

1991년 개원 당시 구의회는 5개 분과위에서 출발하였다가, 1992년 4개로 축소하였다. 1998년 제3대 의회에서는 도시위원회를 폐지하여 3개 상임위 체제가 되었다. 2002년 제4대 의회에서는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총무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로, 사

회산업위원회는 도시경제위원회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제6대 의회 중반인 2011년 3월 23일부터 도시경제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행정자치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개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 42 역대 구 상임위원회

구분	상임위원회			
초대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
2대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
3대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4대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시경제위원회	
5대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시경제위원회	
6대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7대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8대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43 상임위원회별 세부 소관사항

위원회별	소관 사항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회의 규칙 및 의회 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행정복지위원회	- 자치행정국, 문화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기획조정실,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타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사무에 관한 사항
도시경제위원회	-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8대 부평구의회 의 상임위원회 현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44 상임위원회 배치 현황(제8대 의회)

	위원회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오흥수	엄익용	공현택, 구동오, 김환연, 마경남, 안애경, 이익성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도시경제위원회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안애경	신진영	우명옥, 마경남, 이제승, 김환연, 이익성, 유정옥
	행정복지위원회	최용복	김환연	엄익용, 신진영, 이익성, 유경희, 오흥수, 안애경, 구동오
	도시경제위원회	정고만	이제승	우명옥, 마경남, 나상길, 김유순, 유정옥, 공현택

### 3) 특별위원회

구의회는 매년 예산·결산 심사,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특정 사안을 조사하거나 해외 교류 추진 등 특정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각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왔다.

예결특위 외의 기타 특별위로 부평구의회는 주로 행정사무 감사, 세무 비리 조사 등의 특별위원회와 공해 대책, 생활쓰레기 조사, 불법시설물 실태 조사, 수해대책 조사, 국공유지재산 조사, 세외 수입 조사, 조례 정비 조사 등의 특위를 설치·운영해 왔다.

2016년 부평구 의회는 부평구의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조사 특위와 굴포천 상류 복개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굴포천복원재생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2019년 12월 부평구는 ‘굴포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부터 공사에 착공할 수 있게 되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국가하천 굴포천 기점까지 복개 구간 1.56km를 철거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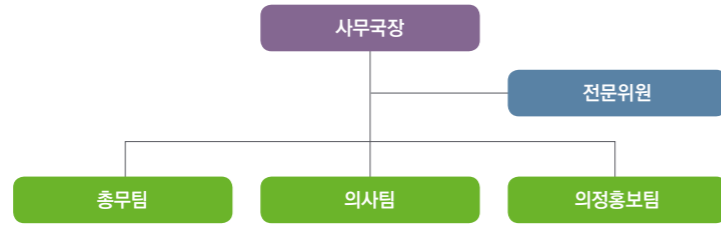
❖ 1996년 부평1동 굴포천 복개 공사 모습(출처 : 부평구청)



❖ 2000년 부평1동 굴포천 복개 공사 후 모습(출처 : 부평구청)

#### 4) 사무국

의회는 조례안의 심의 의결, 예산안의 심의 확정과 기타 활동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있다. 현재 사무국장 이하 25명의 직원이 있다.



❖ 부평구의회 사무국 조직도

#### 4. 의정 활동

##### 1) 의안 통계

부평구의회는 부평구의 살림과 행정, 복지에 관한 다양한 심의와 조례 등 안건을 처리해 왔다. 지난 30년간 제8대의 의회를 거치면서 118건의 예산안과 15건의 결산을 처리했으며, 무려 1,260건의 조례를 처리하였다.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의안 74건과 건의안 12건, 청원 4건도 처리하였다.

표 45 역대 구의회 안건 처리 현황

(2019.12.기준, 단위: 건)

구분	접수	처리	처리 내용						미처리 (계류)	
			찬성		반대	폐기	철회	기타		
			원안	수정						
합계	2731	2260	1798	450	10	1	1	12	454	
예산안	120	118	46	70	2	0	0	0	2	
결산안	15	15	15	0	0	0	0	0	0	
조례안	소계	1414	1260	938	316	5	0	1	7	145
	의원	269	240	165	69	5	0	1	3	25
	위원회	14	14	14	0	0	0	0	0	0
	구청장	1131	1006	759	247	0	0	0	4	120
재의안	0	0	0	0	0	0	0	0	0	
동의/승인안	111	95	94	1	0	0	0	3	13	
결의안	106	74	72	2	0	0	0	0	32	
건의안	15	12	11	1	0	0	0	0	3	
규칙안	19	15	12	2	1	0	0	0	4	
의견 청취	112	67	60	7	0	0	0	1	43	
공유재산	66	59	53	6	0	0	0	0	7	
청원	17	4	4	0	0	0	0	0	13	
기금안	5	5	5	0	0	0	0	0	0	
기타 안건	731	536	488	45	2	1	0	1	192	

❖ 비교 :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홈페이지, 「의안통계(2019.12.기준)」

##### 2) 조례 통계

부평구의회는 기초단체의회 활동의 집행부의 업무와 행정을 감사하고 예결산을 의결하는 것 외에, 지역 사회 특성에 맞는 조례안의 제·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역대 의회의 조례안 접수 및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체로 구청장이 조례안 제출을 주도하는 가운데, 구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제7대 의회 때는 70여건을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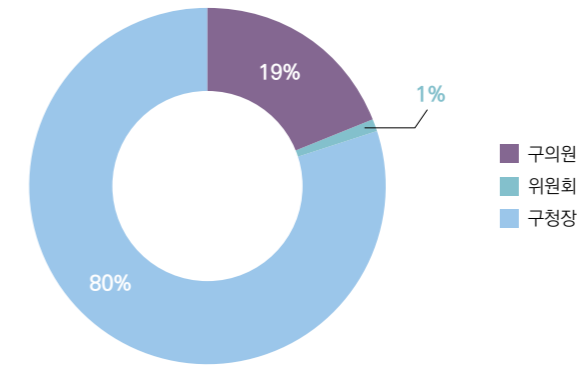
제7대 의회의 경우 구청장이 발의한 조례 역시 200건을 넘는 등 활발한 구청과 의정을 전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기의 절반을 지난 제8대 의회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표 46 역대 구의회 안건 처리 현황

구분	조례안	접수	처리
초대 의회	소계	154	97
	의원	13	7
	위원회	0	0
	구청장	141	90
2대 의회	소계	134	126
	의원	10	9
	위원회	0	0
	구청장	124	117
3대 의회	소계	181	152
	의원	7	7
	위원회	1	1
	구청장	173	144
4대 의회	소계	186	168
	의원	40	38
	위원회	0	0
	구청장	146	130
5대 의회	소계	191	171
	의원	50	40
	위원회	0	0
	구청장	141	131
6대 의회	소계	190	178
	의원	39	35
	위원회	0	0
	구청장	151	143
7대 의회	소계	293	286
	의원	76	72
	위원회	13	13
	구청장	204	201
8대 의회 (2019.12.)	소계	85	82
	의원	34	32
	위원회	0	0
	구청장	51	50
합 계	소계	1,414	1,260
	의원	269	240
	위원회	14	14
	구청장	1,131	1,006

현재까지 부평구의회에서 접수된 조례안은 총 1,414건이며 이 가운데 89%에 해당하는 1,260건이 처리되었다. 전체 조례안 중 80%는 구청장이 제출한 것이며, 구의원이 제출한 것은 19%에 달한다.

그림 2 구의회 조례안 처리 비율



### 3) 주요 활동과 조례

#### (1) 제1대 의회

제1대 부평구의회는 공해 대책과 세무 비리 조사 특위를 통해 의회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1991년 공해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들이 3개월간 현장을 조사 방문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1994년에는 세무비리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세금 횡령 사건의 경위와 진상을 조사하고 관련자 조치 실태 등을 점검하였다.

#### (2) 제2대 의회

1996년 의회는 부평 미군기지(캠프 마켓) 조기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1997년에는 국공유지재산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부평구의 전산 자료 대상 6,672건의 관리 실태 전반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무단 점유와 제3자 임대 및 자료 누

락 등의 사례를 밝혀내어 약 10억 원의 세외 수입 증대 효과를 가져왔다. 1997년에는 부평구의회 의 신청사가 건립되었다.

### (3) 제3대 의회

제3대 의회는 결의문과 건의문 채택을 통한 의정활동이 돋보였다. 의회는 2000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부당성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이어서 대우자동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경인운하 건설 사업 조기 착공 촉구에 관한 결의안과 자치단체 구조 조정 실시에 따른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2001년에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 (4) 제4대 의회

제4대 의회는 2002년 12월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처리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고 미국의 사과를 요구하였다. 2003년 4월 구의회는 지역 사회의 핵심 기업으로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겨우 면한 GM대우를 고려하여, 경차 기준을 800cc에서 1,000cc로 확대하려는 '경차 기준 규격 확대'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한 의회의 노력이었다.



❖ 제102회 부평구의회 회의 모습(출처 : 부평구청)

2004년에는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7차에 걸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45건의 조례 중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44건을 개정 또는 폐지하였다. 2005년 8월 31일에는 제4차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도입하려는 정당 공천제와 중선거구제 폐지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이어서 11월 3일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자치단체로 전환하려는 중앙 정부의 기도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5) 제5대 의회

제5대 의회에서는 2007년 4월 '부평구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의사상자로 지정된 자의 경우 국가지원금 외에 부평구 차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가결하여 장애인 가정의 출산을 지원하였다.

2008년 부평구의회는 대형 마트와의 경쟁에서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대형 마트와 재래시장의 상생 및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2009년 부평구의회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 조례안」과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통과시켜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 생활체육을 진흥하는 데 기여하였다.

같은 해에 부평구의회는 국제결혼 증가 및 다문화가정 증가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부평구의회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아동·노인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 (6) 제6대 의회

제6대 의회에서는 2010년 저출산 기조에 대비하고자 구청장이 구립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영유아 보육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의회는 전통 상업의 육성 및 보호와 전통시장과의 불공정한 경쟁을 막기 위해 대형 마트의 0시부터 8시까지 영업 및 근로를 금지하고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 부평 관내 거주 건설노동자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급 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여, 총공사비 5,000만 원 이상의 관급 건설공사 수급인과 지역 건설업자는 부평 내 지역 건설근로자와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하였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동주택의 범위를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세대주택 주민들의 생활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제6대 의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모유 수유 확산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부평구 관내에 수유방을 확충하고 관내 거주 여성들이 모유 수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 (7) 제7대 의회

2014년 제7대 부평구의회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인천시 최초로 가결하였는데, 이 조례는 당시 최저 임금(5,210원)과는 별도로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규정하고, 생활임금 시행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및 생활임금을 심의, 책정하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의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고 자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리고 2017년 의회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먼지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 (8) 제8대 의회

제8대 부평구의회는 2018년 12월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 등을 가결하였다.

이와 함께 부평구의회는 우명옥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구의회는 결의안에서 “올해로 개통 50주년을 맞이한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징수 기간 30년을 초과했으나 수납 기간을 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부평구 주민들은 인천 시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료를 부담해 왔고, 상습 정체로 인해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으니 인천시민과 부평구민들의 통행료 부담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 제243차 부평구의회 2차 본회의(출처 : 부평구청)

2019년 12월 부평구의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공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가결하였다.



제8대 부평구의회는 2018년 현재 조례안 146건, 예산안 14건 등을 가결 처리하였다. 같은 기간 제8대 의회는 동의 및 승인안, 결의안, 규칙안, 의견 청취, 청원,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 282건을 처리하였다.



## 참고문헌

### 단행본

『전국동시지방선거 총람』, 각 해당 회차.

### 웹사이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https://www.icbp.go.kr/>)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https://council.icbp.go.kr/>)

인천광역시 부평홍보관(<https://www.icbp.go.kr/publicity/>)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https://ic.nec.go.kr/ic/main/main.do>)





# 제 3 장 ————— 경제와 산업

제1절 \_ 재정

제2절 \_ 소득과 소비

제3절 \_ 분야별 산업과 경제 활동

제4절 \_ 시장과 금융, 교통

제5절 \_ 경제 시설과 단체, 사회적경제

제6절 \_ 에너지, 자원, 환경

# 제3장 경제와 산업



오 일 환(ARGO인문사회연구소 대표연구위원)

2020년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1조 6,000억 달러로 세계 10위 수준이다. 2018년 세계 8위까지 상승했다가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1990년대 이후 인천과 부평 지역의 경제와 산업 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외환위기(IMF 사태)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세계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 기조에 이어서 2020년 이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과 그 여파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접어들어 우리나라는 자본, 금융, 쌀 시장을 개방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며 세계화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하며 잇따른 대기업의 파산과 취업난,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 시기 국민들은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금융 등 각 분야의 개방과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4대 부분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이를 통해 2000년 8월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관리 체제를 벗어나 2007년까지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와 평균 4%대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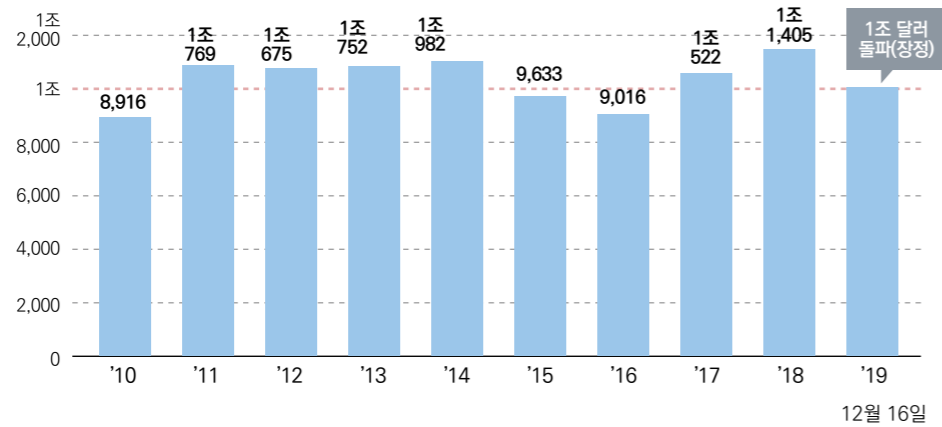
2009년에는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1만 7,000달러대로 내려앉았지만, 이듬해 2010년에 다시 GDP 1조 달러와 1인당 GDP 2만 달러를 돌파하였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3%대로 떨어졌다.

2019년 현재 한국의 GDP는 1조 7,204억 달러(세계 10위), 1인당 GDP는 3만 3,000달러(세계 26위), 잠재성장률은 약 2.5~2.6% 정도인데, 이제 머지않아 연1% 후반 정도의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0년 초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 사태는 중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안겨 주었다. 이 때문에 202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990년대 초 잠시 부진했던 수출은 1993년 말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여 1994년 16.8%, 1995년 30.3%로 신장세가 확대되었으며, 수입도 22.1%, 32.0%로 각각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6년부터는 반도체·석유화학제품 등 주력 수출 품목의 국제가격 하락 및 엔저로 인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신장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연간 3.9%의 수출증가율에 그쳤다. 2011년 11월 대한민국의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한 달 후인 12월에는 총무역액이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후 무역액은 4년 연속 1조 달러를 넘었으나 2015년과 2016년에는 1조 달러에 못 미쳤다. 그러다가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1조 달러 초과를 회복했다. 이 중에서 수출액이 2019년에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돌파하였지만 증감률은 전년 대비 -11.7%로 하락했다. 2018년 이후 전개된 미·중 간 무역전쟁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 2019년 하반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간 무역액의 감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 경제와 무역의 퇴조에 따른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당분간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무역액 추이(연합뉴스, 2019년 12월 16일 자)

(단위: 억달러)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이러한 전국적인 경제 변동과 부침은 인천과 부평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오히려 국가산업시설과 주요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경인, 부평 지역은 그 영향과 후과가 더욱 민감하고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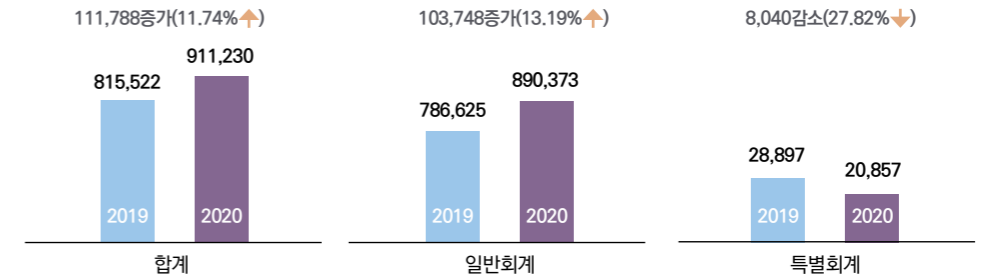
| 제1절 | 재정

1. 예산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예산은 크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일반회계는 일반행정, 도로·녹지관리, 사회복지 등을 위해 운영되는 예산이다.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되는 특별회계의 경우, 부평구에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2 부평구 재정현황(2019~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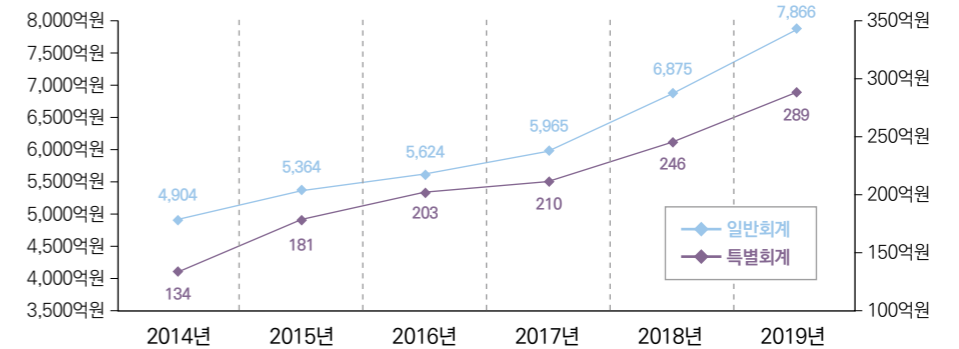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 구정현황 부평 지역을 기록하다』, 2020, 13쪽

최근 들어 부평구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0년 이후 10년간 재정 총액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20년 총액이 9,000억 원을 돌파하였다. 최근 부평구의 예산 증가율이 높아지는 원인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평구의 사회복지 비용이 전체 예산의 64.7%를 차지할 정도로 복지비용의 부담이 크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복지 수요 증가로 인해 매년 사회복지비가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림 3 부평구 재정 규모 변화 추이(2014~2019)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년도 부평구 가계부』, 2019, 4쪽.

표 1 연도별 부평구 재정 규모(2015~2020)

(단위: 년·백만 원)

연도	총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2015	586,189	564,032	22,157
2016	582,718	562,382	20,336
2017	687,941	665,008	22,933
2018	773,946	748,499	25,447
2019	841,808	810,066	31,742
2020	911,229	890,372	20,857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통계연보』, 각 해당 연도.

## 2. 세입, 세출

### 1) 세입

1년 동안 부평구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한다. 최근의 부평구 세입 금액은 연평균 9.5%의 증가율을 보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2 연도별 부평구 세입 현황(2014~2019)

(단위: 년·백만 원)

연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입액	588,027	636,214	702,451	776,371	844,780	786,643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2019년도(2018회계연도) 지방재정 공통공시(결산)』, 2020, 6쪽.

부평구 세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보조금으로, 전체 세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019년 기준 세입액은 7,866억 원에 달한다. 2019년의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비·시비 보조금이 4,838억 원으로 60%를 넘어섰다.

표 3 부평구 2019년도 세입 내역

(단위: 억 원)

항목	세입액	내역
지방세	938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세외수입	495	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등
부동산교부세	85	6 억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중 교부금
조정교부금	1,124	인천시 보통세 중 일부
국·시비보조금	4,838	국가와 인천시의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보전수입 등 기타	386	잉여금, 이월금, 내부거래 등
합계	7,866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년도 부평구 가계부』, 2019, 5쪽.

세입 항목 중에서 주민들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 부담액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964억 원을 넘어섰고, 이를 부평구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18만 8,000원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연도별 부평구 세입 결산액 및 1인당 부담액(2014~2019)

(단위: 년·천원 명)

구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세 결산액		76,748,361	82,376,002	84,620,586	89,559,696	91,727,038	96,424,282
인구수		556,992	555,844	549,716	539,941	524,640	511,577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138	148	154	166	175	188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2019년도(2018회계연도) 지방재정 공통공시(결산)』, 2020, 8쪽; 기타 부평구청 제공 자료

## 2) 세출

1년 동안 부평구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 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세출예산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어떤 분야에 얼마나 편성되고 사용되었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다.

표 5 부평구 세출 결산액(2014~2019)

(단위: 년·백만 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525,791	575,033	598,600	673,411	700,056	786,643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2019년도(2018회계연도) 지방재정 공통공시(결산)』, 2020, 8쪽.

표 6 2019년도 부평구 세출 결산액 및 주민1인당 세출액

(단위: 년·백만 원)	
구분	2019년
세출 결산액	799,042,250
인구수	511,577
주민 1인당 세출액	1,562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세출 결산 규모는 연평균 7.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부평구의 세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인데, 2018년 기준 전체 예산의 64.0%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의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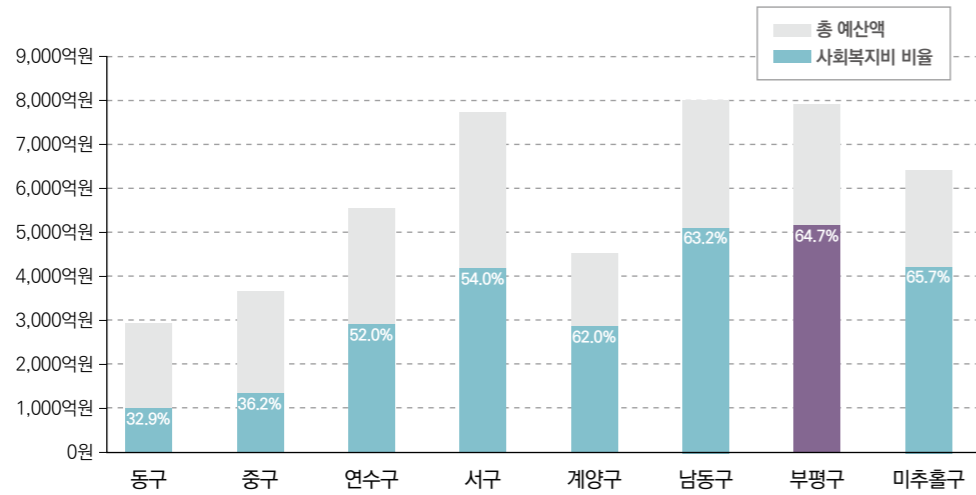
표 7 2019년도 부평구 세출 내역

(단위: 억 원)		
항 목	세출액	내역
사회복지	5,091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일반공공행정	326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 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환경보호	305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문화 및 관광	267	문화예술, 관광, 체육
국토 및 지역개발	290	지역 및 도시 개발
보건	205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
교육	103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수송 및 교통	96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공공질서 및 안전	80	재난방재·민방위
농림해양수산	19	농업·농촌, 임업·산촌
산업, 중소기업	19	산업금융·기술지원,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 일반
기타 행정운영	970	총액 인건비, 기본 경비 등
예비비	95	재난·재해 등
합 계	7,866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년도 부평구 가계부』, 2019, 8쪽.

최근 들어 부평구의 사회복지 비용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정부와 인천시의 요구 및 부평구 내 복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 따른 결과이다. 다른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비교할 때 부평구의 부담률이 64.7%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인천광역시 지역별 사회복지비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년도 부평구 가계부』, 2019, 9쪽.

사회복지 수급자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부평구의 기초생활수급자(2만 3,894명), 장애인(2만 7,146명), 노인(6만 6,424명)의 숫자는 인천 지역의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으며, 영·유아(22,884명) 숫자는 서구와 남동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부평구의 세출예산을 부평구 주민 1인당 사용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26만 9,000원 가량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연도별 부평구 세출 결산 및 1인당 세출액(2014~2018)

구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507,755,241	554,778,721	576,178,679	632,602,914	665,579,543
인구수	556,992	555,844	549,716	539,941	524,640
주민 1인당 세출액	912	998	1,048	1,172	1,269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2019년도(2018회계연도) 지방재정 공통공시(결산)』, 2020, 10쪽.

### 3) 채무

부평구의 채무는 최근 들어 크게 줄어들었다. 2010년 지방채 발행 이후 2011년부터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대신 매년 지방채상환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채를 상환한 것이 부채 감소의 주된 요인이다.

2014년 5월 「지방채상환기금조례」 제정으로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조기 상환하기 시작하여, 2010년 무렵 432억 원이었던 지방채 중에서 부평구 부담액 320억 원을 2017년에 전액 상환하고, 시 부담액 112억 원 중 64억 원만 남기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9 연도별 부평구 채무 현황(2014~2019)

구분	연도	연도별 채무액 (단위: 년·백만 원)						연평균 증감률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잔액		30,175	17,872	13,031	6,416	5,296	4,176	△35.27
상환액		8,213	12,303	4,841	6,615	1,120	-	△39.23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2019~2023 인천광역시부평구 채무관리계획』, 2020, 2쪽.

그리고 2018년에 11억여 원을 상환하여 2019년 말 기준으로 부평구의 채무액은 총 41억 7,6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부평구는 생태환경 개선 등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해 2020년에는 굴포천생태하천복원사업, 부평노인문화센터, 부평남부체육센터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9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장기 미집행 시설인 백운공원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9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 4) 재정 자립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는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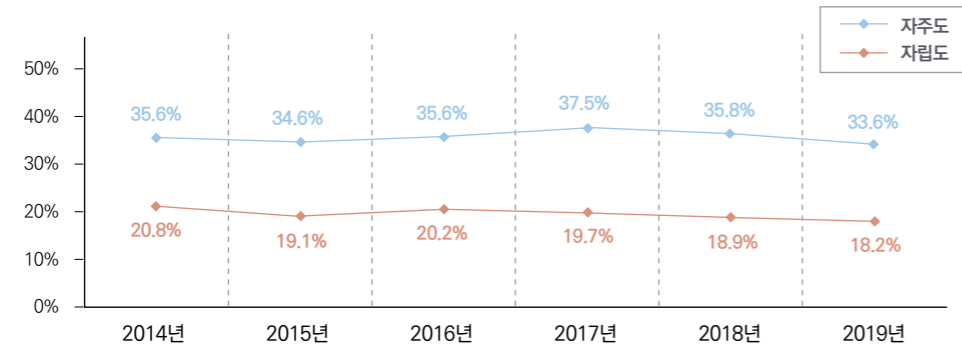
재정 자립도는 전체 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가리킨다. 이는 곧 지자

체의 자체재원을 가리킨다.

재정 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외에 추가로 교부세와 교부금을 모두 합친 비율이다. 재정자주도에 국·시비 보조금까지 더해서 의존재원이라 한다.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 모두 100%에 가까울수록 지방 재정의 자립 능력과 자율성이 좋다는 의미이다.

2019년 기준 부평구의 재정 자립도는 18.2%로 전년 대비 0.8% 감소했고, 재정 자주도는 33.6%로 전년 대비 2.2% 감소하였다.

그림 5 부평구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2014~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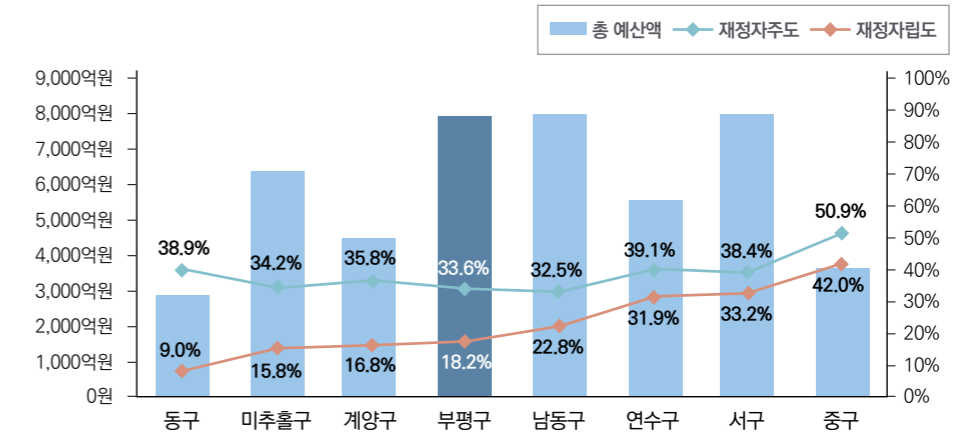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년도 부평구 가계부』, 2019, 5쪽.

전국의 특별시·광역시 평균 재정 자립도가 62.1%(2018년 기준)에 비교하면 부평구는 약 1/3 수준이다. 6개 광역시의 69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24.7%인데, 부평구의 재정 자립도는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며 순위로는 45위를 차지한다.

인천 지역 내 다른 자치구의 예산과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와 비교하면, 예산 규모는 남동구, 서구와 비슷하지만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 모두 낮은 편이다.

그림 6 인천광역시 지역별 재정 자립도 및 재정 자주도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년도 부평구 가계부』, 2019, 5쪽.

## 제2절 소득과 소비

부평구의 경제 규모와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별 소득과 소비, 부채 등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는 통계법에 따라 1998년부터 3년 또는 2년 주기로 사회지표조사(Social Indicator Survey)를 실시해 오고 있다. 사회지표조사는, 지자체별로 주민들의 삶의 질 수준과 사회 상태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초조사이다. 지자체들은 이를 통해 시민과 주민들의 주관적 및 객관적 의식을 측정하고 사회변화를 예측하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2019년에 실시한 사회지표조사에서는 부평구를 포함한 인천광역시 내 표본가구 9,000세대, 1만 8,26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및 자기 기입식 방법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에서 부평구의 소득과 소비, 경제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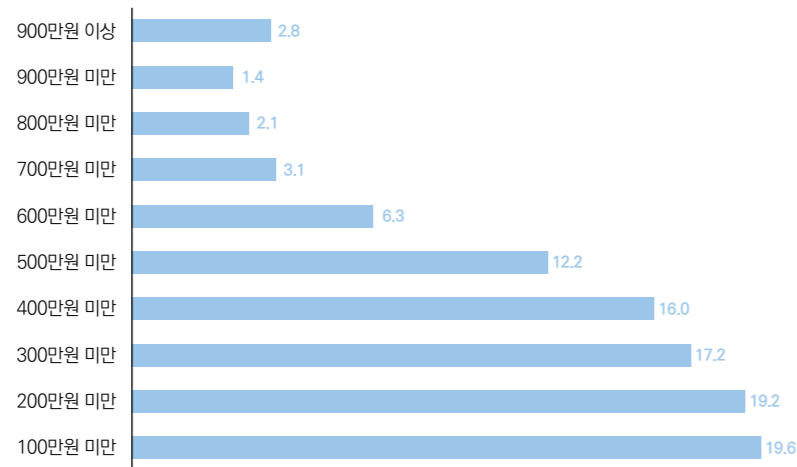
## 1. 소득

부평구 주민들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100만 원 미만' 가구가 19.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00~200만 원 미만' 가구가 19.2%, '200~300만 원 미만' 가구가 17.2%를 차지했다. 이상 '300만 원 미만'의 전체 가구가 부평구의 절반 이상(56%)을 차지하는 셈이다.

한편, '900만 원 이상'의 소득 가구(2.8%)가 '900만 원 미만' 소득 가구(1.4%)보다 많은 것도 특징적이다. 이는 곧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난다.

그림 7 부평구 가구별 월평균 소득 분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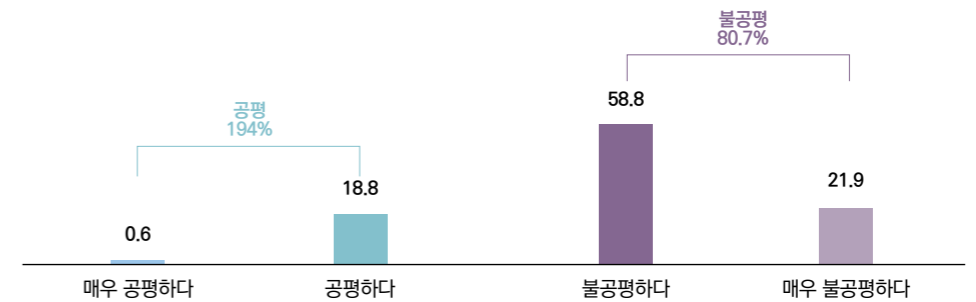


출처 : 인천광역시, 『2019 인천의 사회지표, 부평구』, 2019, 12쪽.

부평구 주민들이 소득분배(빈부 격차 등)의 형평에 대해 생각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19.4%는 공평하다고 느끼며, 80.7%는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소득분배 형평에 대한 부평구 주민들의 인식

(단위 : %)



출처 : 인천광역시, 『2019 인천의 사회지표, 부평구』, 2019, 54쪽.

## 2.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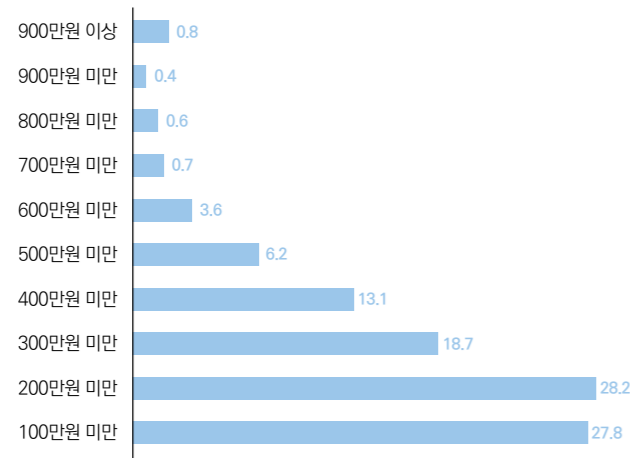
### 1) 가구별 월평균 지출

부평구의 가구별 월평균 지출 규모는 '100~200만 원 미만'이 28.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100만 원 미만'의 가구가 27.8%를 차지한다. 결국 월평균 '200만 원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56%)인 셈이다.

이에 비해 월평균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약 15.7%였지만 이들이 월평균 지출이 '6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모두 5%에 미치지 않으며, '900만 원 이상' 지출하는 가구는 0.8%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 부평구 가구별 월평균 지출

(단위: %)



출처: 인천광역시, 『2019 인천의 사회지표, 부평구』, 2019, 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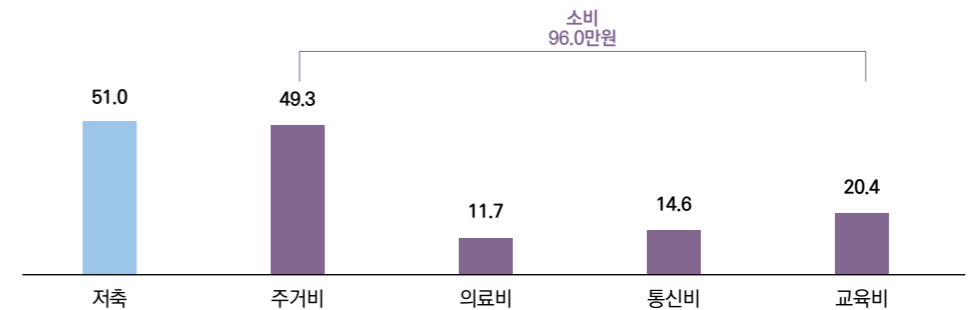
## 2) 월평균 저축 및 소비 금액

부평구 주민의 월평균 저축과 주요 소비 총액을 살펴보면, ‘저축’은 51만 원, ‘소비’는 96만 원으로 나타났다. 저축 금액이 가장 높은 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500~600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02만 3,000원이다.

주요 소비 금액 중 ‘주거비’가 49만 3,000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그다음으로 ‘교육비’가 20만 4,000원, ‘통신비’가 14만 6,000원, ‘의료비’가 11만 7,000원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는 주거비 다음으로, ‘교육비 > 통신비 > 의료비’ 순으로 나타나지만, 부평구 주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이와 반대이다. 월평균 가구소득 ‘200~300만 원 미만’ 가구의 경우 ‘통신비’가 14만 6,000원, ‘의료비’가 10만 4,000원, ‘교육비’가 9.7%의 순서로 나타났고, ‘100~200만 원 미만’ 가구의 경우는 ‘의료비’가 11만 6,000원, ‘통신비’가 9만 9,000원, ‘교육비’가 4만 5,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1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더욱 심해져서 ‘의료비’가 9만 6,000원, ‘통신비’가 14만 6,000원, ‘교육비’가 1만 5,000원의 순서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의료비 부담이 크고 교육비 지출은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0 부평구 주민들의 월평균 저축 및 소비 금액

(단위: 만원)



출처: 인천광역시, 『2019 인천의 사회지표, 부평구』, 2019, 56쪽.

표 10 부평구 월평균 저축 및 소비 금액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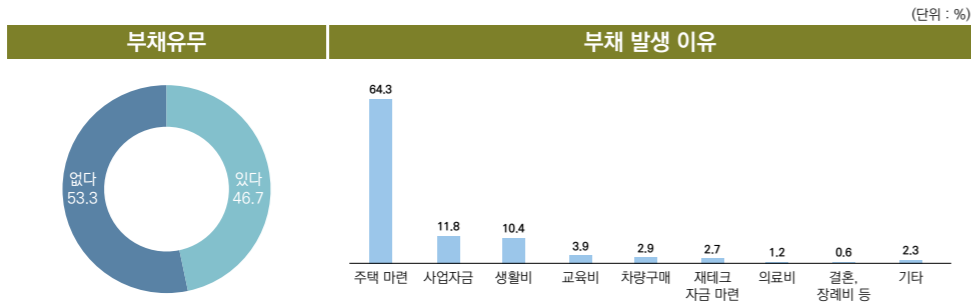
구분	저축	소비	주요 소비 금액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육비	
부평구	51.0	96.1	49.3	11.7	14.6	20.4	
월평균	100만원 미만	5.8	36.6	20.9	9.6	4.6	1.5
	100~200만원 미만	22.9	6.9	34.9	11.6	9.9	4.5
	200~300만원 미만	40.9	82.4	47.7	10.4	14.6	9.7
가구소득	300~400만원 미만	58.7	110.1	54.7	10.6	18.2	26.6
	400~500만원 미만	78.2	133.4	61.1	12.2	19.7	40.3
	500~600만원 미만	102.3	143.2	69.1	14.2	22.2	37.1
특	600~700만원 미만	99.3	210.2	103.4	18.2	27.2	61.4
	700만원 미만	157.6	213.5	101.6	18.0	27.7	66.2

출처: 인천광역시, 『2019 인천의 사회지표, 부평구』, 2019, 56쪽.

## 3) 가구 부채

부평구 주민 중 약 46.7%는 가구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의 부채가 6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30대가 65.8%로 높았다.

그림 11 부평구 가구 부채 유무



출처 : 인천광역시, 『2019 인천의 사회지표, 부평구』, 2019, 59쪽.

부채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주택 마련이 64.3%로 가장 많았고, 사업 자금이 11.8%, 생활비가 10.4%, 교육비가 3.9%, 차량 구입비가 2.9%, 재테크 자금 마련이 2.7%, 의료비, 경조사비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부평구 연령별 부채 유무

구분	부채 유무		부채 발생 이유								
	있다	없다	주택 마련	사업 자금	생활비	교육비	차량 구매	재테크 자금	의료비	결혼, 장례비 등	기타
부평구	46.7	53.3	64.3	11.8	10.4	3.9	2.9	2.7	-	-	-
연령	13~19세	-	-	-	-	-	-	-	-	-	-
	20~29세	52.9	47.1	62.3	-	11.7	7.7	11.1	-	-	7.3
	30~39세	65.8	34.2	76.4	7.3	8.3	1.1	3.4	1.9	-	0.8
	40~49세	68.4	31.6	68.4	9.96	9.6	5.3	2.7	2.7	0.7	-
	50~59세	51.6	48.4	56.8	15.7	9.6	4.7	2.7	3.5	1.7	-
	60세 이상	24.8	75.2	60.1	14.0	14.6	2.8	1.3	2.4	2.3	1.0

출처 : 인천광역시, 『2019 인천의 사회지표, 부평구』, 2019, 5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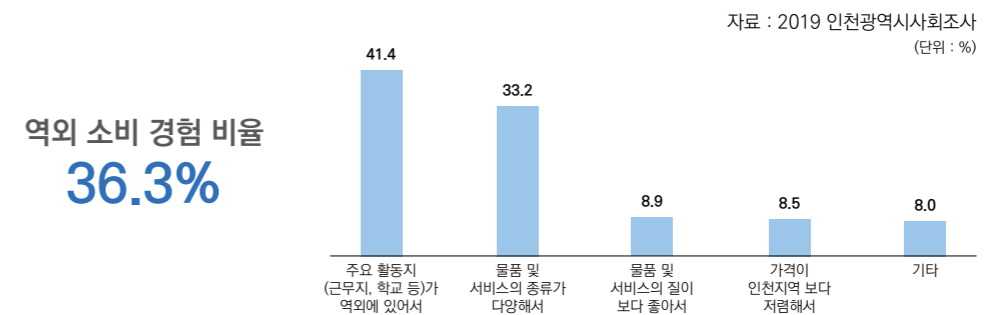
#### 4) 역외 소비

부평구 주민들 중 약 36.3%는 부평구와 인천 외 지역에서 소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소비 금액(100%) 중 역외 소비 규모는 평균 2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가장 높는데, 이 중 50.7%가 역외 소비를 한 경험이 있고 40대의 절반 정도는 소비 금액의 약 10~30%를 역외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외 지역에서 소비하는 이유에 대해 '주요 활동지가 역외에 있어서'라는 답변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장 또는 학교 등이 역외 지역에 있다 보니 통근과 통학이 자연스럽게 역외 소비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이유로는 '물품 및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서'라는 답변이 33.2%, '물품 및 서비스의 질이 보다 좋아서'라는 답변이 8.9%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저렴해서'라는 답변은 8.5% 정도에 그쳤다. 저연령층의 경우는 '물품 및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해서'라는 답변이 많았고, 고연령층에서는 '가격이 저렴해서'라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2 인천 외 지역 소비 경험 및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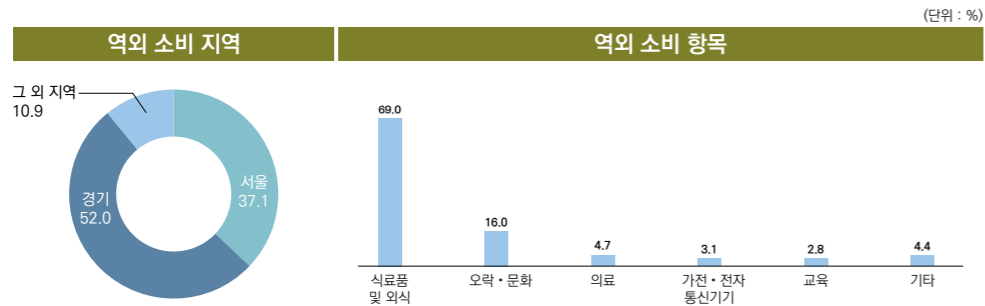
출처 : 인천광역시, 『2019 인천의 사회지표, 부평구』, 2019, 12쪽.

인천 외 지역에서 소비하는 경우, 주된 소비 지역은 '경기'가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서울'이 37.1%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는 20대(50.7%)이고, '경기' 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세

대는 '60세 이상'의 노령층(62.7%)이었다.

인천 외 지역에서 주로 소비하는 항목은 '식료품 및 외식'이 69%로 가장 많았다. 10대의 경우 '오락·문화'가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13 부평구민의 주된 역외 소비 지역 및 항목



출처: 인천광역시, 『2019 인천의 사회지표, 부평구』, 2019, 62쪽.

### 제3절 | 분야별 산업과 경제 활동

#### 1. 농업 및 축산

부평구의 농가와 농업 인구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전업농가의 규모가 급속히 축소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전업농가 대신에 주말농장과 원예, 특수작물 등을 겸업하는 농가가 늘어났다. 현재는 이들 겸업농가의 고령화에 따라 농가의 수가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부평구 전체의 산업 규모와 업종에 비해 농업의 비중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농업·임업 및 광업 분야의 업체와 종사자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볼 때, 부평구의 농업은 1종겸업의 개인 농업이 전부인 셈이다.

#### 1) 농가 및 농가 인구

1997년까지 급격하게 줄어들던 농가와 농업 인구가 1998년에 갑자기 두 배가량 증가한 것은 IMF 사태로 인한 도시 근로자들의 귀농과 유휴 농지의 활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2003년에 다시 한번 농가 및 농업 인구가 전년도에 310가구보다 4배 이상인 1,265가구로 급증했다. 이는 전업농가는 약간 증가한 데 비해, 1종겸업의 농가가 43가구에서 887가구로 폭증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2003년부터 주5일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과 경기, 부평구 도심 근교의 주말농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야채와 채소류를 주로 재배하던 농작물이 원예나 특수작물과 같은 고소득 농작물로 변화했다. 2017년 기준 부평구의 농업인은 1,302명이며, 이 중 약 83%가 1종겸업농이다.

표 12 부평구 농가 및 농가 인구 변화(1997~2017)

연별	구분	농가			농가 인구				
		합계	전업	1종겸업	2종겸업	합계	전업	1종겸업	2종겸업
1997		169	92	24	53	561	269	92	200
1998		318	301	17	-	1,115	1,055	60	-
1999		381	294	36	51	1,271	981	120	170
2000		316	270	46	-	1,119	948	171	-
2001		316	270	46	-	1,110	940	170	-
2002		310	267	43	-	1,101	933	168	-
2003		1,265	378	887	-	1,265	378	887	-
2004		1,499	383	1,116	-	1,499	383	1,116	-
2012		1,380	220	1,159	-	1,380			
2013		1,380	220	1,159	-	1,380			
2014		1,380	220	1,159	-	1,380			
2015		1,378	220	1,158	-	1,378			
2016		1,302	220	1,082	-	1,302			
2017		1,302	220	1,082	-	1,302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제30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기본통계』, 2019, 70-73쪽.

## 2) 경지면적과 규모

부평구의 경지면적은 1997년 170ha에서 2017년 기준 63ha로 약 37%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2000년도를 전후하여 부평구 내 삼산지구가 택지로 개발된 데 기인한다. 논 면적의 경우 2001년 60ha에서 2004년 47ha로 감소한 데 비해 밭 면적은 2001년 19ha에서 2004년 29ha로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는 농지와 나대지를 밭으로 경작하여 주말농장이나 소규모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늘었기 때문이다.



❖ 1996년 삼산동 농경지 전경(출처 : 부평구청)

그러다가 2012년 이후 인천시와 서울시 등이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는 정책과 조례가 잇따라 제정되면서 논 면적이 다소 증가했다. 부평구 내 경지면적의 규모는 1ha 미만의 소규모 경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농가(농업인) 중 90% 이상이 1ha 미만의 경지면적을 갖고 있다. 1.5ha 미만의 농가는 모두 1,262명으로 전체의 약 97%를 차지한다.

표 13 부평구 내 경지면적 변화(1997~2017)

연별	합계	(단위 : 년·ha)	
		논	밭
1997	170	159	11
1998	182	156	26
1999	182	156	26
2000	86	60	26
2001	79	60	19
2002	79	47	32
2003	76	47	29
2004	76	47	29
2005	76	47	29
2006	25	17	8
2007	24	17	7
2008	23	17	6
2009	69	55	14
2010	69	55	14
2011	69	55	14
2012	69	55	14
2013	69	55	14
2014	69	55	14
2015	67	54	13
2016	63	50	13
2017	63	50	13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제30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기본통계』, 2019, 72쪽.

표 14 부평구 내 경지면적 변화(1997~2017)

연별	합계	(단위 : 년·ha·가구)					
		경지면적					
		0.1~0.5	0.5~1.0	1.0~1.5	1.5~2.0	2.0~3.0	3.0~5.0
2012	1,380	1,030	220	88	20	17	5
2013	1,380	1,030	220	88	20	17	5
2014	1,380	1,030	220	88	20	17	5
2015	1,378	1,029	213	88	20	17	5
2016	1,302	978	200	84	19	16	5
2017	1,302	978	200	84	19	16	5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제30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기본통계』, 2019, 74~75쪽.

2011년 부평구는 국내 최초로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였다. 십정녹지공원과 갈산근린공원, 청천동에 도시농업공원형 텃밭을 조성한 것이다. 그리고 부평구 의회도 2015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부평 도시농부학교, 도시텃밭, 상자텃밭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표 15 부평구 내 도시텃밭(분양텃밭) 운영 현황

(단위: m <sup>2</sup> 구획)				
구분	위치	면적	분양수	비고
합계	3개소	21,355	336	
갈월샘텃밭	갈산동 105-1번지 일원	6,320	112	
부영텃밭	산곡동 산20번지 일원	13,150	214	
청천텃밭	청천동 67-124번지 일원	1,885	10	공동체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제30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기본통계」, 2019.



❖ 갈월샘텃밭에서 모종심기를 체험 중인 아이들(출처: 부평구청)

### 3) 축산업

부평구의 축산업은 미미한 수준이며 소규모 가내 축산이 남아 있는 정도이다. 돼지를 사육하는 축산농가는 전혀 없으며, 소, 오리, 칠면조를 키우던 농가는 2014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산양, 토끼를 사육하던 농가 역시 비슷한 시기에 사라졌다.

소수의 농가에서 닭을 키우고 있으며, 2017년 기준 13호의 농가에서 양봉을 하고 있다.

표 16 부평구 축산업 현황

(단위: 년·마리)												
연별	한육우		산양		토끼		닭		꿀벌		개	
	호수	마리수	호수	마리수	호수	마리수	호수	마리수	호수	마리수	호수	마리수
2012	1	2	1	30	14	47	2	340	7	590	8,596	11,115
2013	1	2	1	30	14	47	14	447	7	620	8,596	11,115
2014	1	2	1	32	11	65	13	255	8	810	9,466	15,028
2015			1	40			3	175	10	1,230	10,119	16,077
2016							3	175	15	1,594	12,353	16,046
2017							14	183	13	1,230	13,045	16,959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제30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기본통계」, 2019, 80-81쪽.

## 2. 사업체와 제조업 현황

### 1) 사업체

부평구 내 사업체와 종사자 수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2000년 이후 회복되는 추세이다. 점점 증가하던 사업체 및 종사자 수는 2005년 다시 주춤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0년 이후 사업체 수는 3만여 개를 넘어섰고 종업원 수는 약 15만여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17 부평구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1997~2018)

(단위 : 년·개명)

연별	합계		1~4명		5~9명		10~19명		20~49명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1997	24,596	104,992	21,472	37,791	1,767	11,084	735	9,796	381	11,221
1998	23,066	95,981	20,454	35,393	1,421	8,890	621	8,381	359	10,495
1999	25,006	116,409	21,931	37,941	1,691	10,596	756	10,060	399	11,606
2000	26,534	118,830	23,048	39,868	1,920	12,139	881	11,669	451	13,281
2001	26,920	118,826	23,019	41,335	2,231	14,101	967	12,646	470	13,900
2002	28,211	122,006	24,024	43,432	2,462	15,535	994	12,984	493	14,538
2003	29,310	122,879	25,306	44,428	2,361	14,630	913	11,892	470	14,885
2004	29,312	119,808	25,517	44,858	2,255	13,999	814	10,715	473	14,079
2005	29,027	125,243	24,883	43,456	2,431	15,298	944	12,389	486	14,664
2006	29,206	132,312	24,931	43,262	2,497	15,685	960	12,427	519	15,496
2007	29,720	136,076	25,199	43,829	2,683	16,942	1,012	13,177	513	15,491
2008	29,869	137,212	25,391	43,533	2,573	16,221	1,047	13,783	547	16,402
2009	30,472	143,801	25,813	44,901	2,680	17,028	1,071	14,207	579	17,225
2010	30,733	147,531	26,282	46,116	2,329	15,103	1,129	14,851	647	19,005
2011	31,163	147,073	26,510	47,006	2,491	16,341	1,199	15,865	637	19,213
2012	31,929	149,596	26,771	46,165	2,969	18,945	1,163	15,615	677	20,891
2013	31,780	152,948	26,426	45,605	3,014	19,081	1,247	16,502	748	22,884
2014	31,798	151,459	26,341	45,878	3,098	19,759	1,284	16,849	737	22,157
2015	31,512	151,917	25,905	44,875	3,258	20,836	1,266	16,683	730	21,592
2016	32,144	157,012	26,422	45,640	3,326	21,125	1,304	17,361	741	22,165
2017	32,277	159,556	26,356	45,681	3,476	22,241	1,320	17,400	773	23,028
2018	32,636	157,261	26,461	45,446	3,651	23,326	1,407	18,550	777	23,294

연별	5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1997	152	10,160	69	11,220	11	4,234	4	2,616	5	6,870
1998	133	9,262	54	9,597	16	5,960	5	3,186	3	4,817
1999	155	10,593	54	9,496	12	4,663	4	2,666	4	18,788
2000	161	10,940	56	9,398	9	3,211	5	3,821	3	14,503
2001	153	10,260	62	10,003	11	3,696	4	2,758	3	10,127
2002	158	10,710	64	10,390	8	2,984	5	3,168	3	8,265
2003	174	11,885	67	9,640	13	4,890	3	1,862	3	8,767
2004	164	10,987	76	11,259	8	3,158	3	2,149	2	8,604
2005	198	13,560	74	11,960	7	2,974	3	2,119	1	8,823

연별	5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2007	219	15,194	82	12,731	8	3,336	3	2,126	1	13,250
2008	206	14,495	90	13,562	12	4,741	1	720	2	13,755
2009	208	14,467	104	15,884	12	4,713	3	1,794	2	13,582
2010	215	14,976	114	16,882	10	3,529	4	2,397	3	14,672
2011	204	14,097	105	15,883	11	4,013	4	2,989	2	11,666
2012	241	16,909	96	14,935	8	2,961	2	1,525	2	11,650
2013	228	15,969	104	16,268	8	2,974	3	2,067	2	11,598
2014	235	16,284	91	14,075	5	1,683	4	2,423	3	12,351
2015	253	17,293	88	13,744	6	2,295	3	2,304	3	12,295
2016	253	17,168	84	13,021	7	2,511	4	2,720	3	15,301
2017	250	16,747	89	13,852	6	2,448	4	2,894	3	15,265
2018	248	16,696	79	12,704	6	2,498	4	3,158	3	11,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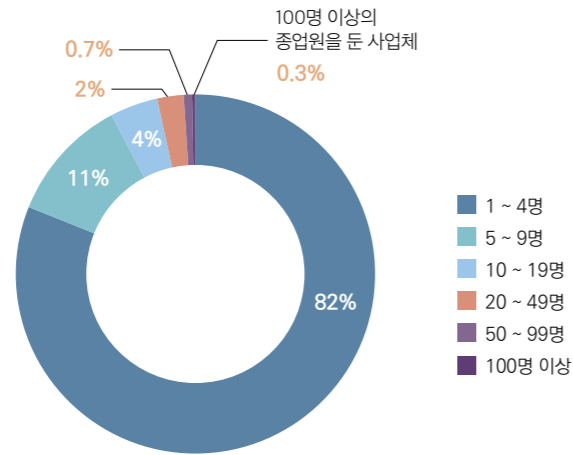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1997~2006;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업체조사 보고서」, 2007~2018.

2018년 기준으로 부평구의 사업체 수는 3만 2,636개이며, 종사자 수는 모두 15만 7,261명이다. 2017년 기준으로는 4명 이하 종업원의 사업체가 전체의 약 82%를 차지하며, 종업원 5~9명의 사업체가 전체의 11%를 차지하는데, 결국 9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가 전체의 93%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종업원 100~299명 규모의 사업체는 89개, 300~499명 규모의 사업체는 6개, 500~999명 규모의 사업체는 4개, 1,000명 이상 규모의 사업체는 3개로서, 결국 100명 이상의 종업원을 둔 사업체는 모두 102개이며 이는 전체 사업체 수의 약 0.31%에 지나지 않는다.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2005년 무렵 95%에서 93%로 줄어든 것은 중소 규모의 사업체 비중이 다소 증가한 것이지만 부평구의 사업체 규모는 여전히 9명 미만이 대다수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14 2017년 기준 부평구 사업체 규모별 현황



한편 부평구 내 전체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의 비율을 살펴보면, 대체로 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4명 미만의 사업체에 근무하는 주민은 29%이며, 5~9명 규모의 사업체에 근무하는 주민은 14%, 10~19명 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주민은 11%, 20~49명 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주민은 14%, 50~99명 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주민은 10%, 100~299명 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주민은 9%, 그리고 1,000명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 근무하는 주민은 10%에 달한다. 300~499명 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주민이 1%, 500~999명 규모의 사업체에 근무하는 주민이 2%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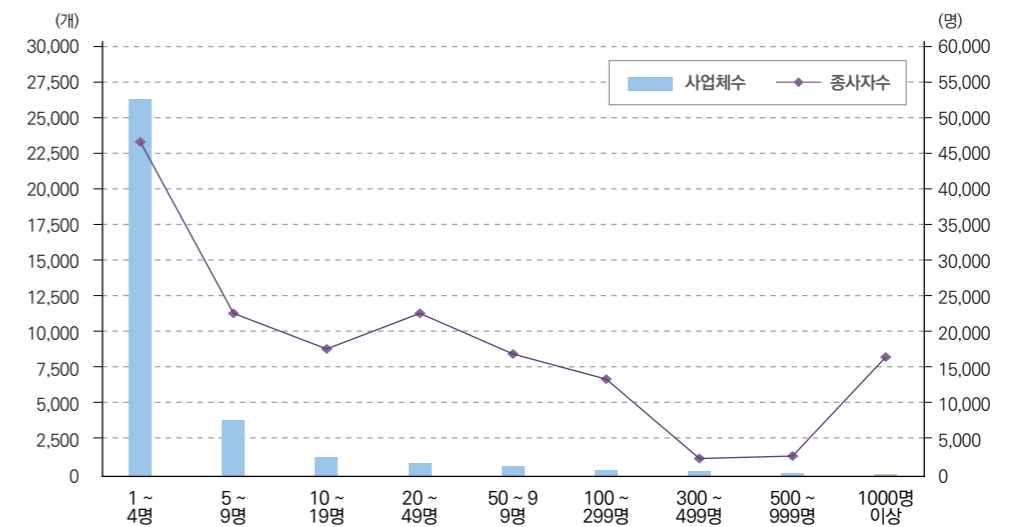


❖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한 간담회(출처 : 부평구청)

이는 결국 1,000명 이상 규모의 대기업, 즉 한국GM(주)과 엠코테크놀로지 코리아(구 아남반도체), 동서식품(주)의 대기업에 종사하는 주민을 제외하면, 종업원 300~999명 규모의 기업에 종사하는 주민은 3%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부분의 주민들은 9명 이하의 소기업에 근무하는 산업구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평구는 그동안 지역 성장과 경제 유발 효과가 큰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편중을 해소하는 한편, 대다수의 주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종업원 1,000명 이하의 중견기업이 적다는 부평구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외의 중견기업들을 관내로 적극 유치하고, 부평구 내 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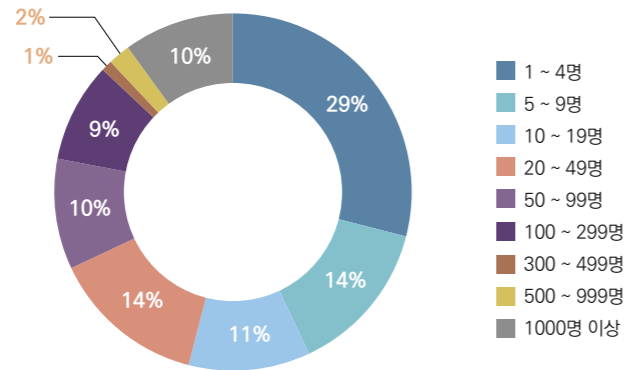
그림 15 부평구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 보고서」, 2019, 18쪽.



그림 16 부평구 사업체별 종업원 규모 현황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제30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기본통계』, 2019

부평구 내 사업체의 조직 형태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개인 사업체이며, 전체 종사자의 대다수는 개인 사업체와 회사 법인에 속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8 2017년 부평구 사업체 및 종사자의 조직 형태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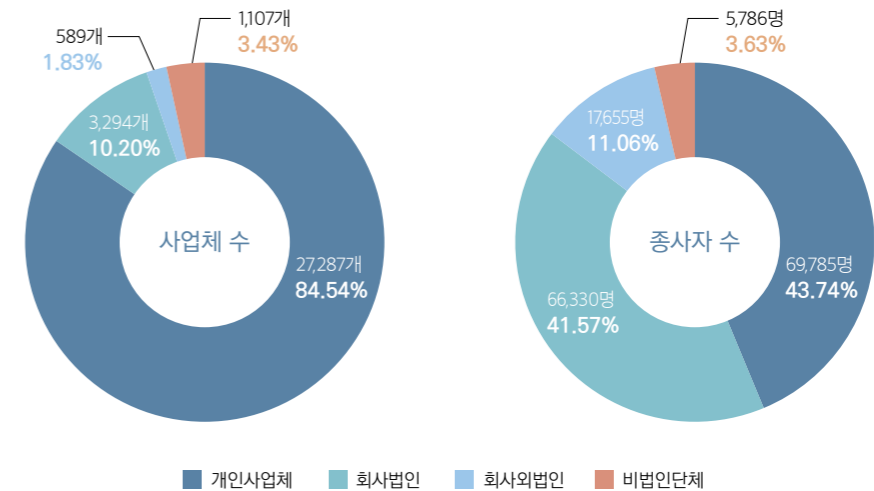
(단위 : 개·%)

조직 형태별	사업체		종사자	
	수	비율	수	비율
합계	32,277	100	159,556	100
개인 사업체	27,287	84.54	69,785	43.74
회사 법인	3,294	10.20	66,330	41.57
회사 외 법인	589	1.83	17,655	11.06
비법인 단체	1,107	3.43	5,786	3.63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 보고서』, 2019, 16쪽.

사업체의 조직 형태는 개인 사업체가 2만 7,287개로 84.54%, 회사 법인이 3,294개로 10.20%, 회사 외 법인이 589개로 1.83%, 비법인 단체가 1,107개로 3.43%를 차지한다. 종업원 수 100명 이하의 사업체가 80%에 달하는 것과 비슷하게, 부평구 내 사업체는 개인 사업체가 대다수인 것을 알 수 있다. 종사자는 개인 사업체에 6만 9,785명(43.74%), 회사 법인에 6만 6,330명(41.57%)이 근무하는데, 이를 더하면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한다.

그림 17 조직형태별 사업체수(왼쪽)와 종사자수 비율(오른쪽)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 보고서』, 2019, 16쪽.

부평구 내 전체 사업체를 단독 사업체와 본사, 지사 및 공장으로 구분하면, 공장·지사 1,376개(4.26%), 본사가 244개(0.76)에 불과하며 나머지 94.98%는 단독사업체이다. 종사자 수의 분포를 보더라도 공장·지사에 14.32%, 본사에 13.53%가 근무하며, 나머지 72.15%는 단독사업체에 근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사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종사자 수가 2만 여 명에 달하는 것은 타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지사와의 연관성이 적지 않다는 뜻이며, 부평구 내 공장·지사에 근무하는 종사자 역시 2만 2,000여 명에 달하는 것은 타지역에 소재하는 본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해당 본사에 의존하는 취약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부평구 내 사업체의 취약성 감소와 장기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독 사업체의 성장과 관내·관외에 공장과 지사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관내 타사 공장·지사들의 비율을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표 19 2017년 부평구 사업체의 형태별 현황

(단위: 개명%)

사업체 구분	사업체		종사자	
	수	비율	수	비율
합계	32,277	100	159,556	100
단독 사업체	30,657	94.98	115,126	72.15
공장·지사	1,376	4.26	22,848	14.32
본사	244	0.76	21,582	13.53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 보고서」, 2019, 17쪽.

그 일환으로 2020년 3월 부평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타지역에서 부평구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업체에 대해 매출 규모 10억 원 기준 2.3~2.5% 우대 지원하고 있다.

## 2) 제조업

부평구 내 제조업 분야 사업체는 2017년 기준 총 3,406개이며 종사자는 3만 8,725명에 이른다.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체와 종사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편이다. 2014~2015년 사이 제조업체가 다소 증가했다가 2016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비해 각 업체에 소속된 종사자 수는 다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부평구 내 제조업의 특성이 노동집약형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제조업이 다수 노동자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일면 긍정적이지만, 반면에 노동집약형 제조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는 특성상 불경기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부평구 내 제조업의 노동집약형 성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연구와 기술개발

(R&D)을 지원하고 기술집약형 및 고부가가치 기업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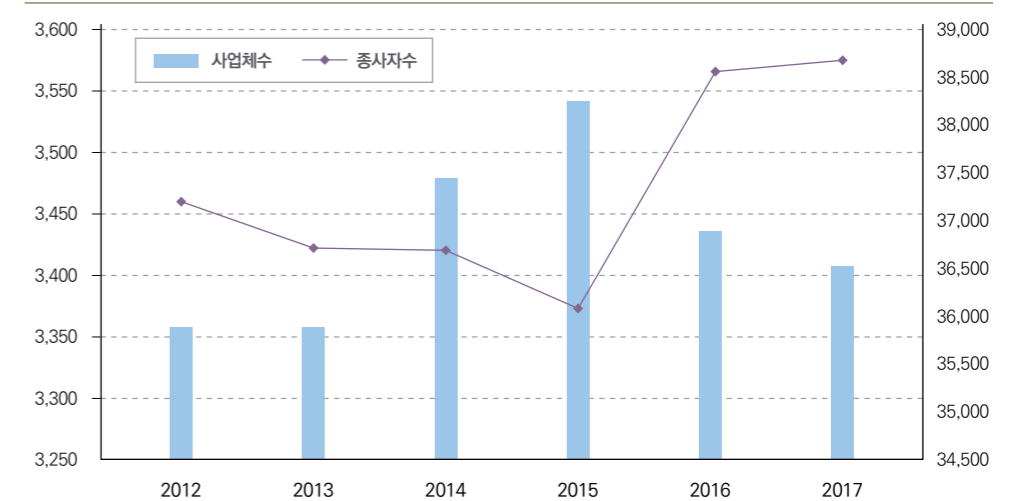
표 20 부평구 음식료품 제조업의 변화(2012~2017)

(단위: 년·개명)

연별	음식료품	
	사업체 수	종사자 수
2012	3,361	37,151
2013	3,360	36,705
2014	3,481	36,624
2015	3,540	36,056
2016	3,433	38,560
2017	3,406	38,725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기본통계」, 2019, 70쪽.

그림 18 제조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1) 음식료품**

1990년 중반까지 부평구에는 음식료품 제조업이 비교적 성업을 이루었는데, 1997년 외환위기(IMF 사태) 직후 업체 수가 약 300개에서 18개로 급감했다. 5인 이하의 영세업체 대부분이 도산했기 때문이다. 업체의 급감에 비해 종사자 수는 약 1,000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음식료품 업체는 2011년 이후 다시 회복되었다. 2018년 기준 10명 이상 업체는 19개이며 종사자는 총 713명이다. 10명 이하의 소규모 음식료품 제조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업체 수는 2017년 기준 약 322개이며, 종사자는 총 1,386명이다.

**표 21** 부평구 음식료품 제조업(10명 이상) 현황

(단위: 년·개·명)

연별	음식료품	
	사업체 수	종사자 수
1997	297	1,534
1998	18	1,149
1999	19	1,010
2000	24	986
2001	28	989
2002	40	1,133
2003	36	827
2004	38	935
2005	44	1,002
2009	16	873
2010	15	882
2011	18	874
2012	20	792
2013	21	834
2014	21	893
2015	19	1,094
2016	22	824
2017	19	778
2018	19	713
9명 이하 업체 포함 시(2017년 기준)	322	1,386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제조업 중분류별 사업체 수(10명 이상 기준) 및 종사자 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 보고서」, 2019, 34쪽.

**(2) 섬유제품,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부평수출산업공단을 중심으로 활기를 띠던 섬유제품과 관련된 기업들의 업체 수나 인원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저가의 중국산 섬유제품에 이어서 중고가의 외국산 섬유, 의복, 액세서리, 모피제품에 밀려 국내 섬유 산업은 경쟁력을 잃고 있다. 다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섬유 및 의복 등 관련 업체들의 약진에 힘입어 업체 수와 종업원 수가 약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2** 부평구 섬유제품·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현황

(단위: 년·개·명)

연별	섬유제품		의복 및 모피제품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1997	140	1,549	240	2,125
1998	33	832	58	2,004
1999	40	1,061	56	2,103
2000	44	1,118	71	2,405
2001	47	1,152	85	2,394
2002	47	1,024	94	2,322
2003	41	1,081	84	1,778
2004	44	1,006	81	1,420
2005	38	712	74	1,375
2009	8	376	39	1,115
2010	9	556	42	1,175
2011	9	417	49	1,269
2012	9	407	43	1,084
2013	8	388	42	1,097
2014	12	474	32	894
2015	13	500	30	772
2016	10	402	27	770
2017	11	423	30	729
2018	13	425	36	920
9명 이하 업체 포함 시(2017년 기준)	322	1,386	160	1,312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제조업 중분류별 사업체 수(10명 이상 기준) 및 종사자 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 보고서」, 2019, 42-50쪽.

종사자 10명 이상 규모의 섬유·의복 제조업체의 대부분은 부평산업단지 내에 입주·가동 중이다. 2018년 기준 40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인데, 산업단지 내 전체 업종 수의 약 4.3%에 불과하다. 생산 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 2,779억 원의 생산액을 정점으로 생산 실적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2018년 1,047억 원으로 반등하고 있는 추세이다. 산업단지 내 생산 실적의 비중은 2009년 약 10%대였는데, 2018년에는 3%대로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3 부평산업단지 내 섬유·의복업체 현황

(단위: 년개%·억 원)

구분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입주	가동	입주	가동	입주	가동	입주	가동	입주	가동	입주	가동	입주	가동	입주	가동	입주	가동	입주	가동	입주	가동
업체 수	32	28	36	30	34	34	34	34	36	36	39	39	36	36	38	38	40	40	40	40	40	40
구성비 (%)	4.9	4.5	4.8	4.3	4.2	4.3	4.1	4.2	4.4	4.4	5.1	5.2	4.9	4.9	4.4	4.4	4.5	4.5	4.2	4.3		
생산실적 (억 원)	1,888		2,418		2,310		2,364		2,779		2,360		820		745		898		1,047			
구성비 (%)	10.3		11.1		9.3		8.4		9.7		7.9		2.6		2.2		2.6		3.1			

출처: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역 국가산업단지 현황 및 지역경제 비중 조사(2009-2018년)」, 2019, 36-39쪽.

###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의 경우, 1997년에는 40개 업체(10명 이상 기준) 998명의 종업원이 있었는데, 2000~2001년 무렵 24개 업체에 약 1,000명 내외의 종사자가 근무했던 것을 정점으로 점차 업체와 종사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2016년 기준 12개 업체에 약 6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반적인 제조업 불황의 여파 외에 화합물 및 화학제품의 특성상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취업 기피와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이다.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의 경우, 업체 수(10명 이상 기준)가 1997년 133개에서 2018년 기준 58개로 줄었지만 종사자 수는 오히려 2,445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의 꾸준한 수요와 제품 다양화에 발맞춘 업계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며, 위험한 화학제품에 비해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종은 외국인노동자 등의 인력 조달이 비교적 무난한 편이며 이들에 대한 저임금 생산비용 구조가 그나마 업체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9명 이하의 영세업체가 180여 개에 달하는 것은 문제이다. 이들 영세업체의 평균 종사자 수는 2.6명 내외에 불과하다. 이들 업체들은 업주들의 고령화가 심각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 또는 대책이 필요하다.

표 24 부평구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현황

(단위: 년개·명)

연별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1997	40	998	133	1,616
1998	25	959	52	874
1999	22	931	65	1,110
2000	24	1,074	66	1,016
2001	24	948	83	1,304
2002	19	771	88	1,424
2003	18	760	88	1,414
2004	19	809	96	1,542
2005	21	849	104	2,094
2009	15	626	47	2,068
2010	14	579	48	2,034
2011	14	554	45	1,987
2012	14	610	47	2,435
2013	15	616	48	1,882
2014	13	532	54	1,921
2015	10	528	50	2,132
2016	12	610	55	2,292
2017	10	518	57	2,389

연별	화학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2018	10	717	58	2,445
9명 이하 업체 포함 시(2017년 기준)	36	612	245	2,863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제조업 중분류별 사업체수(10명 이상 기준) 및 종사자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 보고서」, 2019, 62-70쪽.

#### (4) 비금속광물, 가죽 및 신발류 제조업의 변화

비금속 광물제품의 경우, 1990년대 초 약 50여 개 업체에서 1,000명의 종사자가 있었는데, 2017년 기준 31개 업체 287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명 이상의 업체는 2018년 기준 5개이며 해당 업체 종사자는 200명에 못 미친다. 이 분야 업종은 3D업종으로 분류되어 온 사업체로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죽, 가방 및 신발류 제조업의 경우, 1997년 41개 업체, 종사자 345명에서 2017년 기준 81개 업체, 종사자 371명으로 증가하였다. 종사자 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업체 수는 두 배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기존 업체에서 실직했거나 독립한 종사자들이 상당수 개인 사업자로 개업한 것으로 보인다. 부평구에는 가죽을 소재로 한 핸드백과 가방 등을 제조하는 업체가 56개, 신발류 업체가 22개나 된다. 이 가운데 10명 이상의 직원을 둔 업체는 2018년 기준 6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75개 업체는 대부분 직원 2~3명 내외의 소규모 영세업체이다.

표 25 부평구 비금속광물, 가죽 및 신발류 제조업 현황

(단위: 년개명)

연별	비금속 광물제품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1997	52	993	41	345
1998	10	305	15	259
1999	14	242	18	312
2000	8	198	23	218

연별	비금속 광물제품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2001	11	188	23	168
2002	13	198	27	209
2003	13	208	20	127
2004	14	209	21	146
2005	14	213	19	125
2007	4	169	3	33
2008	4	168	4	49
2009	4	162	5	65
2011	3	194	4	56
2012	4	192	5	57
2013	4	244	9	141
2014	6	195	8	110
2016	5	209	8	137
2017	6	200	7	130
2018	5	196	6	147
9명 이하 업체 포함 시(2017년 기준)	31	287	81	371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제조업 중분류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07년 이후는 10명 이상 기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 보고서」, 2019, 54-74쪽.

#### (5) 목재 및 나무제품, 가구류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의 경우, 1997년 73개 업체에 283명의 종사자가 있었지만, 2018년 기준 18개 업체에 58명만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이상의 업체는 2018년 기준 2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1~2명 규모의 장식용 목제품, 목재 도구, 주방용 제품, 목재 상자, 적재판, 건축자재 제조업을 유지하고 있다.

가구제품 제조업의 경우, 1997년 257개 업체 4,210명에서 2017년 기준 63개 업체, 208명으로 줄어들었다. 10인 이상의 업체는 2018년 기준 4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59개 업체는 대부분 2명 내외 규모로서 음식점 주방용 가구 제조업과 기타 금속 가구 제조에 집중되어 있다.

표 26 부평구 목재 및 나무제품, 가구류 제조업 현황

(단위: 년개명)

연별	목재 및 나무제품		가구 및 기타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1997	73	283	257	4,210
1998	12	131	83	3,639
1999	16	207	89	3,273
2000	14	288	90	3,367
2001	10	120	87	3,199
2002	9	80	83	2,976
2003	9	113	75	2,243
2004	9	105	73	1,392
2005	8	80	-	-
2007	5	61	2	-
2008	6	69	2	-
2009	4	57	1	-
2011	4	47	2	-
2012	4	52	3	47
2013	3	35	2	-
2014	2	-	4	64
2016	1	-	-	-
2017	2	-	3	64
2018	2	-	4	71
9명 이하 업체 포함 시(2017년 기준)	18	58	63	208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제조업 중분류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07년 이후는 10명 이상 기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 보고서」, 2019, 54-122쪽.

**(6) 펄프 및 종이제품, 출판 인쇄 및 복제업**

펄프 및 종이제품은 1997년 37개 업체에서 1998년 13개 업체로 급속히 줄었으나 2000년 이후 꾸준히 회복되어, 2017년 기준 36개 업체에 345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는 사무환경의 자동화와 더불어 종이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한편, 인쇄업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선거가 있는 해를 중심으로 전단지 수요가 증가할 때마다 조금씩 업체와 종업원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펄프 및 종이제품 업체의 대부분은 골판지 상자, 종이 포

대, 판자, 종이 용기 등을 제조하고 있다.

출판 인쇄 및 복제업은 전통적으로 10인 이하의 종업원으로 운영되는 영세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펄프 및 종이제품 업종과 마찬가지로 90년대 후반 급감했다가 이후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다. 인쇄업은 2017년 기준 93개 업체, 532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쇄업 대부분은 직원 4-5명 내외의 옵셋 인쇄, 스크린 인쇄, 경 인쇄(마스터 인쇄) 등 소규모 업체들이다.

표 27 부평구 종이제품, 출판 인쇄 및 복제업 현황

(단위: 년개명)

연별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1997	37	307	107	429
1998	13	133	6	100
1999	15	151	9	268
2000	19	171	14	154
2001	9	111	15	208
2002	17	159	14	347
2003	19	170	16	354
2004	16	149	20	355
2005	14	142	25	387
2007	4	151	7	251
2008	3	163	5	207
2009	4	189	8	407
2011	3	144	6	234
2012	4	231	6	144
2013	6	292	5	90
2014	6	230	7	134
2016	6	277	6	302
2017	6	251	6	102
2018	6	265	6	113
9명 이하 업체 포함 시(2017년 기준)	36	345	93	532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제조업 중분류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07년 이후는 10명 이상 기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 보고서」, 2019, 58-62쪽.

**(7) 1차 금속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차 금속산업 업종은 철강, 비철금속, 기타 철강, 강관 가공품 등의 제조업을 가리킨다. 이 업종은 1997년 77개 업체 596명의 종업원에서 1998년 19개 업체 316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05년 30개 업체 404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이는 2000년 이후 부평 국가수출산업단지가 금속제품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이들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 업체 수는 2017년 기준 39개로 약간 증가했지만, 총 종사자는 370명으로 줄어들었다. 1차 금속산업의 총 출하액은 2018년 기준 721억 원 규모이다.

과거에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이라 불렀던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분야는 구조용 금속제품, 금속 문, 창, 셔터 관련 제품, 산업용 난방보일러,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등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이 업종은 외환위기 직후 크게 줄어들었다가 200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업종에는 2017년 기준 499업체에 1,002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총 출하액은 2018년 기준 약 4,833억 원 규모이다. 업체 수와 종사자 수, 그리고 부가가치 규모가 작지 않은 편이다.

**표 28** 부평구 제1차 금속산업, 금속 가공제품 산업 현황

(단위 : 년개명)

연별	제1차 금속산업		금속 가공제품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1997	77	596	462	2,998
1998	19	316	136	2,557
1999	20	316	170	2,376
2000	21	258	174	2,395
2001	24	307	193	2,433
2002	26	315	251	2,822
2003	28	317	271	3,348
2004	30	335	290	3,502
2005	30	404	293	3,825
2007	17	325	98	2,459
2008	15	248	93	2,177
2009	14	258	86	2,087
2011	15	272	91	2,672

연별	제1차 금속산업		금속 가공제품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2012	9	171	87	2,524
2013	9	184	92	2,147
2014	11	208	88	2,584
2016	10	231	95	2,549
2017	12	263	92	2,601
2018	12	259	90	2,836
9명 이하 업체 포함 시(2017년 기준)	39	370	499	1,002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제조업 중분류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07년 이후는 10명 이상 기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 보고서」, 2019, 82-88쪽.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일반 기계 제조, 내연기관, 터빈, 유압기기, 펌프 및 압축기, 트럭, 승강기, 냉각기, 공조기, 여과기, 주형 및 금형, 절삭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기계 등을 제작하는 업종이다. 이 분야에는 2017년 기준 412개 업체에 3,799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 직원 10명 이상 규모의 업체가 78개로서 2,458명이 소속되어 있다. 나머지 334개 업체에 평균 4명이 종사하고 있어 적지 않은 숫자이다. 이 업종의 총 출하액은 2018년에 약 6,304억 원이다.

과거에 ‘전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라고 불렀던 업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으로 개정되었다. 이 업종은 반도체, 각종 전자부품,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주변기기, 통신 및 방송장비, 영상 및 음향기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이다. 이 업종은 컴퓨터와 주변기기, 그리고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비교적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7년 기준 236개 업체에 2,780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0인 이상 규모의 업체는 2018년 기준 59개에 달한다. 이 업종의 총 출하액은 2012년에 약 9,454억 원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점차 줄어들어 2016년 5,530억 원까지 축소되었다가 2018년에 약 5,758억 원으로 다소 회복되고 있다.

표 29 부평구 기타 기계 및 장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현황

(단위: 년개명)

연별	기타 기계 및 장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1997	502	5,343	163	5,410
1998	135	2,877	76	2,626
1999	176	4,452	102	3,027
2000	201	4,522	114	3,161
2001	207	4,422	121	2,952
2002	188	3,678	120	3,026
2003	173	4,035	121	3,431
2004	189	3,621	118	3,618
2005	186	3,423	121	3,366
2007	72	2,254	74	3,094
2008	70	2,236	75	2,622
2009	65	2,031	75	3,080
2011	59	2,306	84	2,657
2012	58	2,105	85	3,104
2013	72	2,394	75	3,044
2014	76	2,321	74	2,634
2016	80	2,414	62	2,067
2017	81	2,648	54	2,029
2018	78	2,458	59	2,052
9명 이하 업체 포함 시(2017년 기준)	412	3,799	236	2,780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제조업 중분류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07년 이후는 10명 이상 기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 보고서」, 2019.94-98-106쪽.

**(9) 전기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과거에 ‘기타 전기 변환장치’로 분류되었던 산업은 ‘전기장비 제조업’으로 개편되었다.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축전지, 절연선 및 케이블, 전구 및 램프, 난방기기, 엔진, 터빈, 유압기기, 펌프 및 압축기, 탭, 밸브, 승강기, 컨베이어 장치, 냉각기, 공조, 여과, 사무기기 등을 망라한다.

이 업종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기준 329개 업체에 3,088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 업종의 총 출하액은 2018년 기준 6,168억 원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의료, 정밀, 광학 기계 제조업은 경기 변동에 따라 업체와 종사자 수의 부침이 심한 편이다. 1997년 무렵 68개 업체 925명에서 1998년 29개 업체 1,022명, 1999년에는 30개 업체 992명, 2000년에는 36개 업체 1,14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무렵 1,105명까지 증가했다. 2017년 기준 153개 업체에 1,431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명 이상 규모의 업체는 2018년 기준 31개에 달한다. 하지만 첨단 BT, IT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 비해 총 출하액 수준은 높지 않은 편이다. 2016년 1,831억 원을 정점으로 2018년에는 1,540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향후 고부가가치의 미래 산업 분야의 하나인 의료, 정밀, 광학기기 제조업에 대한 지원과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사태의 영향으로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마스크와 방역 및 소독 기기 제품 등의 제조와 관련 업체의 가동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업체의 종사자 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0 부평구 전기장비, 정밀 광학기기 제조업 현황

(단위: 년개명)

연별	전기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1997	154	1,163	68	925
1998	57	944	29	1,022
1999	64	1,078	30	992
2000	82	1,347	36	1,145
2001	87	1,447	43	989
2002	95	1,289	42	870
2003	100	1,281	39	819
2004	107	1,506	42	1,105
2005	109	1,566	43	738
2007	61	1,815	15	641
2008	56	1,642	15	583
2009	57	1,736	16	566
2010	64	1,797	20	659
2011	69	1,750	24	842
2012	66	1,882	24	657
2013	69	2,230	22	612



연별	전기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2014	73	2,510	28	678
2015	68	2,048	34	956
2016	62	2,086	34	1,029
2017	76	2,261	33	1,014
2018	80	2,186	31	889
9명 이하 업체 포함 시(2017년 기준)	329	3,088	153	1,431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제조업 중분류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07년 이후는 10명 이상 기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 보고서』, 2019, 98-114쪽.

### (1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구 대우자동차와 지금의 한국GM 공장으로 상징되는 부평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경우, 1998년 무렵 무려 1만 8,182명이 근무하는 업종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IMF 사태)의 여파로 2000년 대우그룹 해체에 이어 대우자동차는 부도 위기를 맞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2002년 GM이 대우자동차의 승용차 부문을 인수하여 2002년 'GM대우'로 새출발하였다. 'GM대우'는 2011년 3월 '한국GM'으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부평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한국GM'의 부평공장을 주축으로 부평구 내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등 약 40여 개 협력업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외환위기와 한국GM의 구조조정, 공장 정상화, 경기 변동을 거치면서 관련 업종의 구조조정이 수차례 진행되었고 그때마다 종사자 수도 부침을 겪어 왔다.

2008~2010년 무렵 약 1만 3,000여 명의 인력이 종사했다가 약간의 조정기를 거쳐 2017년 기준 47개 업체에 1만 2,729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17년 기준 '한국GM'에 1만 2,175명이 근무하고, 직원 10명 이상 규모의 업체 10개에 17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평균 17명 수준이다. 그리고 나머지 36개 업체에 38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업체당 평균 10명 수준인 셈이다.

표 31 부평구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현황

(단위 : 년개 명)

연 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사업체 수	종사자 수
1997	114	5,075
1998	46	18,182
1999	52	13,336
2000	52	12,907
2001	40	8,708
2002	30	13,845
2003	32	13,187
2004	33	11,811
2005	33	9,126
2007	17	13,338
2008	10	13,028
2009	15	13,048
2010	13	13,043
2011	18	11,145
2012	17	10,903
2013	17	10,804
2014	16	10,484
2015	11	10,145
2016	8	11,584
2017	11	12,345
2018	11	11,019
9명 이하 업체 포함 시 (2017년 기준)	47	12,729

❖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제조업 중분류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07년 이후는 10명 이상 기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 보고서』, 2019, 114쪽.

그 밖에 2017년 기준 가구 제조업 분야에 63개 업체 208명, 귀금속, 악기, 운동기구, 장난감 등 기타 제조업 분야에 194개 업체 843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은 1997년 1개 업체 11명이 종사하다 1998년 퇴출되었고,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은 2004년에는 퇴출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평구 내 제조업의 특징은 한국GM과 같은 몇몇 기업들

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중소기업이라는 데 있다. 이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은 부평 지역경제의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고용과 생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부분 노동집약적인 업종이었지만 최근에는 서서히 몇몇 업종과 업체들이 자동화와 IT 기술, R&D 노력 등을 통해 저고용 및 고부가가치형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추세이다.

부평구는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가속하도록 지원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2020년 3월 부평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20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부평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 조성을 위해 3%의 이차보전(이자 차액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며 3년간 1년 거치, 2년간 4회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조건에 따라 1.5~2.5%의 이차 차액 보전 금리를 의결하고 중소기업부 기조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증한 소재·부품 전문기업은 2%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밖에 부평구는 ISO 9001 및 10002 인증 획득 지원,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산업기술 정보 지원, 해외규격인증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특허 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국제통상 촉진과 국제도시 간 교류 추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최근 고부가가치 산업과 기업은 저고용 성격이 강하고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부평구는 고용안정과 취업,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일 필요가 있다.

### 3. 기타 서비스 산업과 공공 서비스

#### 1) 여행·관광업

부평구의 여행업은 1992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해외여행 비용이 고가였지만, 점차 저비용항공사(LCC)의 난립과 과당 경쟁이 심해지고 여행상품의 흡소핑 판매와 구매가 보편화됨에 따라 여행업은 성장하는 반면, 여행사의 지점과 점포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더욱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2020년 이후 해외여행이 전면 중단되고 국내여행업 제

한 조치 등에 따라 국내외 여행업 전체가 큰 타격을 입었으며 2020년 이후 당분간 여행사와 점포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평구는 인천의 관문으로서 수도권 시민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하여 관광자원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유물과 유적, 자연경관 등의 관광자원이 빈약한 편이다. 부평도호부와 부평향교 등은 계양구에 위치하고, 십정동과 간석오거리 인근에 있었던 염전은 흔적조차 사라진 지 오래다.

따라서 부평구는 부평의 특성에 맞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문화의 거리, 조형물 거리, 특색 음식 거리, 상품 구매 특구, 대단위 숙박시설 조성 등을 통하여 관광업의 활로를 찾고 있다.

지난 반세기 이상 부평이 국가산업단지와 한국GM 등 대규모 공업,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지만, 이제 부평의 미래는 공업과 제조업에 의존하기보다는 역사와 문화, 생태 분야의 콘텐츠를 가꾸고 키우는 데 달려 있다. 더욱이 관광 산업 측면에서 볼 때 주변의 서울과 인천, 도시와 바다 등에 비해 관광자원의 특성과 경쟁력이 취약한 부평으로서는 오직 부평에만 있고 부평에서만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조병창과 줄사택, 미군 부대 시설 등 질곡의 역사와 근대문화유산을 문화콘텐츠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과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병창과 줄사택은 일본과 북한 지역의 유사한 문화유산 등을 포괄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매우 희귀하고 중요한 역사문화 콘텐츠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굴포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방안, 한국 자동차산업의 역사인 한국GM(구 대우자동차)과 재래시장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기타 유원(遊園)시설로 분류되는 대형 키즈카페와 레포츠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하지만 관광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의 방문보다 숙박·체류형 볼거리와 상품을 개발하고, 숙박시설 등의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부평의 경우 2018년 일본의 호텔체인인 토요코인 인천부평점이 개업한 것 외에는 내세울 만한 숙박시설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내국인의 눈높이에 맞는 숙박시설은 물론이고 특히 외국인

을 위한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없는 한 부평을 방문한 관광객이 남동구와 인천, 부천, 서울 등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1박 2일의 음악 축제 등 문화 행사와 이벤트의 적극적인 유치, 부평의 장점인 생태공원 등을 활용한 캠핑장 설치, 외국인과 장기 투숙 관광객을 위한 레지던스형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 홈스테이, 한옥 및 전통 체험 숙박시설 등을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

표 32 부평구 여행업 및 관광 숙박업 현황(1997~2018)

(단위: 년·개)

연별	여행업				관광숙박업		유원시설	관광편의 시설업
	일반	국외	국내	국내외 여행업	관광 호텔업	관광극장 식당	기타 유원시설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997	-	12	14	-	2	-	-	-
1998	-	14	12	-	2	-	-	-
1999	-	20	21	-	2	-	-	-
2000	-	18	23	-	2	-	-	-
2001	-	20	24	-	2	3	-	-
2002	1	24	30	-	2	3	-	-
2003	-	27	29	-	2	3	-	-
2004	-	27	28	-	2	3	-	-
2005	1	31	31	-	2	-	-	-
2006	1	29	31	-	2	-	-	-
2007	1	35	27	-	2	-	-	-
2008	1	35	26	-	2	-	-	-
2009	1	33	25	-	2	-	-	-
2010	2	39	29	-	2	-	-	-
2011	3	41	36	-	2	-	-	-
2012	5	41	39	-	2	-	-	-
2013	7	33	31	-	2	-	-	-
2014	10	36	30	23	1	-	7	4
2015	10	32	27	19	-	-	8	3
2016	19	34	27	19	-	-	11	4
2017	17	31	24	12	1	-	11	4
2019	22	36	27	14	1	-	21	5
2020	21	37	27	15	1	-	17	4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통계 연보」, 1997~2006;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기본통계」, 2007~2019.

## 2) 개인서비스,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

부평구내의 개인서비스 업소는 2005년 무렵 총 5,315개가 성업 중이었는데, 2018년 기준 2,046개로 줄어들었다. 그 밖에 노래방,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은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이 있다. 과거에 성업했던 비디오대여점, 비디오감상실, 복사업 등은 거의 사라진 대신에, 최근 들어 커피전문점, 피부미용업, 마사지와 체형 관리, 헬스장, PC방, 제과점 등이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부평구 개인서비스 업소 현황(2005년과 2018년 비교)

(단위: 년·개소)

업종	2005	2018	비고
음식업	2,386	3,551	
주점업	-	1,093	일반 및 무도 유흥주점, 생맥주, 기타 포함
커피전문점	226	495	2005년에는 '다방'
이용 및 미용업	998	1,476	피부 미용업 포함
욕탕, 마사지업	59	147	체형 등 신체관리 서비스업 포함
세탁업	352	319	산업용, 가정용, 공급업 포함
비디오 임대업 및 감상실	87	5	현재 비디오 임대업은 모두 사라짐
당구장	145	166	
수영장	3	0	
볼링장	6	6	
노래방	460	450	
사진관	73	79	행사촬영, 사진처리업 등 포함
복사	161	9	인쇄업 제외
골프연습장	20	46	
숙박업	274	244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	16	장의, 화장터, 묘지 등 포함
체력단련시설	-	97	
전자게임장, 컴퓨터 게임방	-	685	PC방 등
복권판매업	-	57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기본통계」, 2019; 부평구청 제공 통계 자료

일반음식점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9월 기준 총 8,610개인데, 이 가운데 한식(1,912개), 호프·통닭·치킨집(797개), 분식집(274개), 중국음식점(168개)이 다수를 차지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빵과 제과점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5월 기준 부평구 내 제과점은 모두 136개에 달한다.

기타 휴게소 음식점으로 분류된 업소는 모두 1,274개인데, 이 가운데 커피숍(503개), 편의점(190개), 다방(146개)이 가장 많다.

그 밖에 가로에 설치된 구두수선대는 46개, 가로판매대는 36개로 모두 82개가 있다.

한편 부평구 내에 당구장, 체육도장, 헬스장, 골프연습장이 성업 중인데, 수영장과 인공암벽장 등의 시설은 부족한 편이다. 최근 들어 가상체험(VR)을 이용한 게임과 체력 단련, 카페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0년 기준 부평구 관내의 체육시설업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34 부평구 체육시설업 현황

(2020.6.기준, 단위: 개소)	
업종	개소
당구장업	174
체육도장업	146
체력단련장업	83
골프연습장업	50
무도학원업	1
수영장업	2
가상체험체육시설업	8
합계	468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시설업 현황(2020.06.기준)

### 3) 체신, 우체국 서비스

2012년 부평우체국이 개국한 이래 부평구에는 우체국이 9개, 우편취급소는 7개, 총 16개소에서 2020년 기준 14개소로 감소하였다. 직원은 1997년 무렵 77명에서 2020년 기준 240명으로 늘었으며, 집배원 수는 119명이다.

최근 우체국 업무는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우체국과 우편취급소는 줄어드

는 반면, 인터넷우편 업무와 부가서비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코로나19사태 여파로 온라인 상거래와 언택트(Un-tact; 비대면) 물류 및 유통이 급증하는 가운데 우체국의 국내 및 국제 우편업무와 우체국택배의 중요성에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체국과 우편취급소는 단순히 우편과 금융업무만 하는 곳이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등과 더불어 지역 내에서 행정과 우편, 물류, 금융, 복지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브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표 35 부평구 우편시설 현황(2012~2020)

(단위: 년개소명)

연별	우체국 수				직원 수			집배원 수			우체통 수	사서함 시설
	계	일반 우체국	우편 취급국	군사 우편 취급소	계	남	여	계	남	여		
2012	19	11	6	2	217			106			115	30
2013	19	11	6	2	215	166	49	107	106	1	115	30
2014	17	11	4	2	197	145	52	110	110		103	40
2015	17	11	4	2	245	150	95	108	108		103	168
2016	15	10	4	2	240	171	69	119	119		101	159
2017	15	10	4	1	239	171	68	119	119		101	72
2018	14	9	4	1	242	187	55	119	119		101	26
2019	13	9	3	1	238	167	71	119	119		59	8
2020	14	10	3	1	240	163	77	119	118	1	51	9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기본통계』, 2019. 147~149쪽; 우정사업본부(2020)

표 36 부평구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 현황

(2020년 기준)

구분	소재지	
우체국	부평 우체국	길주로 415
	인천갈산동 우체국	주부토로 177
	인천동암 우체국	열우물로 15
	인천부개동 우체국	부흥북로 153
	부평대로 우체국	부평대로 88
	인천부평6동 우체국	경인로 995
	부평현대아파트 우체국	경원대로 1269-1
	인천산곡2동 우체국	마장로272번길 95
	북인천 우체국	경원대로 1373
	인천삼산동 우체국	굴포로 141
우편취급소	인천백운 우편취급국	경인로 731
	인천부평4동 우편취급국	신트리로8번길 29
	인천일신평림 우편취급국	일신로14번길 3
	제317군사우편출장소	미네미로 447

| 제4절 | 시장과 금융, 교통

1. 시장과 상가, 특화 거리

1) 시장과 상가의 변형과 변모

부평구의 주요 상권은 과거에 시장과 지하상가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IMF 사태) 이후 대우자동차 부도와 장기간에 걸친 부평공장의 노사분규 등의 여파로 인해 부평구의 주요 상권은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게다가 1995년 이마트 4호점인 부평점을 필두로, 부천 중동신도시에 카르푸 1호점과 월마트 등 외국계 대형할인점이 경쟁적으로 늘어나자 전통시장과 지하상가는 급격히 위축되었다. 2006년 부평구에는 지하도상가 5개, 일반소매시장 11개, 백화점 1개, 대형매장 4개가 운영되고 있었다. 그 후 2012년 무렵 부평구 내 시장과 상가 총수가 14개로 줄어들었다가, 2013년부터 20개 이상으로 회복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7년 기준 부평구의 전통시장은 7개, 대형마트는 4개, 백화점 1개 등 총 21개의 시장과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2017년 기준 시장과 매장의 숫자는 큰 변화가 없는 대신, 부지 면적은 약 두 배가량인 19만 8,597㎡로 확대되었고, 건물면적은 46만 3,980㎡를 유지하고 있다.

대형 유통 시설은 모다백화점 부평점, 롯데마트 부평역점, 롯데마트 부평점, 롯데마트 삼산점, 부평시장, 2001아울렛 부평점, 아이즈빌아울렛 등이 대표적이다. 롯데백화점 부평점은 2019년 7월 폐점했으며, 그 자리에 2019년 모다백화점이 들어섰다.

부평역 주변은 부평역지하상가뿐만 아니라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등 인근 도로를 따라서 아주 넓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부평역 앞에 부평1번가라는 쇼핑몰이 들어서 있는데, CGV부평역점이 입주하면서 유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표 37 부평구 시장 및 상가 규모 변화(1997~2017)

(단위: 년·개소·㎡)

연별	개소	면적	
		부지	건물
1997	19	88,598	206,798
1998	19	88,598	206,798
1999	21	102,826	295,697
2000	21	102,826	295,697
2001	21	102,826	295,697
2002	21	123,692	323,824
2003	22	125,328	324,931
2004	22	125,328	324,931
2005	22	160,875	354,041
2006	20	230,419	370,936
2007	22	241,280	474,384
2008	14	170,186	464,564
2009	14	170,186	464,564
2010	14	170,186	464,564
2011	14	170,186	464,564
2012	14	170,186	464,564
2013	22	201,820	423,753
2014	22	201,599	467,413
2015	21	198,597	463,980
2016	21	198,597	463,980
2017	21	198,597	463,980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통계연보」, 1997~2006;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기본통계」, 2007~2017

표 38 부평구 시장 및 상가 형태별 규모 변화(2007~2017)

(단위: 년·개소)

연별	합계	대형 마트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시 장		기타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상점가	
2007	22	4	1	2	15	-	-
2008	14	4	1	3	6	-	-
2009	14	4	1	3	6	-	-
2010	14	4	1	3	6	-	-

연별	합계	대형 마트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시 장		기타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상점가	
2011	14	4	1	3	6	-	-
2012	14	4	1	3	-	-	-
2013	22	4	1	3	7	5	2
2014	22	4	1	3	7	5	2
2015	21	4	1	3	7	5	1
2016	21	4	1	3	7	5	1
2017	21	4	1	3	7	5	1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기본통계」, 2007~2017

## 2) 전통시장

부평자유시장 등 재래시장들은 대형할인매장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부평구에서는 2005년 2월 제정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지원을 받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공영 주차장을 마련하였다. 주요 시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1) 부평종합시장

부평종합시장은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전통시장이다. 일제시기 부평역 일대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점들이 들어섰고 골목 시장이 형성되었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데 인근에 미군 부대가 들어서며 일명 도깨비시장(양키시장)으로 불리며 그 규모가 점차 커졌다. 1970년대부터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청과물도 매시장이 생기며 인천은 물론 타지역에서도 장을 보러 올 정도였다. 부평종합시장은 인천 최대의 전통시장으로서 고객의 방문이 많아 제품의 회전율이 높고 싱싱하고 풍부한 상품을 유통하고 있다.

### (2) 부평깡시장

깡시장의 명칭은 경매라는 순우리말인 ‘깡’에서 유래되었다. 1950년대 원예농업조

합의 중개인 20여 명으로 시작하여 점차 그 수가 확대되었다. 현재 230개의 점포로 형성된 대형 시장이 되었다. 부평역을 중심으로 교통 여건이 좋아 전통시장으로 현재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주차장 및 천막 사업, 이벤트 사업, 개방형 화장실과 공영 제1, 2 주차장을 개설하면서 고객서비스가 크게 개선되었다. 시장시설 노후와 고객 이용 불편으로 현대화 사업을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3) 진흥종합시장

진흥종합시장은 부평역 인근에 위치한 상가 건물형의 소형시장이다. 1982년 개설된 시장으로 도소매를 겸하여 많은 물품 중에서 특히 건어물 상점이 유명한 전통시장이기도 하다. 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LED조명 교체 작업을 통해 현대적인 느낌의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한층 밝아진 분위기에서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전통시장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밖에도 재래상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화 시설을 갖춘 전통시장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그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변 상권인 부평시장, 부평깡시장, 지하상가와 연계한 재래쇼핑 시장의 현대화 시설을 지원받고 있다. 판매하는 주요 품목으로는 건어물과 수산물이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집화를 판매하고 있다.

### (4)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부평구 삼산동에 위치한 농산물도매시장이다. 전국적으로 농업인들에 의해 생산된 양질의 많은 농산물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신속하게 거래되고 있다. 새벽 2시부터 진행되는 경매가 종료되면 오후 3시까지는 일반 판매가 이루어진다. 일반 소비자도 구매 가능하다. 시장 구조는 채소동, 과일동, 경매장, 창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5층 규모의 채소동과 4층 규모의 과일동 내부에는 경매장과 저온 저장고, 하역반 대기실, 중도매인 사무실 등이 있으며 2층 규모의 경매장에는 약국, 중도매인 사무실, 출하 대기실 등이 있다.

### (5) 십정종합시장

십정종합시장은 50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시장으로서 신선한 제철 특산물과 다양한 생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최근 시설 현대화 사업과 홈페이지, 고객센터 운영으로 고객과 소통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 (6) 일신종합시장(구 부일종합시장)

부일시장이라고도 불리는 일신종합시장은 서울 방향으로 부평역 다음 전철역인 부개역 인근에 위치한 시장이다. 1980년대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처음에는 시장이라기보다 야채와 집화를 파는 동네의 조그만 슈퍼들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물품을 파는 가게들이 생기면서 시장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파는 물품들도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품들이 주를 이루었고 식품, 청과, 잡화 등 대부분 상품의 가격이 저렴한 도소매시장이다.

이외에 부평구 내에는 삼산시장, 갈산시장, 부개종합시장 등의 소규모 시장과 상점가가 있다.

표 39 부평구 전통시장 현황

(단위 : 년·개소)

구분	시장명	위치	개설시기	점포수	판매품목
등록 시장	진흥종합시장	부흥로 304번길 27(부평동)	1982	57	건어물, 식품, 잡화
	부평종합시장	주부토로 22번길 29-10(부평동)	1974	375	농수산물, 식품, 잡화
인정 시장	부평깡시장	시장로 79번길 36-3(부평동)	1974	230	농수산물, 식품, 잡화
	부평문화의거리	부평문화로 80번길 6-7(부평동)	1982	141	의류, 식품, 잡화
	일신종합시장 (구 부일종합시장)	경인로 1118번길 14-7(일신동)	1982	26	농수산물, 식품, 잡화
무등록 시장	십정종합시장	배곶남로 21번길 8(십정동)	1985	59	농수산물, 식품, 잡화
	삼산시장	후성동로 25번길 8(삼산동)	1986	53	농수산물, 식품, 잡화
	갈산시장	주부토로 262번길 19-24(갈산동)	1980	46	농수산물, 식품, 잡화
	산곡시장	원적로 309번길 36(산곡동)	1980	46	농수산물, 식품, 잡화
	도깨비시장	세월천로 72(산곡동)	1982	50	농수산물, 식품, 잡화

❖ 출처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전통시장·지하도상가·상점가 현황(2020.8.31. 기준)」, 2020; 기타 부평구청 홈페이지  
 ❖ 비고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항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조 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을 등록시장으로,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인정시장으로 정의함 ② 등록시장 1개소, 인정시장 5개소, 무등록시장 4개소

### 3) 지하상가

1978년 8월에 조성된 부평역 일대의 지하도상가는 외환위기 이후 한때 활기를 잃고 침체기를 겪다가 점차 젊은 세대에 초점을 맞춘 패션과 문화, 관광을 테마형 복합쇼핑몰로 변모하며 최근 들어 활기를 되찾고 있다.

부평역 일대 지하에 부평역지하상가, 부평중앙지하상가, 신부평지하상가, 부평대아 지하상가가 연결되어 있고, 바로 인근의 부평시장 지하에 부평시장지하상가가 잇달아 형성되어 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하상가로서 부평과 인천을 대표하는 쇼핑 상가이자 침체기를 겪고 있는 전국의 전통시장과 지하도상가의 모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제일의 기록인 월드레코드 아카데미 세계기록 인증과 국가로부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서 선정되어 글로벌화와 문화와 쇼핑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부평지하상가몰은 전체면적 4만 3,000㎡, 총연장 1,800m, 1,480여 개에 이르는 점포로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표 40 부평구 지하도상가 및 상점가 현황

(단위: 년·㎡·개소)

구분	시장명	소재지	조성시기	점포수	판매품목
지하도상가	부평중앙지하상가	부평구 시장로 지하10	2005	247	의류, 잡화, 핸드폰 액세서리 등
	부평대아지하상가	부평구 광장로 지하30	1998	209	
	부평역지하상가	부평구 부평대로 지하7	1989	421	
	부평시장지하상가	부평구 시장로 지하42	1984	298	
	신부평지하상가	부평구 부평대로 지하30	1979	186	
상점가	부평일번가	부평문화로 66번길 7(부평동)	2007	300	의류, 잡화, 먹거리 등
	테마의거리	경원대로 403번길 20-1	2006	100	먹거리
	부평라이온스밸리	부평대로 283(청천동)	2005	80	먹거리
	부개종합시장	부개로 71-12, 71-14(부개동)	1999	36	농수산물, 식품, 잡화

❖ 출처: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전통시장·지하도상가·상점가 현황(2020.8.31.기준)」, 2020;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시설 현황 자료; 기타 부평구청 홈페이지

### 4) 대형 할인매장과 백화점

초기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대형 할인마트는 회원제 할인점이었으나, 이마트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백화점식 서비스를 제공하자 대규모 할인마트와 복합 쇼핑몰 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1995년 12월 이마트 제4호점으로 개장한 이마트 부평점은 20여 년간 부평의 대표적인 할인매장이었다. 그러나 이마트는 2018년 폐점하였다. 1999년에 개점한 롯데백화점 부평점은 2019년 모다아울렛에 매각되었다. 이후 모다아울렛은 매장을 백화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1987년 문을 연 현대백화점 부평점은 현대부평몰을 거쳐 2003년 폐점하고, 중동점으로 이전하였다.

2000년 오픈한 롯데마트는 국내 최초로 지하철 환승역과 연계된 할인점으로 큰 인기를 모았다. 지하철 1호선과 인천지하철 환승역과 연결되는 부평역점을 비롯해 롯데마트는 산곡동 마장로의 부평점과, 삼산동 길주로의 삼산점으로 총 3곳에 있다. 2003년 청천동 청수사거리에 오픈한 아이즈빌아울렛은 의류 상설할인매장을 중심으로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GV부평점과 식당, 피트니스 센터, 병원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부평동 부평문화로에 위치한 2001아울렛은 쇼핑뿐만 아니라 문화센터, 소극장, 웨딩홀, 뷔페 및 식당가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의 대형 할인매장과 쇼핑몰은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는 매장의 개념을 넘어, 교통 환승과 각종 병·의원, 동물 병원, 약국, 영화관, 수영장, 휘트니스센터, 유아방, 헤어샵, 네일아트, 여행사, 금융기관 등을 두루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표 41 부평구 대규모 점포 현황

구분	점포명	영업개시일
백화점	모다아울렛 부평점	2019.7.24.
	롯데마트 삼산점	2007.12.20.
대형마트	롯데마트 부평점	2006.12.24.
	롯데마트 부평역점	2000.2.24.
쇼핑센터	2001아울렛부평점	2006.9.5.
	아울렛아이즈빌	2002.9.4.
	부평역사쇼핑몰	1998.11.27.
그 밖의 점포	경남종합상가	1992.11.29.

❖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인천광역시 대규모점포 등록 현황(2020.08.기준)」, 2020



## 5) 특화 거리

2009년 이후 부평구는 부평로 특화거리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문화 도시를 상징하는 디자인 개발을 통해 인도에 휴지통·자전거보관소·파고라벤치·볼라드·가로등·안내 표시 등의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고 녹지와 조경수를 조성하고, 보도블록 등을 교체하였다.

부평동 부평문화로80번길 일대에 부평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였다. 문화 행사와 공연이 이어지는 가운데 브랜드 의류와 잡화, 화장품, 액세서리 등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주말에는 프리마켓이 열리는데 각종 수공예품 등을 볼 수 있다.

부평시장 로터리부터 부평문화로 일대까지 해물탕 가게들이 밀집해 있다. 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에서 공급되는 신선한 해물을 이용한 해물탕이 인기를 끈다.

갈산동 굴포천 주변 약 698m 구간의 거리를 굴포먹거리타운으로 지정되었다. 주변에 부평구청, 여성문화회관, 북구도서관, 한국GM 등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인접해 있어 공무원과 직장인, 인근 주민들이 즐겨 찾는 음식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굴포천 생태하천을 끼고 있어 산책과 휴식, 먹거리가 어우러진 명소이다.

그 밖에 최근 들어 감성 넘치는 트렌디 커피와 퓨전 음식들이 젊은이와 주민들 사이에 유행하면서 부평문화로80번길 일대의 ‘평리단길’, 부평구청에서 이름을 딴 ‘청리단길’로 불리는 거리가 생겨났다.

## 2. 금융

### 1) 금융 위기의 극복

1997년 외환위기(IMF 사태) 이후 정부가 추진한 구조조정의 주요 방향은 부실 금융기관의 청산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100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을 정리해 주고 새로운 자본금을 수혈해 모든 은행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충족하는 클린뱅크로 탈바꿈시켰다. 부실이 심각했던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은 감자(減資) 후 정부 출자로 구제되었고, 동화·경기·동남·대동·충청 등 5개 은행은 퇴출되었다. 이때 인천 지역 유일의 지방은행인 경기은행도 함께 퇴출되었다.

나아가 정부는 지방은행 등 지역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함께 추진하였다. 지방생명보험사의 경우도 모두 부실 금융기관으로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략, 인천 지역 상공인이 설립한 국제생명보험을 포함해 BYC, 태양생명이 퇴출되었으며 남아 있던 6개 지방생명보험사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상호신용금고,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서민 금융기관의 경우도 부실이 누적되어 외환위기의 여파 속에 대신, 흥성, 정우 등의 상호신용금고가 잇따라 문을 닫았다.

2008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의 수출과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국내의 달러화가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급등하는 등 외환시장의 불안과 세계 실물경제의 위축이 우려됐지만 다행히 미국과 주요 선진국들이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풀어 구제금융과 경기부양 정책을 펼친 결과, 세계경제는 저성장 기조 속에 완만하게 회복되는 추세이다. 이 무렵 국내 은행들은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구조조정과 합병을 통해 BIS자기자본비율과 총자산대비수익률(ROA)를 개선한 결과 대체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

2010년 이후 금융산업은 안정을 되찾고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과 더불어 인터넷과 핀테크 기반을 토대로 클라우드 펀딩과 모바일뱅킹,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새로운 활로를 개발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부평 지역의 금융 및 보험업 관련 업체는 모두 407개인데, 이 가운데 은

행 및 저축기관 총수는 모두 123개이며, 보험 및 연금·공제 업체는 모두 100개에 달한다. 나머지는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이다.

표 42 부평구 소재 은행, 저축기관, 보험업체 수 현황

(2017년 기준, 단위: 개)

은행	신용조합 저축기관		기타 금융					보험					연금, 공제		
	신용 조합	상호 저축 은행	여신 금융					기금 운영	생명 보험	손해 보험	보증 보험	건강 보험	산업 재해 등	공제	연금
			금융 리스	개발 금융 기관	신용 카드 할부 금융	기타 여신 금융									
46	70	7	1	1	19	20	1	49	43	3	1	2	1	1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기본통계』, 2019. 206-210쪽.

## 2) 은행

부평구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인구와 산업 규모가 성장하면서 은행 점포 수가 증가하던 곳이었었는데, 외환위기 여파로 은행의 도산과 합병이 이어지는 바람에 점포 수가 20% 이상 급감하는 타격을 입었다. 1998년 경기은행이 한미은행으로 합병되고, 1998년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하여 우리은행으로 흡수되었다.

게다가 2001년의 IT버블 붕괴 여파로 수출이 급감하고 벤처기업 등이 도산하면서 금융계의 구조조정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2001년에는 주택은행이 국민은행에, 2003년에는 서울은행이 하나은행에 합병되었다. 그리고 2004년에는 경기은행을 합병했던 한미은행이 씨티은행에 흡수되고, 2006년에는 조흥은행이 신한은행에 합병되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외환은행이 KEB하나은행에 흡수되며 사라졌다.

부평 지역 역시 경기은행을 비롯해 수많은 은행들이 타 은행에 합병되는 과정에서 지점과 점포 수가 감소되는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무렵 부평 지역의 금융기관 수는 총 54개였는데, 2000년에는 41개로 크게 줄어들었다.

2019년 기준 부평구에는 모두 45개의 시중은행 지점과 점포가 있다.

표 43 부평구 소재 시중은행 점포 수 변화(1997~2019)

(단위: 년·개)

연별	시중 은행										
	주택 은행	KB 국민 은행	서울 은행	KEB 하나 은행	외환 은행	조흥 은행	신한 은행	한미 은행	한국 씨티 은행	우리 은행	SC 제일 은행
1997	3	5	2	1	2	4	2	1		3	1
1998	5	5	2	1	2	4	4	6		3	1
1999	5	4	2	1	2	4	3	4		3	1
2000	5	4	2	1	2	4	4	4		3	1
2001	국민은행에 합병	10	2	1	3	3	4	3		6	1
2002		11	2	3	3	4	4	3		6	2
2003		11	하나은행에 합병	3	3	4	4	3		7	2
2004		11		3	3	4	4	씨티은행에 합병	한미은행 인수	6	2
2005		12		3	3	4	5		3	6	2
2006		12		3	3	신한은행에 합병(06년)	9		2	5	2
2007		13		3	3		8		2	7	1
2008		13		3	3		8		2	7	1
2009		13		3	3		7		2	7	1
2010		12		3	3		7		2	7	1
2011		12		3	3		8		2	6	1
2012		11		3	3		9		2	6	1
2013		10		3	3		7		1	7	1
2014		10		3	3		7		1	7	1
2015		10		6	하나은행에 합병		7		1	7	1
2016		9		6			8		1	6	1
2017		9		5			8		1	6	1
2018		9		4			8		1	6	1
2019		9		4			8		1	6	1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통계 연보』, 1997~2006;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기본통계』, 2007~2019; 전국은행연합회 은행점포 현황(2019).

부평구 내에 소재한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지방은행으로는 유일한 강원은행이 1997년과 1998년 존재하고 있었으나 1999년 은행 통폐합 과정에서 퇴출되었다.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자 2013년 이후 호남 지역의 지방은행 두 곳이 부평에 지점을 개설하기 시작했다. 전북은행이 2013년 10월 부평역 맞은편에 부평지점을 개점한 이래, 2015년에는 광주은행이 부평시장역 앞에 지점을 개설하였다. 원래 광주은행은 1996년 부평4동에 지점을 개소했는데, 얼마 뒤 불어 닥친 외환위기 여파로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부평점을 철수하였다. 이후 광주은행은 우리금융지주에서 분리되어 JB금융지주의 광주은행으로 거듭났다. JB금융지주 산하의 새로운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부평을 수도권과 인천 지역 내 광주·호남 출신 주민과 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거점 지역으로 간주하고 활발한 영업을 펴고 있다.

특수은행으로는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이 꾸준히 영업을 하고 있고, 2013년 SH수협은행의 지점 9개가 영업을 했는데, 2019년 기준 근해안강망수협 지점 등 8개가 존재한다.

표 44 부평구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 현황(1997~2019)

(단위: 년·개)

연별	지방은행			특수은행			기타
	광주은행	전북은행	강원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KDB산업은행
1997	1	-	1	2	6	-	-
1998	-	-	1	2	6	-	-
1999	-	-	-	2	6	-	-
2000	-	-	-	2	7	-	-
2001	-	-	-	2	6	-	-
2002	-	-	-	2	7	-	-
2003	-	-	-	3	7	-	-
2004	-	-	-	3	7	-	-
2005	-	-	-	4	7	-	-
2006	-	-	-	4	6	-	-
2007	-	-	-	4	7	-	-
2008	-	-	-	6	7	-	-

연별	지방은행			특수은행			기타
	광주은행	전북은행	강원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KDB산업은행
2009	-	-	-	6	7	1	1
2010	-	-	-	6	7	-	1
2011	-	-	-	6	8	-	2
2012	-	-	-	6	7	-	2
2013	-	1	-	7	7	9	2
2014	-	1	-	6	7	9	2
2015	-	1	-	6	7	9	1
2016	1	1	-	6	7	9	1
2017	1	1	-	7	7	9	1
2018	1	1	-	7	7	9	1
2019	1	1	-	7	7	8	1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통계연보」, 1997~2006;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기본통계」, 2007~2019; 전국은행연합회 은행점포 현황(2019)

### 3) 새마을금고와 제2금융권

부평구 내의 새마을금고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지점 수가 19개에서 11개로, 2020년 기준 10개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비록 새마을금고는 20년 넘게 10개 안팎에 불과하지만 시중 은행의 낮은 금리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새마을금고로 수신이 몰리는 추세이다.

새마을금고의 자산액은 1997년 3,283억 원에서 2020년 기준 2조 6,687억 원으로 8배 넘게 증가했다. 예금액은 1997년 2,474억 원에서 2020년 2조 3,693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출액 역시 1997년 1,736억 원에서 2020년 1조 7,376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회원 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2018년에 13만 8,605명으로 최저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늘어나 2020년 기준 31만 4,44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표 45 부평구 새마을금고 현황(1997~2020)

(단위: 개백만 원명)

연별	금고 수	자산액	예금액	대출액	회원 수
1997	19	328,316	247,491	173,657	185,898
1998	19	381,804	320,994	174,729	138,605
1999	16	377,324	338,580	142,048	151,350
2000	12	456,041	394,190	163,351	166,440
2001	11	518,128	453,171	218,360	198,268
2002	11	537,403	481,311	280,657	214,349
2003	11	548,857	475,663	311,696	216,542
2004	11	571,255	507,459	298,041	217,403
2005	11	609,194	534,824	314,414	234,674
2006	11	686,924	602,271	314,079	255,730
2007	11	735,406	623,830	416,842	268,576
2008	11	809,956	682,586	469,554	110,815
2009	11	883,590	759,676	488,487	277,639
2010	11	1,014,236	877,703	518,362	257,353
2011	11	1,012,248	861,957	576,927	262,494
2012	11	1,137,375	978,526	608,310	272,880
2013	11	1,261,710	1,093,633	690,248	282,520
2014	11	1,371,470	1,195,249	811,107	283,759
2015	11	1,594,706	1,399,569	958,898	289,442
2016	11	1,835,237	1,597,094	1,270,345	296,522
2017	11	2,017,320	1,784,829	1,357,894	303,013
2018	11	2,152,684	1,905,644	1,513,778	305,082
2019	10	2,521,447	2,243,810	1,690,329	312,774
2020	10	2,668,724	2,369,377	1,737,658	314,446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통계연보』, 1997~2006;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기본통계』, 2007~2019  
 ❖ 비고: 『부평구 기본통계』에 기술된 2017년의 예금액과 대출액은 오류이기 때문에 KOSIS 국가통계를 참조하여 바로잡음. 2020년은 10월을 기준으로 함

그리고 대표적인 제2금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험업을 들 수 있는데, 2017년 기준 보험회사의 지점 및 출장소는 생명보험사 9개사 49개 지점이 영업 중에 있으며, 손해보험사는 8개사 43개의 지점 및 출장소가 영업 중이다. 생명보험사의 특징으로는 2000년대 이후 외국계 회사의 진출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자본이 풍부한 외국계 회사들이 국내의 중소 생명보험사를 다수 합병하며 국내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가구당 보험 가입률이 80%를 넘어서고 업계의 과당 경쟁이 심화되자 이들 외국계 보험회사들도 수익성이 악화하여 하나둘씩 M&A를 통해 사라지거나 국내 시장을 떠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때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던 AIG생명보험, ING생명보험, 알리안츠보험, 푸르덴셜생명보험 등의 지점망은 거의 다 사라졌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지역에 지점을 개설하기보다는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만 보험 영업을 전개하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 부평 지역에 지점망을 활발하게 개설하며 영업을 전개하는 보험사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이다. 그 외에는 은행 창구와 지점망을 통해 오랫동안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린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증권사 등이 그나마 다수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 밖에 보증보험업체 3개가 있다. 1개의 투신사가 1998년에 퇴출되어 현재는 운영 중인 투신사가 없으며, 7개의 증권사 지점이 부평구 내에서 운영 중에 있다. 2020년 기준 부평구에 지점과 출장소, 고객센터 등이 있는 제2금융사는 다음과 같다.

표 46 부평구 기타 제2금융기관 현황

(단위: 개)

구분	회사, 지점영업출장소, 센터 수	회사명
생명보험사	49	삼성생명보험, 한화생명, NH농협생명, ABL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DB생명보험(구 동부), 수호천사동양생명,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구 ING생명) 등
손해보험사	43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H현대해상, DB손해보험, SGI서울보증보험, AXA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증권회사	7	한국투자증권, IBK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교보증권 등
기타	3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 출처: 각 금융기관 및 업체별 홈페이지  
 ❖ 비고: 회사 지점영업출장소, 센터는 2017년 기준, 회사명은 2020년 기준임

### 3. 교통

#### 1) 부평의 교통 환경

부평구의 도로는 총연장 326km에 이른다. 이중 도로의 용도로 사용되는 92.10%가 모두 포장되어서 포장율은 100%를 보이고 있다.

표 47 부평구 도로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km %)

총연장	개설		미개설	도로율	포장율
	포장	비포장			
326	300	-	26	92.10	100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 구정현황, 부평 지역을 기록하다」, 2020, 30쪽

부평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하천이 많고 철도, 지하철, 간선도로 등이 복잡하게 교차함으로써 보행과 교통에 불리한 환경이지만 육교와 교량, 차도 등의 시설을 통해 교통과 보행의 불편을 완화하고 있다.



❖ 부개서초등학교 인근 철도횡단 지하보차도(출처: 부평구청)

도로시설물로서 굴포천 등 3개 하천에 일반 교량 13개, 보도 육교 11개, 지하 보차도 4개, 고가교 2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 밖에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은 2020년 기준 6,446개, 보안등은 7,639개에 이르며 버스정류장은 670개에 이른다.

표 48 부평구 도로시설물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개)

일반교량	보도육교	지하보차도	고가교	가로등	보안등	버스정류장
13	11	4	2	6,446	7,639	670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 구정현황, 부평 지역을 기록하다」, 2020, 30쪽

부평구의 교통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2019년도에 실시한 인천광역시 사회조사에서 부평구의 생활환경 중에서 교통환경의 평점은 3.39(5점 만점)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보행환경의 만족도는 주거 지역의 경우 3.37점, 도심 지역은 3.28점으로 무난한 편이지만 밤늦게 걸어 다니는 야간 보행 환경은 3점으로 치안과 조명, 차량 안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대 여성과 주부, 저소득계층, 단독주택 주민들이 야간의 보행 환경에 가장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림 19 부평구 주민들의 보행환경 만족도

(단위: 점/5점 만점)



❖ 출처: 인천광역시, 「인천의 사회지표, 부평구」, 2019, 22쪽.

표 49 부평구의 보행 환경

(단위: %·점)

구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 점수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주거 지역	10.2	34.0	41.4	11.0	3.3	44.2	41.4	14.3	3.37		
도심 지역	8.4	29.0	47.2	13.0	2.5	37.4	47.2	15.4	3.28		
야간	7.4	20.8	43.3	21.2	7.3	28.2	43.3	28.5	3.00		

출처: 인천광역시, 『인천의 사회지표, 부평구』, 2019, 147~149쪽.

부평구의 대중교통 환경은 주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부평구의 도로 포장률은 2015년에 100%를 달성했다. 부평의 간선도로는 동서 방향으로 서울과 인천, 부천으로 이어지는 길주로와 경인로가 부평을 가로지르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중동나들목, 송내나들목과 접속하고, 남북 방향으로 부평대로와 장제로가 계양구와 남동구로 이어지며 경인고속도로 부평나들목과 접속한다.

경인고속도로는 부평의 산업 물동량의 중추 도로로서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까지 23.9km에 이른다. 1968년 12월 개통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이다.

남동쪽으로 뻗은 무네미로를 통해 남동구를 지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나들목, 영동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창분기점, 인천대공원과 송내역으로 갈 수 있다. 미군 기지가 반환되면 안남로가 산곡동에서 동수역까지, 장고개로가 인천광역시 서구까지 연장되어 가좌동에서 부평까지의 교통도 개선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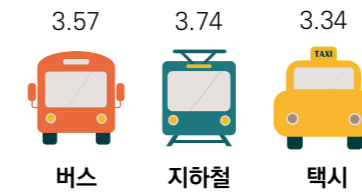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천종합터미널과 부천종합터미널이 가깝는데, 행선지가 제한적이라 지하철과 연결되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서울남부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부평역을 지나는 경인선 구간이 1974년 수도권 전철 1호선에 편입된 이래 부평의 지하철은 서울과 인천을 잇는 동서 방향에 편중되었다. 이후 1999년 10월 6일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이 부평역을 남북 방향으로 통과하면서 부평의 교통에 활로가 트였다. 여기에 2012년 서울지하철 7호선 구간이 부평구청역까지 개통되고, 2021년 석남역까지 연장됨에 따라 부평의 교통은 사통팔달의 중심이 되고 있다.

부평구의 주민들은 대부분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는데,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 만족도는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은 지하철 이용에 가장 큰 만족도(3.74)를 표시했고, 다음으로 시내버스의 만족도(3.57)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택시에 대한 불만족은 지하철과 버스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0 부평구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만족도

(단위: 점/5점 만점)



출처: 인천광역시, 『인천의 사회지표, 부평구』, 2019, 22쪽.

표 50 부평구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이용 여부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평균 점수
	이용	이용하지 않음									
버스	97.2	2.8	18.0	35.5	34.6	9.6	2.3	53.5	34.6	11.9	3.57
지하철	97.4	2.6	24.3	34.8	32.7	7.0	1.2	59.1	32.7	8.1	3.74
택시	96.0	4.0	14.1	25.1	44.5	13.0	3.3	39.3	44.5	16.3	3.34

출처: 인천광역시, 『인천의 사회지표, 부평구』, 2019, 144~146쪽.

부평구 주민들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접근하여 항공 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평균 3.53점으로 비교적 무난한 편인데 비해, KTX역 등 철도를 이용하는 것은 다소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부평구의 항공 및 철도시설 접근성

(단위: %·점)

구분	합계								
	매우 쉬움	약간 쉬움	보통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접근 쉬움	보통	접근 어려움	평균 점수
인천공항 김포공항	21.6	31.8	29.9	11.2	5.4	53.4	29.9	16.6	3.53
KTX역 등	12.8	23.5	33.6	20.9	9.2	36.3	33.6	30.1	3.10

출처: 인천광역시, 『인천의 사회지표, 부평구』, 2019, 150~151쪽.

## 2) 자동차

부평구에 등록된 총 차량 대수는 1999년 약 10만 대에서 2019년에는 22만 8,866대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중 관용차와 영업용 차량의 등록은 큰 변화가 없는데 비해 부평구의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자가용 소유가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등록 차량 중 승용차의 비중은 93.5%에 달한다.

표 52 부평구 차량 등록 대수

(단위: 대)

연별	합계			
	계	관용	자가용	영업용
1997	99,011	191	96,654	2,166
1998	102,184	200	99,706	2,278
1999	105,335	383	102,926	2,430
2000	112,782	213	109,754	2,815
2001	134,601	202	130,498	3,901
2002	146,460	213	141,668	4,579
2003	149,656	222	144,806	4,628
2004	153,002	226	147,896	4,880
2005	156,396	241	151,164	4,991
2006	159,729	248	154,273	5,208
2007	162,146	238	156,426	5,482
2008	162,994	251	157,200	5,543
2009	166,130	251	159,218	6,661

연별	합계			
	계	관용	자가용	영업용
2010	167,907	260	162,024	5,623
2011	169,219	291	161,612	7,316
2012	167,699	310	161,430	5,959
2013	170,843	326	163,269	7,248
2014	186,989	330	178,782	7,877
2015	201,075	309	191,876	8,890
2016	214,234	314	206,725	7,195
2017	222,683	340	214,650	7,693
2018	225,463			
2019	228,866	333	214,151	14,382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통계연보』, 1997~2006;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기본통계』, 2007~2019

2020년 기준 등록 차량 중 종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승용차가 19만 2,904대로 가장 많고, 화물자동차가 2만 7,972대가 그다음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3 부평구 차량 등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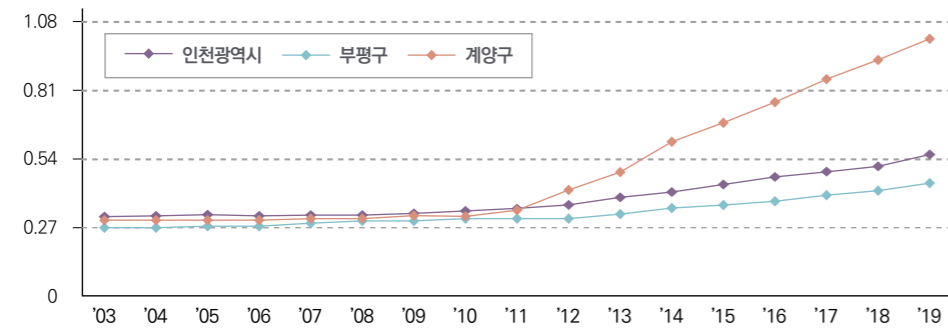
(2019.12.31.기준, 단위: 대)

합계	승용차	승합차(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28,866	192,904	7,425	27,972	565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 구정현황, 부평 지역을 기록하다』, 2020, 31쪽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 역시 2013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3년 0.27대에서 2019년 기준 0.45대로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인천광역시와 큰 차이가 없는데 비해, 계양구와는 다소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3) 주차장

199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자동차와 승용차 보유율이 급격한 증가하자 주차 공간 부족이 지자체들의 큰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건설과 함께 상가 건물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주차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더욱이 원도심의 협소한 구조와 철로, 도로, 지하 시설물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평구의 특성상 주차공간의 확보는 한때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부평구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확충, 내 집 주차장 건설에 따른 보조금 지급, 거주자우선 주차제 등을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주차시설을 확충해 나갔다.

2014년 부평구청역 부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준공되자 건축물부설 주차장 면수가 크게 늘었다. 이와 반대로 2016년 이후 부평4구역, 백운2구역 등에 재개발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노외주차장 면수는 크게 줄었다. 이 지역의 재개발이 완료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시작되면 건축물부설 주차장 면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4 부평구 내 주차장 현황

(단위 : 년개·㎡)

연별	합계		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1997	3,735	49,316	146	8,056	45	2,336	3,544	38,924
1998	3,837	50,191	214	6,276	64	2,851	3,559	41,064
1999	3,861	50,706	214	6,259	49	3,303	3,598	41,144
2000	3,409	89,342	203	5,761	99	4,371	3,107	79,210
2001	4,179	88,232	205	4,925	112	5,204	3,862	78,103
2002	5,232	95,593	205	4,930	123	5,567	4,904	83,102
2003	5,794	102,567	397	7,547	133	6,360	5,230	88,405
2004	6,029	104,598	430	8,295	109	4,817	5,490	91,486
2005	6,229	111,041	431	8,776	82	5,105	5,715	96,662
2006	6,439	66,922	437	9,335	102	5,510	5,900	52,077
2007	6,659	123,710	440	9,655	110	5,845	6,109	108,210
2008	6,832	142,963	440	9,579	112	5,971	6,280	127,413
2009	7,028	145,131	440	9,546	118	5,968	6,470	129,617
2010	7,293	147,585	440	9,518	121	6,388	6,732	131,679
2011	7,791	153,413	547	8,076	127	6,932	7,117	138,405
2012	7,816	154,281	547	8,076	127	6,932	7,142	139,274
2013	7,836	154,159	547	8,064	126	6,565	7,163	139,530
2014	8,336	160,627	736	8,471	129	7,284	7,471	144,872
2015	8,468	163,513	738	8,348	131	7,370	7,599	147,795
2016	8,611	166,630	738	7,966	88	5,081	7,785	153,583
2017	8,816	171,586	738	7,966	88	5,081	7,990	158,539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통계연보」, 1997~2006;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기본통계」, 2007~2017

민영 주차장을 포함하여 2020년 기준 부평구 관내의 주차장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총 9,076개, 18만 9,737면에 이른다.



표 55 부평구 주차장 시설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개)

합계	공영 주차장		민영 주차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	
	노상	노외			
개소	9,076	744	68	16	8,248
면 수	189,737	8,242	3,879	844	176,772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 구정현황, 부평 지역을 기록하다」, 2020, 31쪽

#### 4) 버스

부평구 관내에는 2020년 기준 670개의 버스정류장이 있다. 이는 서구 914개, 남동구 806개 다음으로 많은 편에 속한다.

관내 버스정류장 중에서 승객 승하차 건수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 정류장은 다음과 같다.

표 56 부평구 내 승하차 기준 10대 정류장

(2019.12.기준, 단위: 건)

정류소 명	승하차 건수 (합계)	일평균 승하차 건수	일평균 대당 승하차 건수
동암남부역	2,219,899	11,154.25	166.48
부평경찰서	1,697,542	5,403.79	26.23
백운역	1,092,776	5,388.18	168.38
부평역	1,042,185	5,571.20	18.45
동암역	951,493	4,643.61	244.4
부평시장	920,589	3,581.48	11.78
부평역(북인천우체국)	778,032	3,530.91	17.39
부평역(구보건소)	773,947	4,978.82	16.22
부개역	721,775	3,735.75	41.97
굴포천역(롯데마트)	686,477	3,149.93	30.58

❖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정류장별 이용승객 현황(2019.12.기준)

부평구에는 한때 12개의 시내버스 업체가 있었다. 2011년 12개 업체 약 700여 대의 버스를 정점으로 2020년 기준 8개 업체 400여 대가 운행 중이다.

표 57 부평구 내 여객운송업체 수 현황

(단위: 년개대)

연별	합계		시내버스		택시			
					업체		개인	
	업체 수	등록대 수	업체 수	등록대 수	업체 수	등록대 수	업체 수	등록대 수
2008	1,534	5,197	9	624	4	354	1,456	1,456
2009	1,592	5,004	11	514	4	374	1,516	1,516
2010	3,241	4,805	11	512	4	374	1,502	1,502
2011	3,308	5,170	12	705	4	374	1,510	1,510
2012	3,449	5,076	10	567	4	374	1,515	1,515
2013	3,789	4,701	-	-	5	452	1,525	1,525
2014	3,623	5,566	10	603	5	452	1,525	1,525
2015	3,703	5,469	8	432	5	452	1,550	1,550
2016	3,704	5,425	8	427	5	452	1,538	1,538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통계 연보」, 해당 연도: KOSIS 국가통계포털

표 58 부평구 내 버스회사 및 노선 번호

(단위: 개)

업체명	노선 수	노선 번호
강인교통	4	302, 303, 303-1, 304
강인여객	3	103, 103-1, 223
대인교통	6	6-1, 320, 515, 515-1, 561, 574
명진교통	7	522, 524, 565, 585, 591, 591-1, 592
삼성여객	9	506, 557, 562, 569, 570, 582, 584, 584-1, 587
성산여객	4	521, 551, 586, 588
청라교통	4	112, 306, 307, 308
신화여객	6	34, 37, 526, 552, 555, 572

❖ 출처: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 공공데이터포털; 기타 해당 업체 조회

그리고 서울과 인천, 송도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가 부평구를 경유한다. 마니교통의 1200번, 1400번, 1500번, 9500번, 신강교통의 1601번, 선진여객의 9300번 등이 서울과 강남, 송도를 연결한다. 인근의 부천시(상도역, 송내역)에서 경기순환버스 8106번, 8906번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의정부 방면을 오가는 8906번, 성남·분당권을 오가는 8106번도 있다.

### 5) 지하철

부평구에는 모두 3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난다. 기존의 수도권 전철1호선(경인선), 인천 도시철도1호선에 이어서 2012년 서울지하철 7호선의 온수-부평구청 구간이 개통되었다. 이는 2021년에 석남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수도권 전철1호선(경인선)은 인천과 수도권을 잇는 한국 최초의 철도로서 1974년 청량리역까지 잇는 서울 지하철1호선과 경인선과 연결됨으로써 부평의 공업 발전과 운송의 증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부평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인천 도시철도1호선은 1999년 박촌-동막역 구간이 개통되어 국제업무지구역-계양역 간 29.4km가 운행되고 있다.

부평에서 서울 강남 방향으로 직접 연결되는 서울 도시철도7호선은 2012년 서울 장암역까지 57.1km 구간이 개통된 데 이어 조만간 석남동까지 연결하는 공사가 완공되면 부평과 경인 지역 간 교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노선의 지하철 역사는 수도권 전철 1호선에 부개역, 부평역, 백운역, 동암역의 4개 역이 있고, 인천 도시철도 1호선에 갈산역, 부평구청역, 부평시장역, 부평역, 동수역, 부평삼거리역의 6개 역이 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역사로 부평구청역, 굴포천역, 삼산체육관역의 3개 역이 운영되었는데, 2021년 산곡역이 개통함으로써 4개 역이 되었다.

연간 총승하차 수 합계를 통해 볼 때,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역은 부평역이다. 그다음으로 이용객 수가 많은 역은 동암역, 부평시장역, 부평구청역 순서이다. 이용객 수가 가장 적은 역은 동수역이다.

표 59 부평구 지하철역 연간 이용객 수(2014~2018)

		(단위: 년·명)				
호선	역명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인선	부평	25,267,049	31,009,827	24,633,506	23,976,258	23,713,541
	백운	6,750,932	6,841,924	6,738,841	6,670,480	6,490,281
	동암	19,554,242	18,946,182	17,356,522	14,736,928	13,580,518
	부개	8,011,051	7,836,701	7,601,507	7,217,466	6,858,910
서울 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	3,962,335	3,867,566	3,918,541	3,813,589	3,762,415
	굴포천	5,751,219	6,249,175	6,568,038	6,762,924	6,869,239
	부평구청	6,975,408	7,628,683	7,863,602	7,753,318	7,782,766
인천 1호선	갈산	-	6,564,882	6,477,635	6,488,260	6,351,424
	부평구청	-	5,541,980	5,554,599	5,494,057	5,483,633
	부평시장	-	8,234,993	8,661,020	8,962,885	9,058,815
	부평	-	5,350,379	5,723,753	5,768,061	5,674,728
	동수	-	2,993,042	3,097,357	3,136,414	3,081,628

출처: 경기도교통정보센터, 경기도 교통DB 시스템

### 6) 택시

2020년 기준 부평구에는 5개의 택시업체가 있다. 이들 업체에 등록된 택시는 모두 452대이다.

표 60 부평구 내 택시업체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대)		
업체명	면허 대수	소재지
경진운수(자)	79	삼산동 375
(자)동산운수	111	십정동 557-6
선경기업(자)	88	청천동 380
태양상운수(주)	96	청천동 403-28
최상택시(주)	78	청천동 403-12
합계		452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 구정현황, 부평 지역을 기록하다』, 2020, 31쪽; 기타 해당 업체에 확인함

### 7) 자전거도로

2000년 이후 운동과 레저의 수단이자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의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2009년 국토해양부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2012년까지 5%대로 끌어올리고 2018년까지 자전거도로 건설 등에 1조 2,456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래 지자체마다 자전거도로 설치와 공사에 힘쓰고 있다. 특히 많은 하천을 끼고 있는 인천 지역은 자전거도로 건설에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다. 하지만 부평구의 자전거도로 길이는 46.79km로 연수구(151km)나 남동구(132.8km), 서구(178.6km)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

이에 부평구는 굴포천 자전거도로 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부평대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심했지만, 차로 폭 감소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변 지역의 상인과 택시 및 버스 업체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주민들의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한편 2015년 서울시가 공유 자전거 ‘따릉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자체마다 ‘공유 자전거’ 열풍이 불고 있다. 부평구도 2019년 시범 사업을 추진했는데, 자전거도로와 자전거보관대 등의 인프라가 미흡한 현실을 고려하여 잠정 중단하였다. 부평구의 자전거도로 현황은 2020년 기준 큰 변동이 없는 상태이다.

표 61 부평구 내 자전거도로 현황(2012~2019)

(2020년 기준, 단위: 년·개·km)

연별	합계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노선수	길이	노선수	길이	노선수	길이
2012	35	56.09	3	1.39	32	54.7
2013	27	47.91	3	1.39	24	46.52
2014	27	49.31	3	1.39	24	47.92
2015	28	46.74	3	1.39	25	45.35
2016	29	46.74	3	1.39	26	45.35
2017	29	46.79	3	1.39	26	45.35
2018	29	46.79	3	1.39	26	45.35
2019	29	46.79	3	1.39	26	45.35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기본통계』, 2019, 144~145쪽; 공공데이터포털(2019)

### 8) 보행·교통 편의시설

2017년 이후 시민들의 통행과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여름철의 뜨거운 태양열을 차단하기 위해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에 그늘막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2019년 기준 부평구 내에 38개의 그늘막이 설치되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부평구 내에 설치된 보도육교는 2019년 기준 총 11개로 연장 488m에 달한다. 이는 인천광역시 중에서 서구(20개, 1,158m), 남동구(19개, 1,196m) 다음으로 많은 편에 속한다.



❖ 2005년 부평2동 도보육교 설치 작업(출처: 부평구청)

부평구의 지하차도는 2019년 기준 총 4개로 연장 1,343m에 이른다. 이는 서구와 연수구, 그리고 미추홀구의 뒤를 잇는다.

부평구의 고가도로는 2019년 기준 총 4개로 연장 976m이다. 이는 서구와 미추홀구의 다음으로 많은 편이다. 부평구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 시설물은 2019년 기준 총 8,690개인데, 이는 서구(2만 8,298개), 연수구(2만 5,155개), 중구(2만 1,007개), 남동구(1

만 9,704개)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편이다. 또한 가로등의 CDM램프와 LED램프 교체 및 선로 등 여러 면에서 주변 지역에 비해 부족한 형편이다. 관내 가로등 설치와 개선 작업은 차량 교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도시미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곳이다.

### 9)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건설

최근 인천, 송도, 남양주 등 수도권의 인구증가와 자동차 등록대수 급증에 따라 서울과 경인 지역 간 출퇴근 혼잡과 자동차도로의 교통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송도국제도시와 남양주시 마석 간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노선의 B구간이 부평구를 관통하고 있다.

인천시청에서 부평에 이르는 구간은 인천시 남동구에서 부평구 십정동, 부평동으로 이어진다. 부평에서 당아래 구간은 관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과하여 부천시 중동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어 2022년 말 기본설계 및 착공에 들어가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제5절 | 경제 시설과 단체, 사회적경제

### 1. 주요 지역경제 시설

#### 1) 부평국가산업단지

부평의 대표적인 경제시설은 부평국가산업단지이다. 1964년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에 의해 조성된 부평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업단지로서 부평과 경인 지역뿐만 아니라 이후에 조성된 구미, 마산 등의 공업단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2013년 11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확산단지로 선정되고 2014년 혁신 산업단지, 2019년 청년친화형 선도 산업단지로 선정되며 진화하고 있다. 2018년 공단에 부평테크 시티가 준공되고 2020년 인천 콘텐츠기업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2020년 기준 총면적 약 61만 600㎡의 부지에 952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고용 인원은 1만 3,650명이며 연간 119억 4,9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 부평국가산업단지 도로안내판

## 2) 한국GM 부평공장

1962년 자동차 조립공장에 이어 1971년 엔진공장을 준공한 이래 한국GM 부평공장은 2020년 기준 연간 완성차 44만 대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부평의 경제와 사회, 정치, 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1993년 아시아 업계 최초로 ISO 9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한국자동차 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다. 부평공장은 승용 1·2공장과 엔진 및 변속기를 생산하는 엔진구동 공장 및 KD수출(nockdown export; 부품을 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하는 일)을 위한 KD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을 철수한 이래 북미 공장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코로나19사태 등의 영향으로 수출용 자동차의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이다. 부평공장에 대한 구조조정과 사업축소 등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

## 3)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

부평공단 등의 공동화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의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부평구는 서울 구로공단이 디지털산업단지로 변신하는 데 성공한 것을 모델로 삼아 당시 인천 지역 최대의 첨단 아파트형 공장인 우림라이온스밸리를 유치하였다. 이를 계기로 부평공단의 산업구조 개편에 전기가 마련되었다.

2005년 문을 연 우림라이온스밸리는 연건평 4만 평(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지어졌는데, 초기 약 300여 개의 IT 및 벤처기업 입주와 약 6,00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은 물론 부평공단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후 2008년 남광센트렉스가 문을 열었다.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남광센트렉스는 층별 하역장까지 차량이 직접 진입하는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갖춘 첨단 지식산업 단지로 조성되었다. 2019년 기준 215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남광센트렉스 내에는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이 마련되어 있다. ‘유유기지 부평’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열린 공간과 회의 공간, 휴게 공간 등을 조성하고 청년들의 모임과 창업을 지원하며 멘토링과 상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2018년 문을 연 부평테크시티는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를 갖추었다. 부평테크시티는 부평산업단지의 ICT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전국 산업단지 최초로 산업시설과

업무, 지원, 서비스 기능이 결합된 융복합센터로 조성되었다. 인천 콘텐츠기업 지원센터,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비롯한 194개의 산업시설이 입주해 있다.

2020년에는 부평테크노타워가 조성되었고 제이타워3차가 곧 준공될 예정이다. 그 밖에 부평테크노파크-M2, 인천테크노밸리U1센터가 조성 중이다.

2020년 기준 경인센터, 우림라이온스밸리, 남광센트렉스, 부평테크시티, 부평테크노타워에 등록된 공장 수는 약 500개에 달하며, 향후 부평테크노파크-M2, 인천테크노밸리U1센터까지 준공되면 부평구 내 지식산업센터의 입실 규모는 약 7,000여 실이 넘을 예정이다.

특히 갈산동에 건립 중인 인천테크노밸리U1센터는 총 2,203개 입주 시설을 예정하고 있는데, 부평구와 인천 지역 내 첨단기업과 상가, 문화, 오락 등 주변 시설과 어우러진 최대 복합시설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표 62 부평구 지식산업센터 현황

(2020.7.기준, 단위: m<sup>2</sup>·개실)

구분	준공	소재지	면적		층수	입주 시설
			부지	연면적		
경인센터	2000년 10월	주안산업단지 백범로577번길 20	12,121	51,249	지하1, 지상8	295 (공장등록64)
우림 라이온스밸리	2005년 5월	부평산업단지 부평대로 283	11,531 27,869	130,716	지하2, 지상12	583 (공장등록273)
남광센트렉스	2008년 2월	부평산업단지 부평대로 301	17,875	86,175	지하1, 지상10	290 (공장등록133)
부평테크시티	2018년 12월	부평산업단지 부평대로 293	4,700	37,034	지하2, 지상12	231 (공장등록16)
부평테크노타워	2020년 3월	부평산업단지 새벌로 29	5,805	40,045	지하1, 지상9	168 (공장등록12)
제이타워3차	2020년 11월	부평산업단지 청천동 426-1	15,788	113,715	지하1, 지상15	1,032
부평 테크노파크-M2	2021년 11월	부평산업단지 청천동 424-9	4,810	38,786	지하1, 지상14	226
인천 테크노밸리U1센터	2022년 2월	갈산동 94	34,997	280,617	지하1, 지상23	2,203

❖ 출처: 부평구청 산업육성팀

## 2. 경제 단체

### 1) 인천상공회의소 서북부 사무소

2003년 인천상공회의소는 부평, 계양, 서구 등 인천 북부권 상공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평1동에 북부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그동안 국가자격시험을 치르기 위해 부천상공회의소를 찾았던 부평구 주민들은 북부사무소의 회의실과 교육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불편이 해소되었고, 관내 중소기업인들의 이용률도 증가하였다. 그 밖에 서북부사무소는 무역증명서류와 같은 서비스를 비롯해, 지역경제현황 파악 및 정책 건의, 기업 간 지식 및 정보 교류 촉진, 체계적 기업 데이터베이스 관리, 각종 시험과 자격증, 교육,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서북부사무소는 경원대로 1382 대한빌딩 6층에 위치하고 있다.

### 2) 부평구 경영자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와 부평구의 후원 아래 2003년 9월 부평구 내 약 40여 기업회원사들이 경영자협의회를 발족하였다. 경원대로 1382 대한빌딩(부평역 앞) 인천상공회의소 내에 있다.

협의회는 부평 지역 내 상공인들에게 구정(區政)과 상의(商議) 주관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 간 정보교환 및 친목 도모,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간담회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불우이웃돕기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2년 협의회는 한국GM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협력 사업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 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교류, 유대 및 협력 사업을 도모하고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 3)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

부평구중소기업협의회는 100여 명의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이 모인 단체다. 부평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 10월 창립하였다. 2010년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현재 부평대로 283 우림라이온스밸리 내에 위치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역 내 중소기업인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전문가 초청 아카데미, 세미나 및 간담회 등 개최, 부평구 소재 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술교류, 유대 및 협력 사업 추진, 구정의 건의 및 자문, 지역 내 문화행사 및 사회사업에 참여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밖에 협의회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물품을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 4) 중소기업융합교류회(전 중소기업이업종교류회)

1999년부터 부평구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이업종 간 교류와 친목도모를 통한 지역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이업종교류회를 추진하였다. 이로써 부평구에는 부평·백마·철마·신트리·북인천·플로렌스 등의 융합교류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부평구와 융합교류회는 2003년부터 한마음체육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각 융합교류회는 매년 명절과 연말에 이웃돕기 성금 등을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사태 이후 각 교류회는 부평구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였다.

### 5) 부평협동사회경제협의회

2015년 9월 4일 부평구의 40개 사회적경제 단체들로 구성된 '부평협동사회경제협의회'가 출범했다. 협의회에는 사회적기업 14개, 마을기업 7개, 협동조합 13개, 자활조직 5개, NPO단체 1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인천 지역 최초의 사회적경제 단체이다. 협의회는 부평구와 함께 효과적인 사회적경제 발전을 모색하고, 구성원 간 커뮤니티와 연대 협력사업, 교육, 워크숍,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협의회는 코로나19사태를 맞아 부평구 내 소속 업체의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조성하여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평구 내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에 사무실 공간을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3. 기업지원 사업

#### 1) 콘텐츠기업 지원센터

제조업과 공장 등 굴뚝산업이 퇴조하고 4차산업 기술혁신이 확산되는 등 산업기반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부평을 지역 거점으로 하는 콘텐츠기업의 육성과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새로운 청년 일자리 등을 창출할 목적으로 부평구는 인천광역시, 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이를 지원하는 센터와 시설을 운영 중이다.

부평테크시티 내에 4년간 총 약 188억 원을 투입하여 지원센터와 시설을 운영하는데, 주로 신성장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원스톱 콘텐츠기업 육성플랫폼 구축, 콘텐츠 글로벌 수출 등을 지원한다.

2020년 기준 11개사에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를 지원했고, 25개사에 투자 유치, 30개사에 네트워킹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2) 기술지원 사업

부평구는 수출, 해외규격 인증획득, 산업재산권, 디자인개발, 금형 등 기술개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UL(미국안전규격인증), CE(유럽연합통합인증), TUV(독일기술관리협회), CCC(중국필수인증), GOST(러시아국가표준규격) 등 해외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해외규격 획득을 필요로 하는 부평구의 중소 제조업체의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국내외 권리화, IP-기술 Crossover 지원 및 기업 맞춤형 IP지원을 위해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며,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예방과 리스크 완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기업이미지(CI, BI), 제품이미지, 캐릭터, 카탈로그 등 시각디자인과 포장디자인(표면디자인, 구조디자인), 제품디자인(CAD/CAM, 3D 등)의 개발을 지원하는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이 있다.

그리고 부평구는 우수제품의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의 신상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형 개발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이를 지도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기술지원단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이상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모두 약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2억 원이 투입되었다.

#### 3) 해외 수출 지원 사업

부평구 내 기업의 우수 상품을 수출하고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부평구는 수출 통상촉진단을 파견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기준 태국·말레이시아·폴란드·터키 등에 17개 업체의 참가를 지원하여 총 76건, 약 7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리고 2019년 부평구는 베트남 하노이 종합 박람회에 관내 8개 업체의 참가를 지원하여 총 19건, 96만 달러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부평구는 비대면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온라인 화상상담, 국내 TradeKorea B2B몰(온라인전시관) 입점, 자카르타 현지 Shopee B2C몰 입점, 현지 소비자반응 설문조사,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부평구는 관내 수출기업의 언어장벽 해소를 위해 무역 관련 서신 번역 및 작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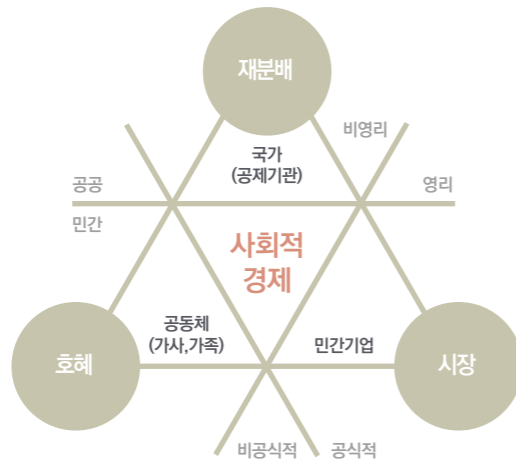
#### 4) 기타 지원 사업

그 밖에 부평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관내 중소기업의 생산 공정 개선, IoT 등을 접목한 첨단기술 적용을 위한 기업 부담금을 완화,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4.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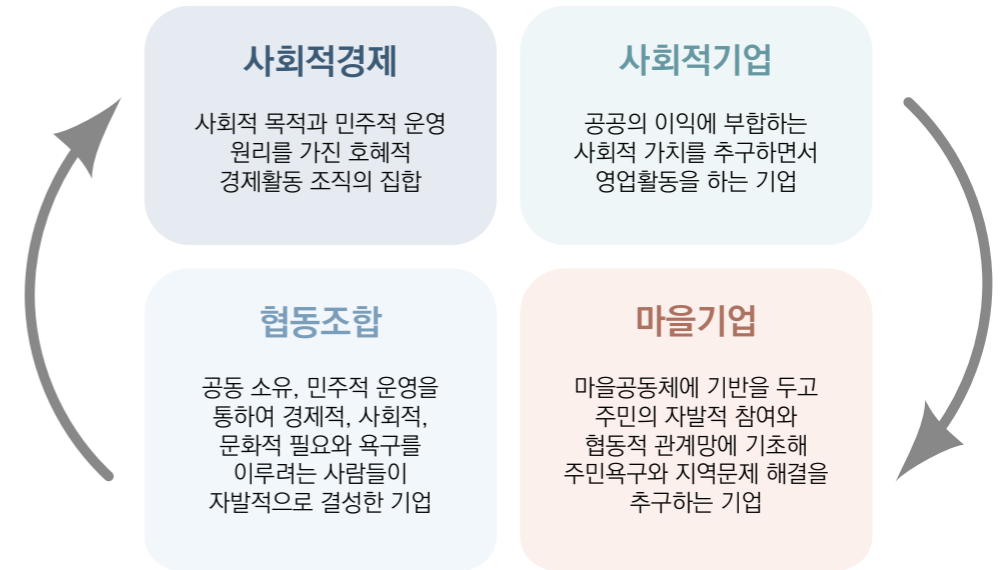
##### 1)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상호 간의 협력과 연대, 자발적인 참여와 혁신을 바탕으로 삶의 질과 복지를 증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빈곤 및 소외 극복, 지역공동체 발전, 기타 공익활동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가리킨다. 사회적경제의 기본 가치는 민주적 참여, 공동체 이익 실현, 노동중심의 수익 분배, 사회와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색을 추구하는 데 있다.



❖ 출처 : 부평구청 홈페이지

사회적경제의 제도와 행정적 지원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래 2010년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시작되고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부평구에서는 2010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규모를 활성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적경제 주체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으로 구분된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 목적이 최우선이지만,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리 활동과 사회적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다.

마을기업은 마을회, 부녀회, 청년회, NPO 등 지역 단위 소규모 공동체 법인이나 공동사업자 조직으로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최소 5인 이상의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생산과 소비를 영위하는 단위체로서 조합원 구성원의 생활과 문화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민의 복지와 경제 활동, 생태 환경 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부평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민·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부개동 수변로 56에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출처 :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홈페이지)

부평구 관내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총 12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일반 협동조합이 가장 많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결국 협동조합이 전체 사회적경제조직의 74%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3 부평구 사회적경제 조직별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 개)

합 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122	16	2	8	73	18	5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 구정현황, 부평 지역을 기록하다』, 2020, 54쪽

## 2)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유형은 첫째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30% 이상인 일자리 제공형, 둘째 서비스 수혜자 중 30% 이상이 취약계층인 사회서비스 제공형, 셋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비중이 20% 이상이거나 해당 서비스의 수입 또는 지출이 40% 이상인 지역사회 공헌형, 넷째 근로자와 수혜자의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인 혼합형, 그리고 도시

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의 목적을 수행하는 창의·혁신형이 있다.

2020년 기준 부평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18개(인증 16, 예비 2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다. 부평구는 이들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6억 600만 원, 사회보험료에 9,800만 원, 사업개발비에 1억 5,000만 원, 총 8억 5,400만 원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이들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하고 일반 기업과 주민들의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64 부평구의 사회적기업 현황

(2020년 기준)

구분	기업명	사업 내용	소재지
인증	사회복지법인 손과손한인한부평	저소득층 진료사업, 재가간병	경인로 1104번길 10(부개동)
	인천평화의료 복지사회적 협동조합	카트리지 외 제조 판매	동수로 87(부평동)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공연예술, 전통문화교육	마장로 24(부평동)
	인천 자바르떼	문화예술, 기획,공연	경원대로 1240번길 5-4, 4층(부평동)
	(주)크린인천	건물청소, 소독방역	동수로 28, 111호(부평동)
	(주)섬나애드기획	인쇄, 판촉물	주부도로 249번길 68, 202호(갈산동)
	(주)뉴크린아트	건물위생, 에어컨청소	평천로 319-5, 1층 1호(갈산동)
	구보댄스 컴퍼니	공연, 예술	마장로 75, B1층(십정동)
	(주)청앤미	건물청소, 소독, 시설관리	마장로 361번길 29, 가동 301호(산곡동)
	사회적협동조합 커피위드인	커피 등 음료판매	부평대로 168, 1층(부평동)
	도우누리정다운 사회적협동조합	장기요양, 가사간병	수변로 56, 1층(부개동)
	대성하우징 협동조합	주거복지, 도배, 장판	경원대로 1198, 1층(십정동)
	가온샘(주)	판촉물 및 문구 사무용품	평천로 384, 5층(삼산동)
	(주)신화식품	식품잡화 도소매(식자재 유통)	영성동로 40 지하, 1층, 2층(삼산동)
	(주)한글린	건물청소, 소독, 시설관리	경인로 1083번길17, 2층
	(주)배우공동체 자투리	문화, 예술	부남로 8번길 20-34
	커피위드인 사회적협동조합	커피 등 음료판매	부평대로 168
	예비	(주)러블리페이퍼	도매 및 소매 (페이퍼 캔버스)
사회적협동조합 소통과나눔		장애아동학습 지원서비스	마장로 1, 501호(십정동)
(주)퍼니지코리아		업사이클링 친환경도로	수변로 56
옛소리마당국악예술 협동조합		국악예술공연 및 예술	화랑북로 36-3 4층

❖ 출처 :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팀

### 3) 마을기업

마을기업이란,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둔 주민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마을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 형태를 갖춰야 한다.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며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한다. 또한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 인력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부평구의 마을기업 지원 사업은, 단계별로 예비마을기업에 최대 1,000만 원, 신규 마을기업에게 1년간 최대 5,000만 원, 2차 년도에 재지정될 경우 최대 3,000만 원, 그리고 3차 년도에 고도화 마을기업으로 인정될 경우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부평구의 마을기업은 모두 9개가 운영되고 있다.

표 65 부평구의 마을기업 현황

(2020년 기준)		
기업명	사업 내용	소재지
(사)우리동네 희망마을	마을카페 '섬표' 운영,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부평구 세월천로 82
(주)부평공예마을	부평 생활공예, 공동체 만들기	부평동 10-515 153호
(주)비즈스토리	비즈 수공예품 판매, 비즈 체험행사	수변로 52번길 7-9
(주)카페외할머니	실버바리스타 카페, 커피강좌, 문화교육	경인로 1107 1층
리폼맘스(주)	중고의류 리폼교육, 리폼제품 제작·판매	산청로 41 상일상가 3층
맘에드는가게(주)	재활용의류 판매 및 수거, 의류 리폼 제작	경인로 671 2층
예교공동작업장	폐현수막 활용 등 제조	부평대로 276번길 21
평화렛츠 협동조합	지역화폐사업, 친환경 물품 판매, 의뢰기기 대여	경인로 1104번길 10
The PL 커뮤니티케이션즈 협동조합	블로그, SNS 등 온라인 마케팅	부평대로 115 M타워 7차 1406호

❖ 출처 :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홈페이지

### 4) 협동조합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말하는데, 소비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유형은 조합원과 생산자, 특정 사업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데 비해, 다중이해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와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사업 등의 목적을 수행하는 유형이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비영리적 성격을 지닌다. 2020년 기준 부평구에는 약 70개의 협동조합이 있으며, 이 가운데 사회적협동조합은 약 20개이다.

표 66 부평구의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2020년 기준)		
기업명	사업내용	소재지
사회적협동조합 세움터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백범로 478 3층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 사람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평대로 59 성창빌딩 6층
커피위드인 사회적협동조합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1층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정다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마장로 75 대경빌딩 501호
사회적협동조합 도시농부꽃마당	광업	수변로 56 1층 코워킹룸
사회적협동조합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열우물로 103 5층
인천좋은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창휘로10번길 22
청천별하사회적협동조합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산청로 112-3 2층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교육 서비스업	주부도로 151번길 27 지하
공생공생, 맑은내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마장로 459번길 19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경인로 1104번길 10
사회적협동조합 다원세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길주로547번길 8-13 2층
사회적협동조합 꿈앤끼	교육 서비스업	부흥로123번길 뉴서울2차아파트 203-203
소통과나눔사회적협동조합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마장로 1 501호
영성마을 두레 사회적협동조합	교육 서비스업	영성서로7번길 3
전국인테리어목수 사회적협동조합	건설업	일신동 1-1

1. 에너지

1) 에너지 소비

부평구의 전력사용량은 과거에 비해 총사용량에서 큰 변동이 없지만 심야전기 사용과 가로등, 그리고 산업용 전기의 사용이 크게 줄어든 반면 교육용, 주택용 전기가 소폭 증가하였다. 최근 10년간의 부평구 전기 사용량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이는 주요 공단과 자동차공장 등의 가동률과 심야 조업이 줄어든 대신 학교와 학원 등의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고 주택과 일반용 전기제품 사용량과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7 부평구 전력 사용량 변화(2009년과 2019년 비교)

구분	연도			증감율
		2009	2019	
주택용		673,052	705,102	5
일반용		754,539	779,492	3
교육용		37,173	41,910	13
산업용		826,408	740,162	-10
농사용		958	1,018	6
가로등		16,029	14,329	-11
심야		50,225	16,122	-68
합계		2,358,383	2,298,134	-3

(단위: 년·MWh·%)

출처: KEPCO 전력데이터 개방 포털시스템

전기사용량이 많은 주요 업종의 최근 10년간 전기 사용량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전철 증설에 따른 전기사용량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고무·플라스틱, 군용, 관공용, 가구 및 기타 업종의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였다. 한편, 수도, 목재, 나무, 화학제품, 1

사회적협동조합 희망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장제로 145 신명스카이홀 302호
소통과나눔 사회적협동조합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마장로 1 부영빌딩 501호
해피타임 사회적협동조합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마장로 39-4

출처: 협동조합(COOP) 설립현황(인천광역시 부평구)

5)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경제·문화·환경을 공유하는 마을 안에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음과 뜻을 모아 형성하는 주민자치공동체이다. 부평구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마을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하며 운영해 가는 “마을사람”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주민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원 사업은 주민이 모임을 구성하여 마을의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인 씨앗형 공동체에 2년까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3~5년 동안 마을의 문제를 해소하는 새싹형 공동체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며, 3개 이상의 씨앗형, 새싹형 공동체가 모이고 또는 사회적기업과 관공서, 지역기관 등이 연계, 협력하여 종합적인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열매형 공동체에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공유 부엌, 공유 공간, 공구 대여, 카 셰어링, 의상 공유, 장난감 공유 등 일상에서 공유할 수 있는 수많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공유 마을형 공동체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마을축제 등 단발성 사업이나 정치, 종교 관련 활동은 제외한다. 2020년 기준 부평구에서 지원하는 마을공동체는 모두 84개이다.

이들 마을공동체는 장애인 지원, 우리동네 천문대, 녹화사업, 빵 나눔, 꽃 선물, 굴포천 가꾸기, 도서관, 전통예술, 한부모가족 생활요리,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학부모 모임, 청소년 지원, 예술활동 등과 관련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차금속, 자동차 업종의 전기 사용량이 많이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 이는 부평구의 공단 내 산업의 구조 변화와 자동차공장 조업 감소에 따른 것이다.

표 68 부평구 전기 사용량 변화(2009년과 2019년 비교)

(단위: 년·MWh·%)

구분	연도	2009	2019	증감율
식품제조		114,699	134,321	17.1
목재·나무		17,070	11,576	-32.2
출판·인쇄		13,894	12,606	-9.3
화학제품		66,111	32,106	-51.4
고무·플라		13,817	31,103	125.1
1차 금속		15,285	11,248	-26.4
조립 금속		55,478	71,601	29.1
기타 기계		60,611	77,037	27.1
영상·음향		69,732	53,643	-23.1
자동차		266,696	184,538	-30.8
가구 및 기타		10,686	14,426	35.0
수도		46,044	14,736	-68.0
전철		3,556	12,825	260.7
가정용부문		659,836	692,332	4.9
국군용		9,790	13,733	40.3
기타공공용		43,020	42,932	-0.2
관공용		22,372	30,722	37.3
순수서비스		794,409	801,161	0.8

❖ 출처: KEPCO 전력데이터 개방 포털시스템

## 2) 재생에너지

부평구는 천연 자원이 전무하고 에너지 생산시설과 기업 수 역시 매우 빈약한 환경이지만, 최근 들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부평구에는 석탄, 원유, 천연가스, 우라늄 등의 지하자원이 전무하다. 원자력, 수력, 화력, 풍력, 태양력, 연료전지, 지열 등의 발전시설이나 제조 기업이 전혀 없다.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체가 1개(4명) 있을 뿐이다.

코크스(cokes),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체도 없다. 다만 산업용 가스 제조 업체가 2개 있을 뿐이다. 송전 및 배전 업체가 2개, 전기 판매업체가 1개,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 공급업체가 2개 있을 뿐이다. 이들 5개 업체에 모두 474명이 종사하고 있다.

그 밖에 주유소와 가스 충전소 57개에 387명이 종사하고, 가정용 연료 소매업체 18개에 52명이 종사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부평구는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와 환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부평구는 정부가 공모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 5억여 원을 확보하여, 인천시 및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와 함께 굴포천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대안에너지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시작하였다. 부평구청부터 부평역사 박물관까지 굴포천 1.7km 구간 내 공공시설과 민간 주택 34곳에 179k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다. 사업구간에 포함된 갈산동과 굴포먹거리타운은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에너지 자립 마을’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부개도서관과 갈산도서관에도 30kW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하고, 주변 80여 가구를 대상으로 소형 태양광 설치지원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 갈산도서관과 부개도서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설비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규정백서』, 2020, 380쪽

부평구는 2020년 현재 구청과 의회, 각 주민센터, 도서관, 민방위교육장 등 17개소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일일 발전량 711kw의 전력을 생산하여 연간 454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내고 있다. 천연자원과 에너지 생산 기반이 빈약한 부평구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부평구청 태양광발전 모니터링 시스템

## 2. 환경과 청소

부평구에서 연간 발생하는 폐기물은 2020년 기준 약 9만 5,000톤에 달한다. 생활 폐기물 약 5만 6,000톤, 음식물류 폐기물 약 3만 톤, 재활용 가능 폐기물 약 8,200톤이다.

표 69 부평구 폐기물 발생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톤)			
합계	생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가능 폐기물
94,484	56,243	30,030	8,211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 구정현황, 부평 지역을 기록하다』, 2020, 34쪽

부평구 관내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은 2020년 기준 총 397개소에 이르는데,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80톤 이상 배출하는 1종 사업장이 2개소,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1종 사업장 1개소가 있다. 나머지 시설은 대부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10톤과 2톤 미만이거나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또는 50㎥ 미만의 4종과 5종에 해당한다.

표 70 부평구 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개소)						
구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합계	397	3	2	1	63	328
대기	171	2	0	1	61	107
수질	226	1	2	0	2	221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 구정현황, 부평 지역을 기록하다』, 2020, 35쪽

이상 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공해배출시설을 갖춘 사업장은 2020년 기준 352개소에 불과하다.

## 3. 재해·재난 대비 및 대피시설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집중호우, 폭우, 돌풍, 태풍 등에 의한 기상재해의 빈도, 그리고 도시 과밀에 따른 빌딩의 고층화, 화재 등 사고의 발생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사태 발생에 따른 대규모 방역 및 의료시설의 확충, 대테러 재난 관리 등 각종 재해·재난의 대비와 시민 안전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부평구 관내의 재해·재난 대응 장비와 대피시설 등의 확충과 상시 관리 및 신속 대응체제에 관해 부평구의 지속적인 대응과 주민들의 협조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2020년 기준 부평구의 구조장비 및 대테러 특수소방장비 현황은 인천광역시의 타 지역의 수준과 비슷하거나 특정 장비의 경우 더 잘 구비된 편이다. 철선 절단기, 도끼, 산

악용 배낭, 등강기, 벌집 제거 장비 등은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다. 코아 드릴, 헤머 드릴 등의 장비, 적외선 야간투시경, 그리고 화학보호복(레벨A) 등 생화학 누출 대응 장비는 타지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지진 등 재난상황 시 다중이 대피할 수 있는 옥외 대피소는 공원과 학교 운동장, 녹지 등 모두 97개소가 있다.

특히 부평구는 굴포천과 청천천, 갈산천의 3개 하천이 지나는 지역적 특수성을 안고 있는데 비록 수량이 많지 않은 하천이지만 최근 들어 게릴라성 집중호우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평소 홍수와 수해에 대비하여 배수펌프장의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부평구 관내 하천에 설치된 배수펌프장은 갈산펌프장, 삼산1펌프장, 삼산2펌프장의 3곳에 불과하다. 3곳의 펌프장에 설치된 펌프는 모두 15대이며 양수량은 총 4729 m<sup>3</sup>/분 가량이다. 삼산2펌프장의 펌프는 구경과 전력 고압이 소형이다.

최근 들어 교통과 치안, 공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관내에 통합관제 CCTV를 설치와 운영이 가속화하고 있다. 부평구 관내 CCTV 설치 현황은 2020년 기준 총 1,099대에 달한다. 주로 어두운 골목길과 도시공원 지역,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방범용으로 집중 설치되어 있으며, 주정차 단속과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시설물 관리 등의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되고 있다. 2020년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통해 학교 앞 스쿨존의 과속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학교 앞 주변 도로의 CCTV가 확충되어야 하며,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주택가·공원 정비·도심 복합 건물 등이 다수 입주하면서 CCTV 설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 밖에 여름철 고온 이상기온 현상이 잦아지면서 부평구는 노인과 보행자를 위한 무더위쉼터와 그늘막쉼터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2019년 기준 부평구 관내의 노인시설과 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금융기관, 삼산체육관 등에 무더위쉼터 70곳이 설치되었다. 그늘막쉼터는 2017년에 3개에서 2018년에 11개, 2019년에 25개, 총 39개가 설치되었다.

표 71 부평구 통합관제 CCTV설치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대)

합계	방범용				행정 업무용			
	골목길	도시공원	어린이보호	쓰레기 무단투기	주정차단속	재난예방	산불감시	시설물관리
1,099	719	149	125	46	50	-	-	10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 구정현황, 부평 지역을 기록하다』, 2020, 36쪽.



## 참고 문헌



### 단행본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규정백서』, 2020,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년도 부평구 가계부』, 2019.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 규정현황 부평 지역을 기록하다』, 202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통계연보』, 각 해당 연도.  
 인천광역시, 『2019 인천의 사회지표, 부평구』, 2019.

### 기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2019년도(2018회계연도) 지방재정 공통공시(결산)」, 202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2019~2023 인천광역시부평구 채무관리계획」, 2020,

### 웹사이트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https://portal.icbp.go.kr/nadeocenter/>)  
 인천광역시 부평구청(<https://www.icbp.go.kr/>)  
 인천광역시 부평홍보관(<https://www.icbp.go.kr/publicity/>)

### 자료제공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부평사  
富平史



# 제 4 장 ————— 사회적 인프라

제1절 \_ 부평의 교육

제2절 \_ 부평의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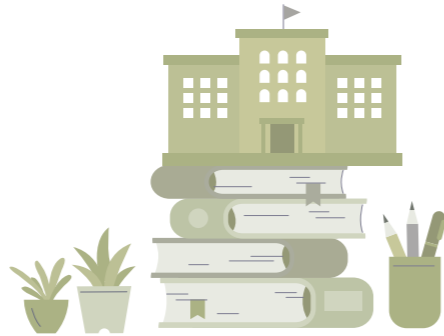
제3절 \_ 부평의 보건, 의료, 위생

제4절 \_ 관광자원과 친선 교류



# 제4장 사회적 인프라

김종구(ARGO인문사회연구소 연구원)



## 1. 제1절 | 부평의 교육

### 1. 교육환경의 변화

한 지역의 교육 환경과 교육 현황을 짚고 평가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시대다. 그것은 학교의 기능이 달라졌고, 교육의 모습이 너무 다양화되었기 때문이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지역의 교육 환경을 평가할 때, 학교 수, 교사 수, 학생 수 등 수치를 중심으로 평가해 왔고, 소위 명문고, 명문 대학을 얼마나 진학시키는지 교육 환경의 평가 기준이 되었다. 물론 지금도 이 경향은 그다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양상은 꽤 많이 바뀌었다. 예컨대, 좋은 사교육 시설이 근처에 있는지 등도 하나의 지표가 되었는데, 이는 공교육인 학교 교육이 그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화가 있다. 그것은 소위 계층이동, 신분 상승에만 초점을 두고 교육 환경을 평가하는 게 옳은지 하는 의문이 점점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지역의 교육 환경을 서울의 강남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혁신학교라든지, 대안학교, 학교의 돌봄 기능 강

화, 마을 학교 공동체 기획 등은 그런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 인천과 부평의 교육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 1) 부평의 교육 현황

먼저, 부평의 학교 현황을 살펴보자. 2018년 12월 현재 유치원 67개소에 6,189명, 초등학교는 42개교에 2만 5,430명, 중학교는 21개교 1만 2,980명, 고등학교는 19개교 1만 2,508명, 그리고 특수학교는 4개교 451명이 재학 중이다. 초등학교 학생 수와 중학교 학생 수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게 특징인데, 이는 인근의 계양구 등으로 진학하기 때문이다. 대학의 경우 한국 폴리텍Ⅱ 인천캠퍼스 1개교가 있다.

#### 2) 부평의 교육 인프라

학교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이 예전만 같지 못하다. 여기에 비해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 환경, 자원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 예컨대 도서관, 청소년 문화센터, 미술관, 체험 시설, 박물관 등이 그러한 것들인데, 명시적으로 교육 인프라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가령 주말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이나 몸과 마음의 건강을 고려한 산책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한 책방 등이 있다면 좋은 교육 환경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미술관, 체험 시설, 박물관 등은 5장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도서관과 청소년 관련 시설만 언급하고자 한다.

도서관의 경우 부평도서관, 북구도서관 등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곳이 2개소 있고, 부평기적의 도서관, 부개어린이도서관 등 부평구가 운영하는 곳이 6개소 있으며, 이보다 규모가 작은 도서관 7개소도 부평구가 운영하고 있어, 시설의 면에서는 충분한 장소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도서관과 달리, 아이들의 학습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인프라도 갖추어져 있다. 이른바 학습지원센터가 그것인데, 기초학습 부진이나 정서 불안 등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습을 지원하는 인천북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정규 수업에서는 할 수 없는 학습과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방과 후에

는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의 학습과 돌봄을 책임지는 방과후돌봄센터가 모두 37개소 있다.

청소년 관련 기관으로는 이른바 청소년들의 평생교육(생활체육, 문화 체험, 창의 공작)을 책임지는 부평청소년수련관, 청소년들의 성교육과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어가는 부평구청청소년성문화센터, 그리고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나 학교폭력에 노출된 청소년 등을 위한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평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는 소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3) 부평의 교육 정책 및 비전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이 밝힌 부평 지역의 교육 비전과 중점 사항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 첫째, 혁신 미래 교육
- 둘째, 안심 교육
- 셋째, 자치와 협력의 소통 교육
- 넷째, 교육복지

배움의 현장인 학교가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바뀌어 가야만 한다는 것, 점점 늘어만 가는 학교폭력과 아이들에게 벌어지는 각종 사고를 예방해서 학생들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 속의 섬으로 갇혀 있는 학교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열린 공간,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을 학교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 한국 사회가 점점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는 가운데 새롭게 대두된 양극화와 빈곤층의 확대,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의 문제 등 교육복지가 든든히 서야 한다는 것. 이 네 가지의 정책적 실천 과제는 인천 교육의 비전이자, 한국 사회의 교육 비전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국 교육 일반의 비전 외에도 부평, 인천 교육만의 비전도 제시되고 있는데, 북아시아의 관문 도시로서 인천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평화와 공존의 가

치를 익힌 시민 양성이라는 과제가 그것이다.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는 동아시아의 나라들과의 교류 지원, 동아시아 평화 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역량 강화, 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베트남어 교육프로그램 적극 지원 등이 제시되고 있다.

## 2. 한눈에 보는 부평 교육

### 1) 학교 현황

표 1 부평 지역 학교별 현황

(단위: 개교·명)

학교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유치원	67	323	6,189	467
초등학교	42	1,150	25,430	1,679
중학교	21	494	12,980	957
고등학교	19	532	12,508	1,203
특수학교	4	88	451	144
합계	153	2,587	57,558	4,450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2019년 구정현황, 부평지역을 기록하다」, 2019, 26쪽.  
❖ 비교: 대학교는 한국 폴리텍 II 인천캠퍼스 1개소.

### 2) 도서관 현황

표 2 부평 지역 도서관 관할별 현황

(단위: 개소)

합계/구분	교육청 관할	구립도서관	구립 작은도서관
15	2	6	7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구정 현황, 부평지역을 기록하다」, 2019, 27쪽.

### 3. 부평의 교육 비전과 과제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은 2019년 부평 교육의 중점 사항을 네 가지의 키워드, 즉 미래, 안심, 소통, 복지로 정리했다. 이것은 사실 부평만이 아니라 인천, 그리고 한국의 현 교육 과제의 핵심을 녹아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실천 과제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혁신 미래 교육

배움과 성장을 돕는 미래 교육, 평화와 공존을 위한 동아시아 시민 교육, 기초학력 보강 사업 강화,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 2) 안심 교육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 '폭력 없는 인천, 생명 존중 인천' 시민운동 전개, 공감과 감성을 내면화하는 예술, 체육 교육.

#### 3) 자치와 협력의 소통 교육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 확대, 학교 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기반 지원, 발로 뛰고 귀를 여는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 4) 교육복지

쾌적한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과밀학급 해소,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증설, 장애의 유형에 맞는 맞춤형 특수교육, 내실 있는 다문화 탈북 교육 지원, 유아교육에서의 공공성 강화, 맞벌이 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 무상급식 확대 및 저소득층을 위한 급식비 지원, 교복 구매비 지원, 지역과 학교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 5) 부평·인천 교육의 과제와 비전

여기에 덧붙여, 부평·인천 교육만의 비전도 제시하고 있는데, 인천·부평이라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것들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북아시아의 관문 도시로서 인천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익힌 시민 양성이라는 과제가 그것이고, 그 실천 과제로는 동아시아의 나라들과의 교류 지원, 동아시아 평화 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역량 강화, 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베트남어 교육프로그램 적극 지원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인천교육연구소가 펴낸 최근의 각종 연구보고서는 부평·인천 교육의 과제와 비전을 잘 보여 준다. 이 항목에서는 그 중 보다 긴급하고 절실한, 그리고 부평·인천만의 과제를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 (1) 학생 생활 관련 과제와 비전

본 항목은 「인천 학생생활 실태조사 2019」(인천교육연구소, 2019)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학생 생활실태조사는 주기적으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금 인천에 필요한 교육적 과제를 도출한 조사이다.

#### ① 다문화가정 지원

한국 사회는 점점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중에서 인천은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다문화가정의 큰 문제점으로서 첫째, 학부모들의 학업 지원에 대한 인식이 일반 학부모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즉, 아이들의 학업이나 진로에 대해 관심이 적다는 것이다. 둘째, 실제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 일반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산하의 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학업 신장과 학력 결손을 막기 위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사회와 연관된 멘토링 사업, 방과후돌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지금 서둘러야 하는 교육적 대상이지만, 이들이 원만하게 성장하면 그 누구보다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 것이기에 부평과 인천 교육이 지금부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 2 맞벌이 가정 지원

인천 학생의 62%가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율은 점점 늘어갈 것이다. 교육청에서는 '맞벌이 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는 돌봄교실 확대와 초등 돌봄교실 운영의 내실화'라는 이름으로 힘을 쏟고 있는데 기본적인 주안점은 '안전'과 '돌봄'에 있다. 그런데 아이들의 학업적인 지원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대부분 홀로 있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학업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3 학교 안전 확보

인천 학생들의 오토바이, 자동차 등의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는 의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학생이 통학하는 학교 주변의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중·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 주변에도 학교 보호 구역을 설치하는 등 안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

## 4 학업 중단 학생을 위한 지원

'최근 1년 이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이 15.2%로 결코 낮은 수치가 나왔다.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 맞춤형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정 기간 학생에게 숙려의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학업 중단 숙려제'는 일정 부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단위 학교에 맡기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종합적인 대책을 꾀할 필요가 있다. 대안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도 그 예가 될 것이다.

## 5 학생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지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 학생들의 자존감, 행복감 인식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자해가 유행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로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매우 높고,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낮은 걸 들고 있다. 지금까지 무시해 왔던 학교에서의 아이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한 교육적 과제가 된 지 오래다. 부모와 함께하는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또래 관계 회복프로그램, 메니-멘토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미래 교육의 구상

### 1 인천 마을교육공동체 구상

이 항목은 「인천 마을교육공동체 발전 방안 연구」(인천교육연구소, 2019)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중장기 인천교육의 비전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제시하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란 현대 사회의 주요한 개념인 공동체주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학교 교육에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의 크고 작은 도시 공동체 운동의 실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공동체성을 복원하고, 공공선을 추구하는 중심 공간으로 학교를 상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이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지역사회, 좁게는 마을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는 이념에 기초한 것이다. 교육과정과 교육 방법, 교사들의 구체적인 교육 실천이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묶여야 한다. 예컨대,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과 같이 지역 사회와의 접점을 가지고 해오던 교육은 물론, 각종 수행평가, 과제 학습과 같은 지적인 면분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 문제, 아이들의 일상의 스트레스나 부모 교육, 그리고 진로 교육에 이르기까지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으로 묶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0년 현재를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기반을 만들어 가는 시기로 보고, 5~10년 후의 인천 교육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의 실천 과제로는 다음과 같다.

- ㉠ 학생-교사-학부모 간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공동체
-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간 연계된 교육과정
- ㉢ 쉽고 놀이, 교우 관계를 경험하는 스마트폰 밖 즐거운 교육과정
- ㉣ 마을에서 실천하는 협력적 문제해결 교육과정, CBL(커뮤니티 기반 학습, Community Based Learning) Project
- ㉤ 1년자리 만남에서 다양한 학교 구성원의 연속된 만남 지원

### 2 교육 격차 해소

이 항목은 「인천교육균형발전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및 개선 방안」(인천교육연구소, 2019)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한국의 교육은,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물론, 같은 지역 안에서도 크고 작은 격차가 존재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교육 주체들의 주요한 과제가 된 지 오래이다. 그러나 인천교육에서 인천교육균형발전사업을 시행한 지는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다. 2013년부터 5년간 원도심의 교육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인천교육균형발전사업은 닳을 내렸다. 2018년 한 해에만 338억 원이라는 대규모의 예산이 집행되었다.

인천의 원도심이라 하면, 우선 동구가 떠오르는데, 실제로 동구의 14개교 중 12개교가 2018년 균형발전사업의 대상 학교로 지적되기도 했다. 그런데 부평구 역시 82개교 중 23개교가 선정될 정도로 적지 않은 학교가 선정되었다. 부평구 내에서도 교육격차가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 사업의 세부 추진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 ㉠ 맞춤형 교육 지원 : 문화예술교육 지원, 학생 건강관리 지원, 기초학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
- ㉡ 인적 인프라 강화 : 우수 교원 배치, 전문 상담 인력 배치,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배치
- ㉢ 환경 인프라 확충 : 범죄예방 환경 설계 사업, 과학실습실 개선, 급식 시설의 현대화
- ㉣ 지역사회 연계 : 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공동체 구축,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혁신지구 활성화

학교 구성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나 지역사회와의 연계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지만, 베테랑 교사들의 배치나 사서나 상담 전문가와 같은 인력의 배치는 학교의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고, 낙후된 시설을 정비 등을 통해 학교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

### 3 동아시아 시민 양성 비전

이 항목은 「동아시아시민 양성을 위한 인천형 교육정책 개발」(인천교육연구소, 2019)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인천은 바닷길이 열려있는 항만 도시이고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동북아시아의 허브 공항이 있는 도시이다. 서울의 관문 도시를 벗어나 21세기 동아시아의 관문 도시라는 틀에서 교육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동아시아 시민교육이다. 동아시아 시민교육이란 가깝게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의 이웃 나라를 시작으로 멀게는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에 열려있는

시민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역사교육은 물론, 문화, 예술, 체육 교육, 언어 교육, 국제 교류 등에서 인천만의 좀 더 특화된 교육을 지향한다. 구체적인 교육 실천으로는 다음과 같다.

- ㉠ 인천,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과 흥미 제고 : 인천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깊은 이해
- ㉡ 인천, 동아시아 역사교육 강화 : 인천, 동아시아 역사 기행
- ㉢ 인천, 동아시아 문화, 예술, 체육 교육 활성화 : 동아시아의 작가와의 만남, 동아시아 미술전, 음악회, 전통놀이
- ㉣ 동아시아의 다국어 교육 활성화 : 인천에 거주하는 동아시아 외국인 강사 발굴 및 다국어 말하기 대회
- ㉤ 동아시아 국제교류 확대 : 동아시아 학생 교류, 동아시아 평화 캠프, 개항장, 차이나타운, 조계지 투어 프로그램

## 4. 구내 학교 현황

### 1) 유치원(공립)

표 3 부평 지역 유치원(공립) 현황

유치원명	개원일	원아 수	주소	전화번호
동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11/86	21	부평구 동암남로 35번길 4(십정2동 501번지)	032-628-0687
미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1/01	52	부평구 원적로 391(산곡4동 128-60번지)	032-628-2468
백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1/01	52	부평구 아트센터로 130(십정동 541-31번지)	032-507-6837
부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1/00	62	부평구 안남로 253번길 41(산곡동 100-87번지)	032-628-2231
부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1/13	70	부평구 원적로 472번길 29(부평동 65-16번지)	032-504-8487
부평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1/97	26	부평구 부평문화로 53번길 19 (부평동 542-18번지)	032-628-0490

유치원명	개원일	원아 수	주소	전화번호
산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1/02	37	부평구 길주로 354번길 39(산곡1동 87-236번지)	032-628-0526
상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1/08	13	부평구 상정로 50(십정1동 198번지)	032-627-8580
십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1/09	6	부평구 배곶북로 10-6(십정동 298-1번지)	032-628-1202
용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1/00	50	부평구 세월천로 30번길 58(청천동 176-4번지)	032-523-2795
삼산유치원	3/1/07	85	부평구 충선로 311번길 25-14 (삼산동 427-7번지)	032-330-2261
갈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1/01	52	부평구 주부토로 165(갈산동 373번지)	032-628-2393
골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1/05	66	부평구 충선로 234번길 19(삼산동 454-1번지)	032-628-2628
금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1/07	50	부평구 일신로 88(구산동 357번지)	032-628-2861
부개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1/98	28	부평구 부일로 39(부개동 155-1번지)	032-628-1056
부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10/99	24	부평구 마분로 9(부개동 356번지)	032-628-0605
부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1/99	66	부평구 부흥북로 175(부개동 499-8번지)	032-458-9093
부평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1/87	25	부평구 경인로 911번길 28(부평동 743-1번지)	032-627-8490
부평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1/94	48	부평구 부평대로 88번길 19(부평동 440-1번지)	032-501-4484
부평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1/86	27	부평구 주부토로 292(갈산동 10-1번지)	032-628-0738
영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1/06	52	부평구 충선로 293(삼산동 438-7번지)	032-521-7384
진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1/05	70	부평구 굴포로 194-10(삼산동 456-1번지)	032-628-2694
한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1/01	68	부평구 영성중로 32(삼산동 393-1번지)	032-628-2256
후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1/04	70	부평구 영성서로 56(삼산동 390-1번지)	032-517-2493

❖ 출처 : 인천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학교 현황, 2019.4.기준

## 2) 유치원(사립)

표 4 부평 지역 유치원(사립) 현황

유치원명	개원일	원아 수	주소	전화번호
꿈나라유치원	4/30/98	126	부평구 안남로 272(청천동 200번지)	032-516-4997
동심유치원	1/31/87	115	부평구 원적로 416번길 38(산곡동 137-3번지)	032-527-6711
산곡유치원	12/2/89	166	부평구 마장로 121(산곡동 산37-4번지)	032-516-6007
선화유치원	11/20/93	휴원	부평구 산곡로 23(산곡1동 87-926번지)	032-504-7003
성아유치원	1/11/88	69	부평구 마장로 48(십정동 182-190번지)	032-505-5305
숲속유치원	12/16/08	118	부평구 산청로 17번길 77-1 (산곡동 70-18번지)	032-527-6007
신동아유치원	4/24/01	52	부평구 아트센터로 118(십정동 607번지)	032-528-7578
아란유치원	1/31/87	148	부평구 안남로 91(산곡동 311-126번지)	032-527-2323
연세유치원	8/24/98	91	부평구 세월천로 16(청천2동 176번지)	032-503-0032
이바유치원	3/1/18	78	부평구 마장로 168번길 17 (산곡동 311-6번지)	032-501-2525
이화유치원	3/9/01	111	부평구 원적로 361(산곡동 124-23번지)	032-527-6761
자연과아이들 유치원	1/19/07	89	부평구 원적로 471번길 26-6 (부평1동 61-2번지)	032-507-5111
정민유치원	6/15/11	153	부평구 부흥로 111번길 51(산곡동 252-19번지)	032-523-8004
청송유치원	2/13/91	30	부평구 부평문화로 37(부평동 70-5번지)	032-528-3420
청원유치원	12/14/78	115	부평구 화랑로 47번길 61(산곡동 산47-1번지)	032-502-4884
한빛유치원	1/21/92	51	부평구 부흥로 123번길 36(산곡동 264-1번지)	032-521-4445
햇살유치원	3/3/95	111	부평구 안남로 260(산곡4동 124-1번지)	032-502-2143
홍익유치원	1/18/91	97	부평구 길주로 494번길 12(청천동 259번지)	032-512-9339
The큰빛유치원	2/28/12	246	부평구 장제로 195번길 42 (부평4동 10-296번지)	032-361-0233
경희동화나라 유치원	2/26/10	90	부평구 부흥로 327번길 13 (부평4동 399-24번지)	032-527-5346
근산유치원	3/20/02	263	부평구 영성중로 53(삼산동 389-10번지)	032-514-3236
꿈나무유치원	1/20/93	59	부평구 동수로 120번길 11(부개1동 442-3번지)	032-529-8037
대동유치원	2/23/09	112	부평구 영성중로 31(삼산동 117-5번지)	032-521-1900
드림유치원	1/17/17	217	부평구 충선로 158(부개3동 498-2번지)	032-505-6199
무지개유치원	1/30/08	180	부평구 안남로 41번길 3(부평동 767-80번지)	032-517-1914
부개대동유치원	4/27/11	151	부평구 동수천로 70(부개동 130-6번지)	032-525-1900
새빛솔금유치원	12/3/93	148	부평구 주부토로 146(갈산2동 391번지)	032-512-9610
성심유치원	8/29/70	116	부평구 부흥로 323(부평동 399-7번지)	032-527-2314

유치원명	개원일	원아 수	주소	전화번호
양지유치원	1/10/83	94	부평구 부흥로 386번길 20-2 (부개2동 91-8번지)	032-501-1377
엄지유치원	2/28/85	70	부평구 부일로 111(부개동 494-3번지)	032-525-0041
엔젤유치원	2/7/86	15	부평구 충선로 124-17(부개동 63-31번지)	032-525-2770
열림유치원	4/29/96	101	부평구 일신로 14번길 23(일신동 409번지)	032-515-4525
예원유치원	12/10/07	187	부평구 충선로 262(삼산2동 443-2번지)	032-501-8188
은현유치원	12/5/06	98	부평구 길주남로 125번길 12 (부개동 12-201번지)	032-511-6766
은혜유치원	1/17/91	30	부평구 동수천로 124(부개동 86-1번지)	032-501-0016
이노필유치원	3/6/92	29	부평구 수변로 64(부개2동 493-13번지)	032-501-2649
이든유치원	1/17/17	149	부평구 부개로 58(부개동 499-2번지)	032-361-8181
파란꿈유치원	12/3/98	79	부평구 갈월동로 45(갈산2동 368번지)	032-503-6108
프렌즈유치원	11/29/93	96	부평구 주부도로 201(갈산동 361-3번지)	032-526-9007
해마루유치원	11/23/06	77	부평구 일신로 120(구산동 360번지)	032-501-0700
현대유치원	5/17/93	62	부평구 갈월동로 66(갈산동 359-3번지)	032-518-5148

❖ 출처 : 인천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학교 현황, 2019.4.기준

### 3) 초등학교

표 5 부평 지역 초등학교 현황

구분	학교명	개교일	학급 수	학생 수	주소	전화번호
공립	갈산초등학교	3/1/93	17	291	부평구 갈월동로 55 (갈산2동 360-1)	032-508-5592
공립	갈월초등학교	3/1/01	33	774	부평구 주부도로 165(갈산동 373)	032-628-2403
공립	개흥초등학교	3/1/91	22	452	부평구 길주남로 65번길 11 (부평동 905)	032-628-1637
공립	구산초등학교	9/1/96	29	623	부평구 부개로 93(부개3동 496-5)	032-361-0831
공립	굴포초등학교	10/4/04	40	1019	부평구 충선로 234번길 19 (삼산동 454-1)	032-511-3872
공립	금마초등학교	8/21/06	20	380	부평구 일신로 88(구산동 357)	032-628-2850
공립	대정초등학교	3/1/87	36	875	부평구 안남로 115 (산곡동 311-150)	032-527-0474
공립	동수초등학교	9/1/91	32	667	부평구 동수로 120번길 10 (부개동 442-23)	032-518-4223
공립	동암초등학교	12/6/66	21	430	부평구 동암남로 35번길 4 (십정동 501)	032-424-6670
공립	마곡초등학교	9/1/89	9	122	부평구 마곡27번길 16(산곡동 68)	032-522-3576

구분	학교명	개교일	학급 수	학생 수	주소	전화번호
공립	마장초등학교	3/1/97	33	790	부평구 안남로 266번길 (336-10번지)	032-505-5092
공립	미산초등학교	3/1/01	20	401	부평구 원적로 391 (산곡4동 128-60)	032-628-2464
공립	백운초등학교	9/1/00	26	600	부평구 아트센터로 130 (십정동 541-31)	032-507-6832
공립	부개서초등학교	3/1/83	40	964	부평구 부일로 39(부개동 155-1)	032-502-5306
공립	부개초등학교	5/1/55	19	328	부평구 마분로 9(부개1동 356)	032-525-0042
공립	부곡초등학교	9/1/95	53	1341	부평구 마장로 272번길 73 (산곡2동 148-5)	032-628-1754
공립	부광초등학교	3/1/84	21	453	부평구 충선로 104(부개3동 69-6)	032-515-0916
공립	부내초등학교	3/1/98	33	771	부평구 수변로 129 (부개3동 501-12)	032-361-8122
공립	부마초등학교	3/1/00	35	815	부평구 안남로 253번길 41 (산곡동 100-87)	032-519-2544
공립	부원초등학교	9/1/82	33	813	부평구 원적로 472번길 29 (부평동 65-16)	032-504-8470
공립	부일초등학교	3/1/99	23	454	부평구 부흥북로 175 (부개동 499-85)	032-458-9103
공립	부평남초등학교	11/5/62	45	1054	부평구 경인로 911번길 26 (부평동 743-1)	032-522-0454
공립	부평동초등학교	4/6/40	37	954	부평구 부평대로 88번길 19 (부평동 440-1)	032-502-5090
공립	부평북초등학교	3/1/68	20	432	부평구 주부도로 292 (갈산동 10-1)	032-628-0703
공립	부평서초등학교	9/1/46	36	844	부평구 부평문화로 53번길 19 (부평동 542-18)	032-529-7542
공립	부흥초등학교	3/13/64	38	927	부평구 부흥로 366번길 34 (부평동 171)	032-515-1335
공립	산곡남초등학교	3/1/86	27	614	부평구 부흥로 144번길 30 (산곡동 231-1)	032-516-9027
공립	산곡북초등학교	3/1/84	20	440	부평구 산청로 18(산곡동 39-1)	032-516-5664
공립	산곡초등학교	10/10/53	15	275	부평구 길주로 354번길 39 (산곡1동 87-236)	032-518-1783
공립	삼산초등학교	3/1/86	31	710	부평구 후정동로 44(삼산동 58-2)	032-525-0163
공립	상정초등학교	3/1/89	13	233	부평구 상정로 50(십정1동 198)	032-431-5302
공립	신촌초등학교	9/1/82	20	368	부평구 경원대로 1215 (십정동 186)	032-522-2484
공립	십정초등학교	9/1/84	16	316	부평구 배곶북로 10-6 (십정동 298-1)	032-628-1185
공립	영선초등학교	9/1/05	38	927	부평구 충선로 293(삼산동 438-7)	032-521-7384

구분	학교명	개교일	학급 수	학생 수	주소	전화번호
공립	용마초등학교	9/1/99	24	507	부평구 세월천로 30번길 58 (청천동 176-4)	032-523-2795
공립	일신초등학교	9/1/85	20	430	부평구 향동로 75번길 36 (일신동 112-3)	032-503-9602
공립	진산초등학교	9/1/04	19	409	부평구 굴포로 194-10 (삼산동 456-1)	032-511-3713
공립	청천초등학교	5/10/73	19	392	부평구 산청로 127번길 12-5 (청천1동 34-6)	032-516-2823
공립	하정초등학교	5/1/91	9	169	부평구 이규보로 14(십정동 393)	032-429-3866
공립	한길초등학교	9/1/00	35	807	부평구 영성중로 32 (삼산동 393-1)	032-628-2242
공립	후정초등학교	9/1/03	26	579	부평구 영성서로 56 (삼산동 390-1)	032-517-2651
사립	한일초등학교	3/1/65	12	283	부평구 산곡동 원적로 247 (산곡1동 179-79)	032-502-5621
공립	부평남초등학교	11/5/62	45	1054	부평구 경인로 911번길 26 (부평동 743-1)	032-522-0454
공립	부평동초등학교	4/6/40	37	954	부평구 부평대로 88번길 19 (부평동 440-1)	032-502-5090
공립	부평북초등학교	3/1/68	20	432	부평구 주부도로 292 (갈산동 10-1)	032-628-0703
공립	부평서초등학교	9/1/46	36	844	부평구 부평문화로 53번길 19 (부평동 542-18)	032-529-7542
공립	부흥초등학교	3/13/64	38	927	부평구 부흥로 366번길 34 (부평동 171)	032-515-1335
공립	산곡남초등학교	3/1/86	27	614	부평구 부흥로 144번길 30 (산곡동 231-1)	032-516-9027
공립	산곡북초등학교	3/1/84	20	440	부평구 산청로 18(산곡동 39-1)	032-516-5664
공립	산곡초등학교	10/10/53	15	275	부평구 길주로 354번길 39 (산곡1동 87-236)	032-518-1783
공립	삼산초등학교	3/1/86	31	710	부평구 후정동로 44(삼산동 58-2)	032-525-0163
공립	상정초등학교	3/1/89	13	233	부평구 상정로 50(십정1동 198)	032-431-5302
공립	신촌초등학교	9/1/82	20	368	부평구 경원대로 1215 (십정동 186)	032-522-2484
공립	십정초등학교	9/1/84	16	316	부평구 배곶북로 10-6 (십정동 298-1)	032-628-1185
공립	영선초등학교	9/1/05	38	927	부평구 충선로 293(삼산동 438-7)	032-521-7384
공립	용마초등학교	9/1/99	24	507	부평구 세월천로 30번길 58 (청천동 176-4)	032-523-2795
공립	일신초등학교	9/1/85	20	430	부평구 향동로 75번길 36 (일신동 112-3)	032-503-9602
공립	진산초등학교	9/1/04	19	409	부평구 굴포로 194-10 (삼산동 456-1)	032-511-3713

구분	학교명	개교일	학급 수	학생 수	주소	전화번호
공립	청천초등학교	5/10/73	19	392	부평구 산청로 127번길 12-5 (청천1동 34-6)	032-516-2823
공립	하정초등학교	5/1/91	9	169	부평구 이규보로 14(십정동 393)	032-429-3866
공립	한길초등학교	9/1/00	35	807	부평구 영성중로 32 (삼산동 393-1)	032-628-2242
공립	후정초등학교	9/1/03	26	579	부평구 영성서로 56 (삼산동 390-1)	032-517-2651
사립	한일초등학교	3/1/65	12	283	부평구 산곡동 원적로 247 (산곡1동 179-79)	032-502-5621

❖ 출처 : 인천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학교 현황, 2019.4.기준

#### 4) 중학교

표 6 부평 지역 중학교 현황

구분	학교명	개교일	학급 수	학생 수	주소	전화번호	
공립	공학	갈산중학교	3/1/94	26	532	부평구 주부도로 166 (갈산동 372)	032-527-7144
공립	공학	구산중학교	3/1/97	31	983	부평구 수변로 199 (부개동 497-4)	032-361-9092
공립	남	동암중학교	3/1/85	16	289	부평구 동암산로 43번길 12(십정동 589)	032-425-9676
공립	공학	부광중학교	3/4/86	22	626	부평구 충선로 140 (부개3동 22-1)	032-516-5556
공립	여	부원여자중학교	3/1/02	31	995	부평구 부영로 88 (부평동 70-128)	032-526-3966
공립	남	부원중학교	3/1/91	30	910	부평구 경원대로 1339 (부평1동 70-131)	032-505-2632
공립	여	부일여자중학교	12/30/83	16	271	부평구 동수로 8 (부평동 677)	032-628-3346
공립	공학	부일중학교	2/25/92	25	484	부평구 영성로 3 (삼산동 388-5)	032-519-8322
공립	남	부평동중학교	8/16/69	19	376	부평구 수변로 107번길 4 (부개동 120-6)	032-529-2082
공립	여	부평서여자중학교	3/10/78	22	433	부평구 경원대로 1213 (십정동 186-519)	032-504-0412
공립	남	부평서중학교	3/12/80	17	324	부평구 화랑로 29 (산곡동 310-23)	032-516-6810
공립	여	부평여자중학교	3/1/70	21	496	부평구 부평문화로 193-1(부개2동 120-21)	032-515-5814



구분	학교명	개교일	학급 수	학생 수	주소	전화번호
공립 남	부평중학교	3/1/68	16	313	부평구 부흥북로 57번길 10(부평동 136-33)	032-529-5132
공립 공학	부흥중학교	3/1/87	30	343	부평구 충선로 152 (부개3동 13-73)	032-527-5383
공립 남	산곡남중학교	3/1/87	29	884	부평구 안남로 187 (산곡2동 261-4)	032-628-3565
공립 여	산곡여자중학교	3/1/90	31	850	부평구 마장로 204번길 37(산곡동 235-4)	032-512-6747
공립 남	산곡중학교	3/1/84	17	357	부평구 원적로 300번길 14(산곡1동 180-356)	032-628-3162
공립 공학	삼산중학교	3/1/05	35	1083	부평구 충선로 308 (삼산동 445-1)	032-628-4200
공립 공학	인천상정중학교	3/1/08	16	286	부평구 경원대로 1083 (십정동128-4)	032-421-4125
공립 공학	진산중학교	3/1/05	32	978	부평구 충선로 234번길 70(삼산동 454-11)	032-628-4300
공립 공학	청천중학교	3/1/85	18	308	부평구 마장로 364번길 23(청천동 190-58)	032-516-9747

❖ 출처 : 인천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학교 현황, 2019.4.기준

## 5) 고등학교

표 7 부평 지역 고등학교 현황

구분	학교명	개교일	학급 수	학생 수	주소	전화번호
공립 일반 공학	삼산고등학교	3/1/01	27	652	부평구 영성중로 54 (삼산동 391-2)	032-512-9215
공립 일반 공학	부개고등학교	12/30/03	27	638	부평구 수변로 571번길 36 (부개동 120-546)	032-722-5777
공립 일반 공학	인천부흥고등학교	2/4/05	26	599	부평구 수변로 57번길 61 (부개동 120-547)	032-627-5706
공립 일반 공학	인천산곡고등학교	3/1/06	27	614	부평구 원적로 416번길 25 (산곡동 137-2)	032-508-8402
공립 일반 공학	인천영선고등학교	3/1/06	29	695	부평구 체육관로 179 (삼산동 448-5)	032-511-1645
공립 일반 남	부광고등학교	3/1/95	30	709	부평구 화랑로 28 (산곡3동 310-30)	032-500-9100
공립 일반 남	부평고등학교	3/6/72	32	743	부평구 부흥북로 43 (부평4동 10-312)	032-526-3204

구분	학교명	개교일	학급 수	학생 수	주소	전화번호
공립 일반 여	부개여자고등학교	3/5/96	31	628	부평구 부흥로 433 (부개동 501-11)	032-510-6725
공립 일반 여	부광여자고등학교	3/1/88	26	562	부평구 충선로 143 (부개동 19-6)	032-526-3215
공립 일반 여	부평여자고등학교	3/1/82	32	678	부평구 부흥로 243번길 44 (부평1동 65-147)	032-526-6431
공립 자율형 남	인천상정고등학교	3/1/09	25	569	부평구 경원대로 1109 (십정동 136-4)	032-7148-600
공립 특목 공학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3/1/06	12	206	부평구 굴포로 194-9 (삼산동 456-6)	032-508-8260
공립 특성화 남	부평공업고등학교	3/4/94	32	786	부평구 주부토로 194 (갈산동 360-2)	032-627-0126
공립 특성화 여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3/1/96	30	490	부평구 수변로 165 (부개3동 499-9)	032-627-1610
사립 일반 남	제일고등학교	3/1/82	25	516	부평구 경인로 759번길 28 (십정동576-1)	032-514-6161
사립 일반 여	명신여자고등학교	3/4/71	28	570	부평구 원적로 260 (부평구 산곡동 180-147)	032-458-3040
사립 일반 남	세일고등학교	3/1/83	28	696	부평구 원적로 245 (산곡동 179-79)	032-515-0972
사립 특목 공학	인천외국어고등학교	3/6/85	30	649	부평구 원적로 262 (산곡동 180-147)	032-511-3541
사립 특성화 남	인평자동차고등학교	3/1/01	18	450	부평구 화랑로 111 (산곡동 369-303)	032-517-0721

❖ 출처 : 인천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학교 현황, 2019.4.기준

## 6) 특수학교

표 8 부평 지역 특수학교 현황

구분	학교명	개교일	학급 수	학생 수	주소	전화번호
사립 지적장애	인천예림학교	3/11/74	23	154	부평구 동수로 87(부평6동 633)	032-502-0804
사립 지체장애	인천은광학교	12/4/80	23	122	부평구 마분로 8(부개1동 257)	032-529-5043
사립 청각장애	인천성동학교	3/3/61	19	61	부평구 경인로 880(부평동 756)	032-524-3545

구분	학교명	개교일	학급 수	학생 수	주소	전화번호
사립	시각 장애 인천혜광학교	4/3/61	24	93	부평구 경인로 769번길 27(십정동 576)	032-522-8345

❖ 출처 : 인천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학교 현황, 2019.4.기준

## 7) 대학교

표 9 부평 지역 대학교 현황

구분	학교명	설립일	과정	주소	전화번호
사립	한국 폴리텍 II 인천캠퍼스	1992 (1968)	2년제 학위과정 4년제 학위과정	부평구 무네미로 448번길 56	032-510-2114

## 5. 부평의 교육 인프라

이 항목에서 다룰 교육 인프라는 교육 환경의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인 기반 시설, 즉 하드웨어이다. 도서관과 청소년센터, 미술관, 체험 시설, 박물관 등을 말한다. 그런데 5장 3절 문화예술 인프라와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서관과 청소년 관련 시설만 다루기로 한다.

### 1) 도서관

표 10 부평 지역 도서관 현황

구분	명칭	소재지	주요 시설	자료 현황
교육청	북구도서관	신타리로 21(부평동)	열람실, 평생학습실, 장애인실, 종합자료실	327,523
	부평도서관	경원대로 1191(십정동)	열람실, 평생학습실, 대공연장, 종합자료실 등	271,112
구립 도서관	부평기적의도서관	길주남로 166(부개동)	열람실, 자원봉사실, 다목적실, 유아실 등	56,599
	갈산도서관	주부토로 254(갈산동)	열람실, 다목적실 등	25,412
	부개어린이도서관	동수로 166(부개동)	열람실, 다목적실, 영유아실 등	20,405

구분	명칭	소재지	주요 시설	자료 현황
구립 도서관	삼산도서관	부평북로 445(삼산동)	열람실, 디지털자료실, 다목적실, 영어전용실 등	52,329
	부개도서관	부일로 83번길 468 (부개동)	열람실, 디지털자료실, 다목적실 등	53,012
도서관	청천도서관	원길로 23(청천동)	열람실, 디지털자료실, 다목적실 등	46,795
작은 구립 도서관	꿈나무작은도서관	부흥로 173번길 68 (산곡동)	열람실, 다목적실 등	10,584
	샘터작은도서관	동암산로 33번길 6-7 (십정동)	열람실, 다목적실 등	9,329
	희망천작은도서관	경인로 834번길 8(부평동)	열람실, 다목적실 등	12,561
	산곡글향기도서관	마장로 319번길 52 (산곡동)	열람실, 다목적실 등	9,485
	갈산밀알도서관	주부토로 173(갈산동)	열람실, 다목적실 등	8,369
	글마루도서관	부평문화로 37번길 1 (부평동)	열람실, 다목적실 등	10,500
	동수작은도서관	동수북로 166번길 20 (부평동)	열람실, 서가, 시청각실 등	9,454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구정현황, 부평 지역을 기록하다.」, 2019, 26쪽.

### 2) 학습 지원 센터

#### (1) 인천북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

인천북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기초 학습 부진 학생 중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상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정서 발달과 안정을 도모하고, 맞춤형 상담 및 학습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궁극적으로 기초 학습 부진 학생들의 학력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와 인천시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센터이다. 일반 학생, 특수 및 위기 학생의 경계에 위치하여 단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의 맞춤형 지도를 위해 전문 상담사와 관내 초·중 전문 상담(교)사로 구성된 30명의 학습코칭단이 한 팀을 이루어 개인 및 집단상담, 맞춤형 학습 코칭, 심리검사, 교육 및 연수는 물론 외부 기관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센터는 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내에 있다 (담당팀 : 초등교육팀 510-5411).

## (2) 방과후학교지원센터

방과후학교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을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을 말한다. 주된 목표는, 사교육비 경감, 교육 격차 완화, 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학교 실현 등 네 가지이다. 프로그램은 크게 교과 관련과 특기적성으로 나누어지는데, 영어나 중국어 회화, 과학 실험, 수학 교실 등이 교과 관련 프로그램이고, 악기를 배우거나 운동 관련 프로그램, 공예나 목공 같은 미술 프로그램이 특기적성 프로그램이다. 센터는 학부모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내에 있다(담당 팀 : 학교혁신팀 510-5423).

## (3) 방과후돌봄센터 혹은 프로그램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방과 후에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아이들은 위협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전문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일선의 초등학교에서도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부평의 경우 초등학교는 전체가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숙제 지도나 특기 지도 등을 곁들인다. 간식비 정도를 제외하고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이 항목에서는 부평구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공부방)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지역아동센터란, 보건복지부의 관리하에 있으며, 지역사회 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이다. 주된 프로그램으로는 일상생활 관리 지도, 숙제 지도, 교과 학습 지도, 진로, 특기 적성 지도, 각종 문화 프로그램이 있고, 아동 상담이나 부모 상담도 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 관리하에 있으며,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한다. 교과 학습, 전문 선택, 체험 학습, 생활 지원(저녁, 차량)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용료는 무료이며, 초등 4-6학년을 이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한다.

## ① 부평구 지역 아동센터

표 11 부평 지역 아동센터 현황

시설명	주소	정원	연락처
갈산동도토리학교	평천로 355(갈산1동)	25	527-0933
서로사랑	주부토로 219번길 36 정광상가 2층(갈산1동)	26	522-3312
새빛행복한홈스쿨	주부토로 146, 3층(갈산 2동)	29	525-2710
카리타스	주부토로 206(갈산종합복지관) 2층(갈산2동)	35	527-7581
1318 해피존까르페디엠	굴포로 74, 3층(갈산2동)	29	515-1319
생명샘	수변로 10번길 5, 3층(부개1동)	29	517-2077
인천부평사랑회	항동로 27번길 서진빌딩 3층(부개1동)	35	518-3360
고토	부흥로 380 2층(부개2동)	30	330-1135
제일	부평문화로 197번지 40(부개2동)	29	508-1255
큰나무	부흥로 385번길 19-2(부개3동)	41	503-5206
믿음소망사랑	남부역로 5번길 36(부평2동)	25	526-4425
경인비전스쿨	마장로 14(부평3동)	19	070-8288-4347
보아스	마장로 72번길 8, 2층(부평3동)	19	503-7598
예꿈	마장로 13번길 9(부평3동)	19	426-6016
부평공부방	장제로 159번길 34, 2층(부평4동)	29	521-4458
생명	부흥북로 58번길 16, 2층(부평4동)	29	512-9063
한사랑	길주남로 78, 2층(부평4동)	35	511-9065
무지개	부평문화로 127 청아빌딩 4층(부평5동)	35	330-1641
참사랑	길주로 354번길 24(산곡1동)	19	522-7523
산곡	원적로 309번길 32-1 2층(산곡1동)	29	523-3790
소나무	마곡로 2 대연빌딩(산곡1동)	19	070-7528-8524
소망	마장로 349번길 9, 2층(산곡1동)	29	519-2525
햇살 공부방	산청로 17번길 37, 3층(산곡1동)	19	504-6308
다정	화랑남로 5번길 20, 2층(산곡3동)	40	504-5477
사랑의	안남로 260, 현대5차아파트 상가 2층(산곡4동)	19	512-9090
삼산해오름공부방	영성서로 2, 2층(삼산1동)	29	523-7035
한우리	영성로 38, 2층(삼산1동)	29	528-6500
십정동	배곳로 71, 2층(십정1동)	19	070-7681-5843
엘림	경원대로 1130번길 29, 3층(십정1동)	29	528-1270
동암	백범로 406번길 64(십정2동)	29	429-8485

시설명	주소	정원	연락처
해님	백범로 482, 2층(십정2동)	19	437-6049
다드림	항동로 45번길 8(일신동)	29	511-8291
에덴마을	일신로 40번길 21-2(일신동)	19	502-3258
누리	산청로 80, 2층(청천1동)	19	514-1388
오순도순공부방	마장로 364번길 7-1, 3층(청천2동)	19	507-2340
큰사랑	청중로 81, 영진상가 201호(청천2동)	29	512-3770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체육관로 76(삼산2동)	40	500-2240

❖ 출처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우리마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2018.

## ② 한눈에 보는 우리학교, 우리마을 돌봄 지도



❖ 출처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우리마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북부교육지원청, 2018.

## 3) 청소년 관련 기관

부평 지역의 청소년 관련 기관은 모두 3개소인데, 전부 2010년 이후에 생겨났다는 게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비단 부평구만의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10대들은 대부분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청소년 관련 정책이라는 게 따로 있지도 않았고, 10대들 관련 일은 곧 학교가 할 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후반 부터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늘어 나고 학교와 집 외에는 갈 곳이 없는 청소년의 일탈 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청소년들의 여가나 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학습 지원 등의 다양한 실천들을 묶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청소년 관련 기관 들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관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수련관’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에서도 뭔가 배워야 한다는 압박이 있는 게 한국 청소년 정책의 현주소이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그냥 청소년들이 와서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게 과제라 할 수 있다.

부평구의 3개소의 청소년 기관은 각각 특징이 있는데,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은 부평 에 거주하는 청소년 관련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지만, 문화예술에 방점이 찍혀 있다.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의 성교육, 성과 관련한 상담이나 체험프 로그램 등을 하는 곳이며, 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양극화로 인해 생겨나는 소위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 돌보는 게 일차적인 목적인데, 구체적으로는 학교 폭력이나 학 교 밖 청소년, 인터넷 중독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1) 부평구청청소년수련관

[주소 : 체육관로 76(삼산2동), 전화번호 : 500-2200]



❖ 출처 : 부평구청 홈페이지, 부평알림(2013년 1월)

연혁	주요 사업	시설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11월 개관</li> <li>- 2014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개소</li> <li>- 2016년 진로직업체험지원 센터 운영</li> <li>- 2016년 '청소년 한꿈 카페' 운영</li> <li>- 2017년 인천광역시교육청 거점진로 체험처 운영</li> <li>- 2018년 인천광역시평생 학습관 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수련, 스포츠</li> <li>- 보호, 복지, 지역연계</li> <li>- 영상미디어활동</li> <li>- 평생교육, 생활체육</li> <li>- 창의공작플라자</li> <li>- 방과후 아카데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내체육관, 북카페, 강의실, 방과후 아카데미, 댄스 등 공연연습장, 멀티미디어실, 영상체험실, 영상스튜디오실, 동아리 활동실, 뮤즈피아(밴드 연습실), 테크피아(과학 기술 실험실), 우드피아(목공작업실), 푸드피아(요리실습실), 대공연장(400석) 및 분장실</li> </ul>

### (2) 부평구청청소년성문화센터

[주소 : 체육관로 76(삼산2동), 청소년수련관 3층, 전화번호 : 500-2252]

연혁	주요 사업	시설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11월 개관</li> <li>- 2012년 성교육활동가 양성교육</li> <li>- 2012년 인천지방방법원 보호소년의 수감명령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위탁기관 지정</li> <li>- 2018년 인천광역시 교육청 위탁 "성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문화 캠페인 활동</li> <li>- 성문화교육관 운영</li> <li>- 찾아가는 성교육</li> <li>- 부모와 함께 하는 성교육</li> <li>- 성장놀이터(토요 프로그램)</li> <li>- 성교육활동가 양성</li> <li>- 청소년 성문화 동아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교육 체험관, 만남방 (청소년 스스로 성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공간), 거울방(오복, 볼록 거울에 비친 나의 몸을 응시하는 공간), 자궁방(눈과 소리, 몸으로 느끼는 엄마 자궁 체험 공간), 사춘기방, 탄생방, 사회 속 성문화방, 우주속의 나</li> </ul>

### (3) 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소 : 부평문화로 37번길 1(부평동 70-126) 부평1동 주민센터 3층, 전화번호 : 509-8916]

연혁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7월 센터 설치</li> <li>- 2011년 5월 센터 이전(부평1동 주민센터 3층)</li> <li>- 2011년 부평구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li> <li>- 2012년 학교폭력 긴급대응팀 구성</li> <li>- 2012년 학교폭력 대응 솔루션 토래상담자 양성 프로그램</li> <li>- 2015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 설치</li> <li>- 2015년 5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으로 명칭 변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동반자 운영</li> <li>- 카운슬러대학 운영</li> <li>- 청소년 상담, 부모교육 운영</li> <li>-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교육 및 고위험군 방문상담</li> <li>-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솔루션 토래상담 운영</li> <li>- 찾아가는 청소년상담</li> <li>- 학교밖청소년 상담, 학업 복귀, 사회 진입 (직업계발 등) 지원</li> </ul>

### (4) 부평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주소 : 부평문화로 37번길 1(부평동 70-126) 부평1동 주민센터 3층, 전화번호 : 509-8910]

2015년 개소한 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업을 중단한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일종의 대안교육 기관이다. 학업 및 직업 준비의 상담에서부터 특성과 적성을 고려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 가능한 청소년들은 9세~24세로,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자(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포함) 등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발견하고, 학업 복귀나 사회 진입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6. 평생교육

### 1) 평생학습 도시 선언

바야흐로 평생학습의 시대이다. 부평구 역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사회 조성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2005년 평생학습도시를 선포했다. 나아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17년 9월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제정했다. 그 후 평생학습 기관을 중심으로 학습 공동체를 형성해 구민에게 평생학습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 2) 부평구평생학습관(주소 : 장제로 235, 부평어울림센터 3층, 전화번호 : 509-6435)

부평구평생학습관은 부평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돕는 중심 센터이다. 평생학습 속에 시민 강좌가 포함되어 있지만, 강의로만 이루어지는 게 평생학습의 전부가 아니다. 지역민들이 생애 전반을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 주고, 학습의 지속과 확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며, 지역 속의 다양한 인적·공간적 자원을 발굴하고 안내하는 게 센터의 역할이다. 그런 점에서 강사 은행 제도와 학습 동아리라는 평생학습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중핵 사업이 10년 후에는 어떤 결실을 맺을지 기대된다.

표 12 연도별 평생학습 관련 주요 사항

연도	주요 사항
2005년	부평구 평생학습조례제정, 평생학습 도시 선포, 평생학습 추진전담팀 신설,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
2006년	부평아카데미 운영, 평생학습센터 설치
2007년	제1회 부평평생학습축제 개최
2008년	부평구 초등사이버스쿨 운영
2008년	부평생태예술아카데미 운영, 소외계층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 「부평어르신학교」개최
2010년	부평구청 평생학습과 신설, 생태아카데미 「부평 자연생태도감제작 교육과정」운영
2012년	평생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교육」운영, 평생학습 교육(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2013년	‘부평학 스토리텔러 양성과정’ 운영, ‘시니어 이야기 활동가 양성과정’ 운영, 찾아가는 학습멘토 지원 사업 운영

연도	주요 사항
2014년	부평구 평생학습 강사 은행제, 찾아가는 와-러닝(W.a.a-Learning)사업 운영
2015년	부평구 평생학습관 개관, 부평구 평생학습 재능나눔 사업 실시
2016년	행복학습센터 운영 및 행복학습매니저 파견, 인문 시민을 위한 ‘달빛강좌’, 인문학 특강(미각의 역사, 길 위에서 길을 찾다, 은퇴 후 35만 시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평생학습 소식지 창간호 발행, 평생학습 동아리 愛 & day 행사 개최
2017년	(소외계층을 위한) 부평배달학습 사업 실시, 정리수납마술사 양성과정 운영, 부평학습동아리 운영 및 학습매니저 파견 실시, 브라운백 인문학 실시, 러닝퍼실리티이터 과정 운영, 부평구 지역평생교육 활동가 연수 개최
2018년	찾아가는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운영, 5060 부평인생학교 운영, 찾아가는 청년 커리어 코칭 교육 운영

표 13 부평구평생학습관 목표별 중핵 사업

①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 부평학습동아리 운영 : 부평구평생학습관 밖에 또 다른 학습 공간을 학습동아리로 지정하여 지역의 학습 수요에 따른 강좌를 발굴하여 강사 파견 - 권역별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 : 부평구를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거점 기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
② 구민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 부평구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유익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 - 부평배달학습 : 관내 거주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 그룹에게 그들이 희망하는 강좌에 대해 강사 파견
③ 학습-일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 도시 구현	-시니어 이야기활동가 파견 : 2013년부터 양성·활동 중인 지역활동가로 그림책 이야기를 교육 연극으로 재구성하여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 파견, 무료 공연 실시 -정리수납마술사 양성 및 파견 : 경력 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 양성된 정리수납마술사를 소외계층 가정에 파견하여 생활 공간 개선 실시
④ 시민참여 행복학습사회 조성	-평생학습 재능나눔 사업 : 누구나 배우고 베푸는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부평 실현을 위해 다양한 재능나눔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 : 관내에서 활동 중인 학습동아리를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아리 간의 네트워크 구축, 파트너십 형성

## 7. 그 외 교육시설

### 1) 부평구꿈나무교통나라(주소 : 영성동로 18번길 51[삼산교통공원 내], 전화번호 : 509-8887)



❖ 출처 : 부평구 꿈나무교통나라 홈페이지

2013년 개원한 부평꿈나무교통나라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교통 법규 준수의 중요성과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장래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준비했다. 꿈나무교통나라는 교통안전에 대한 어린이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상영하는 시청각실, 교통안전 규칙을 체험할 수 있는 실내 체험 전시장, 자전거 안전 운행 방법을 체험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실외 교통안전 체험장을 갖추고,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교육 시스템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2) 부평안전체험관(주소 : 굴포로 110, 전화번호 : 509-3949)



❖ 출처 : 부평구청

부평안전체험관은 유사시 구민들의 재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2015년 6월 삼산동에 개관한 수도권 최고의 시설을 갖춘 재난 체험 공간이다. 안전체험관은 지진·심폐소생술 체험, 해상 풍수해 체험, 교통안전 체험, 생활안전 체험, 지하공간 탈출 체험, 완강기 탈출 체험, 엘리베이터 탈출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재난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구민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 최근 세월호 사고와 과거 인천 호프집 화재, 대구 지하철 화재, 화성 씨랜드 화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안전의식의 부족으로 어린이와 시민들이 많이 희생되어 우리를 안타깝게 했던 사건이 있었다. 구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평상시 가상체험을 통하여 각종 사고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 안전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1. 복지 정책의 역점

양극화와 실업률의 증가, 고령화, 다문화 등 지금의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각 지자체 정책의 중심을 복지 정책으로 향하게 한다. 광역지자체에 비해 기초지자체의 경우 예산의 대부분이 복지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평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사회복지 예산 구성비를 보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인천광역시가 35% 내외를 점하고 있는 데 비해, 부평구의 경우 65% 내외를 점하고 있다. 복지 정책이 구정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2018년의 경우 '보육·가족·여성' 부분이 33.8%, '노인' 부분이 30.9%로 크게 점하고 있다. 고령화와 보육 대책이 복지의 주안점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1) 부평의 복지 수요

『부평구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부평구청, 2018)에서 파악한 부평구의 사회복지 수요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곱 가지의 특징이 보인다. 그런데 이 일곱 가지 특징은 한국 사회의 복지 수요를 집약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평 지역은 긴급한 복지 상황에 놓여 있다.

첫째, 외국인 인구의 증가와 다문화가정의 확대 현상이다. 2018년 현재 부평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만 2,732명으로 인천시에서 가장 많다. 그렇다 보니, 다문화가족의 비율, 결혼이민자의 비율, 혼인 귀화자의 비율, 외국인 자녀의 비중 역시 부평구가 가장 높게 나왔다.

둘째, 부평구는 여성 인구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부평구의 여성 인구는 26만 7,869

명(50.4%)으로 남성에 비해 0.8%p 높게 나왔으며, 인천의 시군구 중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이 높은 유일한 지역이기도 하다.

셋째, 영유아 수(0~7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영유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6~7%씩 감소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6.2% 감소했다. 이러한 영유아 감소 원인은 출산율 저하와 이탈률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30대 초반의 인구 감소율이 눈에 띈다. 부평보다 더 좋은 교육 여건을 찾아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고령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과 2018년의 인구 증감을 비교해 보면, 60~64세가 19.3% 증가했고, 85세 이상이 17.2%, 80~84세가 15.7%, 75~79세가 15.1%로 나타났다. 부평은 고령자의 도시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 세대의 증가만큼이나 독거노인도 계속 증가하는데, 2018년 5월 현재 독거노인 수는 1만 5,494명으로 부평구 인구의 17.92%를 차지하고 있다.

다섯째, 등록장애인 수가 인천에서 제일 많다. 인천 지역 전체의 등록장애인 13만 9,392명 중 부평구가 2만 6,941명으로 19.3%를 차지해 인천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평구는 학령기 장애인을 위한 학교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 4개의 특수학교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성인을 위한 시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지 않다.

여섯째, 인천에서 빈곤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도 부평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018년 5월 현재 1만 5,248가구에 이르고 있는데, 인천에서 제일 많다.

일곱 번째,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모자(母子) 가족과 부자(父子) 가족, 조손(祖孫) 가족, 청소년 모(母)·부자(父子)가족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부평구의 한부모가족은 2,986세대로 인천시의 19.6%로 남동구 다음으로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sup>1</sup> 제2절의 부평에 관한 통계 부분은 2018년 5월 기준으로 부평구청의 해당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치이다. 다만, '한눈에 보는 부평 복지 일반 현황'에서의 통계는 2018년 12월 기준이다. 전자는 '사회복지 수요 기초조사'를 위한 성격의 데이터이고, 후자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 관청의 대상 선정 결과의 데이터이다. 두 데이터상에는 다소의 증감이 있지만, 하나로 통일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 2) 부평의 복지 비전 및 정책

먼저, 부평의 복지 비전을 살펴보자. 부평구는 현재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파악한 구내의 사회복지 수요 조사를 토대로 ‘주민력 향상을 통한 복지공동체 부평’이라는 비전하에 구체적인 3가지 실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시민성과 참여를 통한 주민력 향상, 공감과 협력을 통한 커뮤니티 케어, 권리와 연대의 사회적 돌봄이 그 세 가지 실천 목표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개개인의 자립적인 힘을 기르고, 공동체를 튼튼히 해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마을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복지 정책을 평가할 때 개개의 복지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역의 복지 수요에 맞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가고 있는지가 핵심일 것이다. 다음의 두 가지 복지 시스템이 눈에 띈다.

### (1) 부평형 찾아가는 행정복지센터 시스템 운영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복지 욕구가 다양화되어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고, 차량을 지원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실질적으로는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데도 여러 행정상의 이어나 절차 문제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평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 ‘카카오톡’을 이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기 위해 ‘부평복지사각지대’를 운영하고 있다.

### (2)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란, 복지 수요자들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해 바우처(사회서비스 이용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바우처 제도의 도입으로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아동, 청소년, 장애

인, 노인 등 사회서비스 구매력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그래서 복지와 일자리를 연결하는 일종의 사회관계망을 만들어 가는 사업의 성격도 띠고 있다.

## 3) 복지 인프라 현황

부평의 복지 인프라는 종합복지관을 비롯해 부문별 시설들이 매우 잘 갖춰진 편이다. 10년 전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각종 청소년 센터나 다문화 복지 시설 등을 보면 시대적인 요구에 잘 부응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 전반에 관여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부평중부종합사회복지관 등 모두 3개소가 있다.

### (2) 지역의 복지 단체

지역의 복지 단체란 종교 단체나 기업 혹은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재단을 말한다. 부평 지역의 경우 부평구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해 모두 8개소가 활동하고 있다.

### (3) 지역 자활 센터

실업과 빈곤에 대처하는 자활 센터는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등 2곳이 있다.

### (4) 복지시설

① **장애인 복지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일상의 돌봄 서비스 및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지역재활 시설과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직업재활시설, 그리고 장애인 거주 시설,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애인 지역재활 시설은 부평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 8개소, 직업재활시설은 모두 5개소, 장애인 거주시설은 모두 11개소, 중증장애인 시설은 2개소가 있다.

② **육아·아동 복지시설** : 지역민들에게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관내의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 전문 기관으로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으며, 미혼모의 양육 문제를 해결하거나 입양을 도와주는 기관으로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와 동방사회복지회 등 2개소가 있다. 부평구의 어린이집은 344개소 있으며 이 중 20개소가 국공립 시설이다.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의 컴퓨터 배움터 역할을 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모두 37개소가 있다.

③ **노인 복지시설** : 노인복지관은 2개소가 있는데, 문화교육 프로그램, 일자리 제공, 돌봄 서비스 제공 등 노인 종합 복지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부평구노인복지관과 노인들의 여가문화와 평생교육을 돕는 산곡노인문화센터가 있다.

이외에도 노인들의 일상을 돌보고, 생활을 책임지는 노인 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이 모두 69개소 있다.

④ **여성 복지시설** : 여성 복지시설이라고 했지만, 반드시 '복지'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생애 주기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양성평등 정책의 취지에서 보면 복지의 일부라 할 수 있다. 부평의 대표적인 여성 관련 시설은 4개소가 있다. 지역의 여성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면서 양성평등 사업 펼치는 부평구 여성센터(전 풀뿌리여성센터),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고 촉진하기 위해 가족 상담, 공동육아 나눔터, 아이돌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등 다양한 가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성폭력, 가정 폭력, 성매매 피해 여성을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지원하는 인천북부해바라기지원센터,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 훈련, 인턴 및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이 있다.

⑤ **다문화 복지시설** : 2010년에 설립된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전문 지원기관이다. 한국어 교육, 가족 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며, 지역 공동체의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 2. 한눈에 보는 부평 복지 일반 현황

### 1) 부평구와 인천시의 사회복지 예산 규모

표 14 부평구와 인천시의 사회복지 예산 현황

(단위 : 년·백만원, %)

연도	구분	인천시			부평구		
		일반회계예산	사회복지예산	구성비	일반회계예산	사회복지예산	구성비
2015		4,977,417	1,769,321	35.5	536,429	349,086	65.1
2016		5,857,326	1,904,251	32.5	562,383	360,615	64.1
2017		6,301,734	2,042,798	32.4	596,451	381,510	64.0
2018		6,509,348	2,369,434	36.4	687,546	441,383	64.2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 83쪽.

### 2) 부평의 분야별 사회복지비

표 15 부평의 분야별 사회복지비 현황

(단위 : 년·백만원, %)

구분	2018		2017	2016	2015	증가율
	예산	점유비				
기초생활 보장	70,152	15.9	67,902	64,588	55,726	25.9
취약계층 지원	53,740	12.2	52,069	46,962	43,264	24.2
보육·가족·여성	149,240	33.8	131,139	126,010	129,076	15.6
노인	136,487	30.9	113,888	109,728	106,055	28.7
청소년	2,726	0.6	2,489	2,223	2,041	33.6
노동	3,738	0.8	2,593	1,720	2,286	63.5
주택	19,373	4.4	18,320	18,257	15,377	26.0
보훈	6,251	1.4	3,930	3,900	3,943	58.5
사회복지비 합계	441,707	100.0	392,330	373,388	357,768	23.5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제4기 부평구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 2018, 84쪽.

### 3) 부평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표 16 부평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전체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	16,657	11,711	13,224	14,371	3,217
인원	24,336	16,214	19,362	21,678	4,593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구정현황, 부평 지역을 기록하다』, 2019, 50쪽.

### 4) 부평의 기타 보호대상자

표 17 부평의 기타 보호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의료급여 지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모자 가정	부자 가정		
세대	36,443	17,789	2,002	499	0	16,153
인원	44,957	22,597	4,955	1,252	0	16,153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구정현황, 부평 지역을 기록하다』, 2019, 50쪽.

### 5) 부평의 등록장애인

표 18 부평의 등록장애인 현황

(2018년 기준, 단위: %)

구분	합계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기타
인원	27,174	12,808	2,758	3,898	311	2,002	5,397
비율	100	47.1	10.2	14.3	1.1	7.4	19.9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구정현황, 부평 지역을 기록하다』, 2019, 50쪽.

### 6) 부평의 아동 및 청소년 복지시설

표 19 부평의 아동 및 청소년 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명)

구분	사업 기관	기관 수	종사자 수
생활	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학대 피해아동 쉼터로 지정된 곳에 한함)	8	102
	아동		
아동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자립지원단	1	10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36	76
	이용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드림스타트)	1	14
	실종아동전문기관	0	0
청소년	어린이도서관	1	55
	생활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 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4	3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희망센터	1	7
	청소년1318	1	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	2
	이용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0	0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1	13
	청소년성문화센터	1	5
전국위기청소년센터	0	0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 86쪽.

### 7) 인천과 부평의 영유아 보육시설

표 20 인천과 부평의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부평구		인천시	
	개소	비율	개소	비율
전체	387	100.0	2,151	100.0
국공립	18	4.7	165	7.7
민간	130	33.6	781	36.3
가정	218	56.3	1,106	51.4
법인단체	7	1.8	18	0.8
직장	9	2.3	64	3.0
사회복지법인	4	1.0	11	0.5
부모협동	1	0.3	6	0.3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 87쪽.

### 8) 부평의 노인 복지시설

표 21 부평의 노인 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명)

구분	사업 기관	기관 수	종사자 수	
생활	주거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3	17
	의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9	1,218
재가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161	4,928	
	여가		199	81
이용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등)	0	0	
	중앙·광역치매센터	3	27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0	0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	9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노인자원봉사클럽	0	0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부평구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 89쪽.

### 9) 부평의 장애인 복지시설 및 종사자

표 22 부평의 장애인 복지시설 및 종사자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사업 기관	기관 수	종사자 수
생활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15	183
	장애인복지관	1	34
지역 사회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8	29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0	0
재활 시설	부평구수화통역센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 (모두 부평구자활센터 내)	0	0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이용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0	0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0	0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IL)	2	6
	지체·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0	0
	장애인 인권옹호기관	0	0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장애인 근로 작업장,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5	25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0	0
	장애인보조기구 센터	0	0
	발달장애인 지원 센터	0	0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부평구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 91쪽.

## 10) 여성 가족 시설

표 23 부평의 여성 가족 시설 현황

구분		사업 기관	기관 수	종사자 수	
여성 가족	생활	한부모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 공동, 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 공동, 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 공동), 일시지원 복지시설	1	2
		한부모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0	0
	이용	다문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12
			다누리콜센터 1577-1366	0	0
		건강가정	건강가정지원센터	1	13
여성	여성복지회관	1	70		
(여성 가족) 권익 증진	생활	성매매피해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	13
		성폭력피해	여성민우회	1	4
	가정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0	0	
	이용	성매매피해	자활지원센터	0	0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	0	0
		성폭력피해	성폭력피해상담소	1	4
	가정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센터 1366	2	16	
	해바라기센터	1	13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부평구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 93쪽.

### 3. 부평의 인구통계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 현황

이 항목은 『부평구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2018, 부평구청)을 중심으로, 그리고 「2019년 구정백서」의 복지행정 항목을 참조해서 정리한 것이다.

인천시의 인구는 2018년 5월 현재 295만 3,255명이며, 부평구 18.0%(53만 1,827명)으로 남동구 다음으로 높은 인구분포를 보이고 있다. 세부를 들여다보면, 인천시 전체가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는 반면, 부평구는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다른 구에 비해 1인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 외국인 인구의 증가와 다문화가정의 확대

무엇보다 외국인 인구의 증가가 눈에 띈다. 실제적으로도 2018년 현재 부평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만 2,732명으로 인천시에서 가장 많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6만 4,468명인데, 이중 부평구가 19.7%로 가장 높은 것이다. 부평구의 외국인 비중이 높은 이유는 동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결혼 이민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외국인 인구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다문화가정의 확대로 이어진다. 부평구는 인천 지역에서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한다. 인천지역의 다문화가족의 비율은 부평구가 23.9%로 가장 높았다. 결혼 이민자의 비율에서도 부평구는 22.2%로 제일 높았고, 혼인 귀화자의 비율에서도 29.6%로 가장 높았다. 자연스럽게 외국인 자녀의 비중 역시 부평구가 19.0%로 가장 높게 나왔다.

다문화가정은 이주노동자 가정과 국제결혼 가정 등 국적이 다른, 즉 문화적 배경이 다른 가정을 의미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모국의 문화와 정주국인 한국의 문화 등 이중 삼중의 문화 속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한다. 특히 외국인 자녀의 경우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낯선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학교 부적응이나 따돌림 등의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원활하게 습득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스킨십과 정체성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 2) 점점 높아져 가는 여성 인구의 비중

부평구 인구분포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여성 인구가 더 높다는 점이다. 부평구의 여성 인구는 26만 7,869명(50.4%)으로 남성에 비해 0.8%p 높게 나왔다. 부평구는 2013년을 기점으로 여성과 남성의 비중이 달라졌으며, 인천의 시군구 중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이 높은 유일한 지역이기도 하다.

### 3) 영유아 수의 감소 추세

한국 사회 전반이 그러하지만, 부평 역시 출산율의 문제가 심각하다. 부평구의 영유아 수(0-7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에서 영유아가 차지하

는 비중은 해마다 6~7%씩 감소하고 있다. 2018년 6.2%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영유아 감소 원인은 출산율 저하와 이탈률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30대 초반의 인구 감소율이 눈에 띈다. 크게 감소한 연령대를 살펴보면 영유아에 해당하는 0~4세와 30~34세가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15~19세와 40~44세이다. 즉, 영유아와 청소년, 그리고 그 부모 연령대의 감소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부평보다 더 좋은 교육 여건을 찾아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

#### 4) 고령화의 심화

노동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의 심화 현상 역시 눈에 띈다. 2015년과 2018년의 인구 증감을 비교해 보면, 60~64세가 1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85세 이상이 17.2%, 80~84세가 15.7%, 75~79세가 15.1%, 55~59세가 7.7%로 나타났다. 부평은 이미 중년의 도시를 넘어서 고령자의 도시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평구는 노인 세대의 증가만큼이나 독거노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부평구의 독거노인은 인천 지역에서 1~2위를 다퉈 만큼 높은 수준이다.

부평구 내의 독거노인은 삼산1동이 1,379명(8.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평4동 1,041명, 십정2동 997명, 부평1동 879명, 부평5동이 855명 순이었다. 이에 반해 일신동은 독거노인이 306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는 독거노인의 수가 가장 많은 삼산1동에 비해 4.5배 낮은 수준이었다. 부평구의 독거노인 분포는 지역별 편차가 4.5배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 5) 인천에서 가장 많은 등록장애인

부평구는 인천시에서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인천 지역 전체의 등록장애인은 13만 9,392명이며, 부평구는 2만 7,174명으로 인천 지역 등록장애인의 19.3%로 가장 높았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천 지역의 발달장애인의 비중이 8.1%인데 비해 부평구의 발달장애인은 8.4%로 인천에 비해 0.3%p 높은 수준이다.

부평구는 학령기 장애인을 위한 학교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 4개의 특수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인을 위한 시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지 않다.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적이다. 여기에 더해, 부평은 중증장애인의 비중 또한 높은 지역이다.

부평구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별 분포는 1급 2,333명, 2급 3,505명, 3급 4,684명, 4급 4,020명, 5급 5,693명, 6급 5,483명이다. 이들의 활동지원 서비스나 돌봄 서비스, 체육활동과 직업, 여가생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부평의 장애인의 체육활동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 6) 인천에서 빈곤 가구가 가장 많음

부평구는 인천의 다른 지역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2018년 5월 현재 인천 지역의 수급 가구는 부평구가 1만 5,248가구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중 일반수급자가 14,086가구로 가장 많았는데, 이것은 부평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빈곤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평구의 22개 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삼산1동이 2,294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평4동 1,019가구, 갈산2동 1,010가구, 부평2동 996가구, 십정2동 978가구 순인 반면, 산곡4동은 156가구로 수급자의 수가 가장 적었다. 이 결과는 지역 간 빈부 격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활 대상자를 살펴보면 인천 전체가 3,330명인데, 이중 미추홀구가 57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평구 569명 순으로 되어 있다. 서구 529명, 남동구 401명, 계양구 340명, 연수구 324명, 중구 317명, 강화군 140명, 동구 139명 순이었으며, 옹진군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자활 대상자는 조건부 수급자와 자활 특례자를 포함하는 수급자와 이외 기타 참여자로 구분되는데, 수급자의 비중은 미추홀구가 19.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평구가 17.9%로 그 다음이다. 기타 참여자는 부평구가 15.3%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 참여자는 일반수급 참여자 중 희망 참여자와 차상위 자활로 구분되는데, 부평구는 일반 수급참여자 중 희망 참여자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았다. 즉 조건부 수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7) 증가하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과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모·부자가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 부평구의 한부모가족은 2,986세대로 인천시의 19.6%로 남동구 다음으로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인천 지역의 한부모가족의 실태조사 결과, 부평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자가족과 모자가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동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삼산1동이 10.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평5동 9.2%, 부평4동 8.2%, 십정2동 6.4%, 부평2동 5.9%, 부개3동 5.5%, 갈산1동과 청천2동이 각각 5.3%, 부개1동 4.4%, 부평3동과 부개2동이 각각 4.2% 순이었다. 이에 반해 일신동이 1.3%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산곡4동 1.6%, 청천1동 2.6% 순이었다. 한부모가족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삼산 1동과 일신동 간의 격차는 9.6%p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간의 불균형 현상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부평구의 인구구성 조건, 즉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외국인 인구의 증가와 다문화 가정의 확대, 한부모가족과 독거노인의 급증, 양극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문제 등은 한국 사회의 복지 수요를 집약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부평구가 펼쳐 나가고 있는 복지 정책은 작게는 인천, 크게는 한국 사회의 복지 정책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 4. 부평구 지역 주민들의 복지 욕구

부평구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주)넷츠플러스에 의뢰해 지역 주민 욕구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2018년 6월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부평구 지역 내 일반 600가구를 전문 조사원이 1:1 가구 방문 면접 조사를 한 것이다. 그 결과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사회보장 관련 욕구 중 어려움의 정도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주거 환경 열악 관련 어려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구직이

나 일자리 발굴 등 취업, 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의 어려움, 근무조건 및 개인적 방해요인인 정리하고 불안감 등 직장생활 유지의 어려움, 약물오남용 및 약물복용 지원체계 부재, 치료 거부 문제 등 약물복용 문제, 정신적 건강관리, 병·의원 선택이나 건강관리 지원체계의 부재 등 신체적 건강관리의 어려움 순이었다.

### 2) 외부 지원 필요성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주거비 부담에 대한 지원 필요가 3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취업·창업 활동 및 기회 마련을 위한 지원이 34.2%, 학교생활 지원이 31.9%, 환경오염이 29.7%, 문화여가 활동 지원이 29.2%, 평생교육 및 기초적인 학습이 27.2%, 직장생활 유지가 27.3%, 체육활동이 27.0%, 생활환경이 25.2% 순이었다.

아동의 돌봄 영역에서 외부지원의 필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아동돌봄 서비스의 필요도가 42.0%, 아동발달·양육서비스의 필요가 각각 23.3% 순이었다. 노인과 성인 장애인의 돌봄에서는 장애인 돌봄 과정에 있어서 외부지원 필요도가 4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이 32.1%, 노인돌봄과정 지원이 26.6%,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당사자에 대한 외부 지원이 25.6% 순이었다.

외부 지원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돌봄·양육 영역에서는 종합적인 상담 정보 제공과 더불어 양육돌봄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이 높게 나타났다.

성인 장애인과 노인 돌봄 영역 각각에서 일상생활의 지원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었으며,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 당사자들은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영역에서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즉 학원 수강비와 같은 비용의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복지에 대한 인식 정도

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값을 100점으로 환산한 경우 복지 인식은 53.6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복지대상 부평구 주민들의 복지 인식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중산층에게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가 63.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열려있지 않다’가 61.6점, ‘경제발전의 성과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61.0점 순이었다. ‘복지는 사람을 의존적으로 만든다’가 53.9점, ‘복지예산 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한다’가 52.3점 순이었다. 또한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 선호가 45.5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가난의 일차적 책임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48.5점, ‘성장이 이루어진 이후에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49.6점,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49점, ‘경제성장 이후에 복지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49.9점으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평구 주민들은 여전히 복지는 사회가 아니라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높으며, 이러한 생각의 근저에는 복지는 특정한 계층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4) 아동 및 노인, 장애인 돌봄서비스 실태

복지의 대표 격인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서비스의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해 본다. 이 항목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부평구의 복지 인프라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아동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률을 조사한 결과, 보육시설이 60.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방과후교실 47.8%, 초등돌봄교실 18.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10.0%, 아이돌봄서비스가 6.7%, 지역아동센터가 1.1% 순이었으며, 드림스타트센터를 이용해본 경험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구의 아동 돌봄서비스 실태는 보육시설과 방과후학교를 제외하고는 매우 낮은 수준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아동 돌봄서비스 유형에 따른 돌봄 경감 정도, 즉 서비스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 방과후학교의 돌봄 경감률이 77.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초등돌봄교실이 77.4%, 보육시설이 75.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73.9%, 아이 돌봄서비스가 65.8%, 지역아동센터가 55.0% 순이었다.

한편 평일 방과 후 돌봐주는 성인 없이 1시간 이상 혼자 혹은 형제·자매끼리 있었던

경험을 조사한 결과 혼자 있었던 ‘경험이 있다’가 34.7%, ‘없다’가 65.3%로 나타났다. 이중 돌봐주는 이 없이 혼자 있었던 경험 시간은 1시간 4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시간 40.0% 순이었다.

노인 돌봄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를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모른다’와 ‘대략적인 내용 정도만 안다’가 95.1%, ‘전혀 모른다’가 2.8%,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가 2.1% 순이었다. 즉, 노인 돌봄서비스 자체가 아직 시민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또한 노인의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100점을 기준으로 환산해 살펴본 결과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혼자 생활하는 데 사회적 서비스가 충분히 도움이 되는가에 57.4점이 나왔고,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건(교통, 편의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가 56.6점이었다. 아직 노인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돌봄서비스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혼자 생활하는 데 충분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57.6점이 나왔으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건(교통, 편의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가 56.2점이었다. 아직 장애인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 5. 부평의 복지 정책 비전 및 주목할 만한 정책

#### 1) 부평의 복지 정책 비전

『부평구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부평구청, 2018)에서 파악한 구내의 사회복지 수요 조사를 토대로 부평구는 현재 ‘주민력 향상을 통한 복지공동체 부평’이라는 비전하에 구체적인 세 가지 실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시민성과 참여를 통한 주민력 향상, 공감과 협력을 통한 커뮤니티 케어, 권리와 연대의 사회적 돌봄이 그 세 가지 실천 목표인데, 간단히 말해서 개개인의 자립적인 힘을 기르고, 공동체를 튼튼히 해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시민성과 참여를 통한 주민력 향상**

동별 사회보장계획 수립(마을 계획), 책 읽는 부평,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지역평생교육 활동가 사업, 구민대상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초보 부모를 위한 육아 코칭 서비스사업, 부평구 열린 아버지학교 운영,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게이트키퍼(gate keeper) 교육.

**(2) 공감과 협력을 통한 커뮤니티 케어**

민관 협력 지역사회 보호체계 운영,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 부평형 세어(공동) 주택, 장애인 자립 기반 조성, 독거노인 사랑의 안심폰 지원, 우리동네 맥가이버 사업, 다문화가족 알리미 봉사단 운영, 부평형 청년인턴 사업, 청천 1동 홀소리 어울림 사업.

**(3) 권리와 연대의 사회적 돌봄**

부평구 사회보장 연구회 운영, 민관 협력 지역복지 사업, 교육여건 개선 및 선진교육 환경 조성, 베이비부머 역량강화(5060 부평인생학교), 선배 시민(노인) 사회참여 지원, 무인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임차 운영, 어린이 참여 놀이터 조성, 민간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어린이집 안전 점검.

**2) 복지 시스템의 구축**

**(1) 부평형 찾아가는 행정복지센터 시스템 운영**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복지 욕구가 다양화되어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고, 차량을 지원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여기에 더해 실질적으로는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도 여러 행정상의 이유나 절차 문제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부평구는 2018년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의심되는 4,275명 중 1,029명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또한 사회관계망 서비스 ‘카카오톡’을 이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기 위해 ‘부평 복지사각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주민들이 카카오톡 ‘부평 복지사각지대’에 어려운 이웃의 인적 사항과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해서 올리면, 담당 부서에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 내용을 확인 후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 상담을 의뢰하고, 주민센터는 접수 후 5일 이내 방문 상담을 진행해 필요 사항을 확인한 후, 사례 관리, 자원 연계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제보자에게는 방문 상담의 결과를 알려 준다.

**(2)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란, 지역별, 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해 바우처(사회서비스 이용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집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까지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등 사회서비스 구매력이 미약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도 한데, 복지와 일자리를 연결하는 일종의 사회관계망을 만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점점 늘어날 것인데, 얼마나 역동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느냐가 사업의 관건일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4** 부평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현황

(2018년 기준)

구분	사업명	대상자	사업 내용
아동 청소년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만8~12세	클래식 악기 교육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만0~18세	문제행동아동대상 언어, 인지, 놀이, 미술 치료
	아동청소년 Dream Up, 진로탐색서비스	만7~15세	비전형성, 직업탐색 교육, 체험활동
	오감쑹쑹서비스	만4~6세	통합놀이 프로그램
	사회성 증진을 위한 또래교실	만5~8세	사회성 프로그램
가족 성인	성인심리상담서비스	만18세 이상	성인심리 상담 지원
	부모유아 관계증진 서비스	만2~3세 아동 부모	영아와 부모대상 놀이 프로그램
	나를 찾는 5060사업	만50~64세	음악이론 및 실기, 정서지원 프로그램

구분	사업명	대상자	사업 내용
장애인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정신장애인, 정신질환 소견자	위기상황개입, 증상관리, 생활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만24세 이하 등록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및 리폼
	장애인재활승마서비스	만6세 이상 등록장애인	승마 운동
	장애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만13세 이상 등록장애인	맞춤 운동 처방
	장애아동 학습지원서비스	만5~18세 등록장애인	인지 및 일상 생활훈련
노인 장애인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노인, 장애인	안마, 지압 등
노인	노인수중운동교실	만65세 이상	건강상태 점검
	치매예방 인지건강프로젝트	만65세 이상	인지 건강관리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규정백서』, 2019, 221쪽.

### 3) 주목할 만한 복지 서비스 및 프로그램

#### (1)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저소득, 빈곤층 대상)

푸드뱅크란 식품 제조업체나 개인 등 기탁자로부터 식품을 기부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계층이나 복지시설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푸드마켓이란 기부받은 식품을 매장에 진열하면 식품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등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원하는 식품을 무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이용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다. 2018년 한 해 동안 저소득계층 2,272명에게 15억 원 상당의 기부 식품 및 생활필수품을 지원했다. 주요 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5 부평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 현황

시설명	운영 주체	소재지
부평푸드뱅크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수변로 107번길 56
부평푸드마켓 1호점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수변로 107번길 56
부평푸드뱅크 2호점	사)행복한사람들	경원대로 1367번길 18
부평푸드마켓 2호점	사)행복한사람들	경원대로 1367번길 18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규정백서』, 2019, 222쪽.

### (2) 사회안전망 사업

부평구에서는 관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저소득 세대에게 의료비, 생계비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것은 부평 복지의 비전이기도 한 지역 커뮤니티 케어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기도 하다. 2018년도 부평구 사회안전망 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6 부평 사회안전망 사업 현황

구분	사업비 총액	계		신청 내용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기타(임차료 등)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계	460,000	1,218	459,171	68	22,000	914	363,171	236	74,000
동행플러스 (부평감리교회)	400,000	1,121	400,000	66	21,000	837	319,000	218	60,000
행복올타리 (민간후원금)	20,000	37	20,000	2	1,000	17	5,000	18	14,000
여성더드림 (인천탁주)	40,000	60	39,171	-	-	60	39,171	-	-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규정백서』, 2019, 236쪽.

### (3) 사랑의 쌀 나눔 사업

부평구에서 가장 오랫동안 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이자 주민들을 독려하는 캠페인 사업인 사랑의 쌀 나눔 사업은, 법과 제도상 지원이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설과 추석 연 2회 모금한 성품을 전달한다. 최근 5년간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개1동 추석맞이 사랑의 쌀나눔 현장(출처 : 부평구청)

표 27 부평 사랑의 쌀 나눔 사업 현황

구분	연도	(단위 :년·kg·명)				
		2014	2015	2016	2017	2018
모금량		350,776	369,255	408,049	461,020	402,325
후원자 수		3,599	3,778	4,398	3,715	2,014
수혜자 수		26,674	26,770	26,962	30,892	26,231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구정백서』, 2019, 237쪽.

### (4)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이 사업은 점점 심각해지는 양극화에 대한 대책이자 저소득층의 빈곤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에는 청년층희망키움통장 사업도 추가되었는데, 청년 빈곤 문제에 대해 복지 행정이 나섰다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청년 실업, 청년 빈곤 문제가 심각해졌고, 88만 원 세대, 3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다. 어느새 청년층까지 사회 복지 정책의 대상자가 된 것이다. 청년 고용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힘겨워하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데, 청년층희망키움통장은 그 좋은 예가 된다. 2018년 사업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희망키움통장 I에 43가구, 희망키움통장 II에 238가구, 내일키움통장에 47명, 청년희망키움통장에 96명을 신규로 모집, 지원했다.

비슷한 계열의 사업으로, 2007년부터 빈곤 아동들을 대상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딤씨앗통장 사업이 있다. 1인당 월 4만 원 이내에서 아동과 지자체가 함께 매칭 적립하는 방식으로 2018년 현재까지 1,222명에게 4억 6,400만 원을 지원했다. 아동이 만 18세가 된 후 학자금이나 취업 훈련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다져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 (5) 드림스타트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부의 중핵 사업 중 하나이다. 취약 계층 아이들은 개별적인 서비스 한두 개로 접근해서는 그 어떤 효과도 볼 수 없다. 이 아이들을 둘러싼 모든 분야(의식주를 비롯해, 교육·의료·건강·복지·문화·여가 등)의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꾀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해 미래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사업의 전체적인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접수(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인적 정보 관리) → ② 사정(육구 조사, 양육 환경 및 아동 발달 사정) → ③ 계획/실행/점검(사례 회의, 대상 아동 선정, 통합맞춤서비스 제공, 지역 자원 및 후원자 발굴·연계, 슈퍼바이저의 자문 및 지도, 대상 아동 및 가족 모니터, 서비스 점검) → ④ 종결(종결 심사, 재조사, 사후 관리, 사정 결과에 따라 재선정)

부평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부평구 관내의 22개 동 전체로 사업의 영역을 넓혔으며, 2016년부터는 사업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위기 아동 발굴에 힘쓰고 있다. 이 사업의 성과는 대상 아동을 적시에 발굴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2018년부터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이 사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1년 사업 개시 후, 대상 아동 300명의 발굴로 시작해, 2018년에는 45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통합사례 관리사들이 주기적으로 가정방문과 상담을 통해 대상 아동과 가정 내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2018년 현재 대상 아동들에게 지원한 맞춤형 서비스는 모두 38개이다. 예를 들자면, 보건 분야에서는 방문 스크리닝·건강검진·치아관리 지원·안경 지원 등이, 보육 분야에서는 기초학습 지원·특기 적성 계발 지원·진로체험 지원 등이, 복지 분야에서는 심리치료·사회성 향상 프로그램·가족 캠프 등이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서는 민간 자원을 적극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8년 현재 부평구에서는 134개 기관과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나아가,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미래에셋, 한국GM 한마음재단 등과 연계해 지역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게 되었다.

### (6) 노인복지 여가시설 확충

2018년 부평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6만 6,424(12.7%)로 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으며,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노인복지, 여가시설의 확충은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에 대응해 2018년 2월 산곡노인문화센터(지하 2층, 지상 5층)를 건립, 개관했으며, 2018년 4월에는 십정1동 분회경노당을 신축, 준공했다. 또한 구 경찰종합학교 부지 내에 '부평 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를 총 1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립할 예정이다.

## 6. 부평의 복지 인프라 안내

여기에서는 2020년 10월 현재 부평의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다루겠다. 부평의 복지 인프라는 종합복지관을 비롯해 부문별 시설들이 매우 잘 갖춰진 편이다. 10년 전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각종 청소년센터나 다문화 복지시설 등을 보면 시대적인 요구에 잘 부응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 종합사회복지관

표 28 부평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단위: 명)

기관·시설명	소재지	종사자 수	1일 평균 이용자 수	운영 주체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주부도로 206(갈산동)	14	292	인천YMCA
삼산종합사회복지관	평천로 447(삼산동)	14	440	(사)한국YWCA 연합후원회
부평중부종합사회복지관	경원대로 1418번길 13(부평동)	16	237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구정현황, 부평 지역을 기록하다.」, 2019, .51쪽.

### 2) 지역자활센터

표 29 부평 지역 지역자활센터 현황

(단위: 명)

기관·시설명	소재지	종사자 수	이용자 수	운영 주체
인천부평남부 지역자활센터	열우물로 103(십정동)	11	214	실업극복국민운동 부평센터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수변로 175(부계동)	14	250	인천여성노동자회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구정현황, 부평 지역을 기록하다.」, 2019, 51쪽

### 3) 자원봉사센터

표 30 부평 지역 자원봉사센터 현황

(단위: 명)				
기관·시설명	소재지	종사자 수	이용자 수	운영 주체
부평구자원봉사센터	장제로 235 3층	10	92,343	부평구청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구정현황, 부평 지역을 기록하다』, 2019, 51쪽.

### 4) 지역 복지 단체

표 31 부평 지역 지역 복지 단체 현황

(단위: 명)				
기관·시설명	소재지	종사자 수	이용자 수	운영 주체
부평구사회복지협의회	마분로 8(부개동)	29	45	
사단법인 나눔과 함께	경인로 749 신명빌딩 2층 2호	6	100	사)나눔과함께
인천광역시 자원봉사관리사협회	부흥로 294번길 4 추진타워 301호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사람들	부평대로 33(창성빌딩 5층)	13	700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사람들
행복한사람들	부평대로 63번길 5	3	120	사)행복한사람들
희망을여는 가게	수변로 52번길 13	2	150	천주교 인천교부 카톨릭사회복지시설
한국지엄한마음재단	부평대로 233(청천동)	1	1,200	한국지엄한마음재단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복지포털, 2020.12.1.기준

### 5) 장애인 복지시설

#### (1) 시설 현황

표 32 부평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시설수(개)	거주 시설	지역사회재활 시설	직업재활 시설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체험홈
31	15	9	5	2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복지포털,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2020.12.1.기준

### (2) 장애인 거주 시설

표 33 부평 지역 장애인 거주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특징
인천광명원	경인로 769번길(십정동)	514-1956	만3세 이상 등록시각장애인, 50명
성동원	경인로 880(부평동)	522-2984	청각, 언어, 지적장애인, 20명
예림원	동수로 87(부평동)	525-6043	지적장애인, 68명
성촌의 집	경인로 701번길 26(십정동)	422-0573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32명
설만한 물가의 집	원적로 421번길 9-12(산곡동)	521-9595	지적, 뇌병변 장애인, 10명
우리들의 집	경인로 701번길 26(십정동)	433-7907	지적장애인(18~40세), 30명
은광원	마분로 8(부개동)	501-0105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44명
한나의집	부흥로 243번길 39, 3동 104호 (부평동, 육일아파트)	515-0211	등록장애인(만18~65세), 4명
만인의집	마장로 269번길 91-63, 중앙하이츠 302호(산곡동)	528-7650	등록장애인(만18~65세), 2명
예림공동 생활가정(5곳)	체육관로 111(삼산동 주공삼산타운아파트 / 411동 1505호, 405동 1406호, 412동 906호, 406동 201호, 415동 1109호)	525-6043	등록장애인(만18~65세), 20명 (각 호당 4명, 스텝 1명)
해늘단기보호센터	화랑북로 35-4(산곡동)	506-6596	등록장애인(만18세 이상), 11명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복지포털,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2020.12.1.기준

### (3)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시설

표 34 부평 지역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특징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일신로 25(일신동)	512-9200	1일 250명 이용 재가복지봉사센터 포함 주간보호센터 이용인원 14명
나래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부영로 161, 402호 (산곡동 주안빌딩)	513-9300	이용 인원 16명, 만18~35세 이하
성동주간보호센터	경인로 880(부평동)	514-5600	이용 인원 16명, 만18 이상
아카펠라 주간보호센터	평천로 319-5, 2층 (갈산동, 대진빌딩)	517-0630	이용 인원 15명, 만18 이상
인천베데스타 주간보호센터	부흥로 334번길 37, 3층 (부평동, 봉담빌딩)	070-7562-9125	이용 인원 15명, 만18 이상 1급 등록장애인
해늘주간보호센터	화랑북로 35-4(산곡동)	506-6596	이용 인원 13명, 만18 이상
헤인주간보호센터	마장로 24, 3층(십정동, 만월빌딩)	330-1307	이용 인원 15명, 만18 이상
꿈이룸주간보호센터	안남로 62, 3층(부평동 한솔상가)	508-6974	이용인원 12명, 만18 이상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복지포털,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2020.12.1.기준

#### (4)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표 35 부평 지역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특징
굿프렌드	경인로 701번길 26(십정동)	428-1741	이용 인원 33명, 1급~3급 지적장애인 복사용지(wish), 임가공(콘센트, 카타칼)
성동N	경인로 880(부평동)	506-7746	이용 인원 36명, 중증장애인(만18~35세) 임가공(포장, 조립), 플라스틱 사출
송암보호작업장	일신로 25(일신동)	528-8863	이용 인원 30명, 인천 거주 1~3급 발달장애인 임가공(콘센트 등)
아이드림	경인로 769번길 27(십정동)	508-3773	이용 인원 30명, 현수막, 방향제, 임가공 등
한인한 부평지점	동수로 87(부평동)	528-0337	이용 인원 30명, 카트리지 재제조, 임가공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복지포털,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2020.12.1.기준

#### (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체험홈

표 36 부평 지역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체험홈 현황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특징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평대로 167번길 42, 202호(청천동)	514-0450	체험홈 함께 운영
인천발달장애이자립생활센터	마장로 82, 703호(십정동, 현대다섬프라자)	885-5548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복지포털,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2020.12.1.기준

#### (6) 출산·양육·보육

##### ① 육아,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

표 37 부평 지역 육아·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 현황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특징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성동로18번길 51	361-8653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부흥로 294번길 4 추인타워 8층	866-1226	가정위탁아동지원
동방사회복지회	백범로 478번길 8-7(십정2동)	502-2226	입양사업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복지포털, 아동 양육 위탁기관 현황, 2020.12.1.기준

#### ② 부평 어린이집 현황

표 38 부평 지역 어린이집 현황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갈산주공어린이집	주부토로 206	032-361-930
부평6동어린이집	육동로 13-3(부평동)	032-501-8100
부평3동어린이집	신촌로 47-7(부평동)	032-505-3334
목련어린이집	길주로 367(산곡동)	032-517-0320
산곡2동어린이집	마장로 324번길 37(산곡동)	032-505-1224
산곡3동어린이집	경원대로 1269-3(산곡동)	032-504-3400
청천1동어린이집	마장로 417번길 31(청천동)	032-505-5606
청천2동어린이집	원길로 34번길 8(청천동)	032-527-3494
소담어린이집	마장로 384번길 30-19(청천동)	032-516-7333
이웃사랑어린이집	굴포로 7번길 27(갈산동)	032-504-5992
부평꿈나무어린이집	영성동로 18번길 51(삼산동)	032-515-9889
삼산1동어린이집	영성동로 18번길 19(삼산동)	032-507-0512
부개1동어린이집	동수로 166(부개동)	032-523-3007
부평3동어린이집	충선로 124-3(부개동)	032-505-8685
십정1동어린이집	열우물로 103(십정동)	032-424-1017
일신동어린이집	향동로 75번길 36(일신동)	032-505-3178
래미안부평어린이집	길주남로 10번길 21(부평동)	032-518-5900
부평맑은내어린이집	마장로 468번길 12-6(청천동)	032-511-2760
부평풀내어린이집	평천로 447(삼산동)	032-527-3665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복지포털, 어린이집 현황, 2020.12.1.기준

❖ 비교 : 해당 표에서는 국공립 19개소만 소개함(전체 344개소)

##### ③ 부평 지역아동센터

2020년 10월 기준 37곳으로, 자세한 시설 현황은 4장의 1절의 <표 11>을 참고하기 바란다.

## (7) 노인 복지시설

### ① 노인 복지시설 현황

표 39 부평 지역 노인 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노인 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노인 주거시설	노인 의료시설	노인 여가시설	재가 노인시설	
3	61	2	8	226개소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61개소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8개소 -재가 장기요양기관 157개소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구정백서』, 2019, 280쪽.

### ② 노인복지관

표 40 부평 지역 노인 복지관 현황

(단위 : 명)

시설명	소재지	이용자 수	주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전화번호
부평구노인복지관	굴포로 114(삼산동)	5,470	무료급식, 도시락배달, 무료 이용, 미용, 물리치료, 노인일자리 사업	526-4447
산곡노인문화센터	안남로 253번길 34 (산곡동)	2,072		362-7252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복지포털, 노인복지관 현황, 2020.12.기준

### ③ 노인 요양시설

표 41 부평 지역 노인 요양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주)그린케어인천부평재가노인복지센터	주부토로 151번길 11(갈산동)	330-4612
가족사랑 삼산요양원	체육관로 38(삼산동, 세원빌딩)	275-7500
간호박사요양원	체육관로 40(삼산동, 신영프라자)	511-6078
갈산효도림 노인주간보호센터	주부토로 261(갈산동, 신희빌딩)	512-5431
고은미소요양원	주부토로 261 501호(갈산동, 신희빌딩)	715-7192
고은손요양원	주부토로 261(갈산동, 신희빌딩)	517-2211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굿힐링요양원	주부토로 223(갈산동, 금강프라자)	505-9700
글로벌요양원	장제로 153(부평동, 부흥빌딩)	525-1255
기쁨노인전문요양원	충선로 203번길 40(삼산동, C&C로데오 I)	348-1505
나다의료재단 소망요양원	장제로 137(부평동)	529-0892
너싱홈참살요양원	장제로 170(부평동, 금호베스트빌아파트)	524-0689
노인복지관	굴포로 114(삼산동, 노인복지회관)	526-4447
늘사랑전문요양원	체육관로 32 8, 9층(삼산동, 하이존HIZONE)	513-3235
동성양로원	일신로 18(일신동)	505-0181
들꽃피는실버요양원	세월천로 188(청천동)	507-9091
라운실버케어요양원	길주남로 158(부개동, 부개프라자)	527-9923
미소노인복지센터	마장로 49(십정동) 대주상가 106동 109호	516-2636
미소요양원	평천로 142번길 27(청천동, 미소노인복지센터)	501-9988
바른요양원	부평북로 408(삼산동, 주영빌딩)	201-9370
밝은햇살요양원	부개로 61-14(부개동, 대현프라자)	526-2120
봄날인천요양원	안남로 413(청천동)	502-6400
부평시니어요양센터	부흥로 342(부평동) 덕천프라자 7층	202-1004
부평어르신요양센터	체육관로 20(삼산동, 유림프라자) 10층	503-9360
부평은빛실버홈	경원대로 1256번길 10(부평동)	514-1041
부평의료복지요양원	부평대로 51번길 7(부평동, 제이·원 부평메디피아)	504-3730
부평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경인로 749(십정동)	433-6151
사랑드림요양원	부평북로 446(삼산동, 우리빌딩) 601호	501-1331
사랑의요양원	장제로 126(부평동)	505-0034
사랑의요양원 재가복지센터	경원대로 1442(부평동, 호진빌딩)	298-1004
사랑채요양원	체육관로 18(삼산동, 대경프라자)	502-7400
삼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천로 447(인천삼산엘에이치1단지) 101~106동	522-7857
생생요양원1호	장제로 361(갈산동, 선교빌딩)	715-8168
생생요양원2호	장제로 361(갈산동, 선교빌딩)	715-8168
샤미나드의 집	마장로 375(산곡동)	508-9876
소나무요양원	경인로 701번길 26(십정동, 성춘재단)	529-0085
송남노인요양원	일신로 25	330-0696
신명요양원	경인로 749(십정동, 신명빌딩)	506-3944
신혜요양원	장제로 361(갈산동, 선교빌딩)	519-3288
아름다운실버타운	주부토로 66번길 24-4(부평동)	501-8831
연세노인전문요양원	대보로12번길 17-15(삼산동)	504-1002
오셀복지요양원	마장로 75(십정동, 대경빌딩) 3층	515-8474
온정데이케어주간보호센터	세월천로 34(청천동, 대우프라자)	504-3422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요셉의집	장제로 361(삼산동)	526-8615
은빛요양원	화랑로 14(산곡동, 백운빌딩)	505-3122
은혜공동생활가정	마장로 175(산곡동, 현성빌딩)	528-5004
자경요양원	체육관로 30(삼산동이리옴프라자)	516-1162
조은요양원	부평북로 399(삼산동, 삼산주공프라자)	330-1004
즐거운요양원	체육관로 34(삼산동이리옴프라자 II)	513-7200
참마음요양원	장제로 73(부평동)	330-7422
참사랑요양원	장제로 73(부평동)	330-7420
하나실버케어요양원	길주로 639(삼산동, 현대아이프라자) 6, 7, 8층	328-1855
한사랑요양원1호	동수천로 132(부개동, 부개빌딩)	502-5361
행복노인전문요양원	화랑로 14(산곡동, 백운빌딩)	625-5084
협성양로원	화랑로 65(산곡동, 사회복지법인 협성원)	518-9365
협성요양원	화랑로 65(산곡동, 사회복지법인 협성원)	518-9365
효도마을요양원	충선로 209번길 21(삼산동, 대상프라자)	507-1230
효사랑요양원1	충선로 203번길 16(삼산동, 창성프라자)	330-3373
효사랑요양원2	충선로 203번길 16(삼산동, 창성프라자)	330-3373
경희요양원	장제로 153(부평동, 부흥빌딩)	517-1500
나누리요양원	장제로 170(부평동, 금호베스트빌아파트)	330-8024
동수성모요양원	안남로 5(부평동 부평DS빌딩)	518-5512
동암새별요양원	동암남로 17(십정동)	434-1177
사랑드림요양원	부평북로 446(삼산동, 우리빌딩) 702호	501-1331
사랑의요양원3호	대정로 92(부평동) jh빌딩	298-1004
생생요양원3호	장제로 361(갈산동, 선교빌딩) 601호	715-8168
지평재활요양원	체육관로 14(삼산동, 삼산지구복합시설) 1001호	515-5036
참빛요양원	주부토로 261(갈산동, 신희빌딩) 304호	506-0222
참존요양원	부평북로 399(삼산동, 삼산주공프라자) 401호	330-0988
하선노인전문요양원	세월천로 34(청천동, 대우프라자) 401호	503-2060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복지포털, 노인복지시설 현황, 2020.12.기준

#### 4 경로당

2021년 1월 기준 부평구 내 경로당은 총 176개소이다. 자세한 시설 현황은 부평구 복지포털 경로당 현황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 (8) 여성 관련 단체 및 복지시설

표 42 부평 지역 여성 관련 단체 및 복지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부평구 여성센터	후정동로 6, 부평구자활센터 5층	509-5040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부영로 161 주안빌딩	508-0121	
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	동수로 56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280-5678	성폭력 피해 지원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천여성가족재단)	부평구 길주로539	511-1603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여성센터 홈페이지

#### (9) 다문화 복지시설

표 43 부평 지역 다문화 복지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열우물로 103	511-1800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구정현황, 부평 지역을 기록하다」, 2019, 52쪽.

### 7. 부평의 대표적 복지 기관 소개

#### 1)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주소 : 일신로 25 / 전화번호 : 512-9200)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4년 5월에 개관해 지하 1층·지상 4층의 규모를 갖추고, 지역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의료, 교육, 사회, 심리, 직업재활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의 자립 등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센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 및 조사연구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데,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종합복지센터로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가치 부여와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 있다.



**2) 부평구 노인복지회관(주소: 굴포로 114 / 전화번호: 526-4447)**

노인들의 개별적인 특성 및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과 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노인들의 평생학습을 위해 2018년 기준 7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 산곡노인문화센터(주소: 인남로 253번길 34 / 전화번호: 362-7252)**

기존 경로당 시설이 갖는 단순 휴식 기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노인 여가 복지시설의 형태로 2018년 2월 개관했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여가,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출처: 부평구청

**4) 부평구 여성센터(주소: 후정동로 6, 부평구자활센터 5층 / 전화번호: 509-5040)**

오랫동안 주민들에게는 ‘부평구 풀뿌리여성센터’로 알려져 있는, 부평구 여성센터는 2020년 6월 지금의 부평구자활센터로 옮겨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주민들과 지역 여성 네트워크 기관이 함께 부평 지역의 여성들의 성장과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성평등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부평을 보다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

**5)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주소: 부영로 161 / 전화번호: 508-0121)**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6년 1월 이전 개소해 현재 사회복지법인 주안 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 교육, 가족 문화, 가족 상담,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해 가족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6)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주소: 열우물로 103 / 전화번호: 511-1800)**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을 받고, 사단법인 인천YWCA가 운영하는 다문화가족 전문 지원 기관으로서 가족 교육, 성평등, 인권 교육, 사회통합 교육, 상담 및 사례 관리, 언어발달 지도, 통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해 건강한 다문화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출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7) 갈산주공어린이집(주부토로 206(갈산동) / 전화번호 : 361-9300)

갈산종합사회복지관 내 관리동에 위치하여 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이다. 영유아 55명을 보육할 수 있는 지상 1층 규모로, 2018년 3월 개원하여 아파트 입주민 자녀들과 학부모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8) 부평6동 어린이집(육동로 13-3(부평동) / 전화번호 : 501-8100)

2016년 경제계 보육지원 사업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 건축비 16억 원이 투입되어 지상 3층, 77명 정원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건립되었다. 2018년 11월에 개원해 국공립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인 부평6동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쾌적한 보육 환경을 제공해 지역 보육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출처 : 부평구청

| 제3절 | 부평의 보건, 의료, 위생

1. 의료 보건 인프라

교육, 복지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서비스 중 하나가 의료, 보건, 위생이다. 특히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의료, 보건 서비스는 더욱 중요한 분야가 되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들이 예방 의학과 보건의료에 힘을 쏟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복지 정책과 의료 정책, 스포츠·건강 관련 정책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어 설계하기도 한다.

2018년 12월 기준 부평 지역에는 종합병원 3개소, 그 외 병원 13개소, 의원 302개소, 치과의원 173개소, 한방병원 6개소, 한의원 125개소, 요양병원 7개소, 약국 216개소 및 한약방이 있다. 보건 의학과 위생을 담당하는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센터가 각각 1개소 있다.

부평구 보건소는 부평의 의료, 약품, 보건위생 정책 전반을 관리, 책임지는 기관이면서 동시에, 금연 사업, 절주 사업, 암 조기 발견, 고혈압, 당뇨 예방, 모자보건 사업, 감염병 예방, 방역 소독, 치과 진료 및 어린이 구강보건 사업 등 직접적으로 보건 사업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더불어 치매주간보호센터 등도 운영하고 있다. 부평구 청천보건지소는 부평의 서쪽 지역의 보건소 업무를 담당하면서 동시에, 만성질환자 관리, 통합건강증진 사업,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있다. 2019년 3월에 개원한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주민들에게 운동, 영양, 금연, 만성질환 예방 등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앞으로 이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늘어날 전망이다.

## 2. 의료 보건 정책

### 1) 질병 예방

부평구 보건소에서는 2018년 현재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방역소독 사업, 연중 취약 지역 방역기동반 운영, 민간 위탁 방역 사업으로 22동을 4권역으로 나누어 4~10월 사이에 야간 방역을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 방역 사업으로 모기유충구제 사업,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7대, 해충 유인 살충기 146대를 가동, 운영하고 있다.

### 2) 감염병 관리

부평구 보건소는 감염병 관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8명으로 구성된 감염병 역학조사반은 지역사회 내 감염병 발생할 경우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 외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① 감염병 환자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캠페인 및 교육, 홍보 활동
- ② 감염병 전문 강사를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등에 파견.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 관리에 대한 교육을 행한다.

### 3) 모자보건

엄마와 아이의 건강을 관리하고, 결핵의 발병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행하는 모자보건 사업은 인구의 질적인 성장을 촉진시키는 정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가임기 여성의 건강보호와 영유아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부평구 보건소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다.

- ① 출산 준비 교실, 모유 사랑 교실, 오감발달 놀이 교실, 아기 마사지 교육
- ② 산모, 신생아에게 건강관리사 지원
- ③ 난임 시술비 지원
- ④ 국가 필수 예방접종 확대
- ⑤ 보건소와 민간 위탁 의료기관에서 만12세 이하의 아동의 필수 예방접종 무료화
- ⑥ 결핵 예방 관리

### 4) 지역 보건

취약계층의 문제 중 하나는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더불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힘들다. 부평구 보건소는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의 보건을 위해 방문 건강관리 요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게 해서 이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 건강관리 서비스로는 금연, 절주, 규칙적인 신체활동, 균형 있는 영양 섭취 등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질환 발생을 예방하도록 힘쓰는가 하면, 혈압·혈당 체크 등 건강조사를 기반으로 고혈압, 당뇨, 암 등 주요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관리 서비스는 다문화가족이나 북한이탈 주민들에게도 실시하고 있다.

### 5) 치매 관리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치매 환자의 문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보건소 내에 치매 관리 사업을 전담하는 치매안심돌봄센터를 두고 있다.

치매안심돌봄센터(주간보호센터)는 2개소가 있다, 2018년 기준 49명이 이용하고 있고, 2,791명이 치매환자로 등록해서 인지재활 프로그램, 방문 간호, 환자 관리 및 가족 교육 등 정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선별 검사, 진단 검사, 감별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로 진단되어 치매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치매 치료 및 관리비를 지원한다. 노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과 대중매체를 활용해 치매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3. 위생 정책

#### 1) 공중위생

##### ① 공중위생업소 현황

표 44 부평 지역 공중위생업소 현황

(2018.12.31. 기준, 단위: 개소)

합계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위생용품제조업
2,141	213	30	144	1,420	427	82	5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규정백서」, 2019, 566쪽.

부평구의 공중위생업소는 2018년 현재 2,141개소로, 보건소에서는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와 지도 점검을 병행하고 있는데, 「중저가 모범 숙박업소」 및 「더 베스트 공중위생 업소」 총 25개소를 지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했다. 더불어, 공중위생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불법 우려 숙박, 이용, 피부미용업소 등에 대한 지도 및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 2) 위생 관리

##### (1) 식품위생업소 현황

##### ① 식품접객업

표 45 부평 지역 식품접객업 현황

(2018.12.31. 기준, 단위: 개소)

합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영업
5,995	4,302	1,192	140	181	114	66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규정백서」, 2019, 569쪽.

##### ② 식품제조·가공업 등

표 46 부평 지역 식품제조·가공업 등 현황

(2018.12.31. 기준, 단위: 개소)

합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 운반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집단·급식소
967	113	457	3	4	1	14	375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규정백서」, 2019, 569쪽.

##### ③ 식품소분·판매업 등

표 47 부평 지역 식품소분·판매업 등 현황

(2018.12.31. 기준, 단위: 개소)

합계	식품 소분업	식품자동·판매기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458	97	232	57	31	41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규정백서」, 2019, 569쪽.

##### ④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

표 48 부평 지역 식품제조·가공업 등 현황

(2018.12.31. 기준, 단위: 개소)

합계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736	721	15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규정백서」, 2019, 569쪽.

구청에서는 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 교육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식품접객업 5,993개소, 식품제조가공업 112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686개소, 식품소분판매업 등 기타 업종 521개소가 위생 교육을 이수했다. 더불어 식품 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적으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아동급식지원 지정음식점, 야식배달 음식점, 계절음식 취급업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흥업소 지도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점검, 단속만이 아니라 영업자의 인식 개선을 유도해 자발적으로 위생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4. 건강 증진 정책

##### 1)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 오픈

2019년 3월 13일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식을 가졌다.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는 부평구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오던 ‘건강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중 하나다. 가깝게는 십정1·2동과 부평3동 주민을 위한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역할을 맡는다. 센터는 총면적 261㎡ 규모로 국비 1억 1,700만 원 등 총사업비 2억 4,700만 원을 들였으며, 건강 생활 실천 상담·사무실, 운동 관리실, 보건 교육·운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 금연 및 영양 사업, 개인별 체력 측정을 통한 맞춤형 운동 처방, 치매 선별 검사 등 다양한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 2) 구강 건강증진 사업

표 49 부평 지역 구강 건강증진 사업 현황

(2018년 기준, 단위: 명)

구분	인원	구분	인원
구강 보건 교육 등	40,589	구강 검진 및 상담	3,350
불소겔 도포	37,242	치아홈 메우기	1,349
장애인학교 이동 진료	903	불소바니쉬 도포	891
지역아동센터 구강 관리 사업	468	불소용액 배부	11,538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구정백서」, 2019, 550쪽.

#### 3) 암 예방

표 50 부평 지역 암 예방 현황

(2018년 기준, 단위: 년·명·회)

구분		2018년(연간)
국가 암검진	전화	16,489
	문자	296,674
	우편	18,078
홍보 및 캠페인		15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성인암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인원 : 258
	성인암 건강보험	지원 인원 : 359
	폐암	지원 인원 : 142
	소아암	지원 인원 : 131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구정백서」, 2019, 550쪽.

#### 4) 건강생활 실천

- ① 건강증진 프로그램 : 운동 및 비만 교육, 걷기교실 및 자율 동아리, 영양 교육
- ② 심혈관 질환 예방 교육 및 환자 조기 발견 및 캠페인 실시
- ③ 영양 플러스 사업 : 영양 플러스 사업은 생리적인 요인과 환경 여건 등으로 영양 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임신부 및 영유아에게 일정 기간 영양 교육 및 보충 식품을 제공해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려는 사업이다. 연간 973명이 등록했고, 우유 외 10종의 보충 영양 식품을 월 2회 가정에 공급했으며,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영양 교육 및 상담을 실시했다.

## 5. 한눈에 보는 부평구의 의료, 보건, 위생 시설

### 1) 부평구 의료기관

표 51 부평 지역 의료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부평구		인천시	
	개소	구성비	개소	구성비
종합병원	3	0.4	19	0.4
병원	13	1.5	64	1.5
치과의원	173	20.3	894	20.8
의원	302	35.4	1,512	35.2
한방병원	6	0.7	25	0.6
한의원	125	14.7	639	14.9
요양병원	7	0.8	66	1.5
조산원	0	0.0	3	0.1
부속병원	0	0.0	4	0.1
약국	216	25.3	983	22.9
한약방	6	0.7	19	0.4
보건소	1	0.1	9	0.2
보건지소	1	0.1	31	0.7
보건진료소	0	0.0	27	0.6
합계	853	100.0	4,295	100.0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구정현황, 부평 지역을 기록하다」, 2019.

### 2) 부평구의 종합병원

표 52 부평 지역 종합병원 현황

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인천성모병원	동수로 56(부평동)	1544-9004	1955년 개원
부평세림병원	부평대로 175(청천동)	509-5555	1983년 개원, 양·한방 협진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무네미로 446(구산동)	5000-114	공공의료기관, 양·한방 협진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구정현황, 부평 지역을 기록하다」, 2019.

### 3) 부평 보건위생 기관

표 53 부평 지역 보건위생 현황

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부평구 보건소	부흥로 291(부평동)	509-8200	금연사업, 절주사업, 암 조기 발견, 고혈압, 당뇨 예방, 모자보건 사업, 감염병 예방,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부평구 청천보건지소	마장로 410번길(청천동)	509-8950	만성질환자 관리, 통합 건강증진 사업, 재활프로그램 제공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	열우물로 103(십정동) 열우물어울림센터 3층	509-3160	지역 주민들에게 운동, 영양, 금연, 만성질환 예방 등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제공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구정현황, 부평지역을 기록하다」, 2019.

### 4) 주요 기관 안내

#### ① 부평구 보건소(주소 : 부흥로 291/ 전화번호 : 509-8200)

2003년 11월 3일 구 북구청사 자리에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새롭게 건립되었다. 금연 사업, 절주 사업, 암 조기 발견, 고혈압 및 당뇨 예방, 임산부 및 미숙아에 대한 모자보건 사업, 감염병 예방,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등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 출처 : 「2019년 구정 현황, 부평지역을 기록하다」

2 부평구 청천보건지소(주소 : 마장로 410번길 5 / 전화번호 : 509-8950)

청천2동 행정복지센터 복합 건물 1~3층에 1,125㎡ 규모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만성질환자 관리, 통합 건강증진 사업, 재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3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주소 : 열우물로 103 열우물어울림센터 3층 / 전화번호 : 509-3160)

지역의 건강 문제를 주민 참여와 지역 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 보건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에게 운동, 영양, 금연, 만성질환 예방 등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4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주소 : 동수로 56 / 전화번호 : 1544-9004)

1955년에 설립된 인천 최초의 대학병원이다.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첨단의료와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처럼 돌본다”는 신념을 갖고 환자 중심과 진료의 질적 성장을 위한 차별화된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뇌병원을 개원하여 그동안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뇌혈관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통해 대학병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경영 면에서는 ‘인천 최고의 병원 브랜드 가치 창조’라는 목표를 가지고 고객 만족 경영, 특화된 의료서비스 개발, 전략적 마케팅 강화, 핵심 인적 자원 육성, 진료의 질 향상 등에 힘을 쏟고 있다.

5 부평세림병원(주소 : 부평대로 175 / 전화번호 : 509-5555)

1983년 5월 개원 이래 양한방 협진병원으로서 우수한 의료진 및 최첨단 의료 장비, 병원 시설 리모델링, 환자 편의시설 확충 등 구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의료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6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주소 : 무네미로 446 전화번호 : 5000-114)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최초로 양한방 협진 의료 체제와 의료 재활 기능을 겸비, 종합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산재환자 및 특수질환 이환근로자에 대한 고도의 의료기술과 경인 지역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건강 보호를 통해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6. 코로나19에 대한 부평구의 대응

1) 시간순으로 보는 부평의 코로나19<sup>2</sup>

- 2019.12.01. 중국 우한시 최초 유증상자 발견
- 2020.01.20. 한국 첫 번째 확진 환자 발생
- 2020.01.27. 부평구보건소 비상방역대책반, 선별진료소 운영
- 2020.01.28. 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 2020.02.22. 부평구 첫 번째 확진 환자 발생**
- 2020.02.23.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격상
- 2020.02.28. 신천지 신도 2,924명 전수 조사
- 2020.03.21. PC방 119개소, 코인노래방 40개소 전수 점검
- 2020.03.22. 관내 모든 교회 현장 점검
- 2020.03.22.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 유흥, 실내체육관시설 운영 중단 권고
- 2020.04.04. 봄나들이 방지 주요 공원 전면 폐쇄
- 2020.04.20.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 유흥, 실내체육관시설 운영 중단 권고
- 2020.05.06. 생활 속 거리두기**
- 2020.05.10. 집합 금지(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콜라텍)
- 2020.05.14. 집합 금지(단란주점, 노래연습장)
- 2020.05.15. 방역 수칙 준수 및 운영 자제 권고(PC방)
- 2020.05.20. 방역 수칙 준수 및 운영 자제 권고(학원, 실내체육시설)
- 2020.05.21. 집합 금지(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 2020.05.25. 집합 금지, 방역 수칙 준수 및 운영 자제 연장(6.7일까지)
- 2020.06.02. 부평구청, 부개3동 행정복지센터 출입 통제(본청 1명, 행정복지센터 1명 확진 판정)
- 2020.06.03. 부평구청, 부개3동, 보건소 직원 1,333명 전원 음성
- 2020.06.04. 부개3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자 워크스루 1,103명 전원 음성
- 2020.06.11. 집합 금지 및 방역 준수 조치 발령(6.11. ~)
- 2020.08.22. 관내 C교회에서 20명의 집단 확진 환자 발생.
- 2020.12.05. 관내 A요양원에서 27명 집단 확진자 발생.



❖ 부평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안내 배너와 현장 의료진(2020, 부평구청)

2 부평구 홈페이지의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 2) 숫자로 보는 코로나19



❖ 부평구 홈페이지 '코로나19 대응 상황' 참고(2021.1.11. 기준)

- 선별진료소는 모두 4개소 :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부평세림병원,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부평구보건소



❖ 부평역 앞 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 선별 검사소(출처 : 부평구청)

- 임시 선별 검사소(2021년 1월 17일까지 운영) : 부평역 북광장, 부평구청 옆 신트리공원 내 (\*증상 유무, 역학적 연관성과 상관없이 원하는 구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검사비는 무료)

-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한길안과병원, 나누리병원 등이다. ('국민안심병원'이란, 병원 내 감염으로부터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호흡기 환자와 비(非)호흡기 환자를 분리하여 진료하는 곳을 말한다)

## 3) 정책적 대응<sup>3)</sup>

-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 : 재료비, 홍보 마케팅, 용역 인건비, 공과금 관리비 지원, 확진자 점포의 경우(최대 300만 원), 휴업 점포(최대 100만 원)
- 2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했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와,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최대 50만 원을 특별 지원하여 고용위기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한 것.
- 3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실시.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 상품권 차등 지급. 생계/의료 수급자에게는 최소 52만 원~192만 원, 시설 수급자에게는 1인당 52만 원, 주거/교육/차상위층에게는 최소 40만 원~148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부평e음 바우처카드)으로 4개월분 일시 지급.
- 4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법령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지원 필요. 4인 가구 기준(월 123만 원),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회(1개월분)에 한하여 지급, 입원환자로 격리 기간 1개월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5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 지원금-노인의료 복지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PC방** : 정부와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으로 운영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제한명령 대상 시설에 대해 긴급 지원금을 지원. 시설·업체당 30만 원.
- 6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긴급 인건비 지원**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린이집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 보전을 위한 긴급지원을 한시적으로 실시하여 보육 교직원의 안정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020년 3월 말 기준 보육 교직원 인건비 보전분, 영아반 1~5개 운영(100만 원), 영아반 6~10개 운영(150만 원).
- 7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면제**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공적 마스크 5부제(요일별) 시행과 관련하여 무인민원발급기에서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함

3 2020년 4월 기준, 부평구청이 공고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기한 : 공적 마스크 5부제 종료 시까지).

⑧ **부평풍물대축제의 비대면화** :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구민의 안전을 위해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부평풍물대축제의 거리 축제를 전면 취소했다. 그 대신 제24회 대회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결정. 9월 15일 고유제를 시작으로 16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소규모 공연을 무관중으로 진행한 후 10월에 SNS를 통해 영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지난 24년간의 부평풍물대축제의 발자취를 다룬 OBS 특집 다큐멘터리를 10월 17일(18시 30분)에 방영함.

## 7. 장묘 시설

부평 지역의 장묘 시설은 많이 부족한 편이다. 현재는 인천가족공원 1개소이다. 가족공원 내에 화장장 1개소, 공설 묘지 5개소, 공설 봉안당 7개소, 그리고 수목장(자연장)이 6개소가 있다.

## 8. 반려동물

부평에는 2만 7,653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다. 동별로 살펴보면, 갈산동 1,843마리, 구산동 89마리, 부개동 3,187마리, 부평동 9,198마리, 산곡동 4,667마리, 삼산동 3,159마리, 십정동 2,603마리, 일신동 403마리, 청천동 2,504마리이다.

부평에는 모두 31개소의 동물병원이, 5개소의 동물보호센터가, 25개소의 동물등록대행업체가 있다. 동물등록대행업체는 모두 동물병원이 겸하고 있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물병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반려동물 장묘 시설이다. 2014년부터 「인천가족공원 내 반려동물 화장시설 건립안」을 몇몇 의원들이 내놓았지만 여전히 진척되지 않은 상황이다.

## | 제4절 | 관광자원과 친선 교류

### 1. 부평의 관광자원

『부평사』(2007)를 보면 관광자원 관련 항목이 없다. 수십 년 전에도 분명 부평 지역에는 부평풍물대축제를 비롯한 문화, 관광자원이 존재했고, 부평 지역을 여행이나 관광 목적으로 찾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부평을 기록한 『부평사』에 그러한 사실이 담기지 않았다는 것은 소위 유명한 관광지가 아닌 지역들은 의식적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든지, 정비한다는 생각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2020년 현재 부평구청 관련 홈페이지 중 하나로 ‘부평문화관광’이라는 페이지가 있다(<https://www.icbp.go.kr/tour/>). 시대가 바뀐 것이다. 3·4차 산업으로 점차 비중이 이동해 가는 한국 사회에서 문화관광은 지역에서 중요한 산업이 되어 있는 것이다.

위의 홈페이지를 보면, PDF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세한 부평 관광 지도와 관광안내 팸플릿이 올려져 있다. 이 지도와 팸플릿은 2020년 현재 부평구가 개발하고 정비한 부평 관광자원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광자원의 특색은 현재의 관광 트렌드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고, 지금 부평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말하자면 부평의 브랜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역의 관광자원을 말할 때 중요한 체크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축제와 같은 대형 이벤트가 있는지, 랜드마크나 소위 핫플레이스가 존재하는지, 쇼핑과 휴식이 가능한 길거리가 조성되어 있는지, 지역 곳곳을 몇 개의 테마로 누빌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 등이다.

첫째, 대형 이벤트부터 살펴보면, 부평에는 22년의 이상의 역사를 가진 부평을 대표하는 ‘부평풍물대축제’가 있고, 2015년 ‘부평밴드페스티벌’로 시작해 지금은 ‘부평음악도시 축제 뮤직게더링’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화제를 모으고 있는 밴드음악 축제가 있으며, 노동운동과 민중음악의 맥을 이어가는 ‘술아술아음악제’가 있다. 이 세 가지 대형 이벤트를 통해 ‘음악도시 부평’이라는 브랜드를 구축해 가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부평을 대표하는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아갈 것이다.

둘째, 랜드마크, 핫플레이스가 부평에는 있는가. 현재 부평은 랜드마크라고 손꼽아 말할 수 있는 게 없지만, 2020년 10월 주민의 품으로 반환된 구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 터는 미래 부평의 랜드마크로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한편, ‘핫플레이스’란 젊은 층이 많이 모이고 새로운 문화를 발신하는 거리를 일컫는 말인데, 부평의 경우 오랫동안 공들인 ‘부평문화의거리’가 수도권에서 주목을 끄는 핫플레이스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셋째,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길거리가 구성되어 있는가. 도시에서의 중요한 관광 자원 중 하나는 바로 길거리의 조성이다. 부평구에서 오랫동안 공을 들인 ‘부평문화의거리’ 외에도, 평리단길과 최근에 등장한 청리단길 등이 있다. 이러한 길거리들은 과거 수도권의 최대의 점포를 보유했던 부평역 상권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것이고, 도시재생의 관점에서도 흥미롭다. 그 외에도 해물탕거리, 굴포떡거리타운 등이 소위 지역의 주된 먹거리를 테마로 한 길거리도 구성되어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넷째, 테마에 따라 지역 곳곳을 투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하는가. 이미 존재하는 관광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투어 프로그램의 설계로, 지역에 접재하는 관광자원을 하나의 테마로 해서 묶어주는 것이다. 현재까지 구청에서 개발한 투어 코스로는, 부평워킹역사투어, 골목길여행-쇼핑투어, 부평을 걷다-산책투어, 부평을 둘러보다-가족투어 등이 있다.

## 2. 부평의 관광 인프라

### 1) 축제와 이벤트

부평에는 ‘음악도시 부평’이라는 브랜드에 맞는 대형 이벤트가 3개 있다. 부평풍물대축제, 부평음악도시축제 뮤직게더링, 술아술아음악제가 그것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부러워할 수 있을 정도로 브랜드의 가치가 있다. 이 이벤트들은 일차적으로는 부평 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축제이지만, 지역의 소중한 관광자원이기도 하다.



❖ 제24회 부평풍물대축제(비대면) 포스터 (출처: 부평풍물대축제 공식 홈페이지)

### 2) 랜드마크 혹은 핫플레이스

랜드마크(landmark)란,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형이나 시설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주위의 경관 중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이 자연스럽게 랜드마크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정의한다.<sup>4</sup> 이 정의에 비추어 보면 지금 부평에는 뚜렷한 랜드마크가 없다. 각 지역들이 경쟁적으로 대형 건



❖ 반환된 미군기지 내 세워진 ‘CAMP MARKET’ 조형물 (출처: 부평구 문화재단 블로그)

물이나, 조형물을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최근 그러한 대형 건물이나 조형물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큰 편이다. 미래적인 도시 경관을 생각하면 비슷비슷한 상징물보다 부평만이 가진 걸 보존하고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미래의 부평의 랜드마크로는 2020년 10월부터 주민의 품으로 반환된 구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 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평의 근현대사만이 아니라 한국의 근현대사를 품은 지역이고, 한국 밴드, 클럽문화를 꽃피운 곳이기도 하다.

젊은 층이 많이 모이고 새로운 문화를 발신하는 거리를 소위 ‘핫플레이스(hot place)’이라고 한다. 부평의 경우, 오랫동안 공들인 ‘부평문화의거리’가 수도권의 핫플레이스 중 하나로 자리 잡아가는 것은 고무적이다. 인천 최고의 길거리 공연장이 있는 문화의 거리는 매주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해 공연 문화를 키워나가는 중이다. 또한 주변에는 수십 년 전통의 손뜨개질 골목과 수입 식료품, 인천 최대의 커튼 도매골목, 그리고 국내외 유명 의류 브랜드들이 있어 다양한 품목의 쇼핑이 가능하며, 더욱이 주말 프리마켓 등 여러 가지 테마 행사가 펼쳐진다.

4 두산백과(<https://www.doopedia.co.kr/>)를 참고하였다.

### 3) 길거리 조성

오랫동안 부평구에서 공을 들인 ‘부평문화의거리’ 외에도 점점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는 평리단길과 최근에 등장한 청리단길이 있다. 이름은 서울의 ‘경리단길’에서 차용한 것이지만, 젊은 층들이 낡은 노포들을 수리해서 개성이 있는 액세서리나 분위기 있는 카페, 디저트 전문점 등을 만들어 외지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소위 SNS의 입소문이 중요한 지금 시대에 맞는 길거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길거리들은 과거 수도권권의 최대의 점포를 보유했던 부평역 상권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것이라는 점에서 도시재생의 관점에서도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해물탕거리, 굴포떡거리타운 등이 소위 지역의 주된 먹거리를 테마로 한 길거리도 조성되어 있다.



❖ 최근 청년들의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평리단길(출처: 부평구청)



❖ 부평문화의거리 안내지도(출처: 부평구 홈페이지 관광 정보)

### 4) 투어 프로그램

현재까지 개발된 투어 코스로는, 부평위킹역사투어, 골목길여행-쇼핑투어, 부평을 걷다-산책투어, 부평을 둘러보다-가족투어 등이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부평위킹역사투어’는 부평지하호, 부영공원(캠프마켓), 부평공원 등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체험하는 코스이고, 둘째, ‘골목길여행-쇼핑투어’는 부평지하상가, 부평문화의거리, 부평종합시장 등 주로 시장을 탐방하는 코스이다. 셋째, ‘부평을 걷다-산책투어’는 두 개의 코스가 있는데, 인천나비공원·장수산산책로·원적상공원과 같은 나지막한 뒷동산을 한 바퀴 돌며 부평시가지의 전망하는 코스가 그 하나이고, 굴포천둘레길·기후변화체험관·굴포떡거리타운으로 이어지는 산책, 공부, 먹거리가 있는 코스가 나머지 하나이다.



❖ 부평 워킹역사투어 중 하나인 부평지하호 탐방(출처 : 부평구 홈페이지 관광 정보)

넷째, 부평을 둘러보다-가족투어는 부평역사박물관, 부평안전체험관, 기후변화체험관 등 아이들과 함께 만나질 정도 견학할 수 있는 코스로 짜여 있다. 도심 속에서의 여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걷는 것'인데, 최근 '걷기'가 한국 사회의 트렌드가 되면서 곳곳에 '~ 길'이라는 이름으로 도보 여행로, 산책로 등이 조성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며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길을 계속 가꾸어가는 것이다.



❖ 2021년 부평워킹투어 진행 모습(출처 : 부평문화원)

### ● 부평의 특성화 거리

#### - 부평문화의거리(부평문화로 80번길 6~7)

차 없는 거리에서 문화 행사와 공연이 이어지는 활기 넘치는 상점가로, 브랜드 의류·잡화·화장품·액세서리 등 쇼핑과 함께 다양한 맛집 탐방을 즐길 수 있고, 주말에는 프리마켓에서 각종 수공예품을 만나볼 수 있다. 최근 감성이 넘치는 카페와 커피숍이 들어서며 알려지기 시작한 평리단길에서의 여유로운 티타임은 문화의 거리에서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되고 있다.



❖ 부평문화의 거리에서 펼쳐진 음악 축제 프로그램 안내(출처 : 부평구문화재단 공식 블로그)

#### - 해물탕거리(부평문화로 97~116 일대 260m)

부평시장 로터리에서 부평문화로 일대에 해물탕집들이 밀집된 거리로, 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에서 공급되는 신선한 해물과 아재가 어우러져 진한 육수의 해물탕을 맛볼 수 있다.



### - 굴포먹거리타운

(주부토로 145~146번길, 장제로 249번길 일대 690m)

갈산동 굴포천 주변 약 698m를 굴포먹거리타운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은 부평구청, 여성문화회관, 북구도서관, 한국GM 등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인접해 있는 곳으로 값싸고 맛있는 50여 개소의 음식점이 옹기종기 모여 있으며, 근처 완공된 굴포천 생태하천이 있어 볼거리와 다양한 먹거리가 있어 일석이조의 기쁨이 기대된다.



❖ 2019년 굴포먹거리타운 문화콘서트 개최 모습(출처 : 부평구청)

### 3. 부평의 친선 교류

1995년 지자체가 출범한 후 각 시·도·구·군은 경제와 문화 등에서의 상호 발전을 목표로 국내외의 여러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 협약을 맺어오고 있다. 관계의 깊이 면에서는 자매도시가 우호 도시보다 한 단계 더 높다. 우호 도시를 맺은 후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활발히 교류하려는 목적으로 통상 자매도시 협정을 맺는다.

부평구의 경우, 2020년 현재 중국 라오닝성 후루다오시(葫芦岛市)와 자매도시를 맺었고, 그 외에 산둥성의 웨이하이시(威海市) 원딩구(文登區), 다롄시(大連市) 뤼순커우구(旅順口區), 몽골의 울란바토르시, 라오스의 우돔폰시, 미국 오리건주의 쟈슨카운티, 태국의 나콘파툼주 등과 우호 도시를 맺어오고 있다. 특히 1998년 이후 자매도시를 맺은 후루다오시와는 활발한 교류를 해 오고 있다. 2019년은 2월에는 후루다오시의 왕리웨이(王力威) 시장이 부평구를 방문했고, 7월에는 차준택 구청장이 후루다오시를 방문해 문화예술 교류 협정을 체결했으며, 부평의 부평풍물대축제, 후루다오시의 수영복축제 등 양 도시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한편, 2006년에 라오스의 우돔폰시를 방문해 4박 5일간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 2019년 중국 후루다오시 초청방문단 모습(출처: 부평구청)

그런데 한국의 자매도시 친선 교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매도시, 우호 도시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 실제적인 교류는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교류를 하는 경우도 관계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의 외유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부평구 역시 예외가 아니다.<sup>5</sup>

관광 교류에 명확히 타깃을 두거나, 음악도시 부평이라는 컨셉을 활용해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촉진하거나, 아니면 부평의 경제 단체와의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모색하거나, 보다 분명한 목적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현재 코로나19로 모든 대면 교류가 막혀 있지만, 온라인 비대면으로 다양한 친선 교류를 도모해도 좋을 것이다.

### 1) 해외 자매 우호 도시

표 54 부평구 해외 자매 우호 도시 현황

국가별	도시명	인구(면적)	도시 특성	기타
중국	랴오닝성 후루다오시	280만 명 (10,415km <sup>2</sup> )	지하자원 풍부 (천연자원 150억m <sup>3</sup> , 원유 1.8억 톤 매장) 금도항, 진도항 등 항만시설 발달	자매결연 협정서체결 단체장 상호 방문 공무원 상호 파견
	산둥성 웨이하이시 원딩구	67만 명 (1,645km <sup>2</sup> )	공업 및 농업발달 경제개발구 조성으로 100여 개 국과 경제교류	우호 교류 협정서 체결 상호 방문
	다롄시 뤼순커우구	21만 명 (500km <sup>2</sup> )	석회석, 규석 등 지하자원 풍부 항만시설 발달 안중근 의사가 육고를 치른 여순감옥 소재	우호 교류 협정서 체결 상호 방문
몽골	울란바토르시	87만 명 (779km <sup>2</sup> )	몽골의 수도 몽골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해발 1,300m의 고원에 위치	우호 교류 협정서 체결 상호 방문
라오스	우돔폰시	7.4만 명 (10,000km <sup>2</sup> )	교통의 요지 축산, 농업, 전통 직물 옛 프랑스군 주둔지	우호 교류 협정서 체결 상호 방문
미국	오리건주 잭슨카운티	20만 명 (7,213km <sup>2</sup> )	남부 오리건주 산업 중심지 (목재, 섬유, 항공발달)	우호 교류 협정서 체결 상호 방문
태국	나콘파툼주	10만 명 (19,850km <sup>2</sup> )	불교 문화의 중심지 역할 상업종사자 다수, 농축산업 발달 관광산업 시설 우수	우호 교류 협정서 체결 상호 방문

❖ 출처 : 부평구청 홈페이지

5 「인천 부평구 해외 자매도시 6곳, 수년째 교류실적 '0」, 『중부일보』, 2014년 7월 18일 자; 「인천 기초단체 해외도시 교류 협약, 그걸로 끝」, 『기호일보』, 2018년 12월 25일자.

### 2) 전국 네트워크 자매도시

표 55 부평 지역 전국 네트워크 자매도시 현황

(2019년 기준, 단위: 명·km <sup>2</sup> )			
도시명	인구수	면적	지역 특성
인천 부평구	522,310	32.00	인천 동부 원도심의 교통의 요충지이며, 첨단 산업과 유통, 서비스 산업 발달
대구 남구	150,216	17.44	대구 중앙에 위치하며 구릉지로 되어 있어 농경지가 많음
광주 북구	439,895	120.30	광주의 관문, 가사문학 유적지, 5.18묘역 소재
대전 유성구	349,803	176.37	천혜의 라뎀 온천의 국제 관광지 및 중부권 최고의 교육도시
울산 북구	208,378	157.33	현대자동차 등 공업 발달, 복합적 도시 기능
강원 평창군	42,550	1,464.83	산간 고랭지 농업 및 레저 관광 산업 발달
충북 충주시	210,662	983.58	중원 문화의 중심지, 수자원 등 천혜의 관광지 자원 풍부
충남 금산군	53,092	577.14	서대산, 진악산, 칠백의총 등 문화 관광의 도시
경북 군위군	23,766	614.23	삼존석굴, 장곡자연휴양림 등 관광 문화 자원 풍부
경남 고성군	53,198	517.69	소가야 도읍지로서 전통 문화와 관광 자원 풍부
전북 무주군	24,558	631.90	국토 최종심 산간지, 사계절 종합 휴양지
전남 완도군	51,406	396.41	다도해 중심지로 천혜의 관광 자원과 풍부한 수자원 보유
제주 서귀포시	181,216	870.73	국제적인 관광지, 감귤주 산지 등 1차산업 중심의 국토 최남단 도시

❖ 출처 : 부평구청 홈페이지

### 3) 자매결연 도시

표 56 부평 지역 자매결연 도시 현황

(2019년 기준, 단위: 명·km <sup>2</sup> )			
도시명	인구수	면적	지역 특성
강원 홍천군	69,822	1,819.83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이며 무궁화의 고장, 체류형 글로벌 레포츠 중심의 청정 자원 휴양 도시
전남 함평군	33,339	392.13	한반도 서남단 서남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관문이며, 멸종위기종이 집단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

❖ 출처 : 부평구청 홈페이지

표 57 부평 지역 관광 사업체 현황

(2018.12.31. 기준, 단위: 개)							
합계	관광여행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무도학원	무도장	수영장
428	169	130	75	48	4	1	1



## 참고 문헌



### 단행본

-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1·2,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구정백서』, 2019.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년 구정현황, 부평지역을 기록하다』, 2019.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

### 신문

『기호일보』

### 기타

- 인천교육연구소, 『동아시아시민 양성을 위한 인천형 교육정책 개발』, 2019.  
 인천교육연구소, 『인천 마을교육공동체 발전 방안 연구』, 2019.  
 인천교육연구소, 『인천교육균형발전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및 개선 방안』, 2019.

### 웹사이트

- 두산백과(<https://www.doopedia.co.kr/>)  
 부평구문화재단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bupyeong\\_art](https://blog.naver.com/bupyeong_art))  
 인천광역시 교육청(<http://www.ice.go.kr/>)  
 인천광역시 부평구청(<https://www.icbp.go.kr/>)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https://www.icbp.go.kr/main/>)  
 인천광역시 부평구 여성센터(<https://www.icbp.go.kr/woman/>)  
 인천광역시 부평구 복지포털(<https://www.icbp.go.kr/welfare/>)





# 제 5 장 — 시민 참여와 문화 활동

제1절 \_ 시민운동

제2절 \_ 생활체육 활동과 시민 활동(자원봉사 활동)

제3절 \_ 문화예술 인프라

제4절 \_ 문화예술 행사



# 제5장 시민 참여와 문화 활동



김종구(ARGO인문사회연구소 연구원)

## | 제1절 | 시민운동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시민운동 기점은 1987년이다. 1987년은 오랜 독재정권을 종식시킨 해였으며, 비로소 한국 사회가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 해이기도 했다. ‘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화운동이나 ‘독점자본에 맞서는’ 노동운동과 같은 이른바 ‘큰 운동’들은 1987년을 기점으로 시민들의 자잘한 일상을 구성하는 문제들과 본격적으로 씨름하게 된다. 그렇게 탄생한 시민운동은 환경운동, 여성운동, 교육운동(청소년 운동 및 학부모운동을 포함)을 시작으로, 소비자운동, 인권운동, 소수자운동 등으로 분화되며 발전해 나간다. 여기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오랜 독재정권으로 인해 시민들의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곧바로 수렴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의 부재로, 한국의 시민사회는 준정치적인 역할을 떠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이 유럽이나 일본의 NGO, NPO 등의 시민단체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 당시 시민운동은 정치권 밖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치화시키는 또 다른 창구였던 셈이다.

인천 지역의 시민운동 역시 이러한 큰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항구도시, 근대 산업

화, 공업화의 중심이라는 지리공간적 특성상 인천은 한국의 시민운동 중심에서 의제를 설정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부터 노동조합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답게 민주화운동이나 시민운동 역시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 갔다. 19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된 사건으로 평가받는 1986년 5·3민주항쟁이 바로 인천에서 일어났다. 5·3민주항쟁은 재야 민주세력이나 학생운동이 결합하기는 했지만,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항쟁이었다. 그래서 당시 최대 이슈였던 ‘대통령 직선제’의 성취에만 만족할 수 없었다. 인천의 노동자들과 민중들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바라며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고자 변혁 운동을 일으킨 것이다.

### 1. 인천 지역의 시민운동

#### 1) 환경운동

인천 지역은 무엇보다 한국 환경운동의 중심이었다. 1980년 초부터 공장들이 배출하는 오염수나 매연들, 그리고 난개발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다. 공장지대가 즐비했고, 수도권 난개발의 표적이었던 인천은 자연스럽게 환경, 녹색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1993년 영종도 신공항 건설 반대운동, 1995년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반대운동, 시화호 방류 반대운동, 1999년 영종도 갯벌 매립반대운동, 부평미군기지 이전 운동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운동들은 환경에 대한 인식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들의 ‘땅’과 ‘역사’에 대해 자각하는 계기를 가져다주었다. 즉, 주민들은 이때부터 비로소 ‘지역’을 생각하게 되고, 지역의 색깔이나 특색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들은 ‘지방자치’와 더불어 시작된 다양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의 뿌리를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환경운동은 협의의 환경에 머물지 않고 마을, 공동체, 우리의 삶을 살리는 운동으로 조금씩 그 의미를 넓혀 나간 것이다.

## 2) 교육운동

교육운동에 있어서도 인천 지역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퇴진하고 민주화의 바람이 불던 1960년 전국적으로 교원노조가 세워졌고 인천 지역에도 교원노조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5·16 군사 쿠데타로 30년 가까이 교사들은 자율성을 빼앗긴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고, 학교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공간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30년 가까이 이어지던 침묵을 깨고 1987년, 교사들과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민주화와 인간화를 외치며 학교를 바꾸려는 개혁에 나서게 된다. 1987년 9월 25일 민주교육추진 인천지역교사협의회(약칭 인교협)가 결성되는데 나중에 전국교직원노조 인천지부(1989년 6월 10일 결성)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단위 학교의 평교사협의회(약칭 평교협)도 결성되는데, 산곡동에 위치한 세일고등학교에서 1987년 9월 인천 지역에서는 최초로 평교사협의회가 창립되었다. 이후 세일고의 학생들은 전교조 가입 교사의 해직을 계기로 학내 민주화 투쟁을 장기간 벌여 나가게 된다.

평교협 결성의 의미는 실로 컸다. 평교협은 노동자로서의 교사들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물론, 학교 안의 다양한 비리와 부정에 대해 대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구심점이 되어 갔다. 특히 사립학교들의 비리와 부정, 족벌경영, 반민주성은 심각한 상황이었다. 평교협의 문제 제기와 더불어 성헌고등학교(현 인제고등학교), 대경여상(폐교), 명신여고 등에서 대대적인 사학 민주화 투쟁이 벌어진다. 이러한 사학 민주화 운동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참여하면서, 이후 청소년운동과 학부모운동(1989년 9월 22일 참교육 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의 창립)으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

교육운동과 관련해 인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선인학원 사태였다. 선인학원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모두 16개 학교를 거느린 인천 지역의 대표적인 사학이었다. 당시 재학생 3만 6,400명, 교직원 1,200명에 달했다. 학교를 병영식으로 운영하는가 하면, 학교 시설은 낙후됐고 교사들의 이동도 잦아 교육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선인학원에 속한 교원들로 시작된 범선인학원 정상화 운동이 1992년에는 ‘선인학원 사태를 우려하는 인천 시민모임’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1993년 6월 백인엽 이사장이 최기선 당시 인천 시장에게 재단 권한 일체를 넘김으로써 사태가 수습되고 선인학원 소속의 학교들은 공립학교로 전환되었다. 인천대학교 역시 이때부터 시립대학이 되었다. 교원들과 시민들의 오래된 운동의 결과,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찾았으며, 지역 교육이 온전히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인천 지역의 교육운동에서 특기할 한 가지는 바로 1999년의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인현동 화재)이다. 인근의 중고등학생들 56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로, 학교와 집 이외에 당시 청소년들이 갈 만한 놀이공간, 문화시설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사고 장소 인근에 인천학생문화회관이 지어졌다. 그러나 추모 공간, 기억의 장소를 만드는 작업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사고 20주년을 기념해 시민들의 추모 모임이 결성되어 당시의 건물을 ‘기억의 공간’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2014년의 세월호 사건 이후, 교육 운동이 어떻게 발전해 나아가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sup>1</sup>

## 3) 빈민운동

‘넓은 공장 지역’과 이어지는 ‘재개발’은 고도 경제성장 시대에서 소비 사회로 나아가면서 주변부 도시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한국에서 그 대표적인 주변부 도시가 바로 인천 지역이었고, 주변부 도시 속의 하층 빈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빈민운동이 활발했던 지역도 바로 인천 지역이었다. 1980년대 초 인천 도시산업선교회가 중심이 되어 빈민 운동을 벌여왔는데, 운동의 전환점을 가져온 것은 1984년 여성평우회가 만석동에 세운 큰물공부방이다. 이후 송림동 사랑방교회, 송현동 산마루교회, 십정동 해남방(부평구 십정2동 442-5번지 해남공부방), 만석동 기차길옆공부방<sup>2</sup>, 송현샘교회 공부방, 청천동 햇살의집(부평구 산청로 121-1번지 햇살어린이집), 송림동 나눔의 집이 세워진다. 이러한 거점 지역의 ‘지역센터’들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일깨우고, 무료 노동 상담을 해 주는가 하면, 맞벌이 노동자 부부를 위한 탁아소와 공부방도 운영해 왔다. 그리고 그 역사가 이어져 지역 아동센터가 되었고 한국 사회의 ‘저소득층 아동 복지’의 뿌리를 만들게 된다. 이것으로 빈민 운동이 자연스럽게 주민 운동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전교조인천지부, 『인천교육노동운동사』1, 다인아트, 2006.

2 김중미가 쓴 『괘이부리말 아이들』(창비, 2001)의 무대이다.



◆ 1994년 11월 1일 제3기 열우물 여성교실 수업 모습(출처: 부평역사박물관)

1978년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나 1986년 부천 성고문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인천 지역은 여성운동에서도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1989년에 세워진 ‘일하는 여성의 나눔의 집’은 일하는 여성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3교대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 한국 최초로 24시간 탁아소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운동은 인천YWCA 등이 오랫동안 해왔던 이른바 중산층 여성들의 봉사활동에 기초한 여성운동과는 결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이후 1990년대 중후반부터 ‘여성노동자’에서 일반적인 ‘여성 문제’를 아우르는 운동으로 분화, 발전해 간다. 인천여성의전화, 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등이 탄생했다. 2019년에는 이주여성의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해결하고자 ‘인천이주여성센터 살러온’이 설립되었다.

#### 4) 문화운동

한국 사회에서 문화운동은 독립된 운동이라기보다는 노동운동이나 사회변혁 운동을 뒷받침하는 성격이 강했다. 1980년대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하던 이들이 활동의 일환으로 노래패나 연극패, 미술패 등을 조직한 것이 그 시초였고 그 후 점점 전문적으로 되어 갔다. 1980년대에 인천에 최초로 결성된 전문 놀이패 한광대, 1988년에 조직된 노래패 산하, 1987년에 조직된 미술패 개꽃, 1987년 노동자들의 문화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

해 각종 문화프로그램(풍물반, 노래반, 기타반)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일손나눔, 1988년 문화운동 단체의 협의체 성격을 띤 우리문화사랑회가 결성되었다. 이러한 문화운동이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된 것은, 1988년 인천민중문화운동연합의 탄생에 있다. 이를 계기로 분과활동은 더욱 활발해졌으며, 문화운동의 목적과 이념을 둘러싼 내부에서의 치열한 논쟁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기념비적인 대형 이벤트들도 많이 개최되었는데, 가령 노동자들과 함께 공장에 큰 벽화(한독금속의 벽화)나 걸개그림(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의 그림)을 그리고, 「파업전야」와 같은 독립영화를 상영하거나, 노래 분과 산하, 풍물 분과 한광대, 풍물패 한누리가 연합하여 「우리는 전진이다」(1992)라는 공연을 개최하였다. 이 중에서 특히 노래패 산하가 전국적으로 유명하였으며, 음반을 지속적으로 발매하였다. 그러다가 인천의 문화운동은 1992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그 힘을 잃게 되었다. 그 이유는 문화운동이 노동운동에 조직적으로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노래, 기타, 풍물 등의 강습이 활동의 중심이 되어버려, 예술적 형상화에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다. 활활 타오르던 문화운동의 명맥은 1994년에 결성된 인천민예총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른다. 한편, 소비사회로 들어가면서 ‘문화’는 시민들 누구나 일상적으로 향유하는 것이 되었지만, 한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일상과는 무관하게 개인들이 돈을 내고 소비하거나 혹은 거대 기업이나 지자체가 벌이는 대형 행사나 이벤트에 머물렀다. 말하자면 문화예술의 공공성이 결핍되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최근 지자체들이 각종 문화재단, 역사박물관, 공연시설 등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그 지역에 문화예술을 선보이려는 것은 1980년대, 1990년대의 문화운동이 남긴 유산인지도 모르겠다.<sup>3</sup>

3 인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사』, 도서출판 선인, 2019.

## 2. 부평의 시민운동

앞에서 인천 지역의 사회운동의 대략을 소개했다면, 여기에서는 계양산 살리기 운동, 굴포천 살리기 운동, 부평 미군부대 반환 운동 등을 중심으로 부평 지역의 주요 시민 운동을 정리해 본다.

### 1) 계양산 살리기 운동

부평의 시민운동이 결집된 사건을 하나 꼽으라면 아마도 계양산 살리기 운동일 것이다. 이 운동은 환경운동을 넘어, 부평이라는 삶의 자리에 대해 주민들이 정체성을 획득해 가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 계양산 살리기 시민운동(출처: 『부평사』2, 216쪽에서 재인용)

1991년 (주)대양개발이 계양산을 위락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계양산 살리기 운동은 시작되었다. 여기에 지역 인사들이 나서서 계양산 개발에 대한 위기 의식을 공유하며 적극 저지 운동에 나섰다. 아울러 불교(조계종의 지선사)와 천주교(인접 수도원, 수녀원)도 참여하였다. 당시 시민들의 우려는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으로 인

한 생태계 파괴’, ‘개발 지구 내의 교통량 증가’, ‘산봉우리의 절토로 인한 서해안 공단 지대로부터의 매연 차단 기능 상실’ 등이었다.

이후 계양산 살리기 범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 건설부·환경처·문화부·인천시에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알려 나가면서 공청회 개최 등을 제안하였다. 지역 주민들의 호응과 환경파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 운동이 시작된 후 2년이 지난 1993년 인천시는 개발 계획을 반려했다. 이 계양산 살리기 운동은 인천 지역 시민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 운동으로 시민들은 생태와 녹지공간에 대한 관심은 물론, 산과 개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굴포천 살리기 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계양산을 둘러싼 싸움은 제2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2006년 롯데가 계양산 일대에 골프장을 비롯해 어린이 놀이터와 X-게임장, 문화마당 등을 설치하는 개발 사업안을 발표한 것이다. 계양산 골프장 건설 계획이 알려지면서 계양산을 살리기 위해 인천시 시민단체가 다시 뭉쳤고, 당시 인천녹색연합의 신청은 사무국장이 소나무 위에서의 56일간 농성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2006년 12월 인천시가 롯데건설에서 추진하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 도시계획안 상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듬해인 2007년에는 ‘계양산 땅 한 평 갖기 운동’ 등으로 이어졌다. 이른바 민관협력형 트러스트 운동<sup>4</sup>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 계양산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도시계획이 인천시에서 통과되었다. 그러자 시민들은 다시 일어섰고 3년 뒤 환경파괴를 우려해 건설 계획은 철회되었다. 롯데건설은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그렇게 시작된 길고 긴 법정 다툼이 끝난 건 2018년 10월이었다. 롯데건설의 골프장 계획은 전면 철회된 것이다.<sup>5</sup>

### 2) 굴포천 살리기 운동

2000년부터 인천환경운동연합 내에서 굴포천 관련 토론을 하면서 굴포천 살리기 시민모임이 생겨났다. 2001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해 정식으로 창립한 이 모임은

4 기증·매입 등을 통해 보존 가치가 있는 자연이나 역사적 건조물을 보전·관리하는 운동.

5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1, 2007, 636쪽; 『부평사』2, 2007, 215쪽; 『기획연재-계양산골프장,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인천투데이』, 2007년 9월 13일자.

부평 지역에서 환경 문제와 씨름하기 위해 조직된 첫 번째 단체다. 굴포천은 부평구 갑산동에서 발원하여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을 지나 한강으로 합류하는 하천이다. 부평미군기지 옆과 부평구청, 삼산동 등 부평의 심장을 통과하는 부평의 젓줄과도 같은 개천이다.



❖ 2001년 굴포천살리기시민모임창립총회(출처 : 부평구청)

길이가 23.82km, 유역면적 133.8km<sup>2</sup>로 인천에서 가장 긴 하천이기도 하다. 부평의 공업화와 함께 공장폐수와 생활하수로 오염되고 공장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물줄기가 마르는 이른바 건천화가 진행되어 하천의 기능이 상실된 것은 물론, 물에서는 독극물 성분까지 검출되고 심한 악취까지 풍기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인천가족공원 입구부터 부평구청 앞까지는 이미 복개 공사까지 해버리고 그 위에는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버린 터였다. 굴포천을 살리기 위해 시민모임은 우선 굴포천 조사 활동을 벌였다. 학계와 환경 전문가들이 결합하면서 대대적인 조사가 있었고, 이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수질 조사에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 주민들의 관심을 모아 나갔다. 2003년에는 인천지역 환경기술 개발 센터와 굴포천 실태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굴포천 유역 특성 및 실태조사 보고서」를 펴냈다.

둘째로, 시민모임이 한 일은 굴포천을 청소하는 일이었다. 매월 지역 주민과 단체, 학생들과 함께 굴포천과 농수로를 깨끗이 청소했다. 셋째로, ‘굴포천을 살립시다’라는 주

제로 거리 홍보 활동과 시민 서명운동을 벌여나갔다. 더불어 음악회나 낚시대회, 정월 대보름행사와 같은 문화행사를 여는가 하면, SBS·iTV 등의 방송사에서 굴포천 살리기 시민운동을 취재해 방영하는 성과도 만들어냈다. 서명운동의 결과는 인천시에 전달하여 인천하천 살리기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 2001년 굴포천 정비 공공근로활동(출처 : 부평구청)

요구했으며, 인천시와 부평구에 ‘굴포천 정화대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끝으로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학생들 체험 프로그램의 장으로 개최, 생태하천 견학 프로그램, 하천 생태 학교, 생태하천 투어와 같은 캠프를 만들어 굴포천이라는 개천이 가진 의미를 미래 세대에게 알리는 활동을 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06년부터 굴포천 정비 공사가 시작되었다. 부평구청부터 부천시 경계까지 굴포천 6.6km 구간의 바닥을 준설했고, 복개 구간의 오수를 한강 물을 끌어와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정화해서 2008년 10월에 정비 공사가 완료되었다. 그렇게 해서 굴포천은 수생식물이 자라고, 민물고기들이 헤엄치며, 때가 되면 청둥오리가 찾아오는 자연 하천으로 돌아왔다. 지금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생태하천, 공원으로 탈바꿈해 있다.<sup>6</sup>



❖ 천둥 오리떼들이 다시 돌아온 굴포천의 봄날(출처 : 부평구청 공식홈페이지 부평공감)

### 3) 부평 미군부대 반환운동

부평 미군부대는 일제강점기 말기 한반도 내 최대 군수기지였던 인천육군조병창이 있던 자리에 6·25전쟁 직후 미군이 캠프 마켓, 캠프 그랜트, 캠프 애덤스, 캠프 해리슨

6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2, 2007, 228쪽; 「굴포천 환경축제, 도시공간과 세대를 잇다」, 『인천투데이』, 2019년 9월 21일자.



❖ 2002년, 미군부대 이전을 위한 시민 건강걷기대회(출처: 『부평사』1, 645쪽에서 재인용)

등 7개 부대를 건설하면서 자리 잡았다. 1973년 캠프 마켓만 남기고 다른 부대들은 여타 지역으로 옮겨갔지만, 여전히 산곡동 일대 59만㎡라는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96년부터 부평 미군기지에 대한 반환 운동이 시작되었다. 당시 인천·부천 지구 총학생연합 대학생들이 인천시민통일대회 행사 때 부평미군기지 반환을 촉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운동은 시작되었다. 이후, ‘우리땅 부평미군부대 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이하 인천시민회의)가 발족하며 본격적으로 반환 운동이 전개되었다. 10만 인 서명 운동, 캠프 마켓 온 돌레를 시민들이 둘러싸는 인간 띠 잇기 행사<sup>7</sup>, 공청회, 천막 집회<sup>8</sup> 등으로 이어지면서 미군부대 반환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갔다. 특히 미군부대 인근의 부평동과 산곡동 주민들을 설득해 나갔고, 주민들이 반환 운동에 힘을 보탰다. 결과, 2002년 3월 29일 인천시는 “연합토지관리계획 후속 협상에서 부평 미군기지가 반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발표하기에 이른다.

7 2001년에는 3,000명이 참가해 장관을 이루었다.

8 2000년에 시작된 릴레이 단식과 천막 농성은 반환 결정이 내려지던 2002년까지 674일 이어졌다.

인천시민연대와 함께 미군부대 반환운동을 이끈 또 하나의 시민단체로 ‘부평미군기지 공원화추진협의회’(이하 공추협)가 있다. 공추협은 1997년 부평시민모임, 부평청년회의소, 인천지역 감리교 목회자 협의회, 부평사랑회, 산곡·부평동주민대책위원회, 부평시장농산물상인연합회 등 6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발족했다.

인천시민회의와 공추협이라는 두 단체가 존재한 것은 미군부대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이었다. 인천시민회의는 주한미군을 궁극적으로 철수 대상으로 보고, 운동 과정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내세웠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미군부대 문제를 또 다른 지역으로 전이시킨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에 반해 공추협은 정치적인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동이 전개되길 바랐다. 이후 공추협은 ‘미군부대 이전을 위한 시민 건강 걷기 대회’ 같은 더욱 많은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가지는가 하면, 국회의원 선거나 지자체, 지방의회 선거 때에는 후보자들에게 정책 공약화를 요구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비교적 제도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렇듯 두 단체가 존재했다는 건, 1990년대 중후반부터 시민운동이 분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하나의 표식일 것이고, 집회와 시위 같은 방식뿐만 아니라, 제도의 틀 안에서 합리적으로 시민들의 요구를 모아낼 수 있을 만큼 부평의 시민사회가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2년 반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미군부대가 지역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데는 18년이라는 기간이 더 필요했다. 2008년부터 미군이 이전을 시작했으나, 반환된 토지의 정화와 활용에 대해서는 긴 논의가 필요했다. 2020년 10월 24일 캠프 마켓은 81년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현재 캠프마켓 A구역은 토양 정화 작업이 한창이고, B구역도 곧 오염 정화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기지 내 건물 중에는 남아 있는 일제 조병창은 수탈과 아픔을 상징하는 역사로 기억하고 남겨질 것이다. 미군기지 반환 비용과 오염 정화 비용을 둘러싼 논의가 남아 있고, 아직도 이전하지 못한 미군의 빵 공장 이전 문제가 남아 있으며, 반환된 부지의 활용 문제도 남아 있어서 여전히 시민운동은 진행 중이다.<sup>9</sup>

9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1, 2007, 642~648쪽; 『부평미군기지 반환 이끈 ‘인천시민’ 5대 과제 제안』, 『인천투데이』, 2020년 10월 26일자.

#### 4) 그 외 시민 활동

1990년대 시민운동의 특징 중 하나를 꼽으라면, 권력이나 행정기구에 대한 감시의 역할이었다. 아직 부평구가 생기기 전인 1994년 북구청에서 일어난 ‘세무 비리 사건’이 이러한 역할을 발휘한 대표적인 사례였다. 당시 북구청 세무과의 몇몇 공무원들이 가짜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금의 일부를 착복하는 비리를 저질렀다. 그 후에도 감사계장이 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조직적인 비리가 계속해서 밝혀졌다. 이에 부평 지역의 시민사회는 인천의 경실련과 함께 이 사건에 공동 대처해 갔다. 봐주기 식의 감사와 안일한 수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임을 당국에 요청함과 동시에 이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공직 사회 개혁에 나서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평의 시민 사회는 지역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로 시민운동의 방향성을 정립해 나간다.

21세기적인 시민운동과 활동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 중 하나로 ‘부평의제21’이 있다. 원래 ‘의제21’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에서 각국의 정부와 NGO대표들이 참석해 지구의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고 그 성과로 나온 것인데, ‘환경문제’와 ‘개발’이라는 서로 충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기업, 그리고 행정이 함께 모여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평구에서도 2004년 6월 시민단체, 종교단체, 기업인, 전문가 등이 모여 지속가능한 개발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부평의제21을 작성했고, 2005년 11월에는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듬해인 2006년에는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실도 마련되었다. 지금은 굴포와자연분과위원회, 경제사회분과위원회, 도시환경분과위원회, 문화와복지분과위원회, 마을자치분과위원회 등 5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21세기에 맞는 부평의 의제(특히, 전통 마을 공동체의 계승, 생태 환경 조성,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등이 주목)를 제안, 실천하고 있다.<sup>10</sup>

10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2, 2007, 232~235쪽;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홈페이지.

#### 3. 현재진행 중의 부평 시민운동과 시민 활동

1987년을 전후로 시작된 한국 시민운동의 지금 모습은 어떨까. 최근 『인천투데이』가 인천문화재단과의 공동기획으로 다루고 있는 「인천 시민문화활동 현장을 찾아서」 시리즈는 2020년 현재의 시민운동 및 활동의 다양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와 활동이 있는 즐거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삶을 잇는 다양한 실천들, 미래 세대의 결합 등이 지금 시대의 시민운동, 시민 활동에 침투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동인천탐험단이라는 모임은 재개발로 사라져 가거나 점점 기억이 흐릿해져 가는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2019년에는 신흥동의 일곱 주택의 역사를 기록·정리했고, 2020년에는 부평구 산곡동 영단주택의 역사를 기록하려고 한다. 영단주택은 1941년 일제가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연립주택인데, 산곡동 소재 인천육군조병창의 노동자들의 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광복 후에는 부평미군기지 관련 종사자들이 머물렀고, 이후 부평수출공단이나 한국베어링, 대우자동차



❖ 보존과 개발 사이의 갈림길에 선 산곡동 영단주택. 주택을 따라 걷다 보면 백마극장, 봉다방, 경춘철물, 정아식당 등 부평의 역사와 추억, 삶이 깃든 장소들이 자리하고 있다. (출처: 『부평사람들』, 2015년 11월호, 부평구청 공식 블로그 부평공감에서 재인용)

등 공장 노동자들이 살았다. 말하자면,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들의 활동에서 주목할 점은 이제 시민들의 활동이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까지 넓혀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굴포천 환경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단체로 청소년놀이마당 갈산나빌레(주부토로 275, 갈산동)와 청천극장(마장로 473번길 7, 청천동)이 있다. 이 두 공간은 동네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인데, 주로 밴드음악을 한다. 놀 곳이 마땅치 않은 청소년들을 위해 만든 공간이다. 두 공간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지금 각각 30명 정도로 6~7월 자체 콘서트와 11월 정기공연을 한다. 오염물질로 가득했던 굴포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온 의미를 지금의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려는 게 축제의 목적이다. 그러자면 역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축제여야 하고, 지역의 자발적인 문화 공간이 기획을 담당하는 게 자연스럽다.

### 제2절 | 생활체육 활동과 시민 활동(자원봉사 활동)

이 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생활체육 인프라와 구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다루는 전반부와, 시민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다루는 후반부이다. 최근 웰빙, 워라벨, 율로 등의 말이 유행하는 것처럼 개인들의 건강과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는 점점 커지고 있고, 지자체를 비롯해 지역의 각종 민간 단체들은 이러한 지역민들의 욕구를 담아내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을 정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 이유는 건강과 문화에 대한 욕구는 반드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각종 정책이나 행사 속에 두 가지 요소가 섞여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건강에 대한 욕구와 관련한 생활체육 인프라와 구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은 본 절에서 다루고,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와 관련된 문화 인프라와 문화예술 행사는 각각 4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1절에서 다룬 시민운동과는 다른, 각종 자원봉사 활동을 ‘시민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후반부에서 다루려고 한다.

먼저, 생활체육 인프라를 살펴보자. 10년 전, 15년 전과 비교하면 부평구의 생활체육 인프라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다. 가장 큰 발전은 삼산월드체육관과 부평국민체육센터, 부평구다목적체육관, 북부교육문화센터와 같은 큰 시설들이 생겨남에 따라 생활체육 인프라가 부평구의 규모에 맞는 면모를 갖추었다는 점이다. 또한 부평 남부권의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부평남부체육센터의 건립을 서두르고 있는 점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센터들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체육과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메시지 발신지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10월에 개장한 삼산월드체육관은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의 홈경기장으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생활체육,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축구장, 수영장, 헬스장 등 부대 시설 또한 충실히 갖추고 있어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부평구의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 한편, 부평국민체육센터의 경우 당시 부평구의 열악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으로서, 수영장·헬스장 등 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높은 생활스포츠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6년에는 부평구 다목적 체육관이 세워졌는데, 일반 구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노인 등 평소 운동을 하기 힘든 계층을 위한 복지적인 기능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18년에는 북부교육문화센터가 세워졌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문화 공연은 물론, 수영장과 단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구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탁구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근린공원도 58개에 달하며, 민간이 운영하는 체육 관련 시설까지 감안하면 적어도 인프라의 면에서는 부평구에 알맞은 규모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 1. 생활체육 활동

### 1) 한눈에 보는 생활체육 인프라<sup>11)</sup>

#### (1) 공공 체육시설

(단위: 개수·면수)

합계	배드민턴장	축구장	수영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19/41	5/6	5/5	25/27	12/14	14/28
92/175	테니스장	X-게임장	탁구장	체육관	스쿼시	야구장
	6/35	1/1	1/5	2/2	1/10	1/1

❖ 비고: 동네 체육시설(간이 운동시설) 포함.

#### (2) 체육공원

공원명	위치	주요 시설
희망체육공원	경인로 842(부평동)	배드민턴장, 족구장, 조깅트랙, 농구장, 게이트볼장
원적산체육공원	산곡동 179-140	농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테니스장, 조깅트랙
삼산유수지체육공원	체육관로 161(삼산동)	축구장, 농구장, 야외무대, 족구장, 배드민턴장, 조깅트랙

#### (3) 생활체육 동호회

(단위: 개·명)

종목 수	클럽 수	동호인 수
32	446	26,304

#### (4) 체육 시설업

(단위: 개소)

합계	당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수영장
428	169	130	75	48	4	1	1

11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9 구정현황, 부평 지역을 기록하다』, 2019, 31쪽.

## 2) 구체적인 체육시설 안내

### (1) 삼산월드체육관(부평구 체육관로 60)



<b>기본 현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 면적: 50,020㎡</li> <li>- 건축 규모: 지상3층, 지하2층</li> <li>- 관람석: 7,140석(고정석: 4,514석, 가변석: 2,626석)</li> <li>- 주차 대수(545대): 지하 503대(장애인 17대, 전기차전용 2대 포함), 지상 42대(장애인 4대, 버스 5대 포함)</li> <li>- 운영 관리: 인천시설관리공단</li> <li>- 주요 용도: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li> </ul>
<b>시설 현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3층: 관람석, 레스토랑, 스카이박스</li> <li>- 지상2층: VIP석, 임원석, 콘코스, 관람객 편의시설</li> <li>- 지상1층: 주경기장, 경기운영시설, 방송보도실, 컨벤션 센터</li> <li>- 지하1층: 보조경기장, 생활체육시설, 주차장</li> <li>- 지하2층: 보조경기장, 기계전기실, 주차장</li> </ul>
<b>시설 안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경기장: 7,140석을 갖춘 주경기장은 2,913㎡에 이르는 체조경기장 규격으로 농구와 배구를 비롯해 14개 종목의 국제 경기와 콘서트 등 각종 문화행사를 치를 수 있는 인천을 대표하는 시설이다.</li> <li>- 보조 경기장: 602석의 규모로 1,042㎡의 핸드볼 경기장 규격으로 핸드볼 국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것은 물론 인천 전자랜드 남자프로농구단 선수들의 연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클럽 스포츠를 운영하고 있다.</li> <li>- 인조잔디 축구장: 7175㎡의 인조잔디 축구장은 프로 경기 규격으로 축구 동호인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고 조깅트랙이 함께 마련되어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열린 공간이다.</li> <li>- 생활체육 시설: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이 마련되어 있다. 수영장은 955㎡ 규모로 5m 레인 6개와 유아용 12m, 그리고 4개의 온탕과 사우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헬스장은 인천 최대의 규모인 600㎡로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li> </ul>
<b>스포츠센터 (생활체육)</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영장: 수영 강습, 아쿠아로빅, 아쿠아워킹&amp;조깅, 자유수영</li> <li>- 헬스장: 헬스(전문 지도자의 체계적인 지도), 헬스GX(파워스트레칭, 복근 트레이닝)</li> <li>- 휘트니스: 에어로빅, फै저사이즈(어린이, 성인), 방송 댄스, 다이어트 댄스, 밸리댄스, 피규어로빅스, 줌바, 필라테스, 요가, 파워 요가, 테라피 요가, 발레핏, 다이어트 요가, SNPE 바른자세 척추 교정 운동, 발레, 점핑 피트니스, 뮤직 복싱</li> <li>- 인조 잔디구장: 축구교실(어린이, 청소년, 성인)</li> <li>- 탁구장: 탁구교실</li> <li>- 그 외: 플룻교실, 노래교실</li> </ul>

(2) 부평국민체육센터(부평구 부평대로 296번길 37(갈산동))



<b>기본 현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규모 : 지하1층~지상2층</li> <li>- 건축 면적 : 1,291㎡, 연면적 2,204㎡</li> <li>- 운영 관리 : 부평구시설관리공단</li> <li>- 주요 용도 :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li> </ul>
<b>시설 현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1층 : 수영장(25m*6레인), 유아풀, 온열실, 스파탕, 기포탕, 샤워실, 화장실, 의무실, 실버 카페(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li> <li>- 지상2층 : 헬스장, 체력단련장, 사무실</li> </ul>
<b>프로그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영장 : 수영 강습, 장애아동 수영 강습, 아쿠아로빅 강습, 자유 수영</li> <li>- 헬스장 : 헬스(성인, 청소년을 대상, 초중고급 단계별 체계적 지도)</li> </ul>

(3) 부평구다목적체육관(부평구 부평대로296번길 33(갈산동))



<b>기본 현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규모 : 지상2층</li> <li>- 연면적 : 1,811.77㎡</li> <li>- 운영 관리 : 부평구시설관리공단</li> <li>- 주요 용도 :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li> </ul>
<b>시설 현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목적체육관(2층) : 다목적 강당(농구, 배드민턴, 탁구 등), 무대(공연 등), 샤워실</li> <li>- 다목적실(1층) : 에어로빅, 요가, 댄스 등</li> </ul>
<b>프로그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목적체육관 : 배드민턴, 탁구 강습, 배드민턴장, 탁구장 자유 이용</li> <li>- 다목적실 : 단체운동(GX) 프로그램(에어로빅, 요가, 줌바 등)</li> </ul>

(4) 북부교육문화센터(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391(산곡동))



<b>기본 현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규모 : 지상 3층, 지하 2층</li> <li>- 연면적 : 7,657.96㎡</li> <li>- 건축면적 : 1,773.91㎡</li> <li>- 주차장(총 69면) : 지상1층 44면(장애인 3면), 지하1층 25면(장애인 1면)</li> <li>- 운영 관리 : 부평구시설관리공단</li> <li>- 주요 용도 : 문화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li> </ul>
<b>시설 현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3층 : 소공연장, 준비실</li> <li>- 지상2층 : 다목적강당, 방송실, 창고, 문화강좌1~2실</li> <li>- 지상1층 : 운영 사무실, 학부모 운영실(교육청), 관리실, 급식실(미산초), 별관 편의점</li> <li>- 지하1층 : 수영장(50m 3레인, 25m 8레인, 유아풀), 단체운동1~2실(GX), 안내데스크, 남녀탈의(샤워)실, 의무실, 휴게실, 시설사무실, 지하주차장</li> </ul>
<b>프로그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영장 : 수영 강습, 아쿠아로빅, 자유 수영</li> <li>- 다목적강당 : 배드민턴, 탁구, 농구 강습</li> <li>- 단체운동1~2실(GX) : 요가, 줌바, 필라테스 등</li> <li>- 문화강좌실, 학부모교육센터 : 하모니카, 드로잉, 캘리그래피, 영어교실</li> </ul>

3) 체육 행사 및 각종 대회<sup>12)</sup>

생활체육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이벤트 역시 중요하다. 축제나 이벤트가 별로 없던 과거에는 체육대회 같은 게 가장 큰 행사였다. 그런데 다양한 축제들이 많이 생겨났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시민들의 욕구가 분산되었으며, 각종 동아리 활동 속에서 다양한 대회를 열고 있기 때문에 체육행사나 대회 역시 시대에 맞게 변모하고 있다.

12 이하 '2018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현황', '2018년 전국대회 출전(일반) 지원 현황', '2018년 전국대회 출전(유소년) 지원 현황'은 『2019 구정백서』(부평구청, 2019)의 306-308쪽을 참고하였다.

1995년 부평구가 출범한 이후 처음 개최된 구민 체육 행사는 1996년에 ‘구민 화합 동참 체육대회’와 ‘부평구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었다. 이 행사들은 과거 북구청 시절부터 해오던 것을 신설된 부평구가 이어받은 것이다. 그러던 것이 1997년 이후 ‘구민화합 동참 체육대회’가 없어지고 ‘구민 민속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었는데, 구민을 위한 체육대회를 고유의 민속놀이를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었다. 대회의 다양한 이벤트로 풍물패의 풍물공연이나 다양한 민속놀이, 예컨대 차전놀이, 오색단심 줄감기, 굴렁쇠 굴리기, 계절 땡기기, 사인교 달리기 등이 펼쳐졌다. 2000년 이후 대회의 유사성 때문에 부평풍물대축제로 통합되면서, 구민 전체가 참여하는 체육대회는 사라졌다. 그 대신 종목별 대회가 부평구청장배의 이름으로 탄생했고, 덧붙여 생활체육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팀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해 나가게 된다. 2018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현황과 생활체육 전국대회 출전 지원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2018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현황

총 21개 종목, 참여 인원 1만 457명, 지원 금액 135,000천 원으로 집계되었다.

표 1 2018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현황

(단위: 명, 천원)					
대회명	횟수	개최일	장소	참여 인원	지원 금액
부평구청장배 롤러스케이팅대회	제5회	6월17일	사립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285	4,800
부평구청장배 국학기공대회	제10회	7월21일	구청 대회의실	300	4,800
부평구청장배 농구대회	제17회	8월15일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500	5,900
부평구청장배 생활무용대회	제10회	8월25일	인천여성가족재단대강당	152	4,400
부평구청장배 바둑대회	제15회	9월1일	구청 구내식당	244	4,900
부평구청장배 당구대회	제10회	9월2일	캐슬, 가브리엘당구장	324	5,100
부평구청장배 족구대회	제19회	9월9일	부영공원 족구장	920	5,800
부평구청장배 체조경연대회	제20회	9월29일	부평구청소년수련관	280	5,000
부평구청장배 테니스대회	제32회	9월30일	신트리공원	712	9,900
부평구청장배 볼링대회	제21회	9월30일	아주볼링장	160	6,400
부평구청장배 등산대회	제20회	10월7일	원적산	380	5,500
부평구청장배 야구대회	제14회	10월13일	부영공원 야구장	450	6,400

대회명	횟수	개최일	장소	참여 인원	지원 금액
부평구청장배 게이트볼대회	제27회	10월18일	백운게이트볼장	80	5,200
부평구청장배 축구대회	제29회	10월21일	삼산월드체육관축구장	1,200	11,400
부평구청장배 탁구대회	제17회	10월21일	삼산월드체육관	630	9,000
부평구청장배 태권도대회	제24회	10월7일	삼산월드체육관	909	7,500
부평구청장배 격투기대회	제6회	11월3일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400	5,700
부평구청장배 배드민턴대회	제21회	11월4일	송림체육관	1,600	7,800
부평구청장배 댄스스포츠대회	제6회	11월17일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350	4,500
부평구청장배 검도대회	제18회	11월18일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281	7,300
부평구청장배 합기도대회	제14회	11월24일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300	7,700

### (2) 2018년 생활체육 전국대회 출전(일반) 지원 현황

총 17개 협회, 23개 대회, 참여 인원 426명, 지원 금액 20,822천 원으로 집계되었다.

표 2 2018년 생활체육 전국대회 출전(일반)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대회명	대회 기간	장소	참여 인원	지원 금액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축구대회(제37회)	4월 6일~4월 8일	인천 남동	25	750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대회(제27회)	4월 17일~4월 19일	경북 예천	6	320	
전국생활체육 대장사씨름대회(제11회)	5월 5일~5월 7일	경북 의성	8	1,800	
정선아리랑 바둑대회(제5회)	5월 19일~5월 20일	강원 정선	33	1,050	
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제4회)	6월 3일	전북 군산	29	1,100	
대통령기 전국게이트볼대회(제16회)	6월 18일~6월 20일	충남 청양	6	350	
직지배 전국볼링대회(제11회)	6월 30일~7월 15일	충북 청주	9	750	
전국생활체육합기도 페스티벌	7월 7일	충남 천안	22	400	
향수옥천 농특산물 전국초청축구대회(제5회)	7월21일~7월 22일	충북 옥천	28	850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생활체육합기도대회(제18회)	9월 7일~9월 9일	충남 청양	10	290	
대통령기(배) 전국청소년화랑대회(제28회)	9월 9일	서울 잠실	30	1,250	
국무총리배 전국게이트볼대회(제19회)	9월 30일~10월 2일	전남 영광	6	452	
2018년 태백산배 전국아마추어 당구 3C당구대회	10월 6일~10월 9일	강원 태백	20	9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국무도대회(제18회)	11월 2일~11월 3일	강원 원주	40	2,000	

대회명	대회 기간	장소	참여 인원	지원 금액
전통스포츠 전국합기도대회(제18회)	11월 9일~11월 11일	충남 청양	14	360
2018년 어르신페스티벌 탁구대회	11월 10일~11월 11일	충남 아산	10	1,350
대한체육회장기 전국 검도대회(제17회)	11월10일~11월 11일	전남 나주	12	1,050
2018년 대한테니스협회 인천오픈 전국테니스대회	11월10일~11월 18일	인천 부평	30	1,100
대한민국 태권도협회장배 전국대회(제16회)	11월 17일	경기 용인	20	1,250
2018년 스포츠클럽 농구 리그 최강전	12월 8일~12월 9일	강원 인제	12	1,150
2018년 한빛코리아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12월 8일~12월 11일	경기 부천	16	600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체조 경연대회(제4회)	12월 15일	충남 대전	30	1,000
남해군수기 전국 검도대회(제10회)	12월 15일~12월 16일	경남 김해	10	700

### (3) 2018년 생활체육 전국대회 출전(유소년) 지원 현황

총8개 협회, 15개 대회, 참여 인원 251명, 지원 금액 19,400천 원으로 집계되었다.

표 3 2018년 생활체육 전국대회 출전(유소년) 지원 현황

대회명	대회 기간	장소	참여 인원	지원금액
대통령기 전국볼링대회(제33회)	7월 21일~7월 26일	전남 광주	3	300
U-15 전국 중학 및 주니어 야구대회	8월 3일~8월 8일	경북 경주	10	990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볼링대회(제29회)	8월7일~8월 11일	전남 목포	3	300
속초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제8회)	8월 10일~8월 20일	강원 속초	20	3,227
대한체육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제16회)	8월 18일	경기 가평	26	1,116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생활합기도대회(제18회)	9월 7일~9월 9일	충남 청양	13	280
대통령기(배) 전국청소년화랑대회(제28회)	9월 9일	서울 잠실	30	1,600
리틀야구 운동용품	9월 18일	인천 부평	20	3,160
계룡시장기 전국 리틀야구대회(제15회)	9월 29일~10월 8일	충남 계룡	20	523
2018 정조대왕 효 전국바둑축제	10월 6일	경기 화성	23	600
전통스포츠 전국합기도대회(제18회)	11월 9일~11월 11일	충남 청양	20	320
대한체육회장기 전국 검도대회(제17회)	11월 10일~11월 11일	전남 나주	14	600
한국초등연맹회장기 전국어린이 태권도대회	11월 18일~11월 22일	전남 영광	24	4,284
2018년 스포츠클럽농구리그 최강전	12월 8일~12월 9일	강원 인제	12	800
남해군수기 전국 검도대회(제10회)	12월 15일~12월 16일	경남 남해	13	1,300

(단위: 명, 천원)

### 4) 소외계층에 눈을 돌리는 생활체육 정책

모든 정책이 그 분야의 장기적인 비전을 그리고 체계적으로 인프라를 갖추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러한 큰 그림이나 잘 갖춰진 인프라로부터 구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생활체육 관련 정책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인데, 사회의 양극화가 점점 진행되는 가운데 생활체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약자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가 구정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예컨대, 어느 정도 경제적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 스포츠 클럽을 이용하는 등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사실 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공공시설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 시대는 모든 영역의 정책에서 복지적 마인드가 중요하다. 부평구의 생활체육 정책을 살펴보면 점점 복지적 성격을 띠어가고 있다. 최근 2018년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저소득 유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생활체조교실 운영 등이 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분야별 전문 지도자를 양성해 그들을 생활체육 현장에 배치하는 사업인데, 경로당, 복지관, 장애인 시설, 학교 등이 그 대상이다. '저소득 유·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유·청소년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해 이들의 체력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려 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구청 소유 시설이나 관내의 사설 체육시설을 활용해 생활체조, 건강 체조, 노인건강 체조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 5) 부평구 유소년 축구단, 여자 볼링선수단 운영

부평구는 현재 두 개의 스포츠 관련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부평구 유소년 축구단은 방과 후의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일차적인 목적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내 출신의 프로 축구선수를 배출하기 위한 기틀을 닦는 사업이기도 하다. 유소년 축구단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부평구 여자볼링 선수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직장운동경기부로 부평구의 이름을 달고 각종 대회에서 활약하는 팀이다. 부평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부평구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도 한다.

## 6) 부평 남부체육센터 건립 사업

2020년 기준 부평 남부 지역에는 공공 체육시설이 없다. 부평구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남부 지역에 거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한창 준비 중이다. 2018년 11월에 건립 계획을 마련했으며, 법규, 재원 등 제반 사항을 정비하여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평동 663-30, 663-32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1만 1,368㎡, 연면적 7,756.97㎡ 내외로, 지하2층·지상1층으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다목적 체육관·수영장·체력단련실·다목적실·GX룸·사무실 등 각종 체육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 2. 자원봉사 활동

### 1) 자원봉사 활동의 시작과 의미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통상 부녀회, 라이온스클럽, 로터리클럽, 새마을 봉사회, 적십자 봉사회와 같은 조직을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각종 종교 단체나 학교의 동아리 단체, 기업의 봉사 단체 등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큰 조직, 준 조직이 꾸러나가던 봉사활동에 큰 전기가 찾아온 것은 2000년대에 자원봉사 센터가 설립되면서부터이다. 2004년 5월에 오픈한 부평구 자원봉사센터는 부평의 자원봉사, 나아가서는 부평의 시민 활동에 일대 혁신을 가져다주었다. 자원봉사센터는 2002년 11월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조례」가 제정된 후 2004년 4월 민관 혼합체로 출범했는데, 2005년 12월 시점에 무려 150개 단체 1만 1,083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제는 개개인이 센터에 봉사활동을 신청하여 곧바로 나눔과 베풀을 실천할 수 있다. 과거에는 같은 유니폼을 맞춰 입은 사람들이 한날한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봉사활동을 하였다면, 지금은 소리소문없이 개인들이 각자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봉사라는 개념도 바뀌어버렸다. 과거 봉사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인, 노인들을 도와주는 이미지가 강했다. 『부평사』2권(2007, 245쪽)에 소개된 봉사활동이란, 휠체어 수리, 벽화그리기, 집수리, 간병, 의료봉사 등이었다면, 지금은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 부평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에까지 도전한다. 예컨대, 인천시청자미디

어센터의 미디어 지식 봉사단 ‘미디어스카우트’를 보자. ‘미디어스카우트’는 2015년 8월 발대식을 갖고 활동하기 시작한 봉사단인데, 작게는 센터 행사나 교육을 통해 미디어 지식 나눔 봉사를 하고, 현재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달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녹음 및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고, 미디어로 하나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인 것이다. 지식 정보사회가 낳은 격차를 해소하는 것 역시 시민 활동이자 봉사활동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sup>13</sup>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보자. 다음은 ‘내사랑굴포천봉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산중학교 3학년 이수현 학생이 쓴 글 중 일부이다.

“봉사활동을 알아 보다가 ‘내사랑굴포천봉사단’을 알게 되었다. 처음으로 하는 봉사활동이 부담스러웠지만 집 근처에 있는 굴포천에서 가족 단위로 활동할 수 있기에 엄마, 동생과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봉사단 결성 초기에는 단원들끼리 어색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친해지고 서로를 챙겨주면서 1년이 지났다. 외부 강사와 함께 굴포천과 수질 상태도 알아보았다. 유해식물을 배워 제거해 보았고, 남동 유수지에 가서 저어새를 관찰하며 다양한 경험을 했다. 봄에는 유해식물을 직접 구별해서 제거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축제에서 체험 부스를 맡게 되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퀴즈를 내고, 환경오염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껌질째 먹을 수 있는 오호(Ooho) 물병을 만들고, 계피를 넣어서 만든 친환경 방충제를 만들었다.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참여하는 모습이 좋았다.”<sup>14</sup>

이 짧은 글을 통해 과거에는 환경 시민운동이었던 것이 지금은 하나의 봉사활동으로 정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봉사활동인지 교육활동인지 구분하기가 힘들며 가족 단위로 참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말하자면, 가족이 주말에 굴포천이나 지역을 하천을 견학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소풍과도 같은 느낌이다.

이상의 두 사례를 통해 자원봉사의 개념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sup>13</sup> 부평구자원봉사센터, 『네티』(연간지), 2019, 5쪽을 참고하였다.

<sup>14</sup> 부평구자원봉사센터, 『네티』(연간지), 2019, 12쪽을 참고하였다.

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센터라는 서포트 조직을 통해 돌봄과 나눔이라는 시스템이 사람들의 일상적 삶 속에 정착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봉사활동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1365라는 포털사이트가 등장한 것이 자못 의미심장한데, 개인의 봉사활동에 대한 기록 관리가 가능하다 보니, 마일리지 제도와 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마저 등장했다. 즉, 봉사활동이 일방적인 베풀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들 개개인이 재능과 시간과 수고로움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정착되어 가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전통 사회의 품앗이와 같은 호혜적인 시스템의 정착을 의미하는 것이며,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돕고 도움받는 '마을 공동체'라는 큰 그림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2)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주소 : 장제로 235 3층 / 전화번호 : 509-7518)

2004년 4월에 개소된 부평구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 9만 3,000여 명이 재해 구호, 의료봉사, 교통봉사, 환경봉사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 자원봉사센터가 자리한 부평어울림센터(출처 : 부평구청)

한국 사회에서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 조직을 꾸리며 공간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간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다. 부평구 역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문화적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정비한 것은 겨우 20년 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시초를 알린 것은 부평문화사랑방의 탄생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공연을 향유할 수 있게 하고 문화예술 단체에게는 발표의 장과 연습장을 제공하기 위해 2003년에 만들어졌는데, 2008년에는 부개동에도 만들어졌다.

2000년대 이후 곳곳에 만들어진 각종 문화재단은 지자체의 문화예술 행정, 정책에 서의 획기적인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 문화재단은 지자체 소유의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지역 문화예술의 메카 혹은 발신지로 기능하고 있다. 부평구문화재단 역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2006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재단은 부평구 문화사랑방과 부평 아트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받아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와의 공동 기획 공연 등 지역 예술 단체의 창작 활동에도 기여하고 있다.

부평구문화재단의 설립이 부평구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행정적, 정책적 기반을 만든 일이었다면, 부평아트센터의 개관은 부평의 문화예술 인프라의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킨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4월 개관한 부평아트센터는 공연장과 전시장, 교육 공간, 연습실, 그리고 카페와 식당을 갖춘 복합 예술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공연과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지역의 예술 단체들에게 참신한 기획 공연과 다양한 장르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수용자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적 감수성이 뛰어난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일종의 허브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아트센터 앞에는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이라는 독특한 이름의 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아트센터가 문화예술이라는 다소 전문적인 냄새를 풍긴다면, 생활문화센터는 말 그대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적인 욕구를 일상 속에서 발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

가 담겨 있다. 말하자면 주민들 스스로 문화예술의 창조자,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다. 풍물, 무용, 합창, 연극 등의 공연 관련 팀이나 동호회 등에 연습 공간을 제공하고, 세미나·교육·홍보영상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매년 그동안의 활동을 나누는 생활문화 축제도 열고 있는데, 부평 지역의 생활문화 확산의 거점, 생활문화 동호회의 생성을 촉진하는 플랫폼인 셈이다.

생활문화센터와 같은 건물에 자리 잡은 디지털뮤직랩(구 BP음악산업센터)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부평구가 선정된 것을 계기로, 부평의 도시 브랜드를 ‘음악 도시’로 디자인하고자 하는 야심찬 기획 속에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기본적으로는 ‘대중음악’을 기반으로 해 기획,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 컨설팅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중음악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공간이다. 더불어, 부평밴드페스티벌, 솔아솔아음악제, 부평음악도시축제 뮤직게더링 등 음악축제도 기획·개최하고 있으며, BP뮤직데이, 부평 POP-UP피아노 등 부평이라는 마을 속으로 침투하는 프로그램도 열고, 부평 음악사 발굴, 부평 대중음악사 발간 작업, 부평 대중음악 인명사전 발간 등 아카이빙 작업까지, ‘음악’이라는 키워드로 부평의 과거를 탐색하고 부평의 현재를 만들어가고 있다.

아울러 구립 예술단의 존재도 빼놓을 수 없다. 2007년에 설립된 부평구립풍물단은, 부평의 트레이드마크라고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풍물 연주 단체로, 해마다 열리는 인천 부평풍물대축제 메인 공연은 물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초청공연, 부평구 지역 문화행사 등 풍물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부평구 문화사절단으로서 풍물 도시 부평을 전국에 알리고 있다. 2000년에 설립된 부평구립 여성합창단은 부평구 거주 여성들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이다. 창단 첫해 인천합창제 대상을 시작으로 여러 전국합창대회에서 수상하며 그 기량을 인정받고 있다. 국내외 대회 및 행사는 물론 지하철, 병원, 학교 등 찾아가는 공연 또한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2010년에 창단된 부평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은 뮤지컬, 클래식 음악, 한국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가진 합창단이다. 매년 다양한 공공 행사에서 인천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부평의 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편, 부평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면서 인문학적인 접근으로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채워 넣는 기관으로 부평문화원이 있다. 문화원은 1998년 「지방문화원진흥

법」에 따라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교육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데, ‘부평 지역의 고유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일’과 ‘부평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일’이 중점 사업이다. 그런데, 고유의 문화 콘텐츠라는 면에서 부평구는 과거 부평이라고 불리던 지역 중 일부가 계양구로 분리되면서 다소 약점을 가지게 되었다. 즉 전통시대의 문화유산인 부평도호부, 부평향교, 계양산성, 그리고 계양산에 터를 잡고 있는 각종 사찰 등이 계양구에 있는 것이다. 그 대신 구 인천육군조병창, 구 부평미군기지, 미쓰비시 출사택 등 근대 문화유산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적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한편, 문화원의 또 다른 역점 사업인 지역 문화 계승사업은 충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역의 학교와 연계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사업은 물론, 각종 문화 강좌, 극단 등도 만들어져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문화원은 최근에 부평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일종의 관광자원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근대 문화유산으로 불리는 구 인천육군조병창, 구 부평 미군기지, 미쓰비시 출사택 등에 대한 정비 사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컨대 조병창과 연계된 시설인 24개의 부평 지하호(토굴)에 대한 정비가 착착 진행되어, 최근에는 탐방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졌다. 부평이 슬픈 근현대사에서 배우는 이른바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발신지로 알려질 날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 그 외에도 골포천을 활용한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들(부평에 샘길따라 탐방, 초록골포그림그리기대회)이 이미 가동되고 있으며, 역사, 골목상권, 자연 등을 테마로 한 도보 여행 코스 ‘불어라! 부평바람! 함께 즐기는 부평워킹투어’라는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부평문화원에는 2007년에 개관한 부평역사박물관이 함께 있다.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부평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상설 전시실이 설치되어 있고, 부평 사람들의 애환이 담긴 마을의 역사, 사람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특별 전시(‘부평시장, 시대를 사고 팝니다, 2020년’, ‘부평의 마지막 달동네 열우물연가, 2017년’)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2020년 현재 적어도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부평의 문화예술 인프라는 충분히 갖추어졌고, 앞으로 진행될 프로젝트들(구 미군부대 터 조성 작업 등)도 20년 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19년 부평구문화재단의 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부평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행사를 관

람하는 주된 장소를 물었는데, '부평구'라고 답한 비율이 50.7%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울'이 21.3%, '부평 외 인천 지역'이 18.7%, '경기도' 7.6%, '기타' 1.7%로 나타났다.<sup>15</sup> 서울이라는 큰 도시와 인천 내 다른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행사를 관람하는 주된 장소로 부평구를 50%가 택했다는 것은 부평구의 문화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음을 말해준다. 2020년 현재 부평구는 '문화 도시'라는 슬로건에 맞는 도시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끝으로 부평구에 희망을 말한다면, 부평 출신 예술가들 이름의 미술관, 음악관, 박물관, 영화관 등 작은 규모라도 생겨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것이다. 서귀포를 말하면 이중섭미술관, 양구를 말하면 박수근미술관이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다.

## 1. 한눈에 보는 부평 문화 인프라<sup>16</sup>

### 1) 문화 시설

시설명	위치	규모	주요 시설	비고
부평문화원	굴포로151 (삼산동)	역사박물관 내	강의실, 다목적실	
부평역사박물관	굴포로151 (삼산동)	3,108.84㎡ 지하1층~지상2층	부평역사실, 농경문화실, 기획전시실, 기증전시실, 야외전시체험장, 회랑 등	부평문화원
부평아트센터	아트센터로 166 (십정동)	17,236.5㎡ 지하2층~지상3층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장, 분장실, 연습실, 교육장, 식당, 카페 등	
부평문화사랑방	주부도로 173 (갈산동)	490.6㎡	공연장, 조정실(조명, 음향), 분장실 등	부평구 문화재단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아트센터로 168 (십정동)	1,817.7㎡ 지하1층~지상2층	다목적홀, 오픈스페이스, 교육실 등	
디지털뮤직랩 (舊 BP음악산업센터)				

<sup>15</sup> 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2019 부평구문화재단 인지도 및 문화수요 조사 결과보고서』, 2019.

<sup>16</sup> 이하 자료는 『2019 구정현황, 부평 지역을 기록하다』(부평구청, 2019), 29쪽을 참고하였다.

### 2) 부평문화예술단체

단체명	소재지	설립 취지
서도소리보존회 인천지회	부흥북로5번길23(부평동)	서도소리 보전 및 홍보사업
풍물패 잔치마당	마장로 24(십정동)	전통문화의 주류인 풍물 등 전통문화 계승 발전
부평구 문화예술인회	부흥북로 28(부평동)	문화예술인의 창작 의욕 고취와 지역사회 문화 예술 발전 기여
인천밴드연합	경인로 789(십정동)	건전한 공연문화 활성화 및 지역문화 발전 기여
유주희 전통예술무용단	부흥북로5번길 23(부평동)	전통예술무용 계승발전
극단 십년후	경인로 769(십정동)	무대공연을 통한 문화예술 발전 도모

### 3) 문화예술단

예술단명	창단일	구성
부평구립풍물단	2007. 1.	단장(문화재단 대표이사), 단원 35명
부평구립여성합창단	2000. 2.	단장(문화재단 대표이사), 지휘자, 반주자, 단원 32명
부평구립 소년소녀합창단	2010. 6.	단장(문화재단 대표이사),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 단원 22명

### 4) 문화재 현황 - 보물

문화재명	종별	보유자	소장물
이성윤 위성공신교서 및 관련 유물	보물 제1508호	이건우	호패, 홀
		국립고궁박물관	교서, 교지

### 5) 문화재 현황 - 무형문화재

문화재명	종별	지정일	성명	성별	비고
봉산탈춤	국가 무형문화재 제17호	1989. 12. 1.	김애선	여	
궁시장	국가 무형문화재 제147호	2008. 5. 7.	박호준	남	
갯가노래 뱃노래	인천광역시 지정 제3호	2010.06.10	김정숙	여	
부평두레놀이	시도 무형문화재 제26호	2015. 3. 16.	부평두레놀이 보존회	단체	인천시 지정



### 6) 문화재 현황 - 근대문화재

문화재명	주소	시대	비고
인천육군조병창	부평구 산곡동 일대	일제강점기	문화재청 조사중
캠프 마켓 (애스컴 시티)	부평구 산곡동 일대	1945~2008	문화재청 조사중
미쓰비시 줄사택	부평구 부평2동	일제강점기	문화재청 보존요청

### 7) 시민 유희/오락 관련 업소

(2018년 12월 31일 기준)

계(개소)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영화관
708	432	258	14	4

### 3) 가로수 현황

(단위: 그루)

합계	은행나무	버즘나무	왕벚나무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아	이팝나무	감나무	기타(주목 등)
16,895	8,972	2,337	1,663	1,052	783	680	294	1,114

### 4) 시설 녹지

(단위: 1,000㎡)

구분	합계		조성		조성중		미조성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102	274	92	232	1	23	9	19
완충 녹지 <sup>18</sup>	73	226	66	191	1	23	6	12
경관 녹지	29	48	26	41	-	-	3	7
연결 녹지	-	-	-	-	-	-	-	-

## 2. 공원, 녹지, 산림 현황<sup>17</sup>

### 1) 공원 현황

(단위: 1,000㎡)

구분	합계		조성		조성 중		미조성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146	5,715	81	2,760	4	401	64	2,551
근린공원	31	1,737	22	806	3	289	6	641
어린이공원	88	253	54	142	-	-	34	110
소공원	23	36	2	2	-	-	21	33
주제공원	4	1,922	3	1,810	1	112	-	-
도시자연공원구역	3	1,767	-	-	-	-	3	1,767

### 2) 산림 현황

(단위: ha)

합계	소유별			계	임상별			
	사유림	공유림	국유림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기타
839	360	41	438	839	171	350	259	59



❖ 완충녹지 중 한 곳인 십정녹지(2020년 애칭 공모 투표를 통해 '부평열우물숲'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출처: 부평구청)

17 이하 자료는 『2019 구정현황, 부평 지역을 기록하다』(부평구청, 2019) 35쪽을 참고하였다.

18 완충녹지는 공해나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경관 녹지는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녹지, 연결 녹지는 도시 안의 산지와 하천 등을 연결시키고 여가 휴식을 제공하는 녹지를 말한다.

### 3. 부평의 대표적 문화 인프라 소개

#### 1) 문화예술

##### (1) 부평구문화재단(주소 : 아트센터로 166(십정동), 전화번호 : 032-500-2000)

2006년 12월에 부평구가 출연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구민들의 문화 욕구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산하에 부평아트센터, 부평구립도서관(6개관), 문화사랑방, 부평청소년수련관,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부평청소년성문화센터, BP음악산업센터, 구립예술단 등을 두고 있다.



❖ 부평구립합창단의 정기 공연 모습(출처 :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 (2) 부평문화원(주소 : 굴포로 151 / 전화번호 : 505-9001)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대를 위해 부평구가 설립한 부평문화원은 1998년 설립된 이후 부평 향토 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과 지역 구민 문화예술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부평문화학교·문화 강좌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하는 부평 문화의 본거지라 할 수 있다.



❖ 부평역사박물관과 부평문화원 (출처 : 부평구청 블로그 공감부평)

##### (3) 부평역사박물관(주소 : 굴포로 151 / 전화번호 : 515-6471)

부평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정주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2007년에 개관했다. 지속적인 특별 전시를 통한 다양한 문화체험과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재미있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습과 놀이의 효과를 동시에 제공한다. 또한 지역예술인의 역량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야외 전시장 및 박물관 공원에서의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4) 부평문화사랑방(주소 : 주부도로 173 / 전화번호 : 505-5950)**

문화사랑방은 부평구가 마련한 소극장으로, 연극, 음악회, 퍼포먼스 등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화예술 단체에게는 발표의 장과 연습장을 제공하기 위해 2003년 12월 갈산2동의 행정복지센터 3층에 170석 규모로 탄생했다. 공연 외에도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옛날의 행정구역이었던 동사무소가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문화 공연장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 '세 남매의 봄' 공연 관람 입장 모습(2019)

**(5) 부평아트센터(주소 : 아트센터로 166 / 전화번호 : 500-2000)**

부평아트센터는 문화예술인의 활동 공간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주요 시설로는 해누리극장(대공연장, 883석)과 달누리극장(소공연장, 323석), 갤러리 꽃누리(전시장 361㎡), 야외 옥상 공연장인 별누리극장(431.43㎡) 및 구름마당 광장 등이 있어 다양한 장르의 공연, 전시와 함께 참여형 전문 예술 교육을 제공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턱 낮은 문화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 부평아트센터(출처 : 부평구문화재단 공식 블로그)

**(6)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주소 : 아트센터로 168 / 전화번호 : 500-2000)**

지역 생활문화 발전 및 주민의 소통공간 제공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주요 시설로는 오픈스페이스(181.28㎡)와 연습실 4곳(40~114㎡), 모임방 4곳(각 20㎡), 프로그램실 2곳(40~60㎡), 다목적홀(192㎡), 영상편집실 (20㎡) 등이 있으며 다양한 동아리들의 공연 장소 및 연습 공간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7) 디지털뮤직랩(구 BP음악산업센터)(주소 : 아트센터로 168 / 전화번호 : 500-2045)**

디지털뮤직랩은 부평의 도시 브랜드 구축과 음악인의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Co-working Space(공유 공간)와 Sound Studio, 교육실, 연습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o-working Space는 지역 청소년, 청년 누구나 쉽게 찾아 프로그램을 기획·제작·실행하고 연구하는 열린 개인 작업 공간이며, Sound Studio는 홈레코딩 방식으로 녹음실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음악을 만들고 싶어 하는 뮤지션을 위한 공간이다. 교육실은 DJ 등 전자음악을 배우고 실습하는 공간이며, 연습실은 방음시설이 갖춰진 작업 공간이다.

## 2) 공원 및 녹지

### (1) 부평숲 인천나비공원(주소 : 평천로 26-47, 청천동 일원 / 전화번호 : 509-8820)

장수산 자락에 자리 잡은 부평숲 인천나비공원은 살아있는 나비를 주 테마로 조성된 생태공원이자, 수도권 내의 대표적인 곤충 전문 테마공원이기도 하다. 공원 내에는 자연 교육센터, 나비생태관, 희귀생물관, 흙의 정원, 소리동산 등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열리는 테마가 있는 기획 전시가 있고, 특히 아름다운 야외 조경이 큰 볼거리로 알려져 있다. 편의시설로는 나비 북카페가 있어 관람자들에게 잠시 쉬어가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부평숲 나비공원(출처 : 부평구청 공식 블로그 공감부평)

### (2) 부평공원(주소 : 부평동 299 일원 / 전화번호 : 440-5832)

부평역 인근 철로 변에 위치한 부평공원은 과거 군부대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은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제강소가 있던 자리로, 2002년 주민들에게 녹지 중심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11만 3,123㎡ 규모의 산책로,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야외무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 (3) 백운공원(주소 : 십정동 186-419 일원 / 전화번호 : 509-6980)

만월산 자락 아래에 백운역 인근에 위치한 백운공원은 넓게 조성된 자연 공원으로, 상록수가 많아 사계절 내내 푸른 숲을 자랑하며 구민 생활체육 대회 등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곳이기도 하다. 시인 한하운의 시비가 있다.

### (4) 원적산공원(주소 : 세월천로 137, 청천동 일원/ 전화번호 : 509-6980)

원적산공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가좌동, 가정동, 부평구 산곡동, 청천동 등 5개 동에 걸쳐 남북으로 길게 뻗은 공원으로 인조잔디 구장을 비롯한 다양한 체육 공간과 생태습지, 발물놀이터 등이 마련되어 있다.



❖ 벚꽃이 만발한 원적산 공원(출처 : 부평구청 공식 블로그 공감부평)

### (5) 신트리공원(주소 : 신트리로 21, 부평동 일원 / 전화번호 : 509-6970)

부평구청 인근에 위치한 신트리공원은 총면적 5만 8,594㎡로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어린이 놀이터, 산책로, 분수대 등이 조성되어 있다. 공원 안에는 1,500석 규

모의 북구도서관이 있어 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편안한 쉼터와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6) 마장공원(주소 : 산곡동 261-1 일원 / 전화번호 : 509-6970)**

마장공원은 주변이 고밀도 아파트 및 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2004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2007년 5월 다목적 운동장, 어린이 놀이터, 수경시설이 있는 휴양 공간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주변 시민의 휴식과 산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7) 갈산공원(주소 : 갈산동 130-1 일원 / 전화번호 : 509-8680)**

갈산근린공원은 갈산1동 지역의 유일한 근린공원으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물놀이장, 생태습지 및 도시 농업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체험학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8) 희망공원(주소 : 부평동 산34-16 일원 / 전화번호 : 509-8680)**

희망공원은 총 7만 3,926㎡ 규모로 게이트볼장, 어린이 놀이시설, 휴게 및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지금 한창 조성 중이다.

**(9) 십정공원 (주소 : 십정동 산 37 일원 / 전화번호 : 509-8680)**

십정공원은 23만 3,253㎡의 규모로 인근 공동주택건립 등 인구 집중으로 부족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과 조경수를 식재하여 쾌적한 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10) 부개산 문화 산책로(주소 : 부개동 10 일원 / 전화번호 : 509-6980)**

부개산 문화 산책로는 2014년 7월에 정비되었으며, 인천가족공원 순환도로 주변 부개산 길을 따라 3.5km가량의 목재 계단과 통나무 펜스를 설치했다. 특히 완만한 경사로 조성, 목재계단 높이 조절 등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sup>19</sup>을 적용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숲을 체험하고 산책할 수 있도록 했고, 산책로 갈림길마다 방향 표시판 및 표지석을 설치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11) 십정녹지(주소 : 십정동 333-3 일원 / 전화번호 : 509-8680)**

십정녹지는 인천시 녹지 벨트의 한 축을 담당하는데, 공단으로부터 발생하는 먼지를 방지함과 동시에 도시 경관을 가꾸기 위해 조성되었다. 주민들의 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잔디 광장, 휴게시설 등도 조성했다. 잔여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면 추가로 녹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12) 동수녹지(주소 : 부평동 634-1 일원 / 전화번호 : 509-8680)**

동수 녹지는 인근 주민들의 녹지 조성에 대한 높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금 한창 조성중인 경관 녹지이다.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면 주민들을 휴식을 겸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13) 장수산**

청천동 청천초등학교 뒤 40ha 면적에 해발 129m 높이의 낮은 산으로 장수산, 깎은산, 깎까산 또는 헬기장으로 부른다. 깎은산이나 깎까산은 일제강점기 때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봉우리를 평평하게 깎아 놓았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최근에는 인천 나비공원이 조성되어 인천 북부 권역의 명소로도 인기를 얻고 있으며, 비타민길 조성으로 아름답고 산책하기 좋은 산이다.

**(14) 원적산**

백련사 석천 약수터 주변에 있는 200ha면적의 산으로, 높이는 해발 196m이다. 남북으로 길게 뻗어 북쪽으로는 아나지고개에서 천마산으로 이어지고, 남쪽으로는 장고개에서 원통산으로 이어진다. 이 산줄기는 부평구와 서구의 경계를 가르는 산인데, 한때 철마산, 천마산으로 부르기도 했다.

19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

### (15) 동암산

십정2동 신동아아파트 주변 인근 동암역이 있어 동암산이라고 불리고 있다. 옛날 구리 탄광이 있었으며, 산림의 면적은 23ha이고 높이는 해발 99m이다.

### (16) 함봉산

부평도서관 뒷산에 있는 약 100ha 면적에 해발 127m 높이의 산이다. 옛날 이 산에는 수림대가 울창해 호랑이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원래 함봉산이었는데 후대에 와서 한자를 잘못 읽는 바람에 함자가 호자로 발음되어 호봉산이라고 불리어 왔다.

### (17) 부개산

인천가족공원 주변에 있는 약 350ha의 면적에 높이는 해발 200m인 산이다. 부개산 북쪽 줄기의 작은 봉우리가 등잔산인데, 이 산 구릉이 경인철도에서 끊겨 굴재미마을을 이루었으며, 산줄기가 부개동과 부평동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남동구에서는 만월산이라고 한다.

### (18) 희망산

희망천 입구의 산으로 희망산으로 불리고 있으며 산의 면적은 6ha이고, 해발 83m 높이의 낮은 산이다.

### (19) 거마산

이웃한 부천시와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서 일신동과 구산공에 걸쳐 있는 면적 121ha에 높이 해발 208m의 산이다. 거마산의 뜻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큰 말산이다. 그 의미는 산의 형상이 말처럼 생긴 큰 산이라는 뜻이다.

### (20) 굴포천 자연형 생태하천

오·폐수가 흘러들어 오염이 심각하고 악취까지 풍기던 굴포천이 2008년 10월 갯벌들과 같은 수생식물이 자라고 잉어 떼가 살아 움직이며,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시

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또한 굴포천 인근에는 산책로와 징검다리, 잔디 광장 등을 조성해 가족들이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꾸며 두었다. 현재도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하고 있으며, 활력이 넘치는 수변공간 조성을 꾀하고 있다. 도심 속에서 자연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시민들 속에 자리 잡고 있다.

### (21) 부평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주소 : 장제로 267 / 전화번호 : 509-3900)

기후변화의 영향과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환경 생태 교육장으로서, 해설사의 전문 해설과 놀이형 체험시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각종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다. 1만 3,496㎡ 규모의 체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이뜨락 생태놀이터 및 우수지와 연계한 생태 프로그램과 옥상텃밭 사업 등 주민들에게 다양한 녹색실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부록] 문화예술 관련 <출간물> 소개<sup>20</sup>

① 부평구문화재단의 소식지 「BODA(보다)」(2015년 8월 창간)



② 부평 예술인들을 알차고 재미있게 소개한, 「알아두면 쓸데 많은 신비한 예술인 사전」(부평구문화재단, 2019)



③ 「부평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평등한 젠더」(부평구문화재단, 2018)



20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E-book열람 및 PDF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④ 부평역사박물관

「미쓰비시를 품은 여백, 사택마을 부평삼릉」  
(부평역사박물관 학술 총서, 2016)



「헬로우 애스컴 시티, 굿바이 캠프 마켓」  
(부평역사박물관, 2019년)



| 제4절 | 문화예술 행사

부평 지역은 문화예술의 인프라는 물론, 문화예술의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와 공연, 전시회 등의 프로그램 역시 잘 갖춰져 있는 편이다. 프로그램의 숫자가 많든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인들이 많든가 하는 점보다는, 소위 부평이라는 정체성과 컬러를 만들어가는 확실한 콘셉트가 존재하고, 메인 콘셉트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잘 짜여 있다. 그 콘셉트는 바로 ‘역사와 기억’, 그리고 ‘음악’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15년에 시작된 ‘음악도시 부평’이라는 큰 프로젝트 하에 다른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들이 결합해 가고 있는데, 축제와 같은 큰 이벤트를 중심으로 일상적인 프로그램들이 곁들여져 이상적인 지역 문화예술로 발전해 가고 있다.

최근 웰빙과 워라벨, 율로 등 심미적인 관심의 증가는 문화예술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로 나타나, 이웃과의 교류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해 지역에 대한 애착, 정체성의 공유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즐기며 애환을 함께 공유하자는

것인데, 이에 문화예술이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다. 구청의 사업 역시 보여주기식의 전 시행정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주민들의 동시대적 욕구를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부평구 문화재단과 부평문화원이 이러한 욕구를 담아내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 1. 한눈으로 보는 2019년 부평의 문화예술 현황

(단위: 명)

프로그램명	장소	개별 참여자 수	총 참여자 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부평아트센터	193	598
	- 부평문화사랑방	177	
	- 부평생활문화센터	112	
	- 디지털뮤직랩프로그램	116	
공연	- 부평아트센터	15,537	20,625
	- 부평문화사랑방	5,088	
기획전시			26,082
축제			20,148
2019에스컴시티프로젝트			1,104

❖ 출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2019 부평문화재단 연차보고서』, 2020.

### 2. 부평의 대표적 축제



❖ 부평풍물대축제 포스터(1997-2019)

#### 1) 부평풍물대축제

1997년 시작되어 2020년에 24회를 맞이하고 있는 부평풍물대축제는 명실공히 대외적으로 부평을 상징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1997년은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갓 출범한 시기였다. 30년간의 고도 경제성장으로 한국의 모든 지역들은 다 비슷해져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 지역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있던 시기였다. 축제는 대외적으로는 그 지역의 정체성을 알림과 동시에, 지역 주민에게는 같은 땅에서 역사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이웃으로, 즉 공동체임을 느끼게 해 준다. 부평풍물대축제 역시 ‘부평’이라는 지역을 대외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부평 주민들 스스로 부평 사람임을 자각하고, 부평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이웃의 존재를 느끼게 해 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부평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인천광역시에 속하지만, 바다를 끼고 항구가 발달한 인천과는 오랫동안 다른 생활문화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웃한 서울과도 다른 문화권을 형성해 왔다. 그런데 부평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되기 시작한 조병창과 각종 공업단지, 그리고 일제가 물러간 후 들어선 미군부대 등으로 전통적인 부평의 생활문화는 점차 사라졌고, 대우자동차(현재 한국GM) 부평공장이 들어서면서 한때는 노동자들의 도시로, 198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 베드타운으로 자리했다. 말하자면, 고도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수도권의 여러 주변부 도시 중 하나로 다른 지역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 도시였음을 부인



할 수 없다. 부평풍물대축제가 기획된 데는 이러한 도시화로 잃어버린 부평의 정체성을 세우려는 의지가 작용한 것이다.

1996년 당시 최용규 부평구청장은 부평문화예술인회의의 멤버들과 ‘부평문화예술제’에 대한 회의를 가졌는데, 이때 최용규 부평구청장이 일본의 고유 축제인 ‘마쓰리’의 형식을 도입해 볼 것을 제안했다. 어느 지역도 아닌 바로 부평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축제를 제안한 것이다. 문제는 어떤 테마로 할 것인가였는데, 당시 삼산동 지역은 여전히 농업이 성황 중이었고, 100년 넘게 이어져 내려온 농기(農旗)가 존재하고 있었다. 부평의 역사는 역시 농경이었던 것이고, 부평의 전통을 대변할 수 있는 테마로 ‘풍물’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첫 축제의 기획에는 외부의 젊은 풍물 세대 전문가들도 참가함으로써, 행정가와 시민 그리고 전문가가 의기투합한 축제가 되었다. 덧붙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안 된다는 판단하에, 축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동별 풍물단을 조직했다. 구청에서는 풍물을 지원해 주며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시행착오도 많았다. 우선, 부평구·부평문화원·축제조직위원회 등 운영 주체가 모호했으며, 행사장 역시 변동이 잦아서 축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축제의 공간’이 줄 수 있는 임팩트가 없었다. 그러던 것이 2001년 축제위원회가 조례에 의해 운영 주체로 공식화되었고, ‘부평대로’가 축제의 주 행사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우선, 축제추진위원회가 운영 주체가 되었다는 것은 행사의 기획과 운영을 온전히 민간에 맡겼다는 걸 의미한다. 민간이 맡게 됨으로써 관 차원의 보여주기식의 행사를 넘어, 다양한 기획과 과감한 모험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당장 2001년부터 외부 연구기관에 풍물축제의 중장기 전략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컨설팅을 받았을 수 있었으며, 풍물축제의 장기적인 비전(아시아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기, 세계적인 축제로의 도약)과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축제 기간을 전후로 해서 활동하던 축제준비위원회가 연중 내내 축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기획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2006년에는 스태프의 상근화도 실현되었다.

무엇보다 획기적인 변화는 2000년까지는 근린공원 등지에서 열던 축제의 주 공간을 부평대로로 바꾼 것이다. ‘대로’를 행진하는 풍물대와 그걸 지켜보며 박수를 보내는

관객들이 한데 어우러져 연출하는 풍경은, 풍물이 가진 역동성과도 잘 맞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유수의 축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연출되는 장면을 보고 싶어 부평으로 오게 될 것이다.

2018년에 개최된 축제는 크게 창작 공연, 체험 마당, 퍼레이드 등으로 구성되었다. 팽과리와 장구와 징이 만들어내는 경쾌한 소리, 울긋불긋한 깃발과 농악대의 의상과 상모가 펼쳐놓는 화려한 색깔 등 풍요를 기원하며 떠들썩하게 한마당을 펼치던 과거 부평의 모습을 재현한 퍼포먼스가 부평대로를 가득 채웠다. 거기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비롯해 한국의 풍물 명인들도 총출동하여 피날레를 장식했다.

마지막으로 2018년 풍물대축제 프로그램을 정리해 본다.<sup>21</sup>

#### 2018년 부평풍물대축제 프로그램 개요

2018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부평대로 일대에서 치러졌다. 무려 80만 명의 관객이 몰려들었다. 풍물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대표하는 공연이 펼쳐졌고, 전통과 현대, 여러 장르의 예술이 함께 하는 축제가 되었다.

- 공연 행사 : 대한민국창작풍물대전, 남사당놀이 여섯마당 완판 공연, 사물놀이 40주년 김덕수 초청공연, 개폐막 공연 등
- 거리 행사 : 거리난장, 시민풍물난장, 대동놀이, 퍼레이드형 공연, 예술 놀이터, 전통 체험 등
- 연계 행사 : 전국 국악경연대회, 동풍물단발표회 등

21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2, 2007, 648-672쪽; 부평구청, 『2019 구정백서』, 2019, 303-304쪽.

## 2) '부평밴드페스티벌'에서 부평음악도시축제 '뮤직게더링'으로

한국의 대중음악, 그중에서도 밴드 음악은 언제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1950~1960년대 부평의 미군부대 주변의 클럽에서 자연 발생했다는 게 정설이다. 당시 미군부대 주변의 50여 개의 음악 클럽에서 밴드 활동이 붐을 이루었다. 국내 재즈계 1세대 신중현, '키보이스' 리더 김홍탁, 국민 가수 조용필의 '위대한 탄생'의 키보드 연주자 김청산, 김희갑 악단 드러머 김성환 등 이미 전설로 남아있는 연주자들이 부평을 거쳐 갔다.

이러한 부평의 음악적 전통을 잇고자 부평과 인천에 활동 기반을 둔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이 뭉쳤고, 2015년 10월 부평아트센터 야외 광장에서 '2015 부평 밴드 페스티벌'이 열렸다. 기존의 비슷비슷한 뮤직 페스티벌과 차별화해 오로지 밴드를 중심으로 여는 공연이었다. 2회째였던 2016년에는 60여 년의 과거 및 현재와 미래를 잇는 음악 제전을 꿈꾸며 'Remember'라는 부제를 달기도 했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부평구가 선정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부평구문화재단이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이다.

그래서, 행사로서의 페스티벌에만 초점을 두지 않는다. 한때 밴드음악의 메카였던 부평에는 음악 인프라가 별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말하자면, 지역 밴드 음악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더 시급한 사항이었다. 따라서 2017년 페스티벌에서는 'BP뮤직컨퍼런스'라는 연계 행사를 열기도 했으며, 국내외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음악 도시 부평의 미래를 그려보았다.



❖ 부평음악도시축제 '뮤직게더링 2019' 포스터  
(출처 : 부평구문화재단)

4년째를 맞은 2018년 밴드 페스티벌은 '부평음악도시축제 뮤직게더링 2018'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난다. 'Gathering'이라는 이름에는 아티스트와 관객이 한데 모여 일상 속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 생태계를 만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밴드 음악, 클럽 음악이라는 부평 고유의 역사를 유지하면서 부평구문화재단과 함께 흥대 라이브클럽협동조합이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말하자면, 다른 지역의 음악인, 음악적 자원과의 협업을 통해 음악 도시 부평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본 것이다.

외부에서 온 음악가들은 부평의 밴드음악의 역사를 배우고, 직접 현장을 탐방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부평3동 신촌로에서 부평의 음악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에스컴시티 프로젝트'를 열었다. 당시의 문화와 음악을 다시 해석하고 재현하는 토크 콘서트와 버스킹, 동네 탐방 프로그램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부평 지역 라이브 클럽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라이브 클럽 스테이지'를 '흥대 제42회 라이브클럽데이'와 함께 열었다.

다음날 본 공연 때에는 국내의 밴드들은 물론, 일본 인디락 밴드 '더 밴드 어파트'와 대만 대표 밴드 중 하나인 '엘리펀트 짐'을 초청해 공연을 가졌는데, 음악 도시 부평이라는 프로젝트의 비전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2019년 '부평음악도시축제 뮤직게더링 2019'는 '지역 예술가와의 소통'이라는 키워드 아래 부평 출신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중심으로 열렸다.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에스컴 시티 뮤직 아트페어라는 단체가 만들어져, 독자적인 공연은 물론 부평의 대중음악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부평 대중음악 둘레길 조성에 나섰다. 캠프 마켓 주변을 도는 1코스, 부평의 신촌 지역을 도는 2코스, 삼릉 지역을 도는 3코스까지 기획한 상태이다.

부평밴드페스티벌로 시작된 부평음악도시축제 뮤직게더링과 부대 행사, 그리고 부평 대중음악 둘레길 조성과 같은 연계된 자발적인 기획들은 현재 진행 중이고, 아직 그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2020년 시점에서 '부평풍물대축제'와 더불어 부평이라는 지역의 이미지를 다져나가는 프로젝트라는 점은 분명하다.

### 3) 술아술아음악제

부평풍물대축제, 부평음악도시축제 뮤직게더링이라는 큰 축제와 더불어 음악 도시 부평을 알리는 또 하나의 축제로서 기획된 것이 술아술아음악제이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 민중가요의 중심으로 부평을 자리매김하려는 시도이다. 암울했던 1970~1980년대 부평은 구로공단과 더불어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모여든 곳이자 대학생들이 위장취업을 통해 노동운동을 이끌어가던 곳이다. ‘아침 이슬’, ‘늙은 군인의 노래’로 유명한 김민기가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상록수’를 작곡한 곳이기도 하고, 민중가요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 원작자인 박영근 시인이 생을 마감한 곳이기도 하다. 이른바 ‘노동문학’이라는 새 지평을 연 박영근 시인의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 시비(詩碑)가 신트리공원에 세워져 있기도 하다.

술아술아음악제는 한국 대중음악의 뿌리인 부평에서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의 기억을 기리는 사업이자,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민중가요, 노동가요의 축제이다. 노래뿐만 아니라, 시인이거나 무용가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인데, 2016년 시작된 축제는 2019년으로 4회째를 맞이했다. 통상 10월에 부평풍물대축제, 부평음악도시축제 뮤직게더링이 열린다면, 술아술아음악제는 5월의 축제로 자리 잡고 가고 있는 중이다. 2018년 음악제에서는 인천 콜트악기 등에서 기타를 만들다 해고된 후 12년째 복직을 요구하며 노래하면서 투쟁하고 있는 해고 노동자 밴드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밴드’가 무대를 빛내 주었다. 이른바 글로벌 경쟁 시대에 노동자들의 삶은 갈 수록 피폐해져 가고, 노동·민중가요는 결코 과거의 노래로 추억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음악제를 통해 확인시켜 준 것이다.

### 4) 정월대보름 맞이행사

정월 대보름행사는 부평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 중 하나이다. 부평문화원이 행사를 주관한다. 지신밟기, 전통 활쏘기 대회, 단체 줄넘기 대회, 연 만들기, 투호놀이, 솟대 만들기, 불깡통 돌리기 등 전통놀이 체험 마당이 있고, 달집태우기, 강강술래 및 구립 풍물단, 지태령밴드 등 문화예술 공연도 곁들인다. 2020년 2월은 코로나19 사태로 중지되어 버렸지만, 부평의 전통 축제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유산이다. 그 외에도 부평문화원은

‘전통성년식’, 옛날의 초가집의 이영 없기를 재현하는 ‘동고동락 이영없기’ 행사, 굴포천에서의 단오놀이를 재현한 ‘부평 초록굴포 단오놀이’,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이자 민속놀이 대회였던 ‘두레천하’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개최하였다.

### 5) 일상 속 축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이벤트로서의 축제는 부평에 충분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은 일상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작은 축제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부평 역시 이 과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바로 ‘부평문화의 거리’ 조성이다. 인천 최고의 길거리 공연장이 있는 문화의 거리에는 주말마다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며 공연 문화를 키워나가는 즐거움을 주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 또한 주변에는 수십 년 전통의 손뜨게질 골목과 수입 식료품, 인천 최대의 커튼 도매 골목, 그리고 국내외 유명 의류 브랜드들이 있어 다양하게 쇼핑이 가능하며, 더욱이 주말 프리마켓 등 여러가지 테마 행사가 있어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대형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부평 문화의 거리는 인천의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관광자원으로서도 기대가 크다.

이러한 문화거리를 중심으로 다달이 작은 축제들이 펼쳐진다. 먼저, 부평의 구석구석을 음악으로 채우려는 이벤트로 ‘M부평 뮤직워크’가 있다. 음악이 흐르는 도시 부평이라는 컨셉트로 기획된 것이다. 최근의 2019년의 부평뮤직워크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렸는데, 더더, 스트릿건즈, 아코디엠(이자원 아코디언 트리오) 등 유명 뮤지션은 물론 인천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뮤지션들과 생활예술 동아리까지 참여하는 공연으로 채워졌다.

‘M부평 뮤직워크’의 포인트는 장소에 있다. 부평문화의 거리의 분수대 무대, 야외무대를 시작으로, 굴포먹거리타운의 쉼터놀이 공원, 아쿠아 카페, 부평문화의 거리의 재즈 펍 창고, 레코드바 슬로스, 그리고 부평공원 분수대와 퍼즈, 61파크에비뉴 등 부평의 소위 핫플레이스(hot place)에서 음악 축제가 펼쳐진다. 길 가던 주민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음악행사이다.

2020년 10월 16, 17일, 이틀간 진행된 ‘슬기로운 여가생활’이라는 작은 축제는, 올해

로 3년째를 맞는 부평 꽃 축제와 함께 기획·진행되었다. 부평창고킴 등 세 곳의 무대에 서는 해금 켜는 은한, 브루나, A.S.H 밴드의 아름답고 감미로운 공연이, 부평문화의 거리 중앙 야외무대에서는 그래피티 라이브 페인팅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최근에 독립운동가를 모티브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는 그래피티 작가 레오다브(LEODAV)가 참여했다. 순식간에 완성된 그래피티 작품에 시민들은 감탄했는데, 코로나19의 확산하는 가운데 잠시나마 주민들의 일상에 숨통을 틔어주었다.

2019년으로 4회째를 맞는 ‘부평M스타가요제’는, 말하자면 시민들에게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뽐낼 수 있도록 하는 자리이다. 상금도 있으며, 연령 제한 없이 댄스, 노래, 퍼포먼스 등 장르 불문하고 모두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말하자면 동네 노래자랑인 셈이다.



❖ 2020년 10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는 슬기로운 여가생활이라는 작은 축제가 펼쳐졌다. (출처 : 부평구 문화재단 공식 블로그)

### 3. 부평의 대표적인 전시, 공연

#### 1) 미술 전시(부평아트센터)

‘차별화된 기획, 전시 영역의 확대, 지역 미술의 활성화 견인’을 모토로, 세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다양한 전시 기획을 시도하고 있다. 첫째, 지역 주민들에게 동시대 미술에 관한 다양한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전시를 기획하며, 둘째, 문턱을 낮춘 우리 동네 미술관을 지향해 지역 주민들에게 모두에게 문화적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셋째, 자체 기획, 제작으로 다른 곳과의 차별화된 전시 콘텐츠를 생산해 아트센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최근 3~4년간의 전시를 일별해 보면, 지역 작가 소개전, 창조적인 청년 작가 육성 프로그램의 결과물 전시,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입상한 아이들의 그림 전시,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의 작품 전시전 등 지역, 청년을 기본적인 컨셉트로 하고 있다. 2019년의 전시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평 작가 열전 「자연감각」, 「너에게 가는 길은 말랑말랑」, BUKIF어린이 그리기 대회 수상작 전시 「너랑나랑 놀앙노랑」, 부평영크리에이트비 2기 당선자 기획 전시 「아워피크닉 레퍼런스」, 6th부평옥션 화이트세일 경매 후 전시, 송년 특별 기획 전시 「민화, 변치 않는 소망을 입다」 등이다.

음악 도시 부평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 때문에 시각 미술과 관련한 전시가 조금 빈약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지역과 청년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작지만 알차게 한 단계씩 전진하고 있다. 특히, 육성에서부터 제작 지원과 전시로 이어지는 부평 영아티스트 프로젝트 등은 향후가 기대된다.

#### 2) 박물관 전시(부평역사박물관)

부평역사박물관은 2007년에 개관한 이래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부평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상설전과 함께, 부평 사람들의 애환이 담긴 마을의 역사·사람들의 역사를 모아서 하는 특별 전시를 꾸준히 기획하고 있다. 우선 상설전은 농경문화실과 부평역사실로 나뉜다. 농경문화실은 전통시대 생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진 전시 공간인데, 과거 농촌사회의 사계절의 일상을 재현한 디오라마(diorama)와 함께, 각종 농기구들도 전시하고 있다. 또한 세시풍속, 의식주, 관혼상제 등 세 가지로

전통 생활을 구분하여 각각의 주제와 부합하는 영상 및 유물 자료들을 전시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부평 지역의 대표적 무형 문화유산인 '삼산두레풍물' 관련 전시 공간과 '19세기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시청각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부평역사박물관은 부평지역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다. 근현대 편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축소한 듯한 전시 공간인데, 경인철도의 부설로 인해 근대도시로 바뀌어 가는 부평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일제강점기 병참기지화된 부평에 미쓰비시 제강이 들어서는 내용이 담긴 영상도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픔을 상징하는 미쓰비시 출사택의 자재를 보존처리 후 전시해 놓았으며, 인천육군조병창 관련 유물을 통해 징용의 아픈 역사가 담겨있는 일제강점기 부평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해방 후 미군부대가 들어선 후 애스컴 시티에서 캠프 마켓으로 변해가는 부평 미군부대 관련 유물도 전시되어 있으며, 부평수출산업공단의 조성으로 산업화되어 가는 부평의 모습과 부평에서 전개된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요컨대, 근대 군수 도시에서 공업 도시로 변모해 가는 부평의 모습을 다양한 유물과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부평시장, 시대를 사고 팝니다' 기획전시 팸플릿(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상설전과 더불어 특별전시들이 눈에 띈다. 부평의 역사를 부평 사람들의 일상의 애환과 더불어 풀어내고자 한 기획들이 돋보인다. 2014년부터 전시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산곡동 사람들의 삶을 다룬 「원적산 너머 뗏골 마을 이야기」(2014), 부평의 교육사, 부평의 학교 이야기를 담은 「그 시절 우리들의 이야기 : 부평에 학교가 세워지다」(2015), 부평에 조병창이 들어서고, 일본 자본이 들어와서 공장이 건설되면서 하나둘씩 만들어진 '신촌', 이후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기지촌으로 변모해 가던 '신촌', 한편에서는 미국식의 클럽 문화가 들어서고 다른 한편에서는 미군 사이에서 혼혈아들이 태어나던 복잡한 공간 '신촌'의 역사를 되짚어본 「신촌 다시 보기」(2015), 부평역사박물관 10주년 기념 전시로 기획된 부평의 근현대사를 한곳에 모은 「부평」(2017), 십정동의 마지막 달동네를 통해 부평 지역 소규모 마을의 생활상을 살펴보려는 기획으로, 특히 철거민촌으로 시작한 열우물마을 달동네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지기에 더욱 뜻깊었던 전시 「부평의 마지막 달동네, 열무물연가」(2017), 1945년 해방을 맞이한 부평의 군수공장 사람들의 삶을 이규원의 자전적 소설 「해방공장」을 모티브로 삼아 꾸민 기획전 「해방 공장」(2018), 부평수출산업공단의 빛과 그림자의 역사, 그리고 그 공간을 살아간 사람들의 눈물 나고, 땀 냄새 나는 삶을 다룬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 피와 땀 그리고 눈물」(2018), 2020년 10월이 되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캠프 마켓의 역사를 되짚는 「헬로우 애스컴시티, 굿바이 캠프마켓」(2019). 가장 최근에 열린 부평시장의 모습과 부평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는 기획전 「부평시장, 시대를 사고팝니다」(2020)는 부평역사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함께 기획하였는데, 청년 사업가들이 젊은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감성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까지 담았다.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의 역동성까지 담아내려는 이러한 기획들은 지역 주민들은 물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흥미를 유발하는 기획이었다.

### 3) 공연

'창의적인 우수 기획 공연을 통해 부평아트센터 공연장의 차별화'를 모토로,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첫째,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창의적인 공연프로그램 제공, 둘째, 우수 공연 콘텐츠를 통한 지역민의 문화 욕구 충

족, 셋째, 지역민을 선도하는 문화시설로서 부평아트센터의 자리매김이다. 요컨대, 부평아트센터를 좀 더 차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지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주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당면 목표인 것이다.

최근 3~4년간 공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여러 도시에서 한창 성황 중인 창작뮤지컬의 시도이다. 그런데 이런 창작뮤지컬 제작에는 그 지역만의 고유한 스토리가 있어야 하는데, 부평은 부평만의 스토리가 있다는 게 무엇보다 큰 힘이다. 2017년, 2018년 제작, 공연된 창작 뮤지컬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대중음악의 60년의 뿌리, 부평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공연이다. 부평의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창작 공연이자, 음악 도시 부평의 가치를 남아낸 공연으로 평가받았다.



❖ 창작 뮤지컬 「허스트스윙밴드」 포스터

2019년과 2020년에는 더 나아가 창작 뮤지컬 「허스트스윙밴드」를 내놓았다. 자유로운 음악 재즈의 중심지인 부평에서 1970~1980년대의 사건들과 연결해 역사의 현장에서 펼

쳐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1970년대 부평에서 뭉친 청년들이 밴드를 결성, 부산까지 떠나는 여정을 그렸다. 그 과정 속에는 군부 독재에 맞선 부마항쟁, 노동운동 등 격동의 시대도 자연스럽게 담겨 있다.

공연과 관련해서 특기할 만한 게 한 가지 더 있다. 2018년에 베스트셀러 소설 「아몬드」를 낭독극으로 만들어 무대로 올린 것이다. 공감 불능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준 이 소설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한 소년의 특별한 성장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얼마나 소중한지, 소통과 공감에 대해 물음을 던졌다. 대중성을 가진 작품을 재빠르게 무대에 올림으로써 부평의 문화적 발신력을 높이고자 한 기획력이 돋보였다.

#### 4) 콘서트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이나 달누리극장 혹은 부평문화사랑방이나 지하철 역사문화공간(부평구청역, 굴포천역)에서는 매달 클래식, 대중음악 등 각종 음악회가 열린다. 기타연주회, 피아노 리사이틀, 브런치 콘서트, 송년 음악회, 오페라까지 레퍼토리 또한 다양하다. 2020년 11월에는 도니제티 오페라 「돈 파스칼레」이, 12월에는 더 하우스 콘서트Ⅲ 「라흐마니노프」가 열렸는데,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짰으며, 티켓 가격도 7,000원 정도로 한껏 문턱을 낮추었다. 문화가 있는 날 「오늘도 무사히 콘서트」는 뮤직 시티 부평의 기획 속에 이루어진 공연으로 기타리스트 박주원, 조정치가 무대를 꾸몄다. 2020년 11월에는 꾸준히 부평과 함께하고 있는 방송인 이금희가 마이크를 잡은 「브런치 콘서트 이금희의 [만추서정 晚秋抒情]」이 열렸는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명곡들로 가득 채웠다.

#### 5) 시민들이 꾸려 가는 공연들

부평시장역 근처에는 ‘복합문화공간 지금’이 있다. 이 공간의 운영 주체이자 이 공간을 주된 연습실 삼아 활동을 하고 있는 ‘공연 창작소 지금’이 있다. 주로 연극을 공부해 온 연극인들이 모여 만든 전문예술단체인데, 창작극을 만들어 공연 활동을 하는 게 단체의 목적이다. 여기에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교육 연극 활동을 병행해 오고 있다. 인천

문화재단의 시민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우리동네 낭독극장」은 연극의 문턱을 낮춘 낭독극으로, 주로 20~30대 여성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원작 「우리들의 에그타르트(김혜정 저)」를 각색한 낭독극을 코로나19 사태로 무관중 상태에서 공연했다.<sup>22</sup> 문화적 욕구를 발산하고 싶은 지역민들의 욕구를 관(官)이 다 해결할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 문화예술 정책이란 좋은 생태계를 만들고, 지역에 거점을 둔 예술가들이 일반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예술가들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합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예술적 실천은 보다 더 주목해야할 것이다.

#### 4. 부평의 공연 단체<sup>23</sup>

##### 1) 부평동풍물연합회

부평동풍물연합회는 부평의 22개 동의 풍물패연합회로 매년 부평구 동풍물단 발표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자발적 축제 참여를 이끌어내고 향토 민속의 전통 놀이를 통해 문화예술 도시를 구현하고 있는 단체이다. 최근의 대표적 공연으로는 「오방퍼포먼스」가 있다. 옷다리 판굿을 바탕으로 재창작한 작품으로서 오방놀이와 오방색의 화려함 및 대형의 기교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갈산1동 갈월풍물단	갈산2동 사근다리풍물단	부개1동 마분풍물단	부개2동 모듬두령풍물단	부개3동 한마음풍물단
부평1동 서부동풍물단	부평2동 남부골풍물단	부평3동 신촌어울림마당	부평4동 대정풍물단	부평4동 동수재이풍물단
부평6동 동수풍물패	산곡1동 원적고을풍물단	산곡2동 마장풍물단	산곡3동 화랑풍물패	산곡4동 뫼골풍물단
삼산1동 삼산두레놀이	삼산2동 한울타리풍물단	십정1동 열우물풍물단	십정2동 꽃밭골풍물단	일신동 마을지킴이풍물단
청천1동 장수산풍물패	청천2동 청풍풍물단			

❖ 각 행정동 풍물패

22 「인천문화재단, 인천투데이 공동기획-인천 시민문화활동 현장을 찾아서③ 공연창작소 지금 '우리동네 낭독극장」, 『인천투데이』, 2020년 9월 14일자.

23 이하 내용은 부평풍물대축제 홈페이지-‘작지만 힘 나는 공연’을 중심으로 요약하였다.

##### 2) 미추홀정가원

미추홀정가원은 참소리 정가를 바탕으로 인천 시민의 정서와 멋이 깃든 마당을 연출, 기획하며, 전통예술시조·민요·무용 등 공연을 통하여 계층 간에 소통과 이웃에게 전승하여 보존하며, 인천에 참다운 예술문화를 꽃피우고자 한다. 최근의 대표적인 공연으로는 「축원무 / 배 띄워라 / 진도 북춤」이 있다.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관청에서 예능을 가르친 예기(藝妓)들이 외국 사신들이나 나라의 경사스러운 연회가 베풀어질 때 추던 춤인 ‘축원무’와 춤으로 부르는 국악가요 뱃노래 「배 띄워라」, 그리고 인간문화재 박병천 선생에 의해 재창조된 진도 북춤으로 양손에 북채를 들고 가락 위주로 추는 아름다운 몸짓과 조화를 이루는 ‘진도 북춤’을 선보였다.

##### 3) 부평두레놀이보존회

2014년 7월 22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인정을 받았다. 이에 매해 도시 축제의 초청공연으로 두레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평풍물대축제의 근간인 두레놀이는 농촌 전통문화를 되살려 지방 소도시의 풍물과는 차별화되어 있으며, 인천부평두레놀이 보존과 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부평두레놀이보존회 공연 모습(출처 : 부평풍물대축제 공식 홈페이지)

#### 4) (사)서도창배뱅이연구보존회

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배뱅이굿으로 지정된 종목을 전승 및 교육하는 단체이다. 서도소리는 이북에서 불리던 민요 및 잡가로, 남·북이 단절되어 전승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어서 보존회는 서도소리를 유지하고 확산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의 대표적인 공연으로는 「배뱅이와 팔도마당놀이」가 있다. 배뱅이굿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배뱅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배뱅이 부모가 배뱅이의 죽은 내력을 알고자 각도 무당들을 불러다 굿을 벌이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 5) (사)염전놀이보존회

인천의 옛 모습을 기억하고자 자염이라는 소재로 놀이문화를 재현 및 창작하는 단체이다. 염전놀이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로 자리매김 되도록 현대 예술과 과거의 예술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 마당을 실현하고자 주력하고 있다. 최근의 대표적인 공연으로 「부평 젊은 예술로 물들이자」가 있다. 차세대 주역이 될 젊은 명인들이 이끄는 젊은 소리관인데, 배꽃타령·연평도난봉가·배치기 등 간절함과 그리움이 가득히 묻어나는 노랫말을 담고 있으나 새롭게 창작한 리듬조를 더하여 신명나고 경쾌한 흥이 나는 한마당 소리관이 펼쳐진다.

#### 6) (사)인천남사당놀이보존회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된 남사당놀이인 덜미(인형극), 덧뵈기(탈춤), 풍물놀이, 버나, 살판, 어름(줄타기) 등 무형문화재의 연구 보존 선양 및 인천의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교육 사업으로 매주 토요일 전승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2회 풍물 캠프를 운영하며 왕성한 국내 활동 및 해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이다. 최근의 작품으로는 「남사당 박첨지 ‘인천유람기」」가 있다. 남사당놀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덜미(인형극)의 박 첨지가 등장하는 장면을 공연한다. 화합의 무대를 만들 수 있는 상모 놀음과 함께 어우러지는 풍물놀이와 버나(대접돌리기), 살판(땅재주) 등 수준 높은 재주와 해학적인 재담을 통해 현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연희자와 관객의 동질감·유대감을 형성하고 전통 연희에 재미와 흥미를 선사한다.

#### 7) (사)연희단 비류

연희단 비류는 전통 연희의 원형을 발굴, 보존함과 동시에 대중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창작 활동을 목표로 2015년에 창단되었다. 대중들이 쉽게 접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비류만의 연희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단체로 나아가고자 한다. 최근 작품으로는 「보부상과 소장수 놀이」가 있다. 장사가 잘 안되는 상황에서 보부상이 바지 장수를 만나 서로 마음을 맞추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위기를 헤쳐 나간다는 이야기와 소장수가 일을 안 하고 피만 부리는 소를 팔러 나왔다가 이 소의 재주를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를 공연한다. 바지 장수의 신나는 장사 노래, 보부상 장사꾼의 화려한 버나, 소장수와 소의 흥겨운 사자놀이를 볼 수 있는 작품이다.

#### 8) 인천 자바르떼

2004년 설립 이후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지역의 예술가들이 안정적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다. 2010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아, 문화예술인 및 기획자가 공공적이고 창조적인 문화예술 교육과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의 작품으로는 「찾아가는 예술체험마당 ‘얼쑤」」가 있다. 전통예술이 가진 공동체성을 통해 연희자와 관객이 함께 어우러지며 활력을 주는 작품이다. 본 작품은 2011년부터 꾸준히 연행되어 오면서 다양한 관객과 소통하고 발전해 왔다. 전통 풍물의 풍성함과 전통 연희의 기량을 즐기는 풍물 공연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다.

#### 9) 공연 창작소 지금

공연 창작소 지금은 전문예술인들이 모여 설립한 전문예술단체다. 다수의 창작극을 제작하고 국제교류 공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교육 연극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2019 복합 문화 공간 지금을 조성, 부평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작품으로는 「음악극 “사랑가(歌)…뽀뽀”」가 있다. 마당극 형식에 전통 장단에 맞춘 몸짓 연기와 더불어 우리에게 익숙한 1960~1970년대 대중가요를 가수(신용남)가 무대에서 직접 라이브로 들려주는 미니 콘서트 형식의 무대이다. 드라마와



노래를 같이 즐길 수 있으며 효과음향을 배우들이 직접 연주함으로써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 10) 매직켓 커뮤니케이션

‘상상의 세계를 현실로 재현’하는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들로 다양한 공연 기획 및 제작, 콘서트, 해외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이다. 대중이 상상하고 원하는 바를 눈 앞의 시공간으로 끌어내 다채로운 경험과 재미를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작품으로는 「매직켓 with 퍼포먼스」가 있다. 음악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과 마술이 가진 신비로움을 융합시킨 융복합형 공연의 매직 퍼포먼스이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비둘기 마술과 빛이 가진 신비로움과 화려함을 LED 조명을 통해 재연해 내는 공연을 선보인다. 암전 무대에서 LED 조명 빛만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화려함과 신비로움의 매력을 선사한다.

#### 11) (사)한국 고고장구 진흥원

잊혀져가는 우리 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고고 장구를 중심으로 무용·가요·풍물·민요를 포함한 종합 문화 형태의 예술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문화 예술의 멋, 흥과 열이 깃든 고고장구와 춤을 우선으로 하는 종합 예술 단으로서 행복·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예술단이다. 최근 작품으로는 「바다의 여왕 / 여인들에게 향기 속으로」가 있다. ‘바다의 여왕’은 어촌의 풍경 속에서 바다를 주관하는 바다 여왕의 아름다운 모습을 현대식으로 변형된 장구 가락으로 표현한 역동적인 춤이며, ‘여인들에게 향기 속으로’는 여인의 아름다움과 정갈함, 우아함을 함축하여 화려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구성을 갖춘 작품으로 화려한 접부채를 양손에 들고 추는 춤이다.

#### 12) 쇼디자인그룹 생동감

젊은 크리에이터들로 구성된 창작 예술 단체로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을 만들기 위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벽을 허물고 사람과 기술이 만나는 독창적인 융복합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의 작품으로는 「<오방색(5Colors) / LED 화관무 /

전통 비보이」가 있다. ‘오방색’은 전통 색상인 오방색을 다양한 전통 컨셉트와 ‘빛’으로 표현하는 암전 퍼포먼스다. ‘LED 화관무’는 환영과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화관무를 재해석하여 다양한 소품을 가미해 어둠을 빛으로 수놓은 작품이다. ‘전통비보이’는 동양의 춤인 한국무용과 서양의 춤인 비보이의 융합 퍼포먼스이다.

#### 13) 아리아

2013년에 창단된 찾아가는 어린이극 연극 단체로서, 전래동화 연극을 통해 어린이들이 성현의 정서와 지혜를 익힐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제공한다. 또한 여성들에게 자기 계발 및 사회 참여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힘쓰고 있다. 최근 작품으로는 「별주부전」이 있다. 푸른 바닷속 몸쓸 병에 걸린 용궁님을 위해 충성스러운 자라가 유일한 약인 토끼의 간을 구하며 펼쳐지는 이야기로, 아이들에게 익숙한 전래동화를 재미있는 극으로 보여줌으로써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사고력을 일깨워 주는 작품이다.

#### 14) 예술 숲(Arts Forè)

다양한 창작자, 아티스트가 함께 꾸며가는 크리에이티브 플랫폼이다. 전통음악 및 전통 소재를 베이스로 확장된 음악과 함께 전통예술 공연·창작 음악·창작 연희의 현대적 감각의 크로스오버 등 창작자와 아티스트들이 협업을 통하여 새로운 공연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 최근 작품으로는 「만선」·「사설난봉가」·「청춘예찬(Viva! My Life)」 등이 있다. 「만선」은 물고기를 가득 잡아 육지로 돌아오는 만선의 기쁨을 노래하는 작품이고, 「사설난봉가」는 서도민요의 한 곡으로 난봉가 류에 속하며 부는 타령 장단에 흥겹게 노래한다. 「청춘예찬」은 청춘의 희망을 담은 곡으로 황해도 배따라기의 가사에 새롭게 선율을 붙인 노래이다.

### 15) 예인아트 - 플라플라멩코 공연단

예인아트는 경계 없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이 누구나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는 단체다. 예인아트와 함께하는 플라플라멩코 공연단은 정통 플라멩코는 물론 오페라·뮤지컬·연극·국악 등 다양한 장르를 공연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 국왕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으며, 스페인 국빈 방문 시 청와대 만찬에서 공연하였다. 「플라장과 함께하는 스페인 플라멩코」가 최근 작품인데, 환상의 플라멩코 탭과 격렬하면서도 절제된 움직임의 무용수(Baile), 탄식의 호흡을 전달하는 노래(Cante간떼), 뜨거운 스페니쉬 기타(Toque)의 완벽한 형태로 플라멩코 공연을 선보인다. 환상의 리듬과 압도적 분위기로 플라멩코에서 느낄 수 있는 고독, 슬픔, 황홀, 달관, 환희 등을 표현하여 플라멩코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다.

### 16) 인천밴드연합



◆ 인천밴드연합의 공연 모습(출처: 부평풍물대축제 공식 홈페이지)

한국을 대표하는 부평 출신 블루스 기타리스트 정유천과 젊은 실력과 뮤지션으로 결성된 밴드이다. 음악적 기반을 블루스(Blues)에 두고 있지만 관객과의 소통을 위해 락, 팝,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자작곡 「신촌」, 「ASCOM City Night」, 「빨간사과」, 「터진개 블루스」 등은 인천의 정체성과 정서가 담긴 곡으로 밴드가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정을 잘 보여준다. 1960~1970년대 부평 신촌(부평3동)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 강화도 외포리에서 겪었던 일들, 도시를 떠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등 다양한 소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를 블루스, 락 등 음악을 통해 들려주는 무대를 선사한다.

### 17)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전통예술을 중심으로 콘텐츠 개발, 연구 사업, 공연 제작, 교육 사업, 극장 운영 등 문화상품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이다. 창단 이래 해외 28개국 50여 개 도시의 축제와 무대에서 한국음악을 소개함은 물론,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협연을 통해 한국 전통음악의 정체성을 알리고 있다. 최근 작품으로는 판놀음 「상생의 비나리」가 있다.

창작 관현악 「신모듬」을 사물놀이 타악기와 태평소, 신디사이저, 모듬 북 등의 선율 악기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선율 악기와 타악기의 소리 조화는 거대한 춤의 물결을 연상시키고 흥과 신명이 크게 부풀어 오르게 하며, 이를 사물놀이 독주가 더욱 고조시키면서 이 작품의 정점을 경험케 한다.

### 18) 전통타악 아작

다양한 공연 기획 및 축제를 통하여 전문화된 문화예술 영역을 개발하고, 예술 현장의 활성화 및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이다. 연주자들의 유쾌하고 재치 넘치는 사운드와 퍼포먼스는 전통 타악의 갈증을 해소해 준다. 또한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 퓨전 공연 등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새로운 콘텐츠들을 담아내는 문화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의 작품으로는 「가락떼기」, 「장구프리」 등이 있다. ‘가락떼기’는 남사당놀이에서 사용하는 채상모를 모티브로 특수 제작한 전자 상모를 쓰고 서양 악기(스네어)와 팽과리, 재활용 드럼통을 조합하여 휘모리장단과 삼채장단

을 연주하는 공연이다. '장구프리'는 삼도설장구 가락을 재해석하여 정교하고 역동적인 연주를 선보인다.

### 19) 한국블루그래스음악클럽

밴조·바이올린·기타·아코디언 등 어쿠스틱 악기만을 이용하여 미국의 민속음악인 블루그래스와 스위스의 민속음악인 요들송을 연주하는 혼성 5인조 공연 팀이다. 연 40여 회 활발한 공연을 펼치는 한편, 인천 부평을 본거지로 전국적으로 400명에 달하는 등록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음악을 통한 자아실현 및 공연을 통한 사회봉사라는 설립 목표를 충실히 구현해 가고 있다. 최근의 대표적인 공연으로는 「신나는 요들송과 블루그래스의 메아리」가 있다. 밴조·바이올린·기타·아코디언의 어쿠스틱 반주와 함께 경쾌하고 흥겨운 요들송과 블루그래스, 그리고 일반 관객들에게 친숙한 다양한 레퍼토리를 공연한다.



## 참고 문헌

### 단행본

- 부평구자원봉사센터, 『넉터』(연간지), 2019.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1·2,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2019 부평구문화재단 인지도 및 문화수요 조사 결과보고서』,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2019.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2019 부평문화재단 연차보고서』,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2020.  
인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사』, 도서출판 선인, 2019.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교육노동운동사』1, 다인아트, 2006.

### 논문

- 이희환, 「인천 지역의 도시문화운동」, 『로컬리티 인문학』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 신문

- 『인천투데이』





# 연표



김 중 구(ARGO인문사회연구소 연구원)

## 연표

~ 500년	
한국사	~ 698년 삼국시대
부평사	475년 고구려 장수왕 15년, 장수왕이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백제의 태자 문주왕이 응진으로 천도. 부평 지역이 고구려 영토에 편입되고, 주부토군(主夫吐郡)이 설치됨.
501 ~ 1000년	
한국사	698년 남북국시대 918년 고려 개국.
부평사	757년 신라 경덕왕 16년, 경덕왕이 전국 9주의 명칭과 군현의 지명을 당나라식의 한자어로 바꿈. 이때 주부토군은 장제군(長堤郡)으로 개칭됨. 940년 고려 태조 23, 태조가 토성분정(土姓分定) 정책과 더불어, 주·부·군·현의 명호를 고침. 이에 장제군은 수주(樹州)로 개칭됨.
1001 ~ 1391년	
한국사	1170년 무신정변 발생. 1216년 몽골의 고려 침입이 시작. 1270년 1356년까지 원나라의 고려 지배가 시작됨.

부평사	1127년 부평향교 창건. 1150년 의종 4년, 수주를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로 개칭. 1215년 고종 2년, 안남도호부를 계양도호부(桂陽都護府)로 개칭. 1219년 고종 6년, 이규보가 계양도호부 부사로 좌천되어 부임해 옴. 1308년 충렬왕 34년, 계양도호부를 길주목으로 승격. 1310년 충선왕 2년, 길주목을 부평부로 변경.
1392 ~ 1870년	
한국사	1392년 조선 개국. 1592년 임진왜란 발발.
부평사	1395년 태조 4년, 부평부가 경기도에 속하게 됨. 1413년 태종 13년, 경기좌, 우도가 경기도가 되면서 팔도 체제가 성립, 부평부를 전례에 따라 부평도호부로 승격. 1438년 세종 20년, 온천 은닉죄로 부평도호부를 부평현으로 강등. 1446년 세종 28년, 부평현을 부평도호부로 환원. 1455년 세조 원년, 부평에 군사기지인 중익진 설치, 병마첨절제사가 부사를 겸임함. 1505년 연산군 11년, 환관 김순손의 고향이라 하여 부평도호부를 부평현으로 강등. 1506년 중종 원년, 부평현을 부평도호부로 환원. 1698년 숙종 24년, 장릉에 방화한 죄인 최필성의 출생지라 하여 부평도호부를 부평현으로 강등. 1707년 숙종 33년, 부평현을 부평도호부로 환원. 1853년 철종 4년, 부평향교 명륜당, 대성전 등 대보수.
1871 ~ 1909년	
한국사	1876년 강화도조약 1910년 경술국치(한일병합조약 체결)
부평사	1871년 고종 8년, 1월 25일, 부평부에 포수 300명 배치. 1879년 고종 16년, 7월 1일, 부평에 연희진, 인천에 화도진 신설. 1883년 고종 20년, 9월, 부평부사 박희방, 주민을 동원하여 중심성 축조. 1884년 고종 21년, 1월 31일, 부평부에 기연해방영(畿沿海防營)을 설치하고 연희진 폐지. 1887년 고종 24년, 12월 29일, 부평부사가 토포사를 겸임함. 1895년 고종 32년, 5월 26일,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 시행, 기존의 목부군현(牧府郡縣)을 모두 군(郡)으로 통일함. 부평군은 이때 인천부 관할이 됨. 1899년 광무 3년, 3월 15일, 부평공립소학교(현 부평초등학교) 설립. 1909년 1월 4일, 부평공립소학교(현 부평초등학교)를 부평공립보통학교로 이름을 바꿈.
1910 ~ 1945년	
한국사	1910 ~ 1945년 일제강점기
부평사	<b>정치·경제</b> 1919년 3월 24일, 황어장에서 심혁성 주도하에 만세운동 전개. 1922년 5월 22일, 부평수리조합 설립 신청. 1923년 4월 9일, 부평수리조합, 총독부로부터 설치 인가를 받아 창설(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심곡리 606번지). 6월 29일, 부평수리조합, 김포군 고촌면 신곡리 수원지에서 기공식 거행.

부 평 사	1940년	3월 1일, 부평역전우편소 개소.	
	1941년	10월 24일, 부평역전우편소, 청사를 신축하고 부평우편소로 개칭.	
	1942년	6월 1일, 부평변전소 건립. 10월 1일, 부평에 공회당 건립. 12월 20일, 부평우편소 전화교환 업무 개시.	
	1943년	3월 5일, 황장연, 인천육군조병창에서 고려재건당 조직(1945년 2월 17일, 조선군법회의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 언도 받은 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출옥함).	
	1944년	1월 8일, 총독부 고시 제13호에 의거 부평 제1공원 등 23개소 결정.	
	1945년	1월 15일, 부평 소재 육군자동차 학교, 육군병학교로 개편. 8월 16일, 부평출장소 2층 부평공회당에서 치안대 조직. 9월 10일, 미 제24군수지원사령부, 부평에 있던 인천육군조병창 시설 접수, 주둔 시작. 10월 10일, 인천군정청, 인천부를 제물포시로 개칭하고 제물포시장에 임흥재, 부평지구장에 김석기, 남동 지구장에 오혁근, 서곶지구장에 정원용을 임명함.	
	1945 ~ 1953년		
	한국사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
		1950년	한국전쟁 발발, 1953년 휴전 협정.
		<b>정치·경제</b>	
	1946년	1월 1일, 일본식 행정구역 명칭을 우리 고유의 명칭으로 환원, 개정. 2월 말,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부평지부 발기인 대회 개최. 4월 1일, 서울지방체신국 인천부평출장소에서 해외무전방송 시작. 7월 14일,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부평지부, 소화고녀(昭和高女, 부평동) 교정에서 '독립전취 시인대회' 개최.	
	1947년	10월 15일, 대동청년단 부평지부 결단식 거행. 단장에 이재준, 부단장에 김영길·김건룡 선출.	
	1949년	7월 6일, 대한부인회 부평지회 결성. 11월 25일, 부평우편소를 부평우체국으로 승격.	
	1950년	6월 27일, 인천육군조병창에 주둔하던 미군 철수 시작. 9월 17일, 원통이교개 전투 발발.	
	1953년	6월 14일, 부평포로수용소에서 반공포로 800여 명이 즉시 석방 등을 요구하며 1시간여에 걸쳐 시위. 6월 18일, 전국의 각 포로 수용소에서 반공포로 석방, 부평 제10수용소에서는 560명이 탈출하고 860명 잔류.	
	<b>사회·문화</b>		
	1946년	9월 1일, 인천부평서국민학교(부평1동 542-18) 개교.	
	1949년	4월 5일, 인천부평서국민학교 산곡분교장 설립(이후 1953년 10월 10일에 인천산곡국민학교로 개교)	
	1952년	5월 26일, 부평지역 최초의 사회복지시설인 신명보육원(십정동 185) 설립. 10월 5일, 부평동국민학교 부개분실(부개1동 356) 설립(이후 1955년 5월 1일, 인천부개국민학교로 개교).	
	1953년	9월 30일, 청각언어장애인 생활시설인 성동원(부평동 756) 개원. 10월 10일, 산곡국민학교(산곡1동 87-236) 개교.	

1954 ~ 1960년		
한국사	1960년	4·19혁명 발생.
	<b>정치·경제</b>	
	1954년	1월 15일, 부평 애스컴에 중국인 포로 수용을 위한 수용소 완성. 4월 1일, 부평송신소, 광장수신소를 부평·광장무선전신전화건설국으로 개편.
	1955년	3월 5일, 화랑농장 신축 건물 11채 낙성식 거행. 3월 27일, 국립경찰전문학교 부평동(옛 소화고녀 자리)으로 교사 이전. 6월 17일, 부평정미소(부평동 100번지)에서 화재 발생, 재산피해 750만 4,000환. 8월 5일, 부평파출소 신축. 10월 1일, 일신동과 구산동을 합병하여 부개·일신·구산동이 됨.
	1956년	11월 23일, 인천시 조례 제44호 「인천시출장소설치조례」에 따라 본청 직할의 중부, 북부, 남부, 동부 등 4개 출장소와 주안, 부평, 서곶, 남동, 문학 등 5개 출장소 설치.
	1957년	2월 4일, 부평2동에서 부평3동과 십정2동이 분동. 10월 1일, 부평역 역사 신축 공사 착수. 12월 12일, 부평동 357번지 경인병원 2층에서 화재 발생.
	<b>사회·문화</b>	
	1954년	12월 20일, 청각장애인 수용 시설인 성동원(부평동 756) 설립.
	1955년	5월 1일, 인천부개국민학교 개교(부개1동 356). 5월 5일, 성모자애병원 낙성식 거행.
	1958년	1월 7일, 시각장애인 생활시설인 광명원(십정동 185) 개원.
	1959년	3월 1일,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인 예림원(부평동 633) 개원. 11월 13일, 부평지구 청소년지도위원회 결성.
1961 ~ 1967년		
한국사	1961년	5·16 군사쿠데타
	1965년	베트남전쟁 한국군 파병.
	<b>정치·경제</b>	
	1961년	10월 2일, 부평·광장무선전신전화건설국을 서울국제전신전화국 부평송신소·광장수신소로 개칭.
	1962년	1월 29일, 새나라자동차 창업.
	1963년	1월 4일, 신진자동차, 마이크로버스 양산 개시. 2월 1일, 국민은행 부평지점(부평동 199) 개점. 2월 21일, 부평토지구획정리사업 제2공구(인천시 부평동, 부개동 일대) 시행. 5월 28일,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 부평지부 발족. 6월 8일, 신진자동차, 대형버스 양산 개시. 8월 7일, 전문군경미망인회 인천직할시 북구 분회 및 전문군경유족회 경기도지회 인천 북구 분회 결성. 11월 5일, 신진자동차, 소형승용차 신성호 제작.
	1964년	10월 23일, 부평수출산업공업단지 지정 신청서 제출.
	1965년	6월 16일, 부평 지역(효성동·갈산동·작전동)을 건설부 공고 제141호에 의해 수출산업공업단지 예정지로 지정. 8월 7일, 신진공업주식회사, 초대형 버스 '파이오니어' 제작.

부평사	1965년	11월 19일, 신진공업주식회사, 새나라자동차공업주식회사 인수. 11월 23일, 상공부장관, '인천수출산업공단' 정식 인가.
	1966년	1월 16일, 신진공업주식회사, 신진자동차공업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월 28일, 신진자동차공업주식회사, 도요타자동차공업과 기술 제휴. 4월 8일, '부평수출산업공단' 기공식. 7월 5일, 코리아크리스탈공업사, 부평공업단지 최초 입주 기업체로 지정. 11월 11일, 외국기관노동조합 인천PLO특수지부 산하 부평지구 경비분회 조합원 316명 전면 파업.
	1967년	3월 24일, 경인고속도로 착공. 4월 23일, 부평급수장 신규 공사 착공. 5월 10일, 부평정수장 기공. 12월 20일, 부평내연발전소(갈산동 90) 착공.
<b>사회·문화</b>		
	1962년	11월 5일, 부평남국민학교(부평2동 747) 개교.
	1964년	1월 11일, 대한극장 개관. 3월 13일, 부흥국민학교(부평5동 171) 개교. 4월 22일, 부평라이온스클럽 창립.
	1965년	3월 1일, 부평한일국민학교 설립 인가.
	1966년	12월 6일, 인천간정국민학교(십정2동 501) 개교(이후 1967년 5월 11일 인천동암국민학교로 교명 변경).
<b>1968 ~ 1971년</b>		
한국사	1970년	경제성장의 상징인 경부고속도로 개통.
<b>정치·경제</b>		
부평사	1968년	1월 1일, 구제 실시. 북구·중구·남구·동구 4개 구청 개청. 종래의 9개 출장소는 폐지되고 남구와 북구에만 출장소를 둬. 북구에는 서곶출장소 설치. 9월 30일, 부평디젤발전소 준공. 12월 21일, 경인고속도로 개통(제1차 준공).
	1969년	1월 8일, 북구 부평동에 제2공보관 설치. 7월 20일, 경인고속도로 제2차 개통. 12월 1일, 부평우체국, 국제전화 취급 개시. 12월 22일, 한일은행 부평지점(부평동 357-36) 개설.
	1970년	1월 28일, 부평수리조합이 한강농지개발조합으로 개편(1975년 7월 1일, 김포군으로 이전함). 4월 21일, 인천은행(경기은행 전신) 부평지점(부평동 199-24) 개점. 7월 1일, 부평2동이 부평2동과 동수동으로 분동. 산곡동이 산곡1동과 산곡2동으로 분동. 부평4공단 내에 소방관 파견소 설치. 소방차 1대와 소방관 5명 배치. 11월 24일, 산곡2동과 산곡4동 새마을금고 설치. 12월 20일, 북구 효성동 인천수출산업공단 내 반도상사 부평개발공장 기숙사에서 화재 발생.
	1971년	2월 22일, 인천상공회의소 부평지부 폐쇄. 5월 6일, 부평자유시장 설립. 6월 14일, 미 제121후송병원, 서울 용산 미 제8군 영내로 이전 개원. 8월 16일, 동암역 신설.

부평사	1971년	8월 17일, 부평진흥자유시장 설립. 8월 20일, 부평정수사업소 개소, 8월 30일 부평정수장 준공. 11월 26일, 계양지구 경지정리사업 시작, 1972. 6. 20. 준공. 12월 12일, 부평 소사 지역 전화를 인천 시내 전화로 편입.
	<b>사회·문화</b>	
	1968년	3월 1일, 부평북국민학교(갈산1동 10) 개교. 3월 5일, 부평중학교(부평4동 136) 개교.
	1970년	3월 1일, 부평동중학교(부개2동 120-6) 개교. 3월 30일, 부평여자중학교 (부개2동 120-21) 개교. 5월 6일, 부평청년회의소 창립.
	1971년	3월 4일, 명신여자상업고등학교(산곡동 180-147) 개교이후 1987년 명신여자고등학교(일반계)로 교명 변경.
<b>1973 ~ 1980년</b>		
한국사	1972년	박정희 정권 유신 선포.
	1979년	10-26 사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b>정치·경제</b>		
부평사	1972년	3월 3일, 경기도 소방서조직규칙 개정(규칙 646호)에 따라 부평출장소가 부평 파견소로 승격. 6월 1일, 인천은행, 경기은행으로 상호 변경. 8월 2일, 부평3동 새마을금고 설치. 12월 30일, 부평2동·부평1동·산곡동 신용협동조합 인가, 설치.
	1973년	6월 5일, 부평5동 새마을금고 개점. 6월 30일, 애스컴(ASCOM) 공식적으로 해체.
	1974년	10월 9일, 산곡1동 새마을금고 설치.
	1976년	5월 10일, 부개·일신·구산동을 부개동으로 명칭 변경. 8월 10일, 부평 부안교 개통. 10월 25일, 부평화력발전소 준공, '가스터빈' 발전 개시.
	1978년	6월 22일, 부평백화점 개점. 12월 22일, 대도백화점 개점.
	1979년	1월 16일, 부평종합상가 설립. 9월 1일, 산곡1동청사 신축. 11월 26일, 중소기업은행 부평출장소 개점. 12월 15일, 신부평로지하상가 개설.
	1980년	4월 28일, 갈월종합시장 설립. 5월 28일, 새한자동차, 부평공장에서 '로열디젤' 제1호차 생산기념식 개최. 7월 8일, 시, 군소방서직제 개정(대통령 제9950호)에 따라 부평북부소방서 신설. 8월 1일, 부평정수사업소 가정사에서 인천북부소방서 개소, 부평, 가좌, 효성 3개 파출소 편입. 12월 26일, 조흥은행 부평예금취급소(부평동 204-12, 14, 15) 개점(이후 1981년 7월 7일에 조흥은행 부평지점으로 승격). 12월 28일, 부평전신전화국 산곡분국, 자동식 전화 5,000회선 개통.

부평사	<b>사회·문화</b>	
	1972년	3월 2일, 부평고등학교(부평4동 10-312) 개교.
	1973년	2월 21일, 부평국민학교 화재, 12개 교실 전소. 3월 1일, 청천국민학교(청천1동 34-6) 개교.
	1976년	6월 1일, 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인 은광원(부개동 347) 개원. 6월 7일, 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인 성리원(십정동 586-2) 개원.
	1977년	8월 6일, 부흥어린이공원 준공.
	1978년	3월 10일, 부평서여자중학교(십정동 186-519) 개교.
	1980년	3월 5일, 부평서중학교(십정동 186-79) 개교. 10월 25일, 부평향교, 유림회관 개관식 거행.
1981 ~ 1987년		
한국사	1981년	제5공화국(대통령 전두환) 출범.
	1987년	6·10민주화운동
<b>정치·경제</b>		
부평사	1981년	2월 13일, 청천종합시장(청천동 178-9) 개설. 4월 28일, 인천북부소방서 신축 이전. 5월 20일, 부평 청과도매시장(부평동 252) 개설. 6월 5일, 시장로터리 지하상가(부평동 224-1) 개설. 6월 25일, 대한노인회 인천직할시 북구지회(부평1동 464-28) 창립. 7월 8일, 진도산업, 부평에 국내 최초로 알루미늄컨테이너 공장 완공, 생산 시작.
	1982년	6월 26일, 부평역 앞 JC공원 내 육각정 건립 기공. 9월 1일, 부개동이 부개동과 일신동으로 분동. 11월 17일, 부일종합시장(일신동 107) 개설. 11월 23일, 부평역사를 현대식 건물로 준공.
	1985년	2월 20일, 부평 남부역사 기공. 11월 15일, 부개동이 부개1동과 부개2동으로 분동. 십정동이 십정1동과 십정2동으로 분동.
	1986년	5월 3일, 인천역광장에서 5.3민주항쟁이 일어남. 7월 30일, 복인천우체국 개국. 9월 3일, 대우자동차, 르망제조공장 준공식 거행. 11월 11일, 인천북부소방서 부평파출소 증축.
	1987년	6월 10일, 부평역 앞 87년 민주항쟁의 시작, 6월 26일, 부평로에서 노동자, 시민, 학생 등 2,000여 명 평화대행진
	<b>사회·문화</b>	
	1982년	3월 1일, 세일고등학교(산곡동 179-79) 개교. 5월 18일, 부평도서관(십정동 186-454) 개관. 9월 1일, 신촌국민학교(십정동 186) 개교. 10월 2일, 부원국민학교(부평1동 65-16) 개교.
	1983년	3월 1일, 부개서국민학교(부개2동 155-1) 개교.
	1984년	3월 1일, 부광국민학교(부개3동 69-6), 산곡북국민학교(산곡동 39-1), 산곡중학교(산곡1동 180) 개교. 3월 5일, 부일여자중학교(부평2동 677-1) 개교. 4월 1일, 십정국민학교(십정1동 298-1) 개교.

부평사	1985년	3월 4일, 청천중학교(청천2동 190-58) 개교. 9월 1일, 일신국민학교(일신동 112-3) 개교.
	1986년	3월 1일, 산곡남국민학교(산곡3동 232-1), 삼산국민학교(삼산동 58-2), 부광중학교(부개3동 22-1) 개교. 10월 30일, 선인학원 사태 발생으로 전국 최초 53일간의 휴교령 발령.
	1987년	3월 1일, 대정국민학교(산곡3동 311-150) 개교. 3월 5일, 부흥중학교(부개3동 13-73) 개교. 9월 25일, 세일고등학교 평교사협의회 출범, 인천 전교조운동의 출발.
1988 ~ 1992년		
한국사	1988년	제6공화국(대통령 노태우) 출범. 9월 17일, '88 서울올림픽' 개최.
	<b>정치·경제</b>	
부평사	1990년	1월 1일, 부평3동이 부평3동과 산곡3동으로 분동. 1월 17일, 국민은행 산곡동지점(산곡2동 99-15) 개점. 3월 23일, 대동은행 부평지점(부평동 192-14) 개점. 4월 19일, 서울신탁은행 갈산동출장소(갈산동 73-10) 개점. 4월 26일, 경기은행 동암지점(십정동 356-4) 개점. 5월 1일, 청천동이 청천1동과 청천2동으로 분동. 5월 3일, 한국상업은행 산곡동출장소(산곡동 182) 개점. 5월 29일, 주택은행 동암출장소(십정동 293-10) 개점.
	1991년	1월 5일, 부평전선전화국을 부평전화국으로 개칭. 4월 15일, 초대 인천직할시 북구 의회 개원(5개 분과 위원회 45명). 5월 17일, 한미은행 부평지점(부평동 202-1) 개점. 10월 26일, 동아시타백화점(부평동 70-127) 개점.
	1992년	9월 1일, 갈산동에서 삼산동 분동. 부개2동이 부개2동과 부개3동으로 분동.
	<b>사회·문화</b>	
	1988년	9월 1일, 마곡국민학교(산곡1동 70-1) 개교.
	1989년	3월 1일, 상정국민학교(십정1동 198) 개교. 9월 1일, 마곡국민학교(산곡1동 70-1) 개교.
	1990년	3월 1일, 산곡여자중학교(산곡2동 235-4) 개교.
	1991년	3월 1일, 부일중학교(삼산동 388-5) 개교. 3월 9일, 부원중학교(부평1동 70-131) 개교. 5월 1일, 하정국민학교(십정2동 393) 개교. 9월 1일, 동수국민학교(부개1동 442-23) 개교. 9월 26일, 북구도서관(부평4동 880) 개관. 10월 11일, '계양산살리기 범시민운동본부 결성 준비위원회' 발족.
	1992년	1월 24일, '계양산살리기 범시민운동 추진위원회' 출범. 2월 16일, 협성양로원(산곡3동 370-71) 개원.



1993 ~ 1997년

한국사	1993년	문민정부(대통령 김영삼) 출범.
	1997년	IMF 경제위기.

부평사	정치·경제	
	1993년	12월 1일, 산곡2동이 산곡2동과 산곡4동으로 분동.
	1994년	7월 1일, 갈산동이 갈산1동과 갈산2동으로 분동.
	1995년	1월 1일, 인천직할시 북구의회를 인천광역시 북구의회로 명칭 변경. 3월 1일, 인천광역시 북구에서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최용규 후보 당선. 12월 1일, 부평구 갈산동에 이마트 부평점 개장.
	1996년	3월 28일, 경인선 부개역 영업 개시. 5월 17일, 부평역 광장에서 '5·18광주민중항쟁 16주기 기념식' 개최. 이 기념식에서 '우리땅 부평미군부대 되찾기 운동'이 공식적으로 선포됨. 9월 20일, '우리땅 부평 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 발족.
	1997년	3월 10일, '부평 미군부대 공원화추진 시민협의회' 발족. 5월 14일, '우리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와 '부평 미군부대 공원화추진 시민협의회'가 공동으로 '부평 미군부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 걷기대회' 개최.

부평사	사회·문화	
	1993년	3월 1일, 갈산초등학교(갈산2동 360-1) 개교. 5월 4일, 개흥초등학교(부평4동 905) 개교.
	1994년	2월 1일, 인천여성문화회관 개관. 3월 5일, 부평공업고등학교(갈산동 360-2) 개교.
	1995년	3월 3일, 부광고등학교(산곡동 310-33) 개교. 6월 15일, (사)인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개설. 9월 1일, 부곡초등학교(산곡2동 148-5) 개교. 12월 19일, 협성요양원(산곡3동 370-86) 개원.
	1996년	3월 4일 부평여자공업고등학교 개교, 3월 5일, 부개여자고등학교(부개3동 장고개길 655) 개교, 9월 1일, 구산초등학교(496-5) 개교.
	1997년	3월 1일, 구산중학교(부개3동 497-4) 개교. 9월 30일~10월 5일, '1997 부평풍물대축제' 개최, 부평의 대표적인 축제이자, 부평을 대외에 알리는 상징으로서의 첫발을 디딤.

1998 ~ 2002년

한국사	1998년	국민의정부(대통령 김대중) 출범.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

부평사	정치·경제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박수목 후보 당선.
	1999년	1월 29일, 철도청, 경인전철 복복선 부평 ~ 구로 간 개통. 7월 10일, 부평4동 주민자치센터 개관. 7월 20일, 산곡3동 주민자치센터 개관.

부평사	2000년	9월 29일, 부평구, '대우차 살리기' 가두캠페인 실시. 10월 6일, 인천지하철 개통(환승역은 부평역). 1월 1일, 삼산재가노인복지센터(삼산동 157) 개원. 2월 24일, 부평역사에 롯데 마그넷 부평점 개장. 청천2동 주민자치센터 개관(12월 14일), 십정2동 주민자치센터 개관(12월 15일), 산곡4동와 십정1동 주민자치센터 개관(12월 18일), 부개1동 주민자치센터 개관(12월 21일), 부평1동, 부평2동, 부평6동 주민자치센터 개관(12월 22일), 일신동 주민자치센터 개관(12월 23일), 부평3동 주민자치센터 개관(12월 26일), 갈산1동·삼산동 주민자치센터 개관(12월 27일), 산곡1동, 부개2동 주민자치센터 개관(12월 28일)
	2001년	1월 4일, 부평5동, 산곡2동 주민자치센터 개관.
	2002년	3월 29일, '캠프 마켓' 2008년까지 이전 결정.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박윤배 후보 당선.

부평사	사회·문화	
	1998년	3월 1일, 부내초등학교(부개3동 501-12) 개교. 7월 13일, 협성재가노인복지센터(산곡3동 370-34) 개원. 9월 25일 ~ 9월 27일, '1998 부평풍물대축제' 개최. 12월 28일, (사)인천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개설.
	1999년	3월 1일, 부일초등학교(부개3동 499-85) 개교. 9월 1일, 용마초등학교(청천2동 176-4) 개교. 10월 8일 ~ 10월 12일, '1999 부평풍물대축제' 개최.
	2000년	3월 1일, 부마초등학교(산곡2동 124-106) 개교. 4월 22일, '지구의 날 2000' 행사의 일환으로 부평대로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 개최. 9월 1일, 백운초등학교(십정2동 산37), 한길초등학교(삼산동 393-1) 개교. 9월 29일, 2000 부평풍물대축제 개최(9월 29일 ~ 10월 1일).
	2001년	3월 1일, 갈월초등학교(갈산2동 373), 미산초등학교(산곡4동 128-60) 개교, 3월 5일, 삼산고등학교(삼산동 391-2) 개교. 6월 5일, 굴포천살리기 시민모임 창립식 개최. 9월 16일 ~ 9월 23일, '2001 부평풍물대축제' 개최.
	2002년	3월 5일, 부원여자중학교(부평동 70-128) 개교. 9월 9일, 신명요양원(십정동 577-4) 개원. 9월 30일 ~ 10월 6일, '2002 부평풍물대축제' 개최.

2003 ~ 2007년

한국사	2003년	참여정부(대통령 노무현) 출범.
-----	-------	-------------------

부평사	정치·경제	
	2003년	9월 5일, 부평구경영자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2005년	4월 16일, 십정2동 청사 증축.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박윤배 후보 당선. 7월 5일, 제5대 부평구의회 개원.
	2007년	2월 2일, 중국 대현시 여순구구(旅順口區) 방문단 접견. 4월 26일, 중국 후루다오시 방문단 접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전국에서 2번째).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청천2동 최우수상 수상.

사회·문화

- 2003년 6월 3일 ~ 6월 8일, '2003 부평풍물대축제' 개최  
9월 1일, 후정초등학교(삼산동 390-1) 개교.
- 2004년 1월 1일, 부평문화사랑방 개관.  
3월 3일, 부개고등학교(부개2동 120-546) 개교.  
5월 19일 ~ 5월 23일, '2004 부평풍물대축제' 개최  
7월 22일, 부평구 현충시설물설치위원회 발족.  
9월 1일, 굴포초등학교(삼산동 454-1) 및 진산초등학교(삼산2동 456-1) 개교.  
9월 3일, (사)인천여성익전화 부설 성매매현장상담소 개설.  
10월 2일, (사)인천여성익전화 부설 이주여성쉼터 올랄라 개설.  
12월 15일, 제1회 부평구자원봉사자의 날 개최.
- 2005년 2월 14일, 부평성폭력상담소 개설.  
2월 23일, 인천가정사랑 가정폭력상담소 개설. 3월 2일, 진산중학교(삼산동 445-1) 개교.  
3월 3일, 부흥고등학교(부개동 120-547) 개교.  
9월 1일, 영선초등학교(삼산2동 438-7) 개교.  
5월 25일 ~ 5월 29일, '2005 부평풍물대축제' 개최.  
8월 18일, 부평재가노인복지센터(십정동 282-10) 개원.  
10월 17일, 삼산노인주간보호센터(삼산동 157) 개원.
- 2006년 3월 1일, 진산고등학교(삼산동 456-6) 개교.  
3월 2일, 영선고등학교 개교.  
3월 3일, 산곡고등학교(산곡동 137-2) 개교.  
3월 10일, 부평기적의도서관(부개동 499-1) 개관.
- 2007년 3월 29일, 부평의 역사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부평역사박물관 개관.  
5월 1일, 부평역사박물관, '만국공원의 기억전' 개최.  
5월 9일, 마장근린공원 준공.  
5월 30일, '2007 부평풍물대축제' 개막(6월 3일 폐막).  
6월 12일, 부개3동 어린이집 개원.  
6월 25일,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 발족(10월 18일 기공식).  
6월 28일, 부평건강증진센터 개소.  
9월 21일, 부평 문화의 거리 사업 준공.  
9월 30일, 제5회 The Old Music Festival 공연.  
10월 6일, 제1회 부평 평생학습축제.  
10월 27일, 제6회 부평 청소년 창작영상제.  
12월 28일, 부평사 편찬으로 향토 역사 집대성.

2008 ~ 2012년

한민사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부평구	<p><b>정치·경제</b></p> <p>2008년 6월 25일, 백운공원 6.25 전적비 준공. 12월 2일, 부평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 'BUTEX' 개관. 12월 3일, 부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환경기초조사 보고회 개최. 12월 8일, '희망부평2020' 도시균형발전계획 본격 시동. 12월 9일, 중국 후루다오시 체육교류단 부평구 방문.</p> <p>2009년 3월 23일, 국토해양부 2009년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시범도시 지정. 4월 28일, 2009 대한민국 녹색성장 브랜드 대상, 부평구 수상. 5월 1일, 부평구-함평군 자매결연. 10월 27일,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개소식.</p> <p>2010년 4월 26일, 중국 후루다오시 경제무역 대표단 방문. 7월 2일, 민선 5기 홍미영 부평구청장 취임. 7월 30일, 노인인력개발센터 예코공동작업장 개소. 9월 30일, 인천부평노인참여나눔터 개소. 12월, GM대우 부평공장의 비정규직 농성사태의 장기화. 부평구, 2010년 복지정책종합평가 전국 준우수.</p> <p>2011년 4월 6일, 오랜 갈등을 빚고 있던 십정동 고압 송전선 이설 문제를 공공갈등조정관제도를 통해 지중화 합의 도출. 5월 30일, 부평구, 부천시 공동 발전을 위한 협약식. 6월 3일, 캠프마켓 특별환경 조사, 미군기지 부근 토양 및 지하수 시료 채취. 9월 20일, 중국 후루다오시 대표단 방문. 12월 6일, 부평구, 여성가족부 추진 여성친화도시 지정.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결과, 부평구가 인천광역시에서 1위 차지. 부평구,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p> <p>2012년 1월 31일, 부평구와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협약. 2월 28일,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주변 토양오염 기준치 초과에 대한 기자회견. 3월 20일, 부평구,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 7월 11일, 19일, 교회 건축 잇단 부결되자 신천지 교회 신도 300여 명 실력 행사. 10월 27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 개통(부평구청역, 굴포천역, 삼산체육관역). '2011년도 인천지역 10개 군·구 통합평가' 1위.</p> <p><b>사회·문화</b></p> <p>2008년 2월 15일, 부평구 치매보호센터 개소. 5월 29일, 부평풍물대축제 개막. 6월 23일, 인천생태숲 나비, 곤충 전시회. 8월 26일, 산곡동 무지개 아파트 생태놀이터 준공. 9월 24일, 부개문화사랑방 개관. 9월 26일, 인천평생학습축제 개최(27일까지). 10월 6일, 공공예술을 통한 도시 재창조 연구 프로젝트 개관. 11월 4일, 굴포천 생태자연형 하천으로 탄생. 11월 7일, 자원봉사 부평! 비전 선포식.</p>

부평사	2009년	5월 6일, 부평구 'GreenStart 환경감시단' 발대식, 5월 21일, '2009 부평풍물대축제' 개최, 6월 16일, 부평 Yonug Artist 미술전 개관식. 5월 6일, 부평구 'GreenStart 환경감시단' 발대식, 5월 21일, '2009 부평풍물대축제' 개최, 6월 16일, 부평 Yonug Artist 미술전 개관식. 8월 7일, 인천 세계도시축전 개막. 9월 17일, 걷고싶은 시화의거리 준공식, 9월 27일, 산곡굴항기도서관 개관식, 9월 28일, 신트리공원 운동장 준공식. 10월 14일, 수도권 최대의 생태공원, 인천나비공원 개장. 11월 24일, 만월산자락 희망천 등산로 정비사업 준공식.
	2010년	1월 11일, 갈산 밀알도서관 개관. 4월 2일, 부평 문화예술의 발신지 부평아트센터 개관, 개관페스티벌 "거려!a! 놀자." 5월 12일, 희망나눔가게 부평푸드마켓 1호점 개소식 6월 10일, '2010부평풍물대축제' 개막(50만 명 참여, 부평대호가 감동의 무대). 6월 24일, 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 부평구 초등학교 3 ~ 6학년 대상의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2011년	5월 26일, '2011부평풍물대축제' 개막. 6월 9일, 청천보건지소 개소. 7월 14일, 부개어린이 도서관 개관. 7월 19일, 갈산도서관 개관. 8월 13일,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촉구 인천시민 걷기 대회. 11월 7일, 부평1동 글마루도서관 개관. 11월 9일, 동수 작은 도서관 개관. 11월 18일, 드림스타트센터 개소. 11월 22일, 비전출 공동작업장 개소. 11월 23일,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성문화센터 개관. 12월 5일,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개소.
	2012년	5월 1일, 환경생태 전문 공간으로 부평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개관. 5월 7일, 삼산도서관 개관, 7월 2일, 열린도서관 Books 人 개관, 9월 13일, 부개도서관 개관. 8월 17일, 책 읽는 부평 선포식. 9월 1일, 고 박영근 시인 시비 제막식(신트리공원). 9월 17일, 부평 아트존 준공. 10월 6일, '2012부평풍물대축제' 개막.

2013 ~ 2016년

한국사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에서 가결

부평사	<b>정치·경제</b>	
	2013년	7월 31일, 국방부와 인천시의 협약으로 부평 미군기지 한 세기를 돌아 시민들의 품으로 반환. 8월 13일, 1992년 영세노점상 유도시설로 조성된 한아름상가 완전 철거. 부평구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이 60%를 넘어서, 전국 최고 수준.
	2014년	4월 3일, 일신동 주민센터 건립 기공식 6월, 부평구가 발간한 '제1차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국제기구 GRI에 등재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의 사례.

부평사	2014년	7월 1일, 민선6기 홍미영 부평구청장 취임식 7월 4일, 제7대 부평구의회 개원식 7월 5일, 지하상가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부평시장로터리 지하상가에 청년마켓 오픈. 10월 30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기공식 11월 18일, 부평세관 신축 준공식 부평 지하상가 점포수 세계기록 인증(3만1,692㎡ 규모, 총 1,408개 점포) 부평구, 환경 분야의 최고권위의 '그린시티' 지자체로 선정됨. 부평구, 인천의 지자체 중 처음으로 생활임금제 도입
	2015년	3월 25일, 한아름상가 철거구간 체육시설물 조성공사 준공 11월 16일, 부평 국가산단혁신사업 협약식 십정2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으로 총 5,700세대 건설 굴포천 복원 국고지원이 확정, 환경보전계획 1순위로 선정 부평종합시장, 부평광시장, 진흥종합시장 등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작업으로 60년만에 환골탈태
	2016년	4월 9일, 부평문화의거리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개막식 6월 3일, 시민과대안연구소 소셜마켓 시범사업 부평구의 지역상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부천상동복합쇼핑몰 입점 저지에 민관이 총력으로 대응 부평구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사회·문화

부평사	2013년	4월 10일, 부평꿈나무교통나라 개관, 4월 11일, 부평 생활 속 창의공작플라자 개소, 4월 12일, 청천 산곡동 지역의 첫 도서관으로 청천도서관 개관. 6월 29일, 인천실내무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9월 4일, 열우물경기장 개장, 10월 11일, 퇴골문화회관 개관, 10월 14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10월 18일, 부평풍물대축제 개막(60만 명 참여). 안전행정부 주관 우리마을향토자원 베스트 30에 부평숲 인천나비공원이 선정, 수도권의 생태공원으로 자리매김.
	2014년	3월 25일, 국공립 부평꿈나무 어린이집 개원식. 9월 3일, 부평드레놀이 창립 총회 및 현판식. 9월 16일, 2014 부평미술인회 기획전. 9월 19일,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10월 4일 폐막). 9월 26일, 부평풍물대축제에 70여만 명이 참여, 풍성한 볼거리 축제로. 11월 1일, '1950.. 부평.. Bupyeong..' 사진 전시회. 인천나비공원 누적 관람객 100만 명 돌파, 지역의 대표적인 생태학습장으로 자리매김.
	2015년	3월 16일, 부평드레놀이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 4월 20일, 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개소. 5월 7일, 옛 노인복지관을 리모델링한 부평어울림센터 개관. 주민 관련 6개의 복지기관 집약시설로. 5월 7일, 구립 산곡3동어린이집 개원. 5월 13일, 열우물 명상의 숲 준공. 5월 26일, 부평구 기후변화 콘서트. 6월 1일, 수도권 최고시설을 갖춘 부평안전체험관 개관. 10월 2일, 부평풍물대축제 개막, 60만 명 참여(10월 4일). 11월 11일, 부평굴포누리 아이드락(생태놀이터)조성.
	2016년	1월 27일,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오픈. 2월 4일, 다목적실내체육관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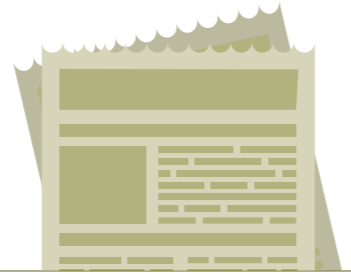
	2016년	4월 9일, 부평문화의거리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개막식. 4월 19일, 국공립 레미안부평 어린이집 개원식 4월 23일, 미군부대 내 '마을 별별아트 마켓' 개최 5월 21일, 부평 솔아솔아 음악제. 6월 11일, 열우물 단오축제 9월 23일, 청소년 한꿈카페 개소식 9월 26일, 부평풍물대축제 20주년 대회 개최(10월 2일까지), 문화관광부 관광자원화사업 대표축제로 선정됨 10월 3일, '자신밝기 행사' 등의 개최로 부평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요구 10월 14일~15일, 제2회 부평 밴드 페스티벌 개최
<b>2017 ~ 2019년</b>		
한부모 사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b>정치·경제</b>	
	2017년	2월 28일, 부평형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정착을 위해 '부평구 갈등관리 힐링센터'를 개소 3월 3일, CCTV 통합관제센터 개소 및 '안심귀가' 앱 서비스 등의 실시로 안전도시 조성 5월 16일, 나눔과더함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개소, 5월 17일, 부평 세여주택 현판식
부평 사	2017년	8월 23일, 한국GM 사업재편 움직임에 따른 대토론회 개최 8월 28일, 부평 상동복합소핑몰 입점반대 토론회, 11월 2일, 상동복합소핑몰 건립 무산 백서발간 기념식 부평구 부담 채무 전액 상환으로, '채무 제로' 달성. 부평구 다산목민대상 본상 수상.
	2018년	7월 2일, 민선 제7기 차준택 부평구청장 취임, 부평의 새로운 10년 '부평 비전 2020'을 발표. 7월 5일, 제8대 부평구의회 개원 8월 14일, 도시재생뉴딜(지속가능부평 11번가 사업) 보고회, 총사업비 1,642억 원 들여 2022년까지 추진. 9월 8일, <협동경제와 행복마을> 2018 부평사회적경제마을 한마당. 한국GM 경영 정상화 이후에도 법인 분할 갈등으로 지역 경제에 먹구름 부평구 2019년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보다 17.4% 높은 9,800원으로 결정 고시 22개 등에 '부평형 찾아가는 행정복지센터 시스템' 구축 '굴포천 신재생 벨트' 조성,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됨.
	2019년	6월 4일, 부평테크시티 준공 및 부평혁신지원센터 개소 8월 14일,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중국 후루다오시 방문단 배웅 10월 10일, 사회적경제마을센터 허브공간 개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노선(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부평구민의 수도권 이동에 청신호 부평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혁신센터 조성' 사업 부지인 오수정화조 부지 반환. 부평구, 2019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특별상 수상 부평구 5개 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됨.
	<b>사회·문화</b>	
	2017년	2월 28일, 일신배드민턴장 개장 2월 28일, 부평구 갈등관리힐링센터 개소. 4월 1일, BP 음악산업센터 개관

부 평 사	2017년	5월 5일, 부평키즈페스티벌-초록누리축제, 5월 20일, 2017 인천 부평 청소년 한마당 축제, 5월 21일, 부평 청소년 피크닉 인 캠프마켓. 7월 27일, 국공립 어린이집 부평 풀내음 개원, 8월 10일, 국공립 어린이집 부평맑은내 개원. 9월 22일, '2017 부평풍물대축제 개막', 80만 명이 관람(24일 폐막). 9월 23일, 한하운 재조명사업 국제학술심포지엄. 9월 28일,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 개소. 10월 14일, 2017 부평밴드페스티벌. 10월 28일, 갈산근린공원 준공식 및 도시농부 시민축제. 12월 14일, 한하운 시인 시비 제막식
	2018년	2월 9일, 산곡노인문화센터 개관. 2월 23일, 인천광역시북부교육문화센터 개관. 2월 9일, 산곡노인문화센터 개관. 2월 23일, 인천광역시북부교육문화센터 개관. 3월 2일, 2018 정월대보름 in 부평 <자신밝기>, 2018 정월대보름 in 부평 <달집태우기> 10월 13일, '2018 부평풍물대축제' 개막, 80만 명이 관람(15일 폐막). 10월 27일, 부평음악도시 축제 <유직게터링 2018> 개최.
	2019년	3월 13일,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3월 20일, 부평구 공동육아나눔터 '신한꿈도담터' 개소. 5월 25일, 2019 부평 솔아 솔아 음악제 . 9월 7일, 부평문화의거리 새단장. 9월 17일, 부평구 영아전담형 국공립 어린이집인 부평4동 어린이집 개원. 10월 8일, 동암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준공. 10월 12일, 음악이 흐르는 도시 부평, 2019 부평 뮤직워크 개최. 11월 8일, 뮤지컬 「언노운-조병창,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부평아트센터 . 11월 13일,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아름도서관' 개관식. 부평풍물대축제 23회 대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 민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부평구, 수도권 최초 치매전담부서(치매정신건강과) 신설, 치매안심사업 추진.

❖ 비교 : '국민학교'와 '초등학교'의 명칭은 1996년 3월 1일 개칭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함.



# 인천·경기 지역 신문자료로 본 부평



김혜미(전 부평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경인·인천·기호일보<sup>1</sup>

### 1. 경인일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경인일보	2004-10-26	삼산시립체육관 29일 기공식	11면
경인일보	2005-07-04	만월산터널 개통	1면
경인일보	2005-07-28	삼산지구 부평역사박물관 기공	17면
경인일보	2005-09-14	지하철 7호선 인천 구간 착공	1면
경인일보	2005-10-29	GM대우, 부평공장 인수 마무리	1면
경인일보	2006-04-12	삼산4지구 개발사업 승인	7면

<sup>1</sup> 본 부록은 인천·경기 지역 내 언론사 중 발매부수가 가장 많은 3개사(경인일보, 인천일보, 기호일보)를 선정하여 정치·경제·사회면을 중심으로 살핀 것이다. 특히, 인천 및 부평 지역에 집중하였으며, 창간일부터 2019년까지의 내용을 신문명-일자-제목-면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신문명	일자	제목	면
경인일보	2006-04-13	부평공단 제조업 수출액 1분기 19억 7천177만 달러	8면
경인일보	2006-11-27	굴포천 기공식	3면
경인일보	2007-01-18	인천 굴포천 '자연형 복원' 22일 첫 삽	18면
경인일보	2007-02-08	인천 삼산지구 36만 평 택지개발 마무리 천덕꾸러기 침수 지역 물 좋은 낙원으로...	12면
경인일보	2007-04-27	30년 끈 장고개 길 풀리나 시, 지하터널 등 방안 마련 군과 협의 진행	19면
경인일보	2007-05-31	부평풍물축제 막 올라 내달 3일까지 농악 매력에 흠뻑 잊혀져 가는 '옛 멋'을 캐내다	17면
경인일보	2007-10-18	십정2구역 3천여 가구 건설 내년 상반기 보상 협의 착수	5면
경인일보	2007-12-06	'부평史' 2년반 만에 발간	17면
경인일보	2007-12-21	[12·19 경기인천 광역·기초의원 재보선 당선자에 듣는다]인천 부평4 최만용(한) "개발사업 신속 추진 최선 지하철 7호선 연장 온 힘"	5면
경인일보	2008-02-26	부평·백운2구역 등 3곳 주택 재개발 사업 본격화 구, 정비계획수립 구역 지정안 시에 제출, 20만㎡ 부지 아파트 3,500여 세대 건립	21면
경인일보	2008-03-28	부평 미군부대 첫 오염 조사 區, 27만여㎡ 부지 65곳 민·관 합동 점검 기밀 이유 일부 미공개... 연관성 규명 난항	17면
경인일보	2008-04-15	[인천 지역 당선자에 듣는다]조진형(한) 인천 부평갑 "亞게임 철저 준비 발전 계기로"	5면
경인일보	2008-04-17	[인천지 역 당선자에 듣는다]구본철(한) 인천 부평을 "평생 살고 싶은 부평 만들 것"	5면
경인일보	2008-05-19	"부평·주안 재건축·재개발 주민들 의사 적극적 반영을" 인천시-한나라당 당정 협의회	4면
경인일보	2008-05-29	인천 부평풍물축제, 도드리공원서 개막 "보고 먹고 즐기러 오세요"	19면
경인일보	2008-11-12	GM대우 부평공장, 12월 조업 중단 검토 美시장 수출 감소 주원인... 중형차 쏠라인 한달간... '임금의 70%' 지급도 고려	1면
경인일보	2008-12-04	부평 미군기지 땅 '중금속 범벅' 구리·비소·아연... 기준치 이상 검출... 지표·지하수도 대장균 등 세균 오염	19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경인일보	2008-12-19	"부평 미군기지 조기 폐쇄를" 시민 단체, 기지 주변 환경오염 대책 촉구	19면
경인일보	2008-12-22	GM대우 부평공장 오늘부터 올 스톱 2002년 설립 후 최초 내달 4일까지 전체 생산 라인 중단...	1면
경인일보	2009-01-06	GM대우 부평1공장 보름여 만에 조업 재개 어렵지만... 다시 빛날거야... '희망 가득' 어깨 편 출근길	19면
경인일보	2009-01-07	[새해 구·군정 이렇게 4]박윤배 부평구청장 공공 언 경제 녹이기 '햇살 지원'... 부평4 공단 첨단업체 유치 가속도...	17면
경인일보	2009-01-19	GM대우 비정규직 29명 해고 노조 "본격적 구조조정 사전 작업" 비난	19면
경인일보	2009-02-19	GM, 회생안 美정부 제출... GM대우 '구조조정' 제외 전세계 4만 7천명 감원·5개 공장 폐쇄 계획	1면
경인일보	2009-02-26	삼산동 3만 5천㎡ 주택 재개발 신흥동 57만㎡ 녹지지역 변경	5면
경인일보	2009-04-30	[4·29 재보선]부평을 홍영표·시흥시장 김윤식 '민주당 압승' 홍영표, 이재훈 10.%P 차로 앞서 금배지... 김윤식, 노용수에 박빙의 역전 당선 영광...	1면
경인일보	2009-04-30	[4·29 재보선]인천 부평을 민주당 홍영표 당선자 대한민국 서민들의 외침 '승리'... GM대우 살리기 최선 다할 터	3면
경인일보	2009-05-05	[인천부평풍물대축제]두드러라 신명 세상이 열리리라 전통 탐구·韓스타일 창출 어울림의 장...	7면
경인일보	2009-05-28	맑은 물 걷고 싶은 굴포천... 예술 흐르는 '갤러리' 변신 400m 옹벽에 미술 작품·LED 조명 설치... 생태하천 복원 후 테마 문화공 간 탈바꿈	21면
경인일보	2009-05-29	서구 가정동-부평구 효성동 1.3km 도로 신설 왕복 8차로 2011년 완공	21면
경인일보	2009-07-09	[민선4기 기초단체 3년·6]박윤배 부평 구청장 취약계층 보듬는 봉사 규정 매진... 자원봉사센터 적극 활용 혜택 늘릴 것...	17면
경인일보	2009-07-23	GM대우 노사, 임금 동결 최종 합의 완성차 4개 지부 중 올 첫 타결	6면
경인일보	2009-10-16	"부평공장 100% 가동" GM경영진 "유상 증자 참여... 법정관리 신청 계획 없다"	5면
경인일보	2009-12-18	부평 미군기지 2차 환경 조사... 명확한 오염 원인 규명 촉구 4개 시민 단체 기자회견	23면
경인일보	2010-04-02	복합문화공간 부평아트센터 개관	21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경인일보	2010-06-03	[선택! 6·2 인천 이색 당선자]공천 갈등 봉합 홍미영 부평구청장 인천 유일 여성 구청장	22면
경인일보	2010-06-29	인천 산곡·가좌동 일대... 주택 재개발 지정·고시	7면
경인일보	2010-07-26	[민선5기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홍미영 부평 구청장 재개발 갈등 토론 통해 합일점 도출... 무상 급식 공약은 초1·2학년부터 우 선 시행	21면
경인일보	2010-08-13	GM대우 임단협 교섭 마무리 노사대표 합의안 서명 "조업 중단 없이 마쳐 다행"	7면
경인일보	2010-10-13	[기초자치단체장 취임 100일·성과와 과제]홍미영 부평 구청장 현재의 위기 희망으로 승화... 참여·나눔... '따뜻한 부평'	21면
경인일보	2011-02-07	GM대우 비정규직 1191일 만에 농성 철수 노사, 해고자 하청업체 복직 협상안 타결... 고공 시위도 해산	23면
경인일보	2011-05-11	'부평 미군기지 조기 반환' 한·미 협의 시작 군수품 재활용센터 8월까지 경북 김천 이전	1면
경인일보	2011-06-01	부평 기지 주변 3일 시로 채취 다이옥신 등 검출 여부 주목	1면
경인일보	2011-06-09	서부간선수로 '친환경 하천 탈바꿈' 인천 서운동-삼산동 3km 구간 내년 12월 완공... 약취·경관 훼손 민원 해 소... 지역민 심터 활용	20면
경인일보	2011-06-16	"캠프마켓 내부서 유출 주변 지역 오염" 환경부, 2009년 보고서 냈다... "기지 인근 검출 오염토양 미군 항공유로 판 명" 명시	3면
경인일보	2011-07-14	부평미군기지 환경 조사 완료... 市 "내주 초에 종합 결과 발표" 환경부 자료 근거 기지 내부 조사 여부 결정	23면
경인일보	2011-07-20	부평미군기지 주변서 다이옥신 검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 우려 수준 아냐... 시 "자연 발생 불가능, 내부 조사 요구할 것"	1면
경인일보	2011-07-29	"미국은 고엽제 사용 정보 공개하라" '고엽제 폭로' 퇴역 군인 스텐더트 씨 "명령 따랐던 군인도 피해자" 주장	23면
경인일보	2011-09-08	캠프마켓 오염 합동 조사 요청키로... 인천 시민투, 오늘 환경부 장관에	3면
경인일보	2011-10-19	"말리부 1호 탄생" 한국지엠 본격 생산	7면
경인일보	2011-12-29	부평 美부대 터 유해 물질 '흉건' '석유계 총탄화수소' 농도 기준치 무려 33배 중금속 등 화학물질 다량... 토양 오염 '심각'	23면
경인일보	2012-01-17	[2012 인천 부평구 임진년 새해 설계를 말하다] 홍미영 / 부평 구청장 재정난 돌파구 찾아 구민 삶에 활력을	21면
경인일보	2012-02-29	부평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토양 채취	1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경인일보	2012-03-13	“캠프마켓 주변 부영공원 폐쇄를” 인천 시민단체, 유류 오염 심각 인천 시민 건강 위협 주장	23면
경인일보	2012-04-13	[당선자에 듣는다]문병호 “일자리가 넉넉한 경제 부평”	5면
경인일보	2012-04-16	[당선자에 듣는다]홍영표 “초심으로… 부패 정권 심판”	5면
경인일보	2012-04-27	‘다이옥신 검출’ 부영공원 폐쇄 여부 논의 관심 집중 내달 10일 첫 회의… 1차 결과로 오염 대책 마련	21면
경인일보	2012-05-11	“부평 미군기지 터 정화 지원” 국방부·산림청, 입장 밝혀	23면
경인일보	2012-06-15	“오염 정화 예산 반드시 확보” 문병호·홍영표 의원 미군기지 간담회서 밝혀 19대 국회 의제화 장관 면담 추진 등 협력키로	3면
경인일보	2012-07-09	[민선 5기 출범 2년, 무엇이 달라졌나/부평구]과시 행정 대신 내실 관리… 도약 기반 다져 재정난 겪어 대형 건설사업 대신 체질 변화 모색 5대 지속가능발전안 마련… 회색빛 이미지 탈피	21면
경인일보	2012-07-09	[민선 5기 출범 2년, 무엇이 달라졌나/부평구 인터뷰]홍미영 부평구청장 “능동적 사고로 업무 처리 속도 대폭 개선”	21면
경인일보	2012-08-24	아파트·초교 인근 부평 미군기지에서 다이옥신 검출 민·관 공동 조사단, 독성 강한 고염제 성분 확인 조사 지점 47곳 중 9곳 전국 평균 초과 ‘최대 24배’	23면
경인일보	2012-09-26	부평 미군기지 주변 ‘다이옥신 오염’ 결론 중금속·유류 성분도 확인 구, 국방부에 ‘정화 명령’ 환경부엔 ‘정밀 조사’ 요구	23면
경인일보	2012-10-11	“4 ~ 5m 땅속서 다이옥신… 미군, 인위적 매립 확실” 부평 미군기지 시민대책위 공개 사과·오염 정화 촉구 국방부에 법적 책임 추궁도	23면
경인일보	2012-10-17	부평구-국방부, 美기지 오염 정밀 조사 논의 캠프마켓 인근 부영공원 피해 범위 등 내용 다이옥신 항목 포함 요구… 다음 주 중 실시	21면
경인일보	2012-10-18	캠프마켓 주변 정화 촉구… 부평구의회, 결의안 채택	23면
경인일보	2012-10-25	‘인천 부평-서울 운수’ 지하철7호선 연장 구간 오늘 개통식	1면
경인일보	2012-11-16	“부평 부영공원 정화 기준 격상해야” 시민대책위, 국방부에 ‘임야·잡종지→공원’ 등급 변경 촉구 TPH·중금속 등 오염도 초과 지역 축소돼 작업·정밀 조사 비용도 부족… 부실 의혹	21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경인일보	2012-11-30	‘부평 미군기지 정화’ 하나된 목소리 대책위, 6만 시민 서명 정부 기관에 제출 철저한 작업·후속 절차 이행 촉구·압박 ‘민관 공동’ 대책반·조사단 구성 요구도	21면
경인일보	2012-12-27	민간서 공동 단장 맡고 다이옥신 유출도 조사 부평 미군기지 주변 오염 해결 민·관 조사단 구성 완료	23면
경인일보	2013-01-18	[신년특집 기초자치단체 새해설계·6]‘지속가능발전’ 이어가는 부평구 지역 곳곳에 녹지대 조성 부평역 상권 부흥 전략도	21면
경인일보	2013-02-15	굴포천 자연 하천 복원 후 63개과 238종 식물 서식	21면
경인일보	2013-05-07	“부영공원 정밀 조사 자료 공개하라” 시민 단체, 정화작업 위한 보고서 비공개 국방부에 행정 소송	23면
경인일보	2013-05-10	부평 미군기지 주변 다이옥신 정화 대책 없어 국방부 정밀 조사 대상 제외 환경 단체 “맹독 물질 포함”	23면
경인일보	2013-05-30	인천 부평구 신촌 재개발 구역 9만 3천여㎡로 면적 축소 도시계획위, 변경안 원안 가결	3면
경인일보	2013-07-22	인천시 부평구 “부영공원 정화 기준 높여 달라” 구청장 직접 요구… 국방부 “지자체 예산 부담한다면 고려”	23면
경인일보	2013-07-24	부영공원 ‘정화 기준 공방’ 2라운드 부평구 “다이옥신 기준치 이상 검출 땐 작업에 포함” 요구 시민 단체도 필요성 주장… 국방부 “법적 대상 물질 아니다”	18면
경인일보	2013-08-01	인천시-국방부 ‘캠프마켓 관리·처분’ 협약 체결 ‘부평 미군기지’ 6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3면
경인일보	2013-08-08	“부평 미군기지 반환 후에도 대형 건물 흔적 지켜야” 제4회 시민참여협의회 개최 “대한제국시대 역사성 갖춰” 제2시립미술관 조성 등 의견	3면
경인일보	2013-08-30	[창간 68주년 자치단체장 릴레이 인터뷰·10·끝] 홍미영 부평구청장 반환 미군기지 역사 가치 살린 미술관 ‘새 그림’ 빵 공장·막사 건물 활용안 구내 첫 시립 문화 시설 논의 행정 체계 지속가능발전 전환 독서·나눔 등 5대 목표 수립 주요 사업 ‘성인지 통계’ 도입 여성친화도시 정책 모니터링	21면
경인일보	2013-09-02	[창간68주년·인천 핫이슈]부평구 캠프마켓 부영공원 오염 정화 논란 주민은 국방부에 ‘공원 기준’ 정화 요구	29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경인일보	2013-09-09	부평 미군기지 터 역사적 보존 가치 연구한다 평택 이전 댐 시에 반환... 국방부에 출입 허가 요청 공원 조성에 관한 자료 수집·건축물 조사 실시	3면
경인일보	2013-09-17	“부평 미군기지 내 일제 병참기지 존재 역사적 가치 조사 보존 방안 모색해야” 시민 단체 기자회견 주장	3면
경인일보	2013-10-08	18 ~ 20일 ‘부평풍물대축제’ 관객 참여 행사 풍성 ‘너는 북, 나는 장구’ 두들기며 하나된다 전통악기 체험 교실에 풍물굿·거리공연 등 마련	19면
경인일보	2013-10-24	부평 美기지 인근 부영공원 토양오염 정화 기준 높여야 홍영표 의원, 국방부에 제기	23면
경인일보	2013-12-11	부평 미군기지 내 토양오염 처리 ‘해법 찾기’ 인천시, 2016년 캠프마켓 이전 앞두고 4자회의 군수품재활용센터 조기 반환 등 현안 나눌 듯 환경 정화 분담 문제·시설물 활용 놓고 논의도	3면
경인일보	2014-02-07	‘맹독 오염’ 부영공원 토양 정화 국방부 37억 투입 4월부터 맹꽁이 서식지 보존도 함께 부평구도 TF팀 구성 지원 내년 12월까지 공원은 폐쇄	20면
경인일보	2014-02-13	부영공원 ‘토양 정화 방식’ 논란 재점화 ‘현장 작업’ 기본 방침 세워지자 주민들 소음 악취 ‘반출’ 요구 부평구 법적 근거 마련 고심 공단, 최종 공법 주변 의견 고려	23면
경인일보	2014-03-17	캠프마켓 문화재 유존 지역 설정... 부영공원 정화 작업 ‘급브레이크’ 조병창 터 유적 발굴 가능성 향후 ‘시설물 보존 문제’ 쟁점	1면
경인일보	2014-03-25	‘조병창 땅굴 입구로 보인다’... 부영공원 내 추정 장소 확인 국방부 문화재 지표조사 곧 착수	1면
경인일보	2014-04-03	부영공원 땅굴, 발굴 조사 착수하나 전체 부지 80% 유존 지역 설정 문화재청 “지표 조사론 부족 땅 걷어내고 정확히 살펴야”	23면
경인일보	2014-05-28	경인일보 단독 입수 2단계 환경기초조사 보고서 내용 캠프마켓 주변 ‘맹독성 발암물질’ 전문가 “몸에 닿으면 피부암 유발” 1단계 조사 ‘다이옥신’ 이어 부영공원 포함 36곳 중 3곳 디벤조 안트라센 다량 검출 국내는 법적 기준 조차 없어	1면
경인일보	2014-05-28	부평 캠프마켓 주변 ‘맹독성 발암물질’ 국내 법적 기준치조차 없어	23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경인일보	2014-05-29	지역사회 덤친 ‘발암물질(캠프마켓 주변 지역서 검출) 공포’ 市·부평구, 위해성 평가 등 정부에 대책 요구 민간 전문가 “역할 줄어... 부실 보고서” 주장 주민들 “정확한 정보 공개·정화 작업 이뤄져야”	1면
경인일보	2014-06-10	[홍미영 부평구청장 당선자]‘안전교육 정책·시설 보강’	5면
경인일보	2014-06-12	‘부영공원 문화재 발굴조사 오염 정화와 동시 추진해야’	23면
경인일보	2014-06-26	부영공원 토양 정화, 문화 재조사에 ‘발목’ 이달 중 발굴로 공원 폐쇄 오염 처리 수개월 늦춰져 불편 캠프마켓도 같은 절차 거쳐야... 개방 지연 예상 대책 필요	19면
경인일보	2014-07-09	미군의 ‘적반하장’ 부평 미군기지 원인자 부담 ‘환경오염 정화 작업’ 버티기 국내법 아닌 자신들 기준만 고집... 조기 반환 협상 난항	1면
경인일보	2014-08-04	부영공원 오늘 폐쇄... 문화재 발굴 본격화 내년 말까지... 토양정화 작업도 시행	18면
경인일보	2014-09-26	[아시안게임]AG 밖 추천 명소 부평풍물축제 농경문화 명맥 잇는 신명 한마당	14면
경인일보	2014-10-21	‘일본육군조병창 땅굴’ 부영공원 내 존재 확인 북동쪽 문화재 시굴조사서 2개 통로 콘크리트 지하 시설 증언으로만 알려진 실체 발견	1면
경인일보	2014-10-21	부영공원 ‘일본군 땅굴’ 발견... 전문가 견해는 동북아 현대전쟁사 연구 ‘새 지평’ ‘조선병참기지화 핵심’ 공습 대비 지하 시설 건설 추가 조사 필요... 반환 美軍기지 활용 계획 영향	3면
경인일보	2014-10-24	부영공원 내 ‘일본군 조병창 땅굴’ 일단 덮는다 문화재청 “정화 사업에 포함 안 돼” 추가 조사 않고 훼손 방지만 조치	1면
경인일보	2014-10-24	‘일본 땅굴’ 추가 조사 무산 ‘근현대사 수난 상징 정밀조사를’ 학계 “일 침략사 생생 연구” 좌익계 숙청 장소로 추정도	3면
경인일보	2014-10-28	부평구 ‘미군부대·주변 지역 모습’ 사진전 한국戰 전후 軍기지·주민 삶 담아 美부대 설치 ~ 반환 과정·지역 변천사 재조명 창작 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공연도	18면
경인일보	2014-11-24	부평 미군기지 내 땅굴 보존한다 인천시, 건축물 등 활용 역사사료관·생태공간 조성키로	1면
경인일보	2014-12-02	지속가능발전 인천대회 부평구서 열려 미군부대 부지 활용 등 토론	5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경인일보	2015-02-17	부영공원(부평 캠프마켓 주변지역) 문화재 조사 종료 '내달부터 토양 정화' 주민 반대 '지하 시설물' 제외 발굴 범위 작아져 성과 없어 환경 공사 땀 지역 전면 폐쇄	24면
경인일보	2015-02-24	부평 미군기지 활용 방안 '재검토' 목소리 "수립 7년... 대학교 유치 등 지역 의견 반영 미흡" 지적	3면
경인일보	2015-03-10	[환경부, 부평 캠프마켓 주변 지역 2단계 조사 결과]부영공원 기준치 10배 발암물질 지하수 5곳서 납·폐놀 검출 인근 토양은 다이옥신 오염 부지 내 텃밭 경작 금지 경고	23면
경인일보	2015-04-02	부평 미군기지, 역사·문화 공원으로? 日 조병창 등 가치 고려 기존 근린공원 계획 선회 인천시, 시민 의견 수렴·검토	3면
경인일보	2015-04-23	미군기지(부평 캠프마켓) 부지 매입금 109억 미납 '재정난' 인천시, 작년 일부 못 내 조기 반환 협상 등 차질 우려	3면
경인일보	2015-05-01	부평 미군기지 활용 '콘퍼런스' 연다 인천시, 시민참여위원회 재검토 제안 수용	2면
경인일보	2015-05-14	부평 기지 발암물질 처리 기록 최초 발견 美 발간 위험폐기물 보고서 '448드럼 PCB' 명시 확인돼 내분비·면역 체계 치명적 인근 토지·지하수 오염 심각	23면
경인일보	2015-07-09	[민선 6기 뒤돌아본 1년] 홍미영 부평 구청장 '여풍 담당' 최초 재선 기초단체장 굴포천·미군부지 정비 사업 '온 힘' 군 기지 역사공원 조성... 한강 잇는 문화 벨트도 골목 CCTV 478대 확충·안심 도시 만들기 '포부'	19면
경인일보	2015-07-16	"부평 구도심 활성화? 대학 유치가 해법" 문병호·홍영표 의원, 미군기지 반환 활용 토론회서 제안	3면
경인일보	2015-07-27	日 강제노역 '분명한 증거'... 부평 현장 보전 서둘러야 미쓰비시 근로보국대 명목 동원 당시 근로자 주택 수십 채 남아 미·중 사죄... 한국만 제외 공분	1면
경인일보	2015-10-02	8차선 대로서 풍악을 올려라 19회 인천 부평풍물축제 개막 사흘간 퍼레이드·창작 공연 등	20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경인일보	2015-11-12	美기지 클럽 음악과 '연결점' 찾아야 '왜 부평 음악융합도시인가' 포럼 박제된 전통 억지로 끌어온 느낌 지역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 필요 기지촌 주변 등 문화부터 살펴야	17면
경인일보	2015-12-01	토양오염·정화 문제 '걸림돌'... 부평美기지 내년 반환 차질 '국가 간 협상' 인천시도 개입 못해	1면
경인일보	2015-12-08	부평구 '굴포천 복원' 최우선 사업 선정 2020년 환경 보전 계획 수립	19면
경인일보	2016-01-14	[신년 인터뷰] '구도심 재생 사업' 발판 마련한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십정2 '뉴스테이' 개발 물꼬 굴포천 복원 제2전성기 열 터 하천 재생 879억 국비 확보 성과 문화센터 연계 음악도시 청사진 청년 창업 허브 지원 경제 활성화	19면
경인일보	2016-02-18	[인천 고택기행·7] 옛 드림보트클럽 '부평 부일식당' {부일식당 : 1980년대까지 부평 기지촌 드림보트클럽으로 사용} 현대사가 숨겨려 했던 이야기 기지촌 양공주를 기억하는 곳 정부가 '양공주' 성매매 묵인·외화벌이 수단 활용 1950년대 클럽 거리 형성 1970년대 중반까지 호황 백인 전용 술집 '1층 무대·테이블-2·3층 룸' 형태 1983년 대폭 리모델링... 바닥재·계단 등은 그대로 "현대사에서 잊혀진 역사... '시대 상징' 복원해야"	9면
경인일보	2016-03-01	국내 강제 징용 피해자, 잊혀진 삶 세상에 알린다	1면
경인일보	2016-04-15	[4·13총선 당선자에 듣는다] 홍영표(인천 부평을·더민주) "3번째 의정 기회 준 부평에 큰 책임감"	5면
경인일보	2016-04-19	[4·13총선 당선자에 듣는다] 정유섭(인천 부평갑·새누리당) "일자리 창출·수도권 경제 활성화 최선"	5면
경인일보	2016-05-02	'20대 국회 동시 진출' 지역 토박이 박남춘·정유섭 당선자	8면
경인일보	2016-06-14	[민선 6기 후반기,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지속가능발전' 큰 그림 그리는 홍미영 부평구청장 수백 년 내다본 사람 중심 도시 재생 숙박 행정·소통 마당 등 현장과 대화 굴포천 복원 공사 수백억대 사업비 한강수계관리기금 활용 부담 덜 것	19면
경인일보	2016-07-14	[인천시 기초의회 의장에게 듣는다] 임지훈 부평구의회 의장 새벽부터 민생 현장 속으로 구민 행복 일하는 의회 조성 하루 일과 민원 청취로 시작 예비군훈련장 이전 등 추진 의원들 소속 다양 의견 차 커 타협점 도출하는 역할 집중	19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경인일보	2016-08-25	부평 미군기지 완전 반환 '2020년 뒤에나' 평택 기지 조성 완료 내년 말로 연기 환경오염 치유 작업 최소 4년 이상 우선 반환 부지도 공원 설립 불가능	3면
경인일보	2016-09-26	[인천 부평풍물대축제] 미군부대에 펼쳐진 '신명 한마당'	19면
경인일보	2016-10-10	미쓰비시 출사택에 '새뜰마을' 조성 부평구 사업 플랜 최종 보고회 난방·취사·화장실 문제 해결 3층짜리 주민 공동 이용시설도 2018년 준공 예산 45억 투입	19면
경인일보	2016-10-11	[자치단상]캠프마켓 담 허문 부평풍물대축제 풍물과 오방색 깃대 들고 지신밟기 '역사적 장면' 남북 평화-미군기지 조속 반환 기원 '행복한 잔치' 지역 대표 예술제 '감동 선사' 주민들 자부심 느껴	13면
경인일보	2016-12-28	굴포천, 내달 국가하천 승격 인천등 5개 시·군·구 분할 관리 중 국토부, 환경개선 작업 직접 추진 부평구 옛 물길 복원 사업 '가속도'	1면
경인일보	2017-01-12	[기초단체장 새해설계]흥미영 부평구청장 심리·정신적 행복 지표 개발 노력 주민 원하는 '현미경 정책' 펼칠 것 지역공동체·일자리·복지 연장선 일본·부탄 등 해외 사례 참조 연구 "지방 조직 통제 비판" 쓴소리도	19면
경인일보	2017-03-23	7호선 역세권 개발 지구단위계획 통과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 굴포천역-부평구청역 1중→2중 변경안 수용	4면
경인일보	2017-05-03	'캠프마켓' 반환 마무리 단계... '환경평가 보고서' 열어 보나 인천시·부평구 TF팀 구성 정부에 정보공개 요청 검토 '신촌 근린공원' 반영 논의도	2면
경인일보	2017-09-08	'한국지엠 철수설' 선 대응 나선 부평구 지역 경제 큰 축 '파탄' 우려 의회 '철수 반대 결의안' 채택 장기적 발전 방안 마련 촉구 區, 2·3차 협력사 전수 조사 군수 구청장協에 안건 상정	19면
경인일보	2017-10-13	도시 미관 해치는 '출사택' 역사 속으로 부평구, 이달부터 일부 철거 홍물 전락 붕괴사고 위험 닷 생활 여건 개선 새뜰마을사업 공동 이용시설·전시관 등 조성	15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경인일보	2017-11-30	부평 미군기지 건물 '전부 보존'으로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 '근린→주제 공원' 골자 변경안 원안 의결	3면
경인일보	2017-12-07	[국방부·환경부 설명회]"시민 보호, 캠프마켓 다이옥신부터 우선 정화" 기지 반환 후 나머지 처리 주변 지역 '모니터링' 약속 주민들 "빠른 제거" 호소	23면
경인일보	2017-12-28	인천 종주길 3코스 7.1km... '원적산 연결다리' 완공	2면
경인일보	2018-01-17	[흥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새해설계]생태·경제·문화 굴포천 하모니...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꿈꾼다 정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 23만㎡ 규모 5년간 1576억 원 투입 '안전 사각지대' 해소 區역량 올인	19면
경인일보	2018-01-26	[부평구 '삼릉' 8개 동 매입 계획]일제 전범 기업 흔적 '미쓰비시 출사택' 생 활사박물관으로 강제노역 현장 입증 역사 보존 5억 1천만 원 예산 시 지원 요청 유시장 "필요성 동감 적극 검토" 장용노동자상 연계 프로그램도	3면
경인일보	2018-01-31	부평 토굴·은광 등 '지역 명소'... TF팀, 관광자원 활용방안 모색 역사 콘텐츠 연계 등 첫 회의	17면
경인일보	2018-02-21	GM차 생산량 급감 '위기의 부평공장' 작년 4분기 7만 7천 대 생산 전년 대비 무려 23.5% 줄어 내수·수출 등 '쌍끌이 부진' GM 글로벌 구조조정 '원인' 철수설 겹쳐 신뢰 하락 한몫	7면
경인일보	2018-04-24	노사 교섭 극적 타결... 한국지엠 '파국은 면했다' 임단협 잠정 합의... 찬반투표 남아 군산공장 고용·임금 동결 등 합의 대규모 정리해고·연쇄 부도 막아 정부·GM, 신차 배정 등 협상 진행	1면
경인일보	2018-06-20	차준택 인천 부평구청장 당선자 "인천 경제 중심 재도약, 새시대 발판 마련" 캠프마켓 토양정화 신속 완결 추진 미래비전위 구성 주민들 참여 보장	6면
경인일보	2018-07-10	"직접고용 이행"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 사장실 점거 농성 사측 "경영난 수용 곤란" 갈등 심화	9면
경인일보	2018-08-02	원도심 재생 '부평 11번가' 국비 지원 확정 국토부 심의 통과, 총 1642억 투입 2022년까지 23만㎡ 규모 부지 개발 일자리 창출·상권 활성화 등 기대감	11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경인일보	2018-08-30	'미쓰비시 마을박물관' 건립 무산... "현장 파편이라도 보존" 목소리 부평구, 리모델링 계획안 철회 일제 징용 역사박물관 대체 구상 비좁은 장소에 주민 반대 영향 출사택 남은 60여 채 철거 위기	3면
경인일보	2018-10-01	인천 청천동 6만 6천㎡ 공병부대 부지, 준주거지 vs 편의시설 부평구 지정 계획에 인근 주민 반발 아파트 밀집지 주거 여건 악화 주장 1차 공청회 행정기관 '통보' 불만도	7면
경인일보	2018-10-24	국방부, 부평 미군기지 민간협 첫 회의 '결국 강행' 연기 요청 불구 용역 일정 등 이유 시민 단체 빠진 채 오늘 "예정대로" 市, 회의 전날에야 날짜 조정 요구 "정부에 끌려다니고 있다" 지적도	3면
경인일보	2018-11-20	'국방부 부평 기무부대 부지 처분'... 구도심 정책 포함 활용 방안 모색 매각·지자체와 토지 교환 방식 추진 市, 3보급단 이전과 연계 용역 계획	1면
경인일보	2019-01-14	부평 '캠프마켓' 문화재 조사, 보존 여부 판단... 개발 영향 문화재청, 결과 미공개	9면
경인일보	2019-01-15	[단체장 새해설계]인천 부평구 차준택 구청장, 협의체 구성 문화융합도시 내 실... 사업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제공	11면
경인일보	2019-01-28	'3보급단-통합예비군훈련장 17사단 영내 이전' 31일 협약 체결 박남춘 인천 시장·정경두 국방 장관 민주당 홍영표 원내 대표실서 '사인' 재배치 사업 본격적 실무 협의 돌입	1면
경인일보	2019-02-12	[인천 도심 속 군부대 이전 첫발]부평구 '공병부대 부지' 개발... 지식산업센 터·주거 단지 조성 區, 난개발 방지 지구단위계획 공고 공공시설 용지엔 부평쪽 이전 유력	1면
경인일보	2019-03-04	[日 전범기업 '미쓰비시 출사택' 엇갈리는 목소리]전문가 "역사 보존" - 주민 은 "부지 개발" 강제노동자 합숙소 유일한 건물 인근 주민 "주거 상태 열악" 호소 평가 나선 부평구... 22일 토론회 역사적 가치판단 통해 방향 결정	8면
경인일보	2019-03-12	부평 미군기지 반환 부지 '신촌공원' 본격 조성 실시 계획 미 이행 시 자동해제 우려 반환 전에 환경영향평가 먼저 진행 인천시, 25일까지 범위 등 의견 수렴	4면
경인일보	2019-06-17	부평 미군기지 복합 오염 토양정화 '본 궤도' 현대건설 컨소시엄 설계 용역 시작	3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경인일보	2019-07-03	1950 ~ 70년대 미군·신촌 클럽 음악 역사 발굴 도시투어·LP·도록 제작·사업 공유 부평구 2019 애스컴시티 프로젝트 6일부터 4회 걸쳐 '소리로...' 개최	9면
경인일보	2019-07-04	[단체장 취임 1년 인터뷰]차준택 인천 부평 구청장, "소상공인·중소 경영 안 정 밑그림... 문화 콘텐츠, 미래 성장 모델 제시" 시설 개선·홍보 해외 규격 인증·디자인 지원 계획 거점형 기업 육성센터로 청년 일자리 창출 기대	11면
경인일보	2019-07-09	강제징용 역사를 증언하는 곳 '부평 삼릉' 피해자 배상 판결에 日경제 회복 불매운동 등 국민 분노 속 '주목' 미쓰비시 공장 명칭이 지명으로 당시 동원 한국인 1천여 명 추정 합숙소였던 '출사택' 일부 남아	1면
경인일보	2019-07-22	인천육군조병창·미쓰비시 출사택,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일제가 침략 전쟁 위해 만든 시설물 부평문화원 TF 꾸려 준비 작업 계획 '강제 징용' 참혹한 역사 보존 의미	1면
경인일보	2019-07-24	한반도 최초 미군 주둔... 되짚어 보는 '애스컴시티' 역사 캠프마켓 반환 앞두고 '기획 전시' 부평역사박물관 내년 3월29일까지 무기·식량 보급 군수사령부 역할 상점·클럽 등 지역 경제에 큰 영향	1면
경인일보	2019-07-25	한국지엠노조 단체교섭 결렬... 중노위 신청 쟁의권 확보 나서	8면
경인일보	2019-07-25	캠프마켓 부지 토양정화, 내일 주민 설명회 국방부, 인천북부교육문화센터서... 시민참여위, 11월 콘퍼런스	3면
경인일보	2019-07-25	'부평 지하도상가-문화의 거리' 상권 키운다 區 "패션·지역 문화콘텐츠 활용 활성·차별화 전략수립" 용역발주 1천여 지하 점포 세계 인증 걸맞게 내년 3월까지 혁신 종합 대책 수립	11면
경인일보	2019-07-31	[뉴스분석]한국지엠 인천 부평공장 '비정규직 불법파견' 인천지검 지휘부 교체... '수사 본격화' 새 국면 예고 인천북부지청, 2차례 송치 의견 검찰 "미진" 보강 조사 1년 넘겨 창원 사건 지휘한 이정희 검사장 지검장 취임 계기 속도 빨라질듯	8면
경인일보	2019-08-13	부평 미군기지 인근 지하수서 발암물질 환경부, 기준치 5배 초과 'TCE' 물 용해 휘발성·흡입 시 중독 우려 구청 "식수 사용되는 곳 아니다"	8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경인일보	2019-08-15	“부평 미군기지 주변까지 통합 정화 계획 수립해야” 대책위, 주한미군 비용 부담 촉구	6면
경인일보	2019-08-15	부평구 비좁은 청사 증축… 내년 3월 착공 개청 23년 새 정원 2배 가까이 늘어 시설관리자 등 포함 땀 과포화 심각 청사·의회 사이 주차장에 6층 규모 총사업비 80억 예상… 2021년 완공	8면
경인일보	2019-08-22	GTX-B노선 확정… 송도서 26분 만에 서울역 간다 마석까지 80km 구간 예타 조사 통과 2030년 日 평균 29만 명 이용 전망 국토부 “2022년 착공, 2025년 완공” 市 “A·C노선과 비슷한 개통 노력”	1면
경인일보	2019-08-22	서울 접근성 개선·역세권 개발… “인천시 한 단계 성장 계기로” 정부 ‘GTX-B 노선 사업 최종 확정’… 변화 바람 부는 인천 지하 활용 ‘시속 100km 이상’ 운행 기존 철도·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노선 출발 송도 ‘투자 유치’ 촉진 생활·정주 여건↑ 상권 활성화 효과	3면
경인일보	2019-08-23	“학교서 차출 밤낮으로 일해”… 일제 때 인천 조병창 ‘새 증언’ 월급 한 푼 못 받고 후유증 병 걸려 영장 나와 끌려갔다 고생·탈출 등 강제동원노동자 12명 이야기 발표 “국내 연구 ‘미흡’ 기록 작업 시급”	6면
경인일보	2019-08-26	[GTX 시대 인천이 바뀐다·(1)]새 교통혁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개발 축 재배치 넘어 ‘도시 공간을 흔든다’ 유휴지 활용·노후 주거지 개선 등 기대… 서울 중심 주택 수요 완화도 이동시간 획기적 단축 기업 유치·인력 유인 쉬워져 체계적 대비 필요	1면
경인일보	2019-08-26	[GTX 시대 인천이 바뀐다·(1)]철도와 함께 한 인천 발전 국제도시로 이끈 경인선… 철길이 놓일 때마다 성장한 인천 우리나라 최초 철도 개통 개발 초석 공항철도는 환승역 수준 아쉬움… 7호선 연장선 서울 연결 새 길 의미 선심성 혈세 낭비 중복 노선 우려도	3면
경인일보	2019-08-26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고공 농성’ 돌입 “46명 복직·불법 파견 근절” 촉구 부평공장 정문 앞 철탑 설치 ‘시위’ 오늘 근로자 25명 무기한 단식도	7면
경인일보	2019-08-27	[뉴스분석]예타 통과 GTX-B 제2경인선 발목 잡나 ‘인천-신도림’ 수요 흡수… 사업성 변수될 듯 “경제성 악영향” 예타 관련 우려 “이미 노선 차별화 검토” 반론도	1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경인일보	2019-08-27	“GTX 역세권 되나” 희망 부문 주민들 B노선 건설사업 확정 ‘송도-서울역 구간’ 뜨거운 관심 송도·시청·부평 3개 역 신설 예정 온라인 카페 등서 위치 놓고 설전 철도망 소외 박탈감 큰 미추홀구 지역 정치인 중심 새 노선 요구도	8면
경인일보	2019-08-30	[GTX 시대 인천이 바뀐다·(2)]빨대효과 ‘길은 양방향’ 빨려 들어가느냐, 빨아들이느냐 B노선 개통 서울 종속 가속화 우려 부평역 등 베드타운 전략 가능성도 市, 도시 균형발전 전략 새 틀 필요 신·구 도심 내부 양극화 해결 과제	1면
경인일보	2019-09-10	‘파업’ 한국지엠 부평·창원공장 올스톱 임금협상 결렬… GM인수 이후 처음 내일까지… 연휴 뒤 투쟁 방식 재결정	10면
경인일보	2019-09-18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주변 ‘토양오염’ 면적 더 커졌다	8면
경인일보	2019-09-24	부평 캠프마켓, 市 활용 구상 ‘속도’ 한·미 합동위, C구역 반환 합의 뉴딜사업 선정 ‘혁신 센터’ 계획 국방부와 부지 감정 평가등 진행	3면
경인일보	2019-09-30	부평미군기지 DRMO(군수품 재활용사무소)구역 6개 시설물 존치 일제 군수공장 역사 무기제련소·굴뚝 등 포함 문화재청 의견에 국방부 “토양정화 작업 반영”	1면
경인일보	2019-09-30	부평 구도심 복합문화공간 ‘500원 공공독서실’ 만든다 區 청소년 면학·지역공동체 활성화 새뜰마을 공동 이용시설 2층에 설치 500원만 내면 주민은 누구나 이용 만족도 조사 후 확대 설치 여부 결정	10면
경인일보	2019-10-08	[자치 단상]부평에 역사를 담고 음악이 흐르는 문화도시를 심다 23년째 이어온 삼산두레 ‘부평풍물대축제’ 육군조병창·도굴 등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 ‘노동운동의 메카’로 민중음악 성장 시켜 정부 ‘문화도시 지정’ 시민문화 결속 기회	31면
경인일보	2019-10-14	부평 캠프마켓(미군기지)의 미래 만들기 ‘시민 생각 찾기’ 행사 30일 팍파르 현장 투어 등 진행 선착순 사전 신청	13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경인일보	2019-10-16	[인터뷰...공감]1970년대 한국 여성 노동운동의 산실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최연봉 씨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노조'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것" 국내 최초 女지부장 선출된 곳... 입사 후 근기법 배우며 노조 알게 돼 출퇴근 시간 지키기·식사 시간 30분 확보 등 근로조건 개선 위해 투쟁 사측 동물 투척 등 탄압에 맞서 알몸 시위·단식 농성 항의 124명 쫓겨나 40년이 지났어도 '노조 활동 방해 책임' 국가 배상 소송 여전히 싸움 중	15면
경인일보	2019-10-24	근대 건축물 아베식당 철거 계기, 역사 유산 보전 나선 부평 구의회 무분별 개발 등 방지 조례안 의결 소유자 동의 보호구역 지정·관리 직접 예산 투입 토지 매입 규정도	8면
경인일보	2019-10-25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철탑 농성 두달 만에 중단 법원 철거 명령에 '부담' 느낀 듯	6면
경인일보	2019-11-06	캠프마켓 이달 중 토양정화 예비 테스트 진행 다이옥신 분리 '열탈착 방식' 실효성 검증... 내년부터 작업 본격화	3면
경인일보	2019-11-11	부평 미군기지 주변 오염 현황 공유 '2차 반환 활용 자문 협의회' 개최	10면
경인일보	2019-11-12	한국지엠 군산공장 무급 휴직자 '전원 복직' 휴직 1년 6개월 만에 '희소식' 298명 부평공장으로 첫 출근	8면
경인일보	2019-11-13	부평 '미쓰비시 출사택' 이전 복원된다 4개 동 철거 뒤 공영 주차장 조성... '기록화 보고서' 제작·원형 보존	3면
경인일보	2019-11-19	"문화재 가치 넘어선 역사... 부평 미군기지, 존치 시설 추가를" 민관 협의체 '시민 위원' 다수 목소리 군건 막사·다목적 행정 시설 등 요구 환경 공단 "추가 땀 정화 일정 연장" 시민위 "이전 등 여러 방안 검토 중"	8면
경인일보	2019-11-26	부평 산단 경계 '미세먼지 차단 숲' 만든다 갈산동 굴포·청천·갈산천 3.8km 순환 형태의 숲·둘레길 조성 추진 왕벚나무·자산홍·초화류 등 식재 부평구 내년 6월 마무리 7억 투입	10면
경인일보	2019-12-03	부평공장 비정규직 '근무 중 사망'...진상 규명에 나선 한국지엠 노조 출근 직후 구토 가슴 통증 호소 "순환 무급 휴직 심적 스트레스" 대책위 구성... 경찰 수사 착수	8면
경인일보	2019-12-03	"수탈 과거사 기억" 미쓰비시 출사택 기록화 시동 이달부터 실측 조사·현황 도면 작성 내년 7월까지 해체... 보고서 발간	11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경인일보	2019-12-05	'한국지엠 불법 파견 의혹' 검찰로 넘어가나 인천 북부지청, 보강 수사 마무리 기소 의견 송치 의사 세 번 째 건의 노조 "장기화로 억울한 희생 발생"	8면
경인일보	2019-12-11	부평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안 마련 185건·35만 2천㎡·4754억 원 규모 내년 7월부터 순차적 일몰제 대비 區, 정비·관리 방안 수립 용역 발주 대상 최소화 효율·체계적인 관리	11면
경인일보	2019-12-12	1945 ~ 2019년... '부평 미군기지'의 역사 마침표 SOFA위원회, 4곳 즉시 반환 합의 자연 이유 환경 정화 비용 '후 협상' 캠프마켓 773억 등 일단 정부 부담 市, 내년부터 일부 개방·활용 모색	1면
경인일보	2019-12-13	[뉴스분석]부평 '캠프마켓 부지' 어떻게 활용할까 미군 떠난 '알토란 땅' 큰 틀 접근... 속도 늦어도 市전체와 조화 고민 공론화 거쳐 '문화 공원' 조성 내년부터 새로 지구 단위 계획	1면
경인일보	2019-12-16	[군사기지 80년 부평, 그 시작과 끝-(1)]영육의 역사 뒤로한 채 '인천 떠나는 미군' 미군 상륙과 맥아더 동상 1871년 신미양요 때 강화에 '첫 발'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 역전 불구 월미도 등 대규모 인명 피해도 남겨 탈환 부조도 잘못 묘사 바로잡아야	1면
경인일보	2019-12-18	[군사기지 80년 부평, 그 시작과 끝-(2)]일제가 만든 최대 군수공장 일본 '대륙 침략' 야욕에 희생당한 부평 1941년 조병창 문 열어 병참기지로 인천항·경인선 등 물자 수송 이점 탓 학생·여성들까지 강제 동원돼 고통 패전 이후 70년간 미군 사용 빌미로	1면
경인일보	2019-12-19	"부평 불법폐기물... 내년 2월까지 치워라" 십정동에 4년 넘게 1만 6천t 방치 폐기물 업체·토지주에 처리 명령 區, 기한 넘길 땐 행정 대집행 방침	8면
경인일보	2019-12-23	[군사기지 80년 부평, 그 시작과 끝-(3)]미군기지 변천사 일본이 남긴 조병창 중심 '애스컴시티' 들어서 미군정기 때 군수 보급 기지로 재편 전쟁 거치며 각종 기지·부대 늘어 인천항 일부 징발·문학산도 깎아	1면
경인일보	2019-12-24	'캠프마켓 역사 기록' 내년부터 건축물 보전 협의 市 "국방부 소유 부지 실태 조사" 환경 정화·매입 완료 전 우선 진행 34개 동 '1952년 이전' 건립 파악	1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경인일보	2019-12-26	[군사기지 80년 부평, 그 시작과 끝 (4)]최초의 기지촌 1950년대 후반 '부평 양공주' 1500여 명 달해 기지 확장 함께 '우후죽순' 정부가 관리 사실상 성매매 목인 강력 범죄·혼혈아 등 부작용... 신촌 일대 단칸방 흔적 남아	1면
경인일보	2019-12-26	구도심 군부대 빈자리, 시민이 원하는 시설로 활용 6곳 재배치로 119만㎡ 유휴 부지 市, 지역 활성화 기본 계획 용역 부평 군용 철도 트램 활용 검토 되레 확장 낙후 가속화 지적도	3면
경인일보	2019-12-31	'한국지엠 불법 파견 의혹' 2년 만에 검찰 송치된다 사측·부평 공장 협력업체 '차례로' 앞선 사건과 방식 차이 등 쟁점 전망	8면

## 2. 인천일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인천일보	2004-04-15	지하철7호선 부천 연장 본격화	16면
인천일보	2004-06-03	"길거리 향연" 부평풍물대축제	10면
인천일보	2004-06-25	부평공장 인수 적극 노력	6면
인천일보	2004-07-14	부평 미군부대 주변 문화 공간 "탈바꿈"	1면
인천일보	2004-07-31	부평 미군기지 조기 반환돼야	4면
인천일보	2004-12-08	新舊 도심권 균형 발전 초점	3면
인천일보	2004-12-27	부평구 내년 예산 1천859억	17면
인천일보	2005-01-19	부평묘지공원 재개발 난관	19면
인천일보	2005-05-23	부평풍물대축제 25일 전야제	17면
인천일보	2005-06-02	부평공원에 내다 버린 양심	17면
인천일보	2005-07-14	부평 미군기지 무상 양여 촉구	05면
인천일보	2005-07-26	부평미군기지 제2의 반환 운동	19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인천일보	2005-07-28	GM대우 - 부평공장 연내 통합	1면
인천일보	2005-07-28	부평역사박물관 착공	17면
인천일보	2005-09-01	부평 미군부대 반환 부지에 국립 역사 박물관 조성해야	22면
인천일보	2005-09-15	GM대우 부평공장 인수	18면
인천일보	2005-10-29	GM대우-부평공장 통합 완료	1면
인천일보	2005-12-26	부평 송신소 터 주거 단지로	1면
인천일보	2006-01-17	부평공원묘지 "가족 공원"으로	1면
인천일보	2006-03-13	부평묘지 시민 쉼터로 탈바꿈	17면
인천일보	2006-06-02	부평구청-장고개 도로 개설 시급하다	1면
인천일보	2006-06-09	부평 풍물축제 "한창"	1면
인천일보	2006-06-26	부평공원을 생태공원으로	17면
인천일보	2006-06-29	2009년 부평묘지공원에 자연형 생태하천 흐른다	1면
인천일보	2006-07-18	부평 열우물지구 GB 해제	3면
인천일보	2007-01-29	부평 삼산4지구 공영 방식 개발	17면
인천일보	2007-02-05	부평구청-장고개 도로 공사 초읽기	1면
인천일보	2007-03-29	부평 미군기지 오염 해결 주체는 미국	1면
인천일보	2007-03-30	부평 역사 한눈에	1면
인천일보	2007-04-02	정부, 부평경찰중합학교 이전 지원	17면
인천일보	2007-05-31	풍물 세상 열린 부평	1면
인천일보	2007-06-04	부평풍물대축제 인산인해	19면
인천일보	2007-07-25	부평미군부대 활용 시 50% 공원 고수	1면
인천일보	2007-08-14	부평 미군기지 활용방안 시 개발계획 한발 물러서	1면
인천일보	2007-09-18	부평 삼산4구역 개발 잠정 중단	3면
인천일보	2007-09-20	부평미군 공여지 일부 국방부 일방 매각 추진	1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인천일보	2007-10-18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 내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	3면
인천일보	2007-11-07	문병호(부평갑) - 법제사법위원회	9면
인천일보	2007-11-07	최용규(부평을) - 산업자원위원회	9면
인천일보	2007-11-13	부평 군부대 터 우체국 짓는다	17면
인천일보	2007-11-16	부평 미군부지 활용 탄력 받아	17면
인천일보	2007-12-25	부평미군기지 오염 해결 시급	19면
인천일보	2008-01-09	부평 삼산4지구 공영 개발 반대	17면
인천일보	2008-01-25	부평 미군부대 토양조사 오염 성분 고의 누락 의혹	19면
인천일보	2008-03-14	주안3 부평4구역 재개발 순풍	1면
인천일보	2008-03-31	부평산업단지 활성화 각양각색	105면
인천일보	2008-04-15	부평미군부대 지하수 오염 10곳 추가 조사	19면
인천일보	2008-05-15	부평풍물축제 28일 열린다	16면
인천일보	2008-05-29	부평 풍물의 계절	1면
인천일보	2008-06-05	부평 삼산 4지구 공영개발로 추진	16면
인천일보	2008-07-11	부평구 민원 처리 97.4% 만족	16면
인천일보	2008-07-23	GM대우 부평공장 정상 가동	4면
인천일보	2008-07-31	부평 장제로 청천로 중앙 가로 녹지 조성	16면
인천일보	2008-08-28	부평 미군기지 본격 환경 조사	19면
인천일보	2008-10-28	부평 미군기지 오염도 조사 시작	19면
인천일보	2008-12-04	부평 미군공여지 토양오염 심각	19면
인천일보	2008-12-15	부평 삼산4지구 개발 난항	5면
인천일보	2009-01-13	GM대우 부평공장 가동 준비	10면
인천일보	2009-01-30	부평을 4월 재보선 막 올랐다	3면
인천일보	2009-04-21	부평풍물축제 보러 오세요	1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인천일보	2009-04-28	GM대우, 부평공장 담보로 내놔	4면
인천일보	2009-04-30	GM대우 부평 경제 회생 온 힘	3면
인천일보	2009-08-05	부평 신촌구 역 재개발 반대	6면
인천일보	2009-11-10	부평 미군기지 언제 떠나나	1면
인천일보	2010-03-01	부평역 교통 광장 조성 사업 시동	11면
인천일보	2010-04-21	참여당 부평3선거구 박상수-강병수 경선	3면
인천일보	2010-04-22	부평여성합창단, 장애인복지관서 음악회	14면
인천일보	2010-04-23	부평아트센터 오늘 국제심포지엄	9면
인천일보	2010-04-26	ABC마트 부평점 내달 초까지 고객 이벤트	6면
인천일보	2010-04-26	부평 정계 공천 후유증 속얕이	11면
인천일보	2010-04-27	부평구 푸드마켓 2곳 내달 문 연다	11면
인천일보	2010-05-05	다같이 돌아 부평 한바퀴	11면
인천일보	2010-06-02	문해교육 지원 공모 부평구 7곳 선정	18면
인천일보	2010-06-15	부평풍물대축제 성황리 끝나	12면
인천일보	2010-08-31	부평 희망근린공원 조성	19면
인천일보	2010-10-18	부평 마장경로당 주변 새단장	8면
인천일보	2010-10-19	부평역 광장 휴식 공간 조성	8면
인천일보	2011-02-15	부평구, 17일 정월대보름맞이 공연 다채	8면
인천일보	2011-03-22	부평풍물대축제 새롭게 변신	16면
인천일보	2011-04-25	부평구 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위 구성	14면
인천일보	2011-05-11	부평 미군기지 이전 속도감	1면
인천일보	2011-05-12	부평미군기지 즉각 반환 이뤄져야	3면
인천일보	2011-05-19	부평미군부대 개발에 시민 참여	1면
인천일보	2011-05-26	부평기지 오염 조사 기록 공개해야	1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인천일보	2011-05-27	부평 뺨 美 고엽제 조사에 부글	1면
인천일보	2011-05-27	오늘 부평 문화의 거리 주민 쉼터 설치 준공식	2면
인천일보	2011-06-01	부평 캠프마켓 특위 구성 부천 캠프에서 조사 착수	1면
인천일보	2011-06-02	부평 미군기지 대책위 본격 활동	1면
인천일보	2011-06-07	부평 캠프마켓 주변 오염 조사 형식적	19면
인천일보	2011-06-10	연내 부평미군기지 환경 조사	6면
인천일보	2011-06-20	미8군 사령관 부평기지 합동 조사 합당	19면
인천일보	2011-07-04	부평-갈산역 2.8km 자전거도로 개설	3면
인천일보	2011-07-04	부평 미군기지 오염 조사 촉구	19면
인천일보	2011-07-15	한국지엠 부평공장 노조 사측과 최종 합의	18면
인천일보	2011-07-20	부평 미군기지 주변 다이옥신 오염	3면
인천일보	2011-08-22	부평구, 도서관 행사 다채	14면
인천일보	2011-09-16	21일 부평아트센터서 민속 공연	12면
인천일보	2011-09-27	부평구-美 8군 캠프마켓 관련 논의	8면
인천일보	2012-01-10	부평 美부대 부지 활용 시민협 내달 1차 운영안 논의 협의회	2면
인천일보	2012-01-25	부평아트센터 지난해 14만 5천 명 발길	14면
인천일보	2012-03-13	부평미군기지 옆 부영공원 폐쇄를	19면
인천일보	2012-03-28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해결 무관심	2면
인천일보	2012-04-19	부평 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 재확인	1면
인천일보	2012-05-30	부평구민방위교육장 문 열어	18면
인천일보	2012-08-23	맞춤형 기업 인력 양성 '부평교육장' 개설	7면
인천일보	2012-08-30	"부평 미군기지 주변 다이옥신 검출 확인"	19면
인천일보	2012-09-12	부평구립도서관 '독서의 달' 문화 행사 다채	16면
인천일보	2012-10-09	부평풍물대축제 폐막 60만 명 발길	5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인천일보	2012-12-26	오늘 부평 미군기지 조사단 회의	19면
인천일보	2013-03-08	부평 미군기지에 막혔던 장고개길 뚫린다	2면
인천일보	2013-04-23	부평구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6월 문연다	15면
인천일보	2013-05-28	부평 구의회 제2차 본회의 이후종 후반기 의장 선출	15면
인천일보	2013-06-18	7호선 부평구청-석남 연장 내년 상반기 정상 착공 추진	3면
인천일보	2013-06-18	부평아트센터 힐링 선사	13면
인천일보	2013-07-31	부평 민방위교육장 철거	12면
인천일보	2013-08-06	GM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복직	9면
인천일보	2013-08-06	부평 미군기지 공원화 의견 수렴	2면
인천일보	2013-09-17	부평 미군기지에 日강점기 땅굴	9면
인천일보	2013-10-15	부평 미군기지 협의회 정식 위원회 승격	3면
인천일보	2013-10-17	19 ~ 20일 부평풍물대축제	12면
인천일보	2013-11-26	부평구 지역아동센터 문예 축제 성료	12면
인천일보	2013-12-06	분단 상처로 물든 땅 부평 캠프마켓	18면
인천일보	2013-12-19	부평구 내년 예산안 5042억 원 확정	12면
인천일보	2013-12-27	부평아트센터 매진의 한해 마무리	16면
인천일보	2014-01-07	부평 미군기지 문화재 조사 기약 없다	2면
인천일보	2014-02-20	부평아트센터 어린이 연극학교 모집 경쟁률 14대 1 역대 최고	17면
인천일보	2014-03-26	부평 꿈나무 어린이집 문 열었어요	9면
인천일보	2014-04-02	부평, 인천 중심 도시 재도약시킬 것	9면
인천일보	2014-04-30	세계도 인정한 아이들의 아름다운 하모니	13면
인천일보	2014-05-09	부평 부영공원 문화재 시굴 조사 필요	9면
인천일보	2014-06-10	다양한 알뜰 문화 공연 즐겨요	13면
인천일보	2014-07-31	전통 타악 현악 앙상블 깊은 울림	14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인천일보	2014-08-13	27일 부평아트센터 로비 음악회 첫 공연	14면
인천일보	2014-08-27	부평 문화의 거리서 펼쳐는 신나는 축제에 빠져 봅시다	14면
인천일보	2014-09-30	이원복 교수 북 콘서트 내달 4일 부평아트센터	16면
인천일보	2014-11-25	부평 미군기지에 신개념 시민 공원 조성	3면
인천일보	2015-01-13	품을 수 없었던 우리 땅 부평 미군기지	14면
인천일보	2015-03-26	부평아트센터 다섯돌 축하 팡파르	15면
인천일보	2015-03-31	시 "부평 미군기지 주변 환경 개선 어렵다"	1면
인천일보	2015-05-08	부평 음악·융합도시 만든다	5면
인천일보	2015-05-21	부평문화원 굴포천 단오놀이 행사	15면
인천일보	2015-06-12	부평 미군기지 반환 활용 자문협의회 재구성	5면
인천일보	2015-07-16	"부평 미군기지 부지에 개방형 대학 유치해야"	18면
인천일보	2015-07-21	부평 캠프마켓 관통 도로 기약 없다	1면
인천일보	2015-08-04	부평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시행	18면
인천일보	2015-09-11	부평역 일대 횡단보도 생긴다	5면
인천일보	2015-11-12	'부평 굴포노리 아이드락' 준공	13면
인천일보	2015-12-03	굴포천 복원·캠프마켓 토양정화 부평구 지역 환경 보전 팔 걷는다	18면
인천일보	2015-12-21	부평 미군기지 환경 조사 시·사회단체 참여해야	5면
인천일보	2015-12-29	"내 고향 부평에 마지막 보은할 것"	3면
인천일보	2015-12-31	부평 '청천2 뉴스테이' 일반 분양분 통 매각	3면
인천일보	2016-01-11	소음·혼잡... 예비군훈련장 부평 이전 안돼	4면
인천일보	2016-01-12	구민 직접 오염 취약 업소 순찰 부평구 '민간환경감시단' 모집	18면
인천일보	2016-01-26	'통합 예비군훈련장 부평 이전 반대 민관협' 구성	18면
인천일보	2016-03-15	부평문화재단 사진 촬영 편집 강좌	15면
인천일보	2016-03-18	부평구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본격화	18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인천일보	2016-05-12	부평구 산곡노인문화센터 '첫 삽'	13면
인천일보	2016-06-09	"통합예비군훈련장 부평 이전 반대"	18면
인천일보	2016-08-09	11일 부평아트센터 '음악으로 떠나는 유럽 여행'	15면
인천일보	2016-10-04	부평풍물대축제 60만 명 참여	13면
인천일보	2016-10-26	평화의 소녀상 부평공원에 세운다	2면
인천일보	2016-11-02	부평 '미쓰비시 출사택' 정비 사업 궤도	18면
인천일보	2017-01-10	"소녀상, 나도 지켜줄게"	8면
인천일보	2017-02-02	부평공원 소녀상 옆에 징용노동자상 세운다	3면
인천일보	2017-02-10	'부평풍물대축제' 4년 연속 지역 대표 공연 선정	18면
인천일보	2017-02-21	다시 떠오르는 부평 미군기지 반환	19면
인천일보	2017-03-23	굴포천역-부평구청역 일대 친환경 주거지·상권으로	3면
인천일보	2017-03-23	부평 유희 공간 29곳, 카페·전시관·연습실로 개방	15면
인천일보	2017-05-03	5 ~ 13일 부평 키즈페스티벌...온가족 즐길거리 풍성	16면
인천일보	2017-06-01	부평 미군 인근 토지 사용 가능, 이전만 남았는데...	1면
인천일보	2017-06-06	부평구 '열우물단오축제' 열려	13면
인천일보	2017-08-15	부평 4구역 재개발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	2면
인천일보	2017-09-25	부평풍물대축제 '두레놀이'	1면
인천일보	2017-10-13	부평 미쓰비시 출사택 사라진다... 내달 일부 철거	1면
인천일보	2017-10-26	부평 미군기지 '신촌공원 조성' 착수	2면
인천일보	2017-10-30	부평 캠프마켓 토양·지하수 발암물질 오염	1면
인천일보	2017-10-31	부평 캠프마켓, 고엽제 '불법 매립' 했나	19면
인천일보	2017-11-02	"캠프마켓 품고 30년 살았다" 다이옥신에 성난 부평 구민	19면
인천일보	2017-12-01	부평구문화재단 '로비음악회' 전쟁의 상처 음악의 치유	15면
인천일보	2018-01-24	부평 미군기지 정화 '오염도 외부 반출 검토'로 의견 모아	2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인천일보	2018-02-02	부평구문화재단 애관극장 영화 관람	13면
인천일보	2018-02-14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인천 부평공장도 위기감	1면
인천일보	2018-02-19	시, 한국지엠 부평공장 살리기 비상 대책반	1면
인천일보	2018-02-21	앵글 GM 사장 부평 창원에 신차 생산 배치 가능성	4면
인천일보	2018-03-05	한국지엠 희망 퇴직자, 부평공장 적어도 500명	19면
인천일보	2018-05-03	내일 부평구문화재단 음악도시 부평 시민 공감회	15면
인천일보	2018-05-04	부평구립여성합창단 25일 정기연주회	15면
인천일보	2018-05-24	주택 개발 굶픈 부평1지구에 문화 시설 들어서	5면
인천일보	2018-06-22	블룸 Up 재미 Up... 30일 두 번째 부평뮤직데이	15면
인천일보	2018-08-28	시, 부평 삼산동 특고압선 갈등 공동 조사단 구성	3면
인천일보	2018-09-11	한국지엠 부평공장 '1교대' 도입... 비정규직, 철회 집회	19면
인천일보	2018-10-15	가을 끝자락의 부평, 추억과 음악이 흐른다	14면
인천일보	2018-11-05	부평구, 미쓰비시 출사택 추가 철거... 강제동원 흔적 보존해야 지적	19면
인천일보	2018-12-20	내일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해광브라윈드오케스트라 동행	14면
인천일보	2018-12-25	부평 미군기지 건축물 전부 역사 공간으로	2면
인천일보	2019-01-31	부평구 軍 3보급단 부지 시민 쉽 샅터로 돌아온다	3면
인천일보	2019-02-11	민관 협치 부평 비전 2020위 첫발	2면
인천일보	2019-02-19	부평 음악융합도시조성 사업 업무 협약	13면
인천일보	2019-03-29	부평에 우뚝 선 'GM 아태 본부'	1면
인천일보	2019-03-29	한국지엠 부평공장 新바람	7면
인천일보	2019-05-31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내년 부평공장서 생산	6면
인천일보	2019-06-24	오늘부터 부평역사박물관 미군기지展	2면
인천일보	2019-08-06	부평공원 평화의 소녀상	19면
인천일보	2019-08-13	부평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서 또 기준치 넘는 '발암물질'	19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인천일보	2019-08-26	부평구문화재단 유아·청소년 맞춤 공연	15면
인천일보	2019-09-02	부평미군기지 오수 정화조 부지 소유권, 국방부로 넘어왔다	19면
인천일보	2019-09-10	정부, 부평 미군기지 주변은 정화 불가	19면
인천일보	2019-09-23	27 ~ 29일 부평풍물대축제	2면
인천일보	2019-09-24	부평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우리동네지도그리기 보고회	13면
인천일보	2019-09-24	부평 신촌 채웠던 주민 음성부터 클럽 음악까지...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14면
인천일보	2019-09-30	부평구 4곳에 민주화운동 정신 드높일 표석 세운다	19면
인천일보	2019-10-03	부평 미군기지·제3보급단, 관광지로 만든다	19면
인천일보	2019-10-23	부평구, 28일까지 '굴포천 정비종합계획' 주민 공람	2면
인천일보	2019-11-15	인천 부평구립풍물단 정기연주회 내일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15면
인천일보	2019-12-02	부평에 세계 최초 음악 길을 내다	15면
인천일보	2019-12-03	10·17일 부평문화포럼	14면
인천일보	2019-12-03	부평구 미쓰비시 출사택 철거 기록 보고서 발간하겠다	1면
인천일보	2019-12-16	부평구, 캠프마켓 내 토양정화 사업 범위 확대 재추진	2면
인천일보	2019-12-30	인천·부평을 사랑하는 명사들 한자리에	13면

### 3. 기호일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기호일보	2006-03-24	부평풍물축제위원회 풍물패	3면
기호일보	2006-08-30	부평 미군기지 매입 파란불	3면
기호일보	2006-10-09	부평삼산-부천 중동 광역 도로 개통했어요	7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기호일보	2006-11-14	부평 삼산 4지구 23만 평 복합문화타운으로 개발	1면
기호일보	2006-12-08	웅장한 합창·라틴음악 기행 등 부평문화사랑방 송년공연 다채	18면
기호일보	2006-12-28	부평공예인회 창립기념 展	13면
기호일보	2007-01-17	부평 미군부대 터에 대학 유치	1면
기호일보	2007-02-08	버시바우 주한 美 대사 GM대우 부평공장 방문	6면
기호일보	2007-02-26	부평공단 1월 수출 34% ↑ 6억여 달러 무역 흑자 달성	6면
기호일보	2007-03-29	부평역사박물관 오늘 활짝	7면
기호일보	2007-03-30	부평역사박물관 개관	1면
기호일보	2007-04-25	공동주택 푸른 담장 만든다 부평구, 생활타리 사업 전개	7면
기호일보	2007-07-06	부평 문화의 거리 개선 사업 본격화	6면
기호일보	2007-08-07	“부평 미군기지에 공공시설 유치할”	1면
기호일보	2007-08-09	부평 미군기지 개발 놓고 대립	4면
기호일보	2007-08-09	부평 미군기지 수영장 등 공공시설 건립 반대	4면
기호일보	2007-08-10	부평구, 공공 디자인 개선 본격화	6면
기호일보	2007-08-13	“부평 미군기지에 생태공원을”	1면
기호일보	2007-10-16	부평문예회관 18일 첫 삽	6면
기호일보	2007-10-25	부평 지역 유물을 찾습니다	6면
기호일보	2007-10-29	부평 미군부대 공원화 “탄력”	3면
기호일보	2007-11-30	“미군기지 반환 추진 미온적 부평구, 약속 이행 촉구해야”	18면
기호일보	2008-02-12	부평 미군기지 활용 설문조사	6면
기호일보	2008-02-19	문병호 의원 “부평시 추진” 출사표	3면
기호일보	2008-02-22	홍영표 씨 ‘부평공단 부활’ 공약	3면
기호일보	2008-03-31	“부평 미군 반환 기지 시민공원 조성 마땅”	18면
기호일보	2008-04-24	부평 미군기지 활용 공청회	1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기호일보	2008-05-23	부평 미군기지 터 개발 계획안 확정	3면
기호일보	2008-05-30	부평풍물대축제 팽파르	6면
기호일보	2008-08-12	‘삶의 문학상’ 작품 공모 부평문화재단, 이달부터	6면
기호일보	2008-09-25	인천 부평 삼산4지구 또 지연	3면
기호일보	2008-12-04	부평 미군기지 터 오염 심각	18면
기호일보	2008-12-09	부평 미군기지 연내 반환 ‘감감’	19면
기호일보	2008-12-22	李 대통령, 인천항·부평 GM대우 방문	3면
기호일보	2009-02-05	부평 미군부대 문화 쉼터 ‘변신’	6면
기호일보	2009-04-07	한나라 부평을 이재훈 전략 공천	1면
기호일보	2009-04-10	민주 부평을 후보 홍영표 확정	1면
기호일보	2009-04-10	천명수 前 인천시 정무 부시장 부평을 무소속 출마 마이웨이	2면
기호일보	2009-04-30	부평을 재선 홍영표 후보 당선	1면
기호일보	2009-05-13	‘선로 추락 여대생 구조’ 부평역의 두 영웅	19면
기호일보	2009-08-04	부평 지하상가 이용 편해 진다	3면
기호일보	2009-11-10	“부평 미군기지 이전 평택 이외 지역 검토”	18면
기호일보	2009-12-09	부평아트센터 소통의 문 ‘활짝’	7면
기호일보	2009-12-17	“부평 미군기지 주변 정화 시급”	19면
기호일보	2009-12-18	부평 굴포천·삼산체육관 선정	2면
기호일보	2010-01-06	부평아트센터 문화 대중화 선언 인천 예술인 ‘축제의 장’ 열린다	7면
기호일보	2010-02-03	부평 美 기지 활용 원안대로	3면
기호일보	2010-02-04	홍미영 전 국회의원 ‘부평 구청장’ 출사표	3면
기호일보	2010-04-27	박윤배 현 부평 구청장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	4면
기호일보	2010-06-04	위기의 부평 구하는 전환점 만들 터	5면
기호일보	2010-06-30	부평시장 주변 주차난 ‘숨통’ 107면 규모 공영주차장 준공	6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기호일보	2010-07-08	부평구 송전선로 지중화 '가속도'	6면
기호일보	2010-10-08	부평아트센터 매달 라이브 공연	18면
기호일보	2010-12-21	부평구 내년 예산 3927억 원 구의회 15억여 원 삭감 의결	8면
기호일보	2011-02-07	부평 미군기지 '3분의 1' 비운다	8면
기호일보	2011-02-09	부평공장서 '쉐보레 아베오' 첫 양산	2면
기호일보	2011-04-06	"부평 역세권 지하도 연결" 로터리 지하 상인 등 청원	2면
기호일보	2011-04-25	'부평기지 조기 반환' 민관 추진위원회 구성	2면
기호일보	2011-05-02	쉐보레 글로벌 중형 '말리부' 부평공장서 세계 최초 생산	7면
기호일보	2011-05-11	부평 미군기지 조기 반환 '급물살'	8면
기호일보	2011-05-26	"부평 미군기지 오염 조사 서둘러라"	1면
기호일보	2011-06-03	부평 미군기지 내부 오염 조사 못한다	1면
기호일보	2011-08-09	부평미군군수품재활용센터 한미 오늘 '조기 반환' 실무 회의	3면
기호일보	2011-08-26	인천 부평아트센터 조경환 관장 연임	10면
기호일보	2012-01-09	부평 옛 미군기지 유해물 질 범벅	19면
기호일보	2012-04-20	인천시 부평구 미군기지 캠프마켓 인근 부영공원이 기름과 중금속으로...	23면
기호일보	2012-05-31	부평구·부천시 머리맞대고 지속가능한 공동 발전 모색	2면
기호일보	2012-06-06	부평구, 재정 건전성 특대책? 홈페이지 매달 세입·세출 공개	2면
기호일보	2012-07-19	부평구도 재정난 덜기 위해 민방위교육장 터 매각 추진	2면
기호일보	2012-10-25	부평미군기지 내달 환경부 정밀조사 착수	4면
기호일보	2012-10-26	내일 7호선 부평구청-온수 연장 개통	1면
기호일보	2012-10-31	문병호 "부평 미군기지도 국가 공원 조성을"	5면
기호일보	2012-11-23	한국지엠 부평공장 내년부터 가솔린 터보 엔진 첫 양산 체제	6면
기호일보	2012-11-29	"부평 미군기지 주변 정밀 조사"	2면
기호일보	2013-02-13	부평구청 조직 개편 인천 첫 '보육정책과' 신설	2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기호일보	2013-03-22	부평 미군기지 주변 토지 경작 근절 대책 마련 시급	3면
기호일보	2013-04-16	부평숲 나비공원 1년간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	2면
기호일보	2013-04-26	주택금융공 인천지사 부평으로 이전	6면
기호일보	2013-05-07	부평 미군기지 오염 조사 정보공개 거부 비난	3면
기호일보	2013-05-28	인천시 부평 구의회 신임 의장에 이후종 의원 선출	4면
기호일보	2013-06-26	부평숲 인천나비공원 곤충 생태 사진·세밀화 특별전	3면
기호일보	2013-08-02	"옛 부평 미군기지 국가 공원으로"	5면
기호일보	2013-08-08	"부평 반환 기지 '캠프마켓' 역사적 가치 보존을"	2면
기호일보	2013-10-16	부평 거리 곳곳 신나는 난장 '변신'	3면
기호일보	2013-10-18	내일 부평풍물대축제 개막 교통 통제·버스노선 달라져	3면
기호일보	2013-10-31	인천 '부평숲' 우리마을 향토자원경연 베스트 30 선정	2면
기호일보	2013-12-16	부평 미군기지 반환 공여지 활용 계획 '암초'	3면
기호일보	2013-12-26	부평 미군기지 '문화재 조사 협의' 언제 하나	1면
기호일보	2014-01-09	부평 미군기지의 시대상을 되짚다	4면
기호일보	2014-02-07	부평 부영공원 4월부터 토양정화 작업 착수	19면
기호일보	2014-03-12	이성만 시의회 의장 불 출마에 前現 부평 구청장 맞대결 양상	4면
기호일보	2014-05-13	홍미영 부평 구청장,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재선 도전	4면
기호일보	2014-06-17	인천 지역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 공원' 부평승화원에 조성	2면
기호일보	2014-07-02	홍미영 부평 구청장 "구민 삶 중심 행정 지속할 것"	2면
기호일보	2014-07-17	인천대-부평구문화재단, 문화 발전 협력 약속	12면
기호일보	2014-08-19	인천 부평아트센터 로비음악회 새 단장	4면
기호일보	2014-09-24	부평풍물축제 즐길 '마지막 기회'	13면
기호일보	2014-10-31	도시철 7호선 석남동 연장... 부평·서구 활기 찾나	3면
기호일보	2014-11-26	인천 부평역사박물관 '산곡동 이야기' 특별 기획전	13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기호일보	2015-01-06	홍미영 부평구청장 "올 7개 공약 사업 본격 추진"	3면
기호일보	2015-01-07	인천 부평어울림센터 3층에 '평생학습관' 문 열어	3면
기호일보	2015-02-24	"굴포천 복원·공원 조성 연계 개발을"	3면
기호일보	2015-03-20	부평구 문화재단 정부가 밀어줍니다	13면
기호일보	2015-03-25	부평2동 미쓰비시 출사택, 생활 여건 개선 사업 선정	7면
기호일보	2015-04-02	부평아트센터 개관 5주년 오늘 음악회 '따뜻한 동행'	13면
기호일보	2015-04-17	부평·주안 산단 민간 주도형 개발 늘려 '부리 산업' 경쟁력 키운다	2면
기호일보	2015-05-15	구보댄스컴퍼니 22 ~ 23일 부평아트센터서 15주년 기념 공연	13면
기호일보	2015-05-21	부평역 노점상 한숨 돌렸다... 철거 잠정 유보	2면
기호일보	2015-06-12	자문협, 부평 미군부대 반환 활용 방안 논의	4면
기호일보	2015-06-23	부평6구역 주택 재개발 무산	3면
기호일보	2015-06-29	'부영공원' 오염 실태 2년 만에 공개되나	19면
기호일보	2015-07-09	굴포천, 수도권 서부 수변·생태 중심지... 복원 통해 창조 도시로	16면
기호일보	2015-07-16	홍영표 "부평 미군기지 반환 후 '슬로 파크' 공원화를"	2면
기호일보	2015-07-21	부평 미군부대 2020년 이전 길 열리나	3면
기호일보	2015-07-22	인천시청 중앙홀 일일장터 부평깡시장 등 7곳서 참여	2면
기호일보	2015-08-11	10·28 재보선 물밑 경쟁 후끈	5면
기호일보	2015-08-21	산단공, 오늘 부평 국가산단 출범 50주년 기념 행사	7면
기호일보	2015-09-04	부평역 주변도 횡단보도 설치	3면
기호일보	2015-10-06	부평풍물대축제 90여 개 단체 참가하는 등 성황	15면
기호일보	2015-10-06	청학동 외국인 묘지, 부평으로 옮겨진다	19면
기호일보	2015-11-11	전쟁 아픔 보듬는 그분의 손길	13면
기호일보	2015-11-17	민 관 힘 합쳐 부평산단 혁신 프로젝트 건인	7면
기호일보	2015-12-02	부평 미군기지 내년 반환 차질 없도록	2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기호일보	2016-01-26	부평구, 예비군훈련소 이전 반대 민관 협의체 구성	2면
기호일보	2016-01-29	굴포천 도시 재생 8대 기획에 200억 투자	1면
기호일보	2016-02-02	예비군훈련장 반대 여론 활활	3면
기호일보	2016-02-18	홍영표 3선 도전, 야권 후보 난립으로 안갯속	5면
기호일보	2016-03-24	부평美기지 활용 해법 주민에 묻다	2면
기호일보	2016-03-29	부평예비군훈련장 이전 저지 대규모 집회	2면
기호일보	2016-04-07	인천 부평갑 후보들, 유권자 표심 잡기 경쟁 치열	4면
기호일보	2016-04-22	26표 차 인천 부평갑 투표지 등 증거 보전 결정	5면
기호일보	2016-05-04	부평美기지 반환 현황 설명 19일 주민과 활용 방향 모색	2면
기호일보	2016-05-09	부천 부평 계양 기초단체장 지역구 당선인 첫 정책 협의회	5면
기호일보	2016-05-11	통합예비군훈련장 부평 아닌 곳으로 이전하나	1면
기호일보	2016-05-20	국방부, 통합예비군훈련장 이전 절차 시 부평구 몰래 사업명 숨기고 추진	1면
기호일보	2016-05-23	부평역 광장, 한옥 건립 대신 4색 잔디 깔아 개방성 높인다	2면
기호일보	2016-06-10	부평4 재개발 시공사 입찰 무산	7면
기호일보	2016-06-15	부평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 공회전	7면
기호일보	2016-08-03	부평풍물대축제 20년 역사 한자리	13면
기호일보	2016-08-09	평화의 소녀상 인천 온다	2면
기호일보	2016-08-15	통합예비군훈련장 부평 이전 안돼	2면
기호일보	2016-09-09	인천 부평갑 총선 결과 유효	5면
기호일보	2016-09-26	부평풍물축제, 고유제 열며 본 행사 알린다	13면
기호일보	2016-09-28	인천 부평구문화재단, 부일식당 문화나비 현판식	15면
기호일보	2016-10-03	노래 ~ 댄스공연 부평구 주민 하나된 축제장	15면
기호일보	2016-10-10	부평구, 미쓰비시 출사택 생활 여건 개선 밑그림	7면
기호일보	2016-10-10	인천 대규모 가구단지 조성 산업 활성화 vs 생존권 위협	7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기호일보	2016-10-14	부평가구단지 조성 결국 좌초되나	7면
기호일보	2016-11-01	부평가구단지 조성 사업 다시 박차	7면
기호일보	2016-11-08	전쟁 상처 다독이는 뮤지컬의 향연	13면
기호일보	2016-12-05	부평 에프나인 추진 탄력	7면
기호일보	2016-12-22	인천 부평구 지역경제혁신대상서 우수행정 부문 최우수	4면
기호일보	2016-12-26	먹구름 낀 부평 4 뉴스테이 조합-주민 입장 차 극과 극	7면
기호일보	2016-12-28	부평가구단지, 토지 매매 못 해 사업 취소	7면
기호일보	2017-01-05	국가하천 굴포천 옛물길 되살리기 나선다	15면
기호일보	2017-01-10	부평 주민들 소녀상 새 단장	2면
기호일보	2017-02-08	음악 융합도시 부평 조성 사업 BI 공개	13면
기호일보	2017-02-16	부평역 광장 재편 용두사미 조짐	1면
기호일보	2017-02-16	음악 산업 이끌 원석 다듬는다	13면
기호일보	2017-03-02	부평가구단지, 소상공인 부담 줄여 재추진	7면
기호일보	2017-03-02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광복을 외치다	4면
기호일보	2017-03-31	인천시 부평 미군기지 반환 앞두고 시민 대토론회 연다	3면
기호일보	2017-05-03	부평 미군기지 반환 준비 만반	3면
기호일보	2017-05-25	제9차 부평문화포럼 오늘 2시 개최	13면
기호일보	2017-05-31	4개 지자체 굴포천 환경 개선 합심	4면
기호일보	2017-07-19	부평구, 한국지엠 이전 논란 해결 팔 걷었다	6면
기호일보	2017-07-27	한국지엠 철수 우려... 산은 지분 매각 안 돼	19면
기호일보	2017-07-31	부평 토굴 은광 역사적 의미 살펴 제2의 광명동굴 관광 대박 꿈꾼다	1면
기호일보	2017-08-14	인천에 강제 징용노동자상 첫 건립 아픔 애환 어루만질 수만 있다면...	17면
기호일보	2017-08-30	부평아트센터 꽃누리갤러리서 오늘부터 일상의 흐름전 개최	13면
기호일보	2017-09-08	부평구 경원대로 136번길 일대 정비 완료	6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기호일보	2017-09-20	전국 유일 풍물축제 부평서 놀아 보자	6면
기호일보	2017-10-13	강제노동 애환 서린 미쓰비시 출사택 부평구, 내달부터 빈집 철거 나선다	6면
기호일보	2017-10-20	근대 부평과 만나는 다양한 모색	6면
기호일보	2017-10-23	부평 미군기지 시민 참여 행사 반쪽 출발 우려	3면
기호일보	2017-10-25	13년 이어온 부평 나눔장터	6면
기호일보	2017-10-25	부평 은광, 관광 명소로 다시 반짝	3면
기호일보	2017-10-30	부평 캠프마켓 환경오염 심각	1면
기호일보	2017-10-31	주한 미군, 부평 캠프마켓 오염 방치 사과하라	19면
기호일보	2017-11-02	부평구 미군기지 반환 활용 자문협의회 긴급 회의 열어	6면
기호일보	2017-11-17	부평역사박물관 20일 마지막 달동네 열우물 연가展 개막	6면
기호일보	2017-11-29	부평 미군기지 정화 로드맵에 인천 민의 담길까	3면
기호일보	2017-12-05	시, 부평미군기지 활용법? 오리무중	1면
기호일보	2017-12-05	통합예비군훈련장 부평 이전 반대 2년간의 활약 한눈에	6면
기호일보	2017-12-07	부평 구민 부실한 다이옥신 정화 대책 실망	3면
기호일보	2017-12-14	수십 년 세월에 폐 공가 방치 공간보다 기억을 보존하자	19면
기호일보	2017-12-15	부평 미군기지 오염 토양 반출 처리를 인천 시민 단체 릴레이 시위	19면
기호일보	2018-01-10	난항 겪는 부평 장고개길 도로 개설	3면
기호일보	2018-01-15	굴포천 복원 등 완성도 높여 지속가능발전 기반 마련할 것	6면
기호일보	2018-01-16	음악융합도시 부평 성공적 조성 방안 찾기	13면
기호일보	2018-01-17	홍미영 부평 구청장, 지방 분권형 개헌 국민투표 촉구	3면
기호일보	2018-02-14	군산 공장 완전 폐쇄...한국지엠 부평공장 앞길 캄캄	1면
기호일보	2018-02-20	부평공장 축소는 폐쇄와 다름 없어 한국지엠 가족 80만 명 생계 지켜야	3면
기호일보	2018-02-20	우리도 흑시... 솔렁이는 부평공장 인근 상권	3면
기호일보	2018-02-23	한국지엠 노조 부평 2·3공장 가동률 낮고 인원도 많아 불안감 호소	3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기호일보	2018-03-02	인천 부평도서관 인문학 ~ 공학 학술 전문 데이터베이스 제공	12면
기호일보	2018-03-14	부평공장 외투 지역 지정 요청... 한국지엠 승부수 통할까	1면
기호일보	2018-03-27	부평 미군기지 오염 정화 목표 글썩...	19면
기호일보	2018-03-29	굴포천 돌레길 걸으며 건강 챙겨요 부평보건소 걷기 대행진 행사 가져	17면
기호일보	2018-04-12	한국지엠 조기 정상화 한목소리는 냈지만...	4면
기호일보	2018-04-23	긴장감 도는 한국지엠 부평공장	3면
기호일보	2018-05-17	질곡의 역사 머금은 땅... 주민 목소리 담은 개발 이구동성	1면
기호일보	2018-05-31	부평11번가 성공 VS美기지 관광 메카 지역 붐업 누가 맞을까	5면
기호일보	2018-06-01	부평공장에 미칠 후폭풍은...	6면
기호일보	2018-06-11	역대급 사전 투표율...동서 간 성향 뚜렷	5면
기호일보	2018-06-15	6·13 지방선거 당선인 명단	23면
기호일보	2018-06-15	구민들과 머리 맞대 새로운 10년 구상	7면
기호일보	2018-06-27	부평 미군기지 오염정화 협의회 시민 참여를	19면
기호일보	2018-06-27	한국지엠 등 현안 해결 집중 인천 지역 경제 중심지로 도약	4면
기호일보	2018-07-12	부평 한국지엠 찾은 산업부 장관 비정규직 노조 불법 고용 해결을	19면
기호일보	2018-07-23	한국지엠, 부평공장 5000만 달러 투자	1면
기호일보	2018-07-31	한국지엠 2교대→1교대로 전환 비정규직 우선 해고하려는 의도	19면
기호일보	2018-08-02	부평 원도심 도시재생 본격 시동	4면
기호일보	2018-08-10	부평 미군기지 오염 토양 해외 반출 처리 주장에 관심	19면
기호일보	2018-08-27	음악으로 흥 나는 부평	3면
기호일보	2018-08-30	부평 국가산단 內 대우자판 부지에 첨단지식산업센터 조성	7면
기호일보	2018-09-11	만월산 터널 주변 소음 문제 매듭	7면
기호일보	2018-10-01	오는 18일 부평구 취업박람회 개최 구청 7층서 면접기술 코칭 등 진행	4면
기호일보	2018-10-08	부평구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속도 낸다	4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기호일보	2018-10-15	결국 군산공장 꼴? 연구 개발 강화?... 설왕설래 속 타는 심정	7면
기호일보	2018-10-16	부평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비공개 요지부동 환경부에 추가 법적 대응	19면
기호일보	2018-10-23	26 ~ 27일 음악 도시 부평 들썩인다	4면
기호일보	2018-10-25	부평 미군기지 정화 방안 논의 지역 목소리 안 들켰다는 건가	19면
기호일보	2018-11-01	부평구, 3일 부평공원에서 자전거 대행진... 5.5km 구간 퍼레이드 등 풍성	4면
기호일보	2018-11-06	부평숲 인천나비공원 일원 장수산 무장애나눔길 준공	4면
기호일보	2018-12-17	부평 도시재생 뉴딜 성패 미군기지 반환에 달렸다	1면
기호일보	2018-12-27	부평남부체육센터 2020년에 첫 삽	4면
기호일보	2018-12-31	부평 주안 산단 청년 일하기 편한 환경 구축	7면
기호일보	2019-01-04	홍남기 부총리 부평서 새해 첫 기업 방문 와이자-원 서 소통 라운드 테이블 열어	7면
기호일보	2019-01-29	군부대 이전... 변화 꿈꾸는 부평 부지 활용 교통 개선 등 과제 산적	3면
기호일보	2019-03-04	부평지역 역사 문화 발굴 최선	17면
기호일보	2019-03-05	타임머신 탄 듯 옛날 농촌 생활상 눈앞에	4면
기호일보	2019-03-19	문화 예술 발전 선도 신동욱 부평문화원장 취임	17면
기호일보	2019-03-21	캠프마켓 땅 예술대학 유치 실현될까	1면
기호일보	2019-03-25	미쓰비시 출사택 놓고 두 개의 시선	23면
기호일보	2019-04-02	도시재생+주거 복지... 부평 주안에 돌음집 공급	7면
기호일보	2019-04-09	부평 국가산단 부지 용도 일반공업→준공업지역 변경	4면
기호일보	2019-04-15	미군기지와 호흡 척척 문화적 거점 구축 마을 부활 시너지	5면
기호일보	2019-04-15	성장 동력 잃은 베드타운 과밀화 몸살 미군기지 이전 뒤 지역 상권 침체 일로	3면
기호일보	2019-04-24	13년 간 투쟁...운명 바뀐 콜텍·콜트약기	19면
기호일보	2019-04-29	부평구문화재단 키즈페스티벌 개최 인형극 그림대회 등 즐길거리 풍성	13면
기호일보	2019-05-01	인천 부평구문화재단 내일부터 너에게 가는 길은 말랑말랑 전시	13면
기호일보	2019-05-09	미쓰비시 출사택 역사 공간으로 보존되나	4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기호일보	2019-05-14	다이옥신 오염 부평 캠프마켓 미군이 책임을	4면
기호일보	2019-05-14	도화지 속 굴포천 동식물들 반가워라	12면
기호일보	2019-05-17	시, 안전성 문제로 부평 광산 개발 중단	4면
기호일보	2019-05-27	부평 미군기지 토양정화 사업 마침내 본격화	1면
기호일보	2019-05-30	문화 관광형 부평종합시장 육성 선포	4면
기호일보	2019-05-31	부평구 음악이 흐르는 문화 도시 채비	4면
기호일보	2019-06-10	풍물단과 한바탕 놓고 비누도 제작 인천 부평구 열우물단오축제 성료	17면
기호일보	2019-06-17	캠프마켓 오수 정화조 부지 올 안 반환	10면
기호일보	2019-06-24	1950년대 미군 군수창고 철도 간직 부평 제3보급단 터 보존할 가치 커	4면
기호일보	2019-06-25	부평에 청년 공간 2호 유유기지 짓는다	4면
기호일보	2019-06-26	부평구, 인천테크노밸리 U1 지식산업센터 기부채납 협약 맺어	4면
기호일보	2019-07-03	그때 그 시절 부평 신촌 달근 클럽 음악에 심장이 바운스	4면
기호일보	2019-07-25	부평4구역 일반 재개발 전환 인천시 보완 필요 사업 제동	3면
기호일보	2019-07-30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의 거리 상인회 일상 속 음악 활동 공간 조성 등 약속	17면
기호일보	2019-08-01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설계 용역 착수… 2022년 3월 준공 목표	4면
기호일보	2019-08-15	부평 미군기지 안-밖 따로 정화?	19면
기호일보	2019-08-26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전원 복직을	19면
기호일보	2019-09-24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부지 시에 반환	1면
기호일보	2019-10-15	인천 부평 아파트 P 1억 시대… 재개발 新동력 불씨	7면
기호일보	2019-10-17	인천 재개발 분양 붐물… 부평 미추홀구 1만여 가구 공급	7면
기호일보	2019-10-24	역사 다양성 갖춘 대중음악의 본산 음악 도시로 최적	4면
기호일보	2019-10-25	캠프마켓 오염 정화 사전 실증 시험 도입	19면
기호일보	2019-11-05	부평구, 지역 향토 문화유산 보호 관리 팔 걷다	4면
기호일보	2019-11-08	부평 미군기지 반환 활용 머리 맞대다	4면

신문명	일자	제목	면
기호일보	2019-12-03	부평구, 일제강점기 아픔 서린 미쓰비시 출사택 역사성 지킨다	4면
기호일보	2019-12-12	4선 성공이나 세대교체냐 노동자 표심에 당락 좌우	4면
기호일보	2019-12-12	부평 캠프마켓 시민 품으로… 내년 초 11만㎡ 개방한다	1면
기호일보	2019-12-31	부평을 도시재생 중심지로	2면

# 찾아보기

10002 인증	226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364
157공병대(제1113공병단)	69	간선도로	248
1인 가구	40	갈산근린공원	424
2001아울렛	233	갈산시장	237
3, 4지구 택지개발 조성	75	갈산역	258
5.3민주항쟁	462	감염병	101
5·3인천항쟁	112	감염병관리팀	94
6월항쟁	112	개발제한구역	67
CGV부평역점	233	건의안	169
GDP	180	결의안	169
GM대우	224	경원대로	80
IMF	90	경인고속도로	54, 71, 250, 460
IMF 사태	112	경인운하	172
ISO 9001	226	경인일보	474
KTX역	251	경인전철	62
R&D	211	경제한경국	91
SH수협은행	244	경지면적	200
가구 부채	195	계양산 살리기 운동	390

고가도로	261	국제라이온스협회	61
고등학교	304	국제통화기금	180
고령인구	47	군사시설	36
고령화	46, 48, 215	군수업체	64
고부가가치형 산업	226	굴포먹거리타운	240
공교육	288	굴포천	74, 227
공추협	395	굴포천 살리기 운동	391
관광자원	369	굴포천복원재생지원특별위원회	166
광역급행철도(GTX)	262	굴포천살리기 시민모임	465
광역버스	258	굴포천역	76
교육감 선거	154	굴포천재생팀	93
교육비	194	귀농	199
교육혁신지구	78	규제개혁추진단	93
교통환경	249	그늘막쉼터	283
구립 부평기적의도서관	78	근대문화유산	227
구립예술단	102	근해안강망수협	244
구본철	114	금호타운	72
국가산업단지	227	기술집약형	211
국공유지재산조사 특별위원회	159	기초생활수급자	188
국민의 정부	125	기타외국인	57
국민의당	132	기호일보	501
국적 미취득자	56	김대중	118
국적취득자	56	깎은산	71

남광센터렉스	264	더불어민주당	113, 115
남부체육센터	408	도농공융합형 도시	79
노동운동	112	도담도담 장난감 도서관	105
노동집약형	210	도로시설물	249
노무현	119	도서관	307
노인보호전문기관	103	도시경제위원회	165
노인복지법	103	도시관리국	91
노인여가복지시설	103	도시농업	200
노인의료복지시설	103	도시농업팀	94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03	도시위원회	164
노인주거복지시설	103	도시재생	93
농산물도매시장	236	도시정비 대상 구역	83
농업인	199	도시정비 사업	83
다문화가구	56	도시철도7호선	258
다문화가정	59	도시화	198
다문화가정 지원	293	돌봄 지도	310
다문화가족	173	동물보호팀	94
다함께 돌봄센터	106	동서식품㈜	207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81	동수동	66
대만	58	동수역	63
대우자동차	172, 224	동암역	256
대진	72	드림스타트	341
대피소	282	등록면허세	185

등록장애인	330	미 제121후송병원	460
따릉이 제도	260	미군 부대	63, 227
랜드마크	371	미군부대 반환 운동	393
롯데마트	233	미군부대반환지원팀	93
마니교통	258	미도	72
마석	84	미래도시과	94
마스크	223	미래통합당	116
마을기업	267, 271	미쓰비시	63
맑은내공원(나비공원)	84	미쓰비시 줄사택	85
맞춤형복지팀	94	미얀마 난민 가구 지원사업	67
명신여고	67	민선1기 부평구청장	87
모다백화점	233	민주통합당	121
무더위쉼터	283	박근혜	121
무형문화재	415	박남춘	138
문민정부	125	박상규	113
문병호	127	박수목	144
문재인	122	박윤배	144
문화공보과	91	반려동물	368
문화복지국	94	방과후돌봄센터	308
문화유산	85	방과후학교지원센터	308
문화의 거리	66, 227	방역 및 소득	223
문화콘텐츠	268	배수펌프장	282
뮤직게더링	434	백범로	80

백운공원	64, 80	부평·광장무선전신전화건설국	459
백운역	64, 84	부평1번가	233
베트남	57	부평경찰서 이전	84
병무청	91	부평공립소학교	457
보건행정과	91	부평공원	63, 64
보도육교	261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53
보물	415	부평구 보건소	363
보조금	184	부평구 여성센터	352
복복선	464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410
복지시설	321	부평구꿈나무교통나라	316
부개고등학교	77	부평구다목적체육관	402
부개도서관	77	부평구문화재단	418
부개산	77	부평구의회	159
부개서초등학교	77	부평구장애인종합복지관	79
부개역	258	부평구중소기업협의회	266
부개종합시장	237	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313
부대이전개발팀	94, 100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312
부영공원	82	부평구청소년수련관	312
부일시장	237	부평구청역	250, 258
부채	189	부평구평생학습관	314
부천영상문화단지	76	부평국가산업단지	72, 263
부천종합터미널	250	부평국민체육센터	402
부평 제10수용소	458	부평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427

부평강시장	235	부평여자중학교	77
부평남부체육센터	66	부평역	258
부평도호부	457	부평역사박물관	419, 439, 466
부평동중학교	77	부평역지하상가	233
부평동물물연합회	444	부평위킹역사투어	373
부평드레놀이보존회	445	부평자유시장	460
부평둘레길	84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351
부평묘지공원	63	부평전화국	463
부평문화사랑방	420	부평정수장	73, 460
부평문화원	76, 419	부평조병창	64
부평문화의 거리	240	부평종합시장	77, 235
부평변전소	458	부평지하상가물	238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272	부평진흥자유시장	461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102	부평청소년수련관	102
부평세관	73	부평테크노타워	265
부평송신소	459	부평테크노파크-M2	265
부평수리조합	460	부평테크시티	264, 268
부평수출산업공단	213	부평풍물대축제	431
부평수출산업공업단지	459	부평협동사회경제협의회	267
부평숲 인천나비공원	422	부평형 찾아가는 행정복지센터	320
부평시장역	258	북부교육문화센터	403
부평아트센터	420	분구	149, 159
부평안전체험관	317	빈곤 가구	331

사근공원	74	삼산체육관역	76, 258
사랑의 쌀 나눔	340	상동호수공원	76, 78
사망자	51	상임위원회	163
사할린 동포	59	상점가	173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60	새나라자동차	459
사할린동포복지회관	60	새누리당	115, 130
사회복지	186	새뜰마을	63
사회복지 비용	183, 187	새마을금고	245
사회복지비	183, 187	새정치국민회의	119
사회산업위원회	165	새천년민주당	125
사회적경제	267	생산가능인구	49
사회적경제팀	93	생태공원	74
사회적기업	270	생활 폐기물	280
사회지표조사	191	생활체육 정책	407
산곡역	258	서부간선수로	75
산업디자인개발	268	서울외곽순환도로	54, 76
산업화	198	석남역	250
삼산4지구	75	선인학원	386
삼산농산물도매시장	236	성모자애병원	459
삼산시장	237	세계금융위기	181
삼산월드체육관	76, 401	세계문화유산	227
삼산유수지체육공원	76	세계봉사단	61
삼산지구	200	세계화	180

세무 비리 사건	396	십정녹지공원	202
세무비리진상조사특별위원회	171	십정종합시장	80, 237
세입	184	쌍용	72
세출	186	아이사랑꿈터	106
소득분배(빈부 격차)	192	아이즈빌아울렛	233
소상공인	101	아인스월드	76
소선거구제	149	안산 고향마을	60
솔아솔아음악제	436	안상수	137
송내역	84	안전재난관리관	93
송도	84	엠코테크놀로지 코리아(구하남반도체)	207
송도국제도시	54	어린이집	347
송영길	137	여성 공무원	97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84	여성가족부	97
시냇물공원	76	여성과	91
신생아	50	여성평우회	387
신성학원	67	여소야대	126
신자유주의	180	여촌야도	125
신재생에너지	278	역사문화생태공원	84
신진자동차	459	역외 소비	197
신트리공원	423	열우물경기장	80
심혁성	457	열우물로	80
십정공원	64	영남아파트	71
십정녹지	80	영유아	173

영주귀국 동포	59	유치원(공립)	297
예산 증가율	183	유치원(사립)	299
오염물질	281	육군조병창	63
외국인	81	육군조병창 터	85
외국인 노동자	215	음식물류 폐기물	280
외국인 유학생	56	의료기관	362
외국인 자녀	58	의료비	194
외국인주민	56	이명박	120
외국인주민 자녀	56	이산화탄소	280
우림라이온스밸리	264	이성만	137, 157
운영위원회	165	이훈	52
웅진플레이도시	78	이훈율	53
원도심 지역	67	이회창	119
원적산	67, 425	인구 감소 현상	54
원적산공원	423	인구밀도	37
원통이고개 전투	458	인천 도시철도1호선	258
월평균 소득	192	인천 전교조운동	463
월평균 지출	193, 194	인천 테크노밸리 U1센터	73, 74, 265
위성정당	134	인천가족공원	63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85	인천국제공항	54
유소년 인구비율	49	인천나비공원	71
유소년 축구단	407	인천민중문화운동연합	389
유정복	139, 146	인천밴드연합	450

인천부흥고등학교	77	재난안전관리과	91
인천북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	307	재래시장	173, 227
인천상공회의소	266	재보궐선거	129
인천수출산업공단	460	재산세	185
인천시민회의	394	재정 자립도	189
인천외교	67	재활용 가능 폐기물	280
인천일보	492	저출산	50
인천종합터미널	250	전국 네트워크 자매도시	379
인천지하철	62	전국교직원노조 인천지부	386
인천참사랑실천협의회	61	전기사용량	277
일반회계	182	정월대보름 맞이	436
자매결연 도시	379	정유섭	131
자유한국당	116	정치 지형	114
자전거도로	260	제21대 총선	113, 114
자치행정과	91	제24군수지원사령부	458
자치행정국	91	제3보급단	67, 70
자활기업	270	조례	162
장고개	70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	173
장수산	71, 425	조병창	69, 227
장애인	188	조진형	125
장애인시설팀	93	종합병원	362
재가노인복지시설	104	주거비	194
재건축	54	주거환경정책과	94

주말농장	198, 200	진흥종합시장	236
주민세	185	차준택	147, 157
주차장	254	채무	189
줄사택	227	철마산	67
중국	57	청년인구	47
중대형 선거구제	149	청라국제도시	54
중소기업육성기금	175, 210	청리단길	372
중소기업융합교류회	267	청소년	106
중학교	303	청원	168
지방선거	114, 137	청천농장(양계마을)	71
지방자치제도	86	청천아파트	71
지방채	189	청천약수터	71
지식산업센터	264	청천푸르지오	72
지식산업센터 조성	84	체육시설업	230
지역 아동센터	309	초등학교	300
지역문화 진흥	174	춧불집회	123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320, 337	총무위원회	164
지하상가	233	총인구	40
지하차도	261	최기선	137, 144
지하철1호선	54	최용규	125, 127, 142, 157
지하철7호선	76	축산업	203
지하호	85	출산물	50
직업성폐질환연구소	79	출산지원정책팀	94

출생아	47, 50	특화 거리	240
출장소	246	평리단길	372
충선로	78	평생교육	314
치매안심돌봄센터	357	폐기물	280
캠핑 마켓	84, 159	폐수배출량	281
캠핑장	78	포장울	248
코로나19	181, 226, 269	푸드마켓	338
코로나19 사태	136, 223	푸드뱅크	338
탄핵	123	프리마켓	240
태국	57	필리핀	57
태양광	279	학교 밖 청소년	174
택지개발	7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13
테마의 거리	66, 233	한국 폴리텍 II 인천캠퍼스	306
통신비	194	한국GM	224, 264
통합관제 CCTV	282	한국GM 부평공장	72
통행료	175	한국GM(주)	207
특별계획구역	69	한국만화박물관	78
특별위원회	163	한국전력공사	73
특별회계	182	한부모가족	332
특성화 거리	375	함봉산	80, 426
특수은행	244	합계출산물	51
특수작물	198, 200	해남방	387
특수학교	305	해물탕 거리	66

---

해외 자매 우호 도시	378
햇살의집	387
행정구역	37
행정자치위원회	164
혁신육아복합센터	106
협동조합	270
호봉산	64
혼인	52
혼인율	52
흥미영	146, 151
홍영표	128, 131, 134, 136
화랑농장	69
화랑북로	69
황어장	457
희망공원	64

---



## 집필위원(가나다순)

김종구 ARGO인문사회연구소 연구원

김혜미 전 부평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오일환 ARGO인문사회연구소 대표연구위원

## 부평사 6권

부평의 정치·경제·사회

---

발행일 2021년 11월 30일 발행

발행처 부평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51  
전화 032-505-9001

디자인·편집·인쇄 경성문화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11 퍼스텍 빌딩  
전화 02-786-2999

---

ISBN 979-11-5698-339-2 94300  
979-11-5698-332-3 94300(세트)

**비매품** 이 책에 실린 모든 자료는 무단으로 복사, 전재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